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Ⅱ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Ⅱ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Ⅱ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Ⅱ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빚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리'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설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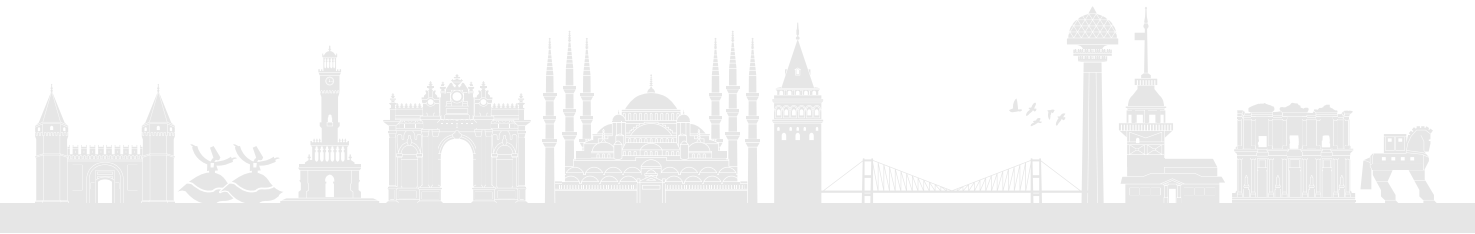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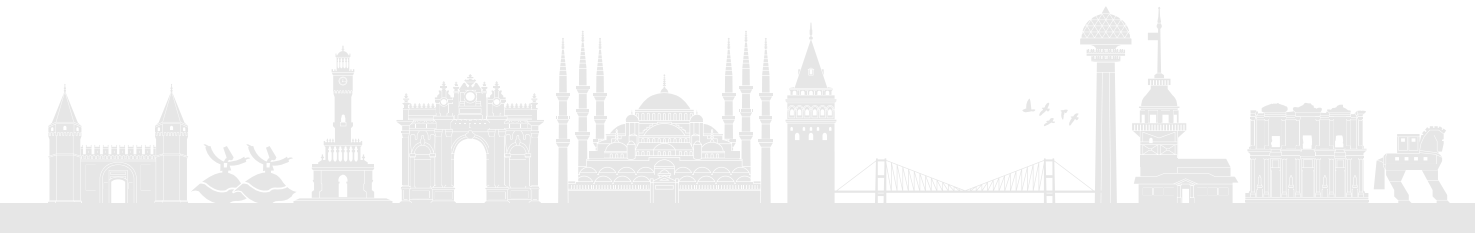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Contents

서문	003	I B021 마이트리시미트 농 비틱	056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I B022 마인츠 프로젝트	057
일러두기	008	I B023 마카마트	059
I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021	I B024 마컴	061
I B002 마감	023	I B025 마쿠스드 커리에브	066
I B003 마나스 서사시	024	I B026 마트락초 나수흐	067
I B004 마나스 영묘	027	I B027 마할라	069
I B005 마나켈디 대상 숙소	028	I B028 마할레	071
I B006 마니교	030	I B029 마흐두미 아잠	072
I B007 마니교 기악도 서간문	031	I B030 마흐무드 1세	074
I B008 마니교 베마 축일도	033	I B031 마흐무드 2세	076
I B009 마다민 베크	035	I B032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	079
I B010 마드라사	036	I B033 마흐무드 파샤	080
I B011 마론파	039	I B034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디이	082
I B012 마르자니 모스크	040	I B035 마흐무르	084
I B013 마르즈 다비크 전투	042	I B036 마흐무트 마칼	086
I B014 마르코 폴로	044	I B037 막잔 주마바이	089
I B015 마리아 차플리츠카	046	I B038 만구스	090
I B016 마마이	047	I B039 만그디시레	092
I B017 마살	048	I B040 만나 왕조	093
I B018 마쉬랍 버베예브	051	I B041 만년 우이구르	095
I B019 마아리프나메	053	I B042 만지케르트 전투	097
I B020 마이데레	055	I B043 말 사육 축제	099
		I B044 말라야 시야	101



I B045 말레크 자브잔 모스크.....	102	I B069 메츠케이.....	147
I B046 말리크 샤.....	104	I B070 메틴 알트오크.....	148
I B047 맘루크.....	106	I B071 메흐디 휘세인.....	150
I B048 맘루크 조의 모스크 등잔.....	109	I B072 메흐메드 1세.....	152
I B049 맘루크 킷차크 투르크어 사전 및 문법서.....	111	I B073 메흐메드 2세.....	154
I B050 맘루크의 물살.....	112	I B074 메흐메드 3세.....	156
I B051 망가신 후레.....	114	I B075 메흐메드 4세.....	158
I B052 매행매드 퀴즐리.....	115	I B076 메흐메드 5세.....	160
I B053 매행매드 하디.....	117	I B077 메흐메드 6세(와흐뎃딘).....	161
I B054 매희새티 갠재비.....	119	I B078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	162
I B055 매행매드 사이드 오르두바디.....	120	I B079 메흐메드 알리.....	164
I B056 매행매드 아라조.....	122	I B080 메흐메트 라우프.....	167
I B057 매행매드 재패르.....	124	I B081 메흐메트 바샤란.....	170
I B058 마초카이.....	126	I B082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	172
I B059 메다흐.....	127	I B083 메흐메트 알리 아야카이.....	175
I B060 메르겐.....	129	I B084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	177
I B061 메르브 셀주크 궁전.....	130	I B085 메흐메트 에민 호슈르.....	180
I B062 메르브 전투.....	132	I B086 메흐메트 푸아드 쿠프릴뤼.....	181
I B063 메블라나 젤라렛딘 루미.....	134	I B087 메흐테르.....	184
I B064 메블라나 영묘.....	137	I B088 멘테셰 공국.....	187
I B065 메블레위 종단.....	139	I B089 멜리흐 제브데트 안다이.....	189
I B066 메쉬루티예트 문학.....	141	I B090 엠메다가 쉐라리에브.....	192
I B067 메스케티 투르크인.....	144	I B091 모굴리스탄.....	193
I B068 메이하나.....	145	I B092 모란 톨고이.....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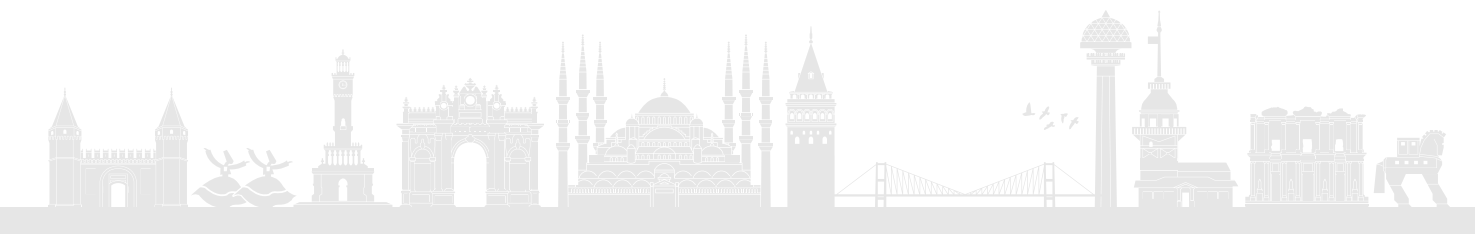
B093 모모.....	195	B117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	232
B094 모스크.....	196	B118 무스타파 알리.....	235
B095 모음조화.....	199	B119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237
B096 모하치 전투.....	200	B120 무이널 워리드.....	239
B097 몰라.....	201	B121 무인 알딘 치쉬티.....	240
B098 몰라 패나흐 와기프.....	203	B122 무자이야나 알라비야.....	242
B099 몰타공성전.....	204	B123 무자페르 이즈귀.....	243
B100 뫼미내 하툰 영묘.....	206	B124 무제.....	247
B101 뫼브루드 쉐레이만르.....	207	B125 무지름 어비드.....	248
B102 무감.....	209	B126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	251
B103 무납바르커리 압두라쉬드현 오글리.....	213	B127 무카메툴 루가테인.....	252
B104 무니스 호라즈미아.....	214	B128 무캣디메틸 에데브.....	254
B105 무라드 1세.....	216	B129 무키미아.....	255
B106 무라드 2세.....	217	B130 무타사리피야.....	257
B107 무라드 3세.....	219	B131 무프타.....	259
B108 무라드 4세.....	221	B132 무하람.....	260
B109 무라드 5세.....	222	B133 무하렘 에르긴.....	262
B110 무러드전 만수러프.....	223	B134 무함마드 구리.....	263
B111 무르시드.....	224	B135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 영묘.....	265
B112 무사비르 휘세인 이스탄불리.....	225	B136 무함마드 라힘 칸 1세.....	267
B113 무스타파 1세.....	226	B137 무함마드 라힘 칸 2세.....	269
B114 무스타파 2세.....	228	B138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	270
B115 무스타파 3세.....	229	B139 무함마드 리자 아가히.....	271
B116 무스타파 4세.....	231	B140 무함마드 유수프.....	272



B141 무함맛사리프 소피저다.....	274	B165 미르무흐신 미르사이더브.....	313
B142 무함벳나메	276	B166 미르자 말콤 칸.....	314
B143 무흐타르 아우예조프.....	277	B167 미르재 발라 맘매드자데.....	316
B144 무흐테십(오스만 제국).....	280	B168 미르재 사디그.....	318
B145 무흐테십(이슬람 사회).....	281	B169 미르재 카즘베이.....	320
B146 묵특 선우.....	282	B170 미르저 압둘라티프.....	323
B147 물 신앙.....	283	B171 미르카림 어심.....	324
B148 워사데레.....	286	B172 미르테미르	326
B149 워슬뤼만.....	288	B173 미마르 시난.....	328
B150 워슬웁 마고마예브.....	289	B174 미샤르인.....	333
B151 워에즈진.....	291	B175 미온 부즈록 설리허브.....	334
B152 워헨디스하네	293	B176 미자널 예브잔.....	335
B153 뮤이유쥬우 예네.....	294	B177 미카이를 워시피그	336
B154 므르자쿰 킬라틀르.....	296	B178 미카이를 아자플르.....	338
B155 문쿤.....	297	B179 미프트헤트딘 아크몰라.....	339
B156 미나이 도기.....	298	B180 미흐랍	341
B157 미나예프.....	301	B181 미흐리 워슈픽	343
B158 미너렛.....	302	B182 민바르.....	346
B159 미드하트 파샤.....	304	B183 민속놀이(아제르바이잔).....	347
B160 미라즈나마(세말화)	306	B184 민요(아제르바이잔).....	349
B161 미래 어느 날	308	B185 민족의 대이동.....	350
B162 미라즈나메	309	B186 민중 이슬람.....	352
B163 미르 사이드 알리 하마다니	310	B187 밀레트.....	354
B164 미르 잘랄.....	311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359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362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B001 |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gok-i-Attari Mosque

부하라의 역사를 기록했던 나르샤키(Narshaki, 899년~959년)의 기록에 따르면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자리에 10세기 이전에는 조로아스터교 신전이 있었으며, 사만 왕국 시대 이후로 10세기에 신전 대신 마흐(Mâh) 모스크가 건설되었다고 한다. 1939년 발굴 조사를 통해, 조로아스터교 신전과 마흐 모스크의 네 개의 기둥 등의 흔적을 발견하여 나르샤키의 기록은 사실인 것으로 되었다. 마흐 모스크의 원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앙 집중형 모스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타리 모스크는 마흐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카라한 칸국 시대인 12세기에 만들어졌다. 13.3m×17.7m의 직사각형 형태로 현재는 지면보다 4.5m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모스크는 6개의 기둥과 3개의 신랑, 12개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카라한 칸국 건축의 가장 발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모스크의 남쪽에 위치한 오지 아치형의 대문은 식물 문양, 기하학 문양과 함께 서체 장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주로 벽돌과 테라코타로 장식되어 있으며, 음각된 스투코 장식이 섬세하다. 벽돌을 교차하여 배치해 문양을 드러내는 방식은 당시 중앙아시아 건축에서 계속 보이던 방식이기도 하다. 대문의 아치 주변 하단에는 팔각형을 겹쳐 만든 문양이 있는데, 이것도 카라한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와 toqi sarrafon시장(부하라)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부하라)

조 건축 장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훗날 가즈나 조와 대 셀주크 조,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부터 오스만 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발굴을 통해 이 모스크가 14세기에는 세라믹 타일로 장식되었다고 밝혀졌다. 15세기에 모스크는 폐허가 되었고 16세기에 대부분 수리되었고 일부 변형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은 16세기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었다. 동편에 있는 피슈타크도 16세기에 추가된 것이다.

20세기에 수리 중, 대문 양옆에 계단을 추가했다.

중세 중앙아시아에서 건설되어 현재까지 남은 모스크 중 이런 형태는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가 유일하며, 훗날 아나톨리아반도에 퍼지게 되는 3개의 신랑(身廊)이 있는 모스크의 원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곡-이 아타리 마스지디, 마고키 아타리 마스지드
- 다국어 표기 Mag'oki attori masjidi(우즈베크어), Магоки-Аттари(러시아어), Magaki atari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부하라,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7/Magoki-Attari.JPG/1280px-Magoki-Attari.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Robert. Hillenbrand, *Islamic Architecture: Form, Function and Mean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0.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î*,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B002 | 마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Maqam(Maqamat)

알라 체험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수피들은 스스로를 여행자로 부르며 신을 향한 길을 따라 영적인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신앙고백을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실재(實在)도 없다”고 여기며 현상계를 이차적인 세상으로, 신을 절대적 근원으로 여긴다. 다른 실재나 신이라는 말은 인간 개개인의 자아로도 볼 수 있다.



코란의 문(쉬라즈, 이란)

헛된 존재인 자아를 부정하고 알라를 체험하고자 여행을 떠나는 수피는 내적이고도 은밀한 여정(旅程)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이러한 체험의 단계를 ‘정거장’, 즉 마감(maqām, 복수 마까마트 maqāmāt) 이라고 한다. 마감은 수피 개인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체험의 경지다. 반면 정거장을 넘어서는 내면의 상태, 즉 ‘할(hāl, 복수 아흐왈 ahwāl)’은 신이 허락해야만 체험할 수 있다.

수피마다 제각기 다르게 표현했기에 마감의 수는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수피의 영적인 여행에서 처음으로 거치는 정거장은 예외 없이 신에게 마음을 돌리는 ‘회개(타우바 tawbah)’이다. 회개 이후 거쳐 가는 정거장으로는 내적 유혹을 이기려고 애쓰는 ‘투쟁(mujahada, 무자하다)’, ‘경외심(taqwā, 타끄와)’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감
- 다국어 표기 Maqam(아랍어)

● 연관 검색어 할, 수피

● 참고문헌(오프라인) Chittick, William C. *Sufism: A Short Introduction*.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0.

Ernst, Carl. *An Introduction to the Mystical Tradition of Islam*. Boulder, CO: Shambhala Publications, 2016.

I B003 | 마나스 서사시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이양희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ANAS Destanı



마나스 서사시 1000년 주년 기념우표(키르기스스탄, 1995년)

마나스 서사시는 투르크 민족의 신화와 스텝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마니교에 속한 서요와 이슬람교 카라한 칸국 사이에서 12세기 초에 등장한 키르기스 족의 정치적·군사적 투쟁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사시이다.

마나스 서사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 중의 하나이다. 분량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핀란드의 『칼

레발라』, 독일의 『니벨룽겐』, 인도의 『라마야나』 보다 길고 방대하다.

마나스 서사시에 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세이페딘 몰라(Seyfeddin Molla)가 16세기에 쓴 『Mecmû'û't-tevaâriih』이다. 여기서 마나스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영웅으로 등장한다.

마나스 서사시가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초칸 웰리한오을루(Çokan Velihanoğlu)에 의해서다. 그는 1856년 키르기스스탄 답사 중에 서사시 일부를 채록한 후 이를 1861년에 러시아 지리학회지에 러시아어로 출판했다. 이후 라들로프(V. Radloff)는 1862년, 1864년, 1869년 3회에 걸쳐 키르기스스탄을 답사하고 마나스 서사시 일부를 추가로 채록하고 기록했다. 이것을 『투르크 족의 민속문학 논제(Probem der Volksliteratur der Türkischen Stämme)』라는 제목으로 책 5권을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독일어로 각각 출판했다.

카자흐스탄의 작가 무흐타르 아베조브(Muhtar Avezov)도 마나스 서사시를 오랜 기간 연구했다. 아베조브는 1930년 연구를 시작한 후 생을 마치는 1961년까지 구술로 전승되던 서사시를 채록했다.

마나스 서사시는 세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영웅이자 서사시의 주인공이기도 한 마나스의 탄생과 그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가 전쟁영웅이 되면서 칼무크(Kalmuk)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부에서는 마나스의 아들인 세메테이(Semetey), 3부에서는 손자인 세이테크(Seytek)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나스 서사시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내용이 충실히 보존된 편이다.

마나스 서사시는 전문 명창 혹은 구연자에 의해 연행된다. 이때, 구연하는 구연자 혹은 연행자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 ‘조모크추(comokçu)’와 ‘자마크츠(camakçı)’이다. 조모크추는 ‘으르츠(ırçı)’라고도 불린다. 조모크추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같은 시대 소리꾼 마스터들에게서 마나스 서사시를 소리로 듣고 배운 후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여 구연한다. 자마크츠는 마나스 서사시의 일부분을 조모크추 마스터에게 듣고 암기한 후, 자신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연행한다.

어느 부분을 구연하는 가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구연자를 구분해 다르게 부른다. 마나스 1부(마나스)나 3부(마나스, 아들, 손자) 전체를 연행하는 사람들은 ‘마나스치(manasçı)’ 혹은 ‘나그즈 마나스치(nagız Manasçı)’이다. 2부만 연행하는 사람은 ‘세메테이지(semeteyci)’ 혹은 ‘샬라 마나스치(şala Manasçı)’라고 한다.

나그즈 마나스치(혹은 마나스치)들은 서사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체 에피소드를 섬세하게 구연하는 예술가 명인들이다. 중요한 내용을 모두 암송하다 보니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나그즈 마나스치가 있을 정도로 마나스의 분량은 매우 방대하다.

마나스 서사시는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서사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축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840년경 키르기스 민족이 예니세이강과 미누신스크(Minusinsk) 초원 주변에 국가를 세웠을 때 위구르와 중국이 전쟁을 시작했던 부분과 16세기~17세기에 키르기스 민족과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국인 무슬림과 투르크 부족이 전쟁을 치르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내용이 풍성해졌다고 한다. 내용이 변형되기도 하고, 일부 마나스치들의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그 예로 1917년 9월 혁명 전의 러시아 황제와 그 이후 공산주의 정부에 찬사를 보내는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현재는 마나스치로부터 채집하고 조사한 판본만도 60개 이상이다. 이것을 모두 모으면 150만 행에 이른다. 수집한 판본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을 담은 것은 사야크바이 카라라예프(Sayakbay Karalayev)의 3부작 『마나스-세메테이-세이텍』이다. 이 판본은 무려 50만 500행이다.

마나스치는 서사시를 코푸즈(kopuz)로 연주하고 민요 형식인 튀르퀴(türkü)로 부르며, 제스쳐와 머리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신화적 인물인 영웅의 말과 행동을 장소와 행사 성격에 맞는 목소리 톤과 노래로 표현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나스, 마나스 3대, 마나스-세메테이-세이텍
- 다국어 표기 MANAS(영어), MANAS Destan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키르기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lensoy Tuncer, *Manas Destanı (Türkiye Türkçesiyle)*,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2.
İnan Abdulkadir, *Manas Destanı,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72.
Radloff Wilhelm, *Manas Destanı, (Haz. Emine Gürsoy-Naskali)*, Türksoy Yayınları, Ankara, 1995.
Yusupov Keneş(Nesir Halinde Yazan), *Manas Destanı, (Türkiye Türkçesine aktaranlar: Fikret Türkmen-Alimcan İnanet)*, Atatürk Kültür Merkezi Yayınları, Ankara, 1995.

I B004 | 마나스 영묘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 1 건축 ● 유형 소분류 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nas's Kumboz

키르기스 영웅 마나스가 묻혔다고 믿어지는 영묘로 키르기스스탄 북서쪽 탈라스 주에 위치한 마나스 기념단지인 마나르 오르도(Манас Ордо) 내에 위치해 있다. 영묘는 1343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묘 비문에 따르면 에미르 아부카(Abuka)의 딸 케니제크 하툰(Kenizek-Khatun)이 묻혀있다고 하지만, 실제 발굴 과정에서 나타난 유골은 약 2m 신장의 남성의 것이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마나스의 유골이 적에 의해 훼손되지 않길 바라던 그의 아내가 일부러 석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 화폐 속의 마나스 영묘

4.38m x 4.48m 크기의 정사각형 평면의 이 영묘의 높이는 약 11m이다. 구운 벽돌로 내부 바닥을 깔았고 벽과 창 격자는 간츠(ganch)라고 하는 이 지역의 설화석고를 이용했다. 피슈타크(이완을 둘러싼 사각형 구조물)가 있으며 뾰족한 천장은 16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면부 양옆에는 큐폴라로 마무리된 기둥이 있다. 입구는 첨두아치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 양옆에는 작은 기둥이 있다.

입구의 아치 주변에는 4개의 메달에 8장의 꽃잎 장식이 있다. 건물 측면은 아무런 장식이 없고, 피슈타크는 테라코타 석판 장식이다. 이 석판은 입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쿠픽과 디바니 서체 장식을 비롯하여 팔각별, 로제트, 월 모양이다. 서체 장식은 앞서 언급한 비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영묘의 기본적인 유형은 탈라스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5세기~16세기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 영묘 건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 족의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 마나스가 묻혀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 영

묘는 1991년 키르기스 공화국 건립 이후 복원되었으며 화폐에 그려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나스 콤비즈, 마나스 콤베트
- 다국어 표기 Манастын күмбөзү(키르기스어), Кумбез Манас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 멀티미디어 링크 마나스 영묘 소개 다큐멘터리(소리: 키르기스어, 자막: 튀르키예어)
<https://www.youtube.com/watch?v=KtOyx0Dhmc&app=desktop>
마나스 영묘 전면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5/Manas_Mausoleum.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3958>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türk, Ayşen Çelen, Hasan ünver, Orkun alpteki & Mehemmedova Burnak, “Orta Asya Türk Mimari Kültürünün Çağdaş bir Yorumu: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Türk Dünyası Yaşayan Müze Projesi”, AVRASYA Uluslararası Araştırmalar Dergisi Cilt:6 •Sayı:13•Mayıs, 2018, pp.645~665.
Н.Т. Карымбаева, “АРХИТЕКТУРА ДРЕВНЕГО КЫРГЫЗСТАНА”, АРХИТЕКТУРА И ДИЗАЙН АРХИТЕКТУРНОЙ СРЕДЫ, Вестник КРСУ. Том 8. № 9, 2008, pp.37~40.

I B005 | 마나켈디 대상 숙소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대상 숙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nakeldi Caravansary

마나켈디 대상 숙소는 페르가나 지역의 산맥 동쪽 편에 페르가나에서 텐산산으로 가는 옛 무역로에 선상으로 마나켈디 강 왼편에 있다. 비문이 없어서 정확한 건설 연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인근 지역민 사이에서 회자되는 바에 의하면 쉬르닥-벡이 가장 사랑하던 딸 마나켈디를 위하여 건설되었다고 한다.

건축 연도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7세기~8세기에 건설되었거나 투르키쉬(Turgish. 699년~766년) 시대에 건설되었다는 학설이다. 이들은 이 건물이 애초에 대상 숙소

로 건설된 것이 아닌, 성벽으로 건설된 후에 후대에 대상 숙소로 개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11세기~12세기에 건설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는 건축물의 양식이 전형적인 카라한 칸국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주재료는 아도비 점토 벽돌이다.

건축물의 대부분은 훼손되었다. 북쪽 벽 정도가 잘 보존된 정도이다. 숙소 주변에는 0.8m 깊이의 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남은 벽의 높이는 약 4m~4.5m가량이다. 전체 넓이는 57.85m×59.80m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정사각형 건축물의 각 모서리에는 원통형의 탑이 있으며 이는 각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내부에는 중정이 있으며 이 중정 주변 네 부분에 이완이 있다. 중정의 크기는 25m×25m로 그 주변은 4개의 이완으로 이어져 있으며 출구가 있는 볼트 천장이 있는 복도로 감싸고 있다. 중정 주변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볼트와 돔으로 덮인 직사각형의 방들이 L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방의 개수는 54개이다. 30개 이상은 돔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나머지는 볼트형 천장이다. 돔으로 덮인 곳은 조명을 위하여 목제 램프 걸이가 있고 볼트형 천장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다.

북쪽 벽에는 격자무늬가 있다. 북쪽 벽에는 1/4형 원통형으로 탑같이 돌출된 부분이 있다. 이 북쪽 면의 두 개의 돌출 벽 사이에는 정문이 있다. 대부분은 훼손되었고, 다만 첨두아치형의 문이 있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전체 건축물을 덮고 있는 지붕은 무카르나스로 떠받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나켈디 대상숙소, 마나켈디 캐러반, 마타켈디 캐러반, 마나켈디 캐러반 사라이, 마나켈디 카라반사라이

● 다국어 표기 кербен сарай Манакелди(키르기스어), Manakeldi Kervansarayı(튀르키예어), караван-сарай Манакельди(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마나켈디 대상숙소 복원 예상도

<https://elbilge.ucoz.com/photo/25-0-580-3>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B006 | 마니교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마니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anichaeism



‘마니교’ 단어 구름

마니교는 사산 조의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이란 계통의 종교로, 사산조(226년~651년) 시대의 주요 페르시아 영지주의 종교 가운데 하나이자 현존하지 않는 고대 및 중세 종교다. 마니교에서는 선하고 영적인 빛의 세계와 악하고 물질적인 어둠의 세계 사이 투쟁에 관해 설명하는 정교한 우주론을 가르쳤다. 이 우주론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에서는 선과 악 또는 영성과 물질성의 투쟁이 계

속하여 발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 또는 영성이 그 대립물인 악 또는 물질성을 극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빛(영 또는 영혼의 에센스)이 물질세계에서 점차 철수하게 되고, 마침내 그 자신이 발출되어 나왔던 원천인 빛의 세계(world of light)로 되돌아가게 된다. 메소포타미아의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마니교는 기원후 3세기에서 7세기 동안 융성하는데, 그 절정기에는 가장 널리 퍼진 세계 종교 중 하나였다. 마니교는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까지 전파되어 이들 지역에 마니교 교회와 경전이 있었다. 서양에서는 마니교가 비교적 빨리 사라졌지만, 동양의 경우 중국 남부에서는 14세기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사라졌다.

마니교는 투르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2년 위구르의 모우 카간이 튀양원정을 단행했는데 이 원정으로 인해 위구르가 유목민족사상 최초로 정착민족의 고등종교라 할 수 있는 마니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모우 카간은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네 명의 마니교 성직자를 동행시켰으며 그의 적극적인 장려로 위구르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사상 최초로 정착민족의

고등종교라 할 수 있는 마니교를 국교로 채택했다. 사랑, 신실, 완전무결, 인내, 지혜 등의 다섯 가지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마니교는 기원후 3세기에 페르시아인 마니(Mani)에 의해 창시되었다. 교리는 조로아스터교에 기반을 두고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들도 포함했다. 빛을 선(善)으로, 암흑을 악(惡)으로 규정하여 만물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 투쟁한다는 철저한 이원론(二元論)의 토대 위에 서있는 종교였다. 마니교는 육식을 금하고 평화를 위해 전쟁을 금했는데 이러한 교리는 전통적 기마 유목 민족인 위구르인들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고 급기야는 급격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시켰다. 이는 위구르 제국이 패망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니종교

● 다국어 표기 مانی دینی (페르시아어), Mani dini (마니교)

● 멀티미디어 링크 도올 김용욱의 마니교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k2Yq5qxo8TI>

● 참고문헌(오프라인) Baker-Brian, Nicholas J. *Manichaeism: An Ancient Faith Rediscovered*.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11.

Samuel N.C. Lieu. *Manichaeism in the Later Roman Empire and Medieval China* Moher Siebeck. 1992.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B007 | 마니교 기약도 서간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편지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Manichaeen letter

투르판의 베제클리석굴 65굴에서 소그드어와 위구르어로 쓰여진 8건의 마니교(摩尼教) 관련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작성된 시기는 대략 10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위구르인들이 막북 초원에서 받아들인 마니교는 위구르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투르판에 천산 위구르 왕국을 건립한 이후에도 약 50여 년간 국교로 지속되었다. 이 서간문들은 천산 위구르 왕국이 불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서,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려진

그림도 마니교 회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135행의 소그드어로 쓰여진 편지는 『마니교 기악도 서간문(摩尼教 伎樂圖 書簡文, 26×268cm)』이다. 먹과 금니 그리고 광물성 채색 안료가 사용된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다. 편지의 첫 번째 줄에는 “위대하고 빛나는 모작(慕闇)에게 보낸다”라고 먹으로 쓰여 있으며, 그 위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다.

그리고 편지의 가운데에 두 명의 기악(伎樂)인물이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양탄자 위에서 서 있다. 한 명은 주생(奏笙)을 불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수적(竖笛)을 연주하고 있다. 신체의 묘사는 가늘고 길며, 주홍색 긴 옷에 청색과 녹색의 주름치마를 착용하고 있는데, 둥글고 부드러운 주름선이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다.

기악인물 사이의 가운데 윗부분에는 황금색 둥근 구슬이 달린 주홍색 번이 휘날리고 있으며, 그 위에 금색 연화문 쟁반 위에 놓인 흰색의 높이가 높은 모자가 그려져 있다. 흰색의 모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자의 아래에 검은색 산형(山形) 천을 덧대어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는 고창고성(高昌故城) K사원지 중강당에서 출토된 <마니와 승려들>을 그린 그림에서 마니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와 같다. 따라서 이 소그드어 편지문에 그려진 모자는 마니를 상징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당시 마니교 동방교구의 승법교도 대모작 ‘아루빙만 푸푸얼’(阿魯亞曼·普夫耳)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형식의 편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마니교의 베마제 등 교구에 큰 제사가 있을 때 갖추어 보내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형식의 문서가 고창고성에서 출토되었다. 다만 고창고성에서 출토된 문서에서는 좌우의 인물이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과 악기 대신 번을 잡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니교 기악도 서신

● 다국어 표기 摩尼教 伎樂圖 書簡文(중국어)

● 연관 검색어 마니교 문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1uJZ>

● 참고문헌(오프라인) 吐魯番地區文物中心 主編, 『高昌壁畫輯佚』, 新疆人民出版社, 1995.

Gulási, Zsuzsanna, *Medieval Manichaean Book Art: A Study of Design, Function, and Origin of Manichaean Book Illumination*,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1998.

I B008 | 마니교 베마 축일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회화
● 집필자 조성금 ● 라틴 문자 Manichae Bema Feast

마니교 베마 축일도는 마니교 경전의 삽도화로 제작된 것으로 앞면과 뒷면 양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먼저 『베마제』(高昌 α 遺址, 12.4cm \times 25.2cm, 종이에 채색, MIK 4947)라고 부르는 그림은 고창고성 α 사원지에서 출토된 마니교 경전의 삽도화로 『마니고승과 카간』(摩尼高僧과 可汗)의 앞면에 해당이 된다. 현재 독일 베를린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화면의 상부와 하부가 훼손되어 원래의 형태는 알 수 없다.

‘베마절’은 마니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마니교 창시자 마니(Mani, 217년~277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베마절은 매년 봄에 거행되었는데, 한 달간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 기간 교단은 마니교 교도들을 모아 마니의 부활과 심판의 날을 기도하며 노래와 시를 읊었다.

원래 ‘베마’라는 것은 빈 보좌(寶座)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 초기에 부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마니교에서도 마니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빈 옥좌를 통해서 마니를 상징하기도 했다.

보좌의 좌·우측에는 교단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니교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다. 신분은 모두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법사(法師, master), 교주(主教, episcopus), 장로(長老, presbyter), 선민(選民, electi), 청자(聽者, auditores)의 순서이다. 보좌의 좌측에 있는 인물은 마니교 고승으로 긴 수염과 의복이 모두 흰색이며,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잔을 잡고 있다. 그리고 보좌 정면의 승려는 금으로 된 경전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있으며, 앞에 있는 붉은색 탁자 위에는 포도와 참외, 흰색의 빵이 놓여 있다.

승려들의 백색 의복 위에 붉은색으로 쓴 소그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각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이 그림은 현존하는 마니교회화 중에서 유일하게 양면으로 그려진 삽도화로써, 뒷면의 그림

은 마니고승과 카간(摩尼高僧과 可汗, 高昌α遺址, 12.4cm×25.2cm, MIK 4979)이다.

화면의 좌우에는 먹(墨)과 주(朱)로 쓰여진 소그드어와 위구르어 마니교 경전문구가 기록되어 있으며, 가운데에는 마니교의 다양한 수호신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윗부분에는 『베마제』에 표현되었던 마니교 고승과 같은 인물이 앉아 있는데, 왼손은 들어서 불교의 수인(手印) 시무외인(施無畏印)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 마니고승의 옆으로 고승의 손을 잡고 있는 무인(武人) 이외에 세 명의 무인이 더 그려져 있다. 그리고 마니고승의 우측에는 마니교 승려로 보이는 두 명의 인물과 한 명의 속인이 무릎을 꿇고 있다.

화면의 아래에는 금색의 카펫 위에 두광을 갖춘 코끼리 머리 신, 돼지머리 신, 청색의 긴 머리를 늘어뜨린 신, 눈이 세 개인 여신이 나란히 앉아서 있는데, 이들은 힌두교의 가네샤, 비슈누, 브라흐만 등이다. 그리고 날개 달린 두 명의 여신은 베제클리식굴 38굴 정벽에 그려진 마니교 수호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마니교와 힌두교가 이처럼 밀접한 이유는 마니교의 타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차용과 함께 마니가 23세 경 직접 인도를 여행하며 불교와 힌두교에 관해 배움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마니는 자신의 가르침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는데, 회화를 매우 중시하여 그림이 종교적 진리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세밀화 형태의 삽화가 그려지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니교 베마절

● 다국어 표기 摩尼教庇麻節(중국어)

● 연관 검색어 마니교 회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1.bp.blogspot.com/-7O44jOZOb-/I/TshCBT2MCTI/AAAAAAAAADg/sjB5HrtpCkc/s1600/Bema+Feast.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권현주, 「西域 壁畫를 통해 본 위구르 服飾에 관한 연구」 『中央아시아研究』 3號, 1998.

김남윤, 「베제클리식38굴 벽화 연구-마니교 벽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4.

Gulási, Zsuzsanna, *Medival Manichaeen Book Art: A Study of Design, Function, and Origin of Manichaeen Book Illumination*,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1998.

니니안스마트 지음, 윤원철 옮김, 『세계의 종교』, 예경, 2004.

I B009 | 마다민 베크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adaminbek

마다민 베크는 바스마치운동의 지도자이다. 바스마치운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속돼 왔던 러시아인의 이슬람의 보호와 무슬림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시작되었다. 제정러시아에 이은 소비에트정권의 계속된 억압과 무슬림개혁운동인 자디드운동은 중앙아시아 지역무슬림들에게 커다란 민족적, 정치적 의식의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더불어 20세기 초에 들어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상당수 농민들이 유민화 하게 되었다. 유민이 된 농민들은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인과 이 지역 무슬림들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초기의 바스마치 그룹 약탈행위는 소비에트정부의 경제적 수탈과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18년 소비에트정부에 의한 코칸드 자치정부가 무력해산한 후 조직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바스마치운동이 전개되었다. 초기의 약탈적 성격의 저항운동은 점차 소비에트의 지배에서 이탈하려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바스마치운동이 범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는 당시 약탈행위를 일삼던 바스마치들이 바스마치 조직에 대거 가담하면서 시작되었다. 1918년 이후에 결성된 바스마치 조직은 각 부족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여 완전한 하나의 단일조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바스마치 조직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반소비에트 무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918년 이후 본격적인 바스마치운동을 주도했던 바스마치 그룹의 분열과 연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번의 시기에 걸쳐 일어났다. 첫 번째는 소비에트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코칸드 자치정부의 방어라는 명목으로 이르가쉬 베크(Irgash Beg)과 마다민 베크(Irgash Beg)가 중심이 되어 초기 바스마치들을 규합했고, 이때부터 바스마치 그룹의 활동이 초기의 약탈행위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무력 저항운동으로 변모했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바스마치운동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의 노선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르가쉬 베크는 보수적 이슬람신자로서 복고주의 입장에서 바스마치운동을 이끌었는데 무력으로 소비에트군을 소개(疏開)시킨 후 중앙아시아

아지역에 자신의 추종자를 선발하여 선택된 부족장제도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저항운동을 전개하던 무렵 범투르크주의(Pan-Turkism)를 바스마치운동에 접목시키려던 오스만 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마다민 베크은 이르가쉬 베크보다도 훨씬 젊은 소장파 지도자로서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조직 속에 지식인들을 흡수하여 중앙아시아의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려 했다. 당시 이들은 초기 바스마치 조직의 저항기에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확실한 정치적 식견과 리더십은 부족했다. 바스마치 조직내의 권력 쟁탈전과 대 소비에트저항운동을 동시에 펼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다민 베크
- 다국어 표기 Muhammad Aminbek Ahmadbek o'g'li(우즈베크어), Madaminbek(영어)
- 연관 검색어 바스마치운동, 자디드운동, 코칸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6d6cl>
<https://www.youtube.com/watch?v=52urNWF1rCE>
- 참고문헌(오프라인) Hasan B. Paksoy, "BASMACHI": Turkish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1916-1930s, Modern Encyclopedia of Religions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FL: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1991.
Marie Broxup: *The Basmachi*. Central Asian Survey, Vol. 2 No. 1, 1983.
Mustafa Chokay: "The Basmachi Movement in Turkestan", The Asiatic Review Vol.XXIV, 1928.

I B010 | 마드라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기관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Madrasa

‘마드라사(madrasa)’는 ‘배우다,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 동사 ‘다라사(darasa)’에서 파생한 장소명사이다. ‘마드라사’는 ‘공부하는 곳’을 뜻하며, 이슬람 학문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의미한다. 아랍어권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드라사’라고 부르며,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메드레세(Medrese)’로 부른다.

마드라사는 수준 높은 이슬람 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현재 대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다. 공간적으로는 모스크(Masjid), 모스크 기숙사(Masjid-Khan), 마드라사로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업 과정은 법, 코란, 하디스 등 핵심 종교교육을 하되, 문법, 논리, 수사학 등 이른바 인문 삼학(三學)을 가르쳤고, 수학, 문학사, 고등문법, 예배시간 계산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었으며, 의학과 농경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마드라사 교육 과정의 핵심은 이슬람법이였다.



14세기에 건축된 하투니에 마드라사(카라만, 튀르키예)

마드라사는 도시에서 중요한 공동체 기능을 했다. 주로 인구가 밀집한 도회지에 있었는데, 재판관(Qādi)이 종종 마드라사에서 법적 문제의 판결을 내렸고, 마드라사 내 우물을 이웃들에게 개방했다. 마드라사의 공공성은 건축구조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커다란 주랑과 넓은 공간이 건물의 포괄성을 표현한다. 마드라사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도회지 삶을 포용하고 있었다. 마드라사의 중요한 공적 기능은 종교의 기본 교리를 모든 무슬림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전 무슬림 세계에서 초급교육은 모스크 내 쿠탑에서, 고등교육은 마드라사에서 이루어졌다. 마드라사는 이슬람 학문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피끄흐(Fiqh)를 가르치면서 무슬림 세계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를 양산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서유럽과 러시아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전통적인 마드라사 대신 서구 근대식 교육기관이 들어섰고 결과적으로 마드라사는 과거의 영광을 상실했다. 튀르키예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Mustafa Kemal Pasha, 1881년~1938년)가 종교교육 기관들을 감독했고, 결국 개혁의 일환으로 마드라사(메드레세)를 폐쇄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드레세
- 다국어 표기 Medrese(튀르키예어), madrasah(아랍어), Madrasa(우즈베크어), Mədrəsə(아제르바이잔어), Мәдрәсә(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페트바, 피끄흐, 파키흐, 샤리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t8St3_G6c



마드라사(부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90z9vVSdtOs>

<https://www.youtube.com/watch?v=KG44Zrt7mNo>

● 참고문헌(오프라인) 김종도, 박현도, 「근대 이전 마드라사(Madrasa) 연구: 발전과 역할」,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21집 2호, 2017, pp.105~120

Hallaq, Wael B. *Shari'a: Theory, Practice, Transform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Hallaq, Wael B.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Makdisi, George. *The Rise of Colleges: Institutions of Learning in Islam and the Wes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1.

Makdisi, George. "Madrasa and University in the Middle Ages". *Studia Islamica* 32 1970: 255~264.

Makdisi, George. "Muslim Institutions of Learning in Eleventh-Century Baghdad".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24:1 1961: 1~56.

Pedersen, J., Makdisi, Rahman and Hillenbrand. "Madrasa." In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 Vol. 5, 1123~1154. Leiden: E. J. Brill, 1986.

I B011 | 마론파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시리아, 레바논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종교집단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aronites

마론파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4세기 수도자였던 마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론파 교회의 공식 이름은 'The Antiochian Syriac Maronite Church(Al-Kanisah al-Antakiyah al-Suriyaniyah al-Maruniyah)'이다. 중세 역사가이자 마론파 총대주교인 에스 테판 두와이히(Estephan Duwaihi)에 따르면 마룬(Maroon 또는 Muroon)이라는 이름은 주(主)를 뜻하는 시리아 단어 'Mara'에서 기원하며 이후 아랍어로 'Maroon'이 되었다. 마론파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마론파는 시리아에서 태동한 기독교의 한 교파로써,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해 있다. 오늘날 레 바논과 시리아에서 가장 유력한 기독교 공동체이다.

마론파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680년)에서 그리스도교의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으나 후에 12세기 십자군 전쟁을 통해 이슬람 제국에 맞서 십자군 측에 합류하며 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한다. 1182년 로마 교회가 마론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어, 가톨릭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제1차 십자군 원정 이후 마론파는 맘루크 왕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으나, 로마 교회 및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 맘루크 왕조가 멸 망한 후, 오스만 투르크가 마론파의 거주지를 통치하게 되었으나, 오스만 제국은 밀레트 제도

를 통해 마론파에게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구를 설치해주며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마론파가 이슬람 종파 중 하나인 드루즈파와 갈등을 겪자, 군사를 투입하여 마론파 신자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프랑스는 1638년 ‘오스만 제국 내의 기독교 집단을 보호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고, 마론파와 프랑스와의 관계는 이후 레바논 독립 국가 수립까지 이어지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서 오스만 제국의 통제력은 약화됐다. 대신, 청년투르크당의 중앙집권 정책이 강화되자, 레바논 마론파 중심지는 파리,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및 아메리카 대륙의 이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달해 나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론포파
- 다국어 표기 موارنة(아랍어), Maruniler(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90335&cid=40942&categoryId=31595>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성욱, 「마론파의 레바논 국가 정체성 담론」, 『중동문제연구』, 14(3), 2015, pp.25~53.
이성욱, 「마론파의 종교정체성 담론」, 『중동연구』 34(2), 2015, pp.93~114.

I B012 | 마르자니 모스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ärçani Mosque

마르자니 모스크(Märçani Mosque)는 1766년~1770년 러시아의 황제 예카트리나 2세(Екатерина II Великая, 재위: 1762년~1796년)의 명으로 건축되었다. 러시아 제국의 이슬람 박해가 끝난 후 카잔에 첫 번째로 세워진 모스크이다. 타타르스탄에서는 가장 오래된 모스크로서 소비에트 연방 시절, 모스크 폐쇄 명령을 피했던 최초의 모스크이기도 하다. 건축가는 바실리 이바노비치 카프트레브(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Кафтырев, 1730년~ 1807년)으로 카반 호수 인근에 있다.



마르자니 모스크

주요 재료는 벽돌과 석재이며, 전통적인 타타르 중세 양식과 러시아 바로크 스타일이 결합되어 있다. 이 모스크는 이층 두 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페테르부르크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전체 벽면과 내부는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붕은 초록색이다. 1층 홀의 미흐랍은 흰색의 루미 문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첨두아치형 미흐랍 주변은 서체 장식의 패널로 둘러싸여 있다. 미흐랍 양옆에는 각각 무함마드와 알라가 쓰인 로제트 장식이 있다.

2층 홀 하단 부에는 파란색, 녹색, 금색으로 이루어진 양각 타일 꽃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상단 부는 흰색의 꽃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초록색의 지붕 중앙에 팔각형의 미너렛이 있으며 내부의 계단을 통해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다.

1861년 유니소브(И. Г. Юнусова)가 건물과 계단을 추가했고 1863년 미흐랍을 확장시키고 유리와 계단을 추가했다. 이 당시 모스크는 그의 이름을 따 불리기도 했다. 1885년 무역가 고스만노브가 미너렛을 새로 추가했으며, 1887년에는 무역가 기자툴린(В. Гизетуллина)과 왈리쎌(М. Валишина)이 미너렛 발코니를 추가했다. 1850년 이후 이 모스크의 이맘이자 타타르스탄의 학자인 쉐하베딕 마르자니(Шихабетдин Мәржани, 1818년~1889년)의 이름을 따 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마르자니 모스크는 카잔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로 카잔의 전통적 모스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매르자니 모스크

● 다국어 표기 Мәрҗани мәчете(타타르어), Мечеть аль-Марджани(러시아어), Mercani Camii(튀르키예어), Mercani məscidi(아제르바이잔어), Әл-Маржани мешиті(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Мәрҗани мәчете”, Татарстан : краткая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Институт Татарск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и регионоведения АН РТ, 2015. pp.468~469.

I B013 | 마르즈 다비크 전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시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The Battle of Marj Dabiq

1497년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는 항로를 개척하고, 인도양의 해상무역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자, 그때까지 이집트 수에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들이 항로를 바꾸어 더 이상 이집트로 오지 않게 되었다. 중계 무역을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이윤을 얻으며 번영했던 맘루크 국의 재정은 극도로 어려워지게 된다. 맘루크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증세로 벌충하려고 했지만 궁핍한 살림살이를 하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것은 맘루크 국의 정치적 군사적 약화로 이어진다.

한편 유럽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가던 오스만 제국은 이란에서 등장하여 세력을 키워가던 사파비 조와 1514년 찰디란 계곡에서 충돌하게 된다. 여기서 사파비 조를 제압한 오스만 제국 셀림 1세는 사파비 조와의 연대를 의심하고 맘루크를 정복하고자 한다. 셀림 1세와 싸우게 된 맘루크의 술탄은 알-구리(1501년~1516년)였다. 노년에 접어들어 쇠약한 술탄 알-구리는 오스

만 제국과 평화 협정을 원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셀림 1세는 이를 거부하고 군대를 시리아로 진격시켰다. 이에 알-구리도 그의 군사를 가지고 북쪽으로 진격했고, 1516년 8월 24일 알레포 평원 북부 마르즈 다비크에서 예니체리를 주력으로 하는 셀림의 군사와 충돌했다. 전투 결과는 맘루크에게는 참혹했다. 결국 술탄 알-구리도 전사하고 말았다. 맘루크군은 우수했지만, 무기나 전투 방법은 2세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우세한 포와 머스킷 소총으로 무장하고 조직적 전투를 벌이는 오스만 제국군에 비하여 기병의 개인적 전투력에만 의존했던 맘루크군은 전력 면에서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오스만 제국군은 수많은 대형전투를 치르면서 훈련이 잘된 군대였는데 반하여, 맘루크군은 시시한 소규모의 지방 반란 진압이 전부였고,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한 군대였다. 거기다가 맘루크군 내부 반란, 시리아 지역 투르크계 총독 카이르박의 내통 등도 맘루크군이 쉽게 패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카이로에서 맘루크 조의 마지막 술탄으로 뽑힌 투만 베이(1516년~1517년)는 부족한 재정 속에서 병사들을 모아 용감하게 오스만 제국에 저항했으나, 결국에는 포로가 되었다가 카이로의 주웨일라 문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가 죽기 석 달 전, 1517년 1월 22일 맘루크 조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했다.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한 카이로는 약탈 대상이 되었으며, 귀중한 것은 이스탄불로 유출됐다. 2천 명이 넘는 학자, 대상, 명장들은 배에 실려 이스탄불로 끌려갔다. 명목적인 압바스가의 칼리프인 알-무타와킬은 이스탄불에 인질로 잡혀가 수니파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칭호를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여비를 받아 카이로로 돌아왔고, 세상으로부터 잊힌 채 카이로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슬람 중세 시대의 광영을 발했던 카이로의 빛은 사라지고, 이슬람 세계의 중심부이자 이슬람의 근원, 지중해의 시장으로 일컬어졌던 맘루크 국의 수도는 초라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마르즈 다비크 전투에서 맘루크의 패배로 인한 맘루크의 멸망에 카이로는 티그리스, 리용만으로 이동하는 오스만 수비대가 잠시 주둔하는 하찮은 도시로 전락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르즈 다브 전투, 매르지다브크 전투
- 다국어 표기 معركة مرز دابق (아랍어), Mercidâbık Muharebesi (튀르키예어), Mercidabık döyüşü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셀림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도현신,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 서해문집, 2019, pp.148-153.

맥그 로덴백 지음, 하연희 옮김, 『카이로』, 루비박스, 2010, pp.168~172.

Ades, Harry. 『A Traveller's History of Egypt』, Interlink Books: 2007, pp.244~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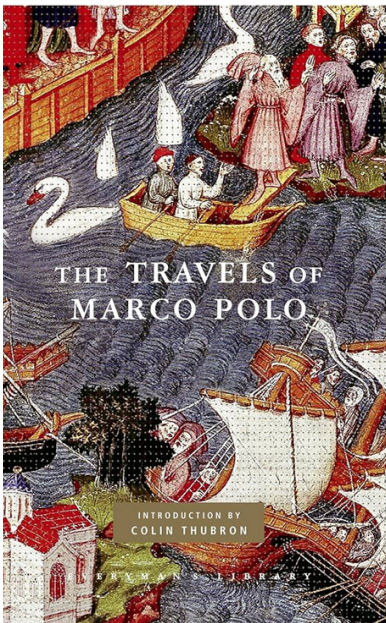
Afaf Lutfi al-Sayyid Marsot.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6, p.37.

Hitti, Philip K. 『History of the Arabs』, Macmillan, Hong Kong:1984, 10th Ed. p.704.

Said 'Abd al-Fatah 'Ashur, 『Misr wa al-Sham fi 'Asr al-Awubiyin wa al-Mamalik』, Dar al-Nahdah al-Arabiyyah liltaba'ah wa al-nshri, Bayrut: pp.270~282.

I B014 | 마르코 폴로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탈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여행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arco Polo



『The Travels of Marco Polo』 표지

마르코 폴로(1254년~1324년)는 그의 나이 17세 때 베네치아 상인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삼촌, 마페오 폴로를 따라 1271년 중국을 향해 출발했다. 바그다드를 거쳐 바스라로 간 그들은 해로로 중국을 향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육로를 택해 페르시아를 거쳐 아무다리야 강, 파미르 고원을 통과해 타림 분지에 도착했고 카스, 호탄, 룽노르 등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오아시스 지역을 지나 오늘날 중국의 간쑤성(甘肅省) 서부 오아시스 지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1년을 머무른 일행은 1274년 원(元)나라 세조 쿠빌라이칸의 여름 궁전이 있는 상도(上都 네이멍구자치구 남부)에 도착했다. 마르코 폴로는 17년간 원나라에 머물면서 그 수도 대도(大都 베이징)는 물론, 오늘날 중국의 산시(山西), 산시(陝西), 쓰촨(四川), 윈난(雲南),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지역 등을 여행했다. 마르코

폴로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쿠빌라이칸의 깊은 신임을 받아 양저우(揚州)에서 관리로 일

하기도 했다. 마르코 폴로 일행은 페르시아의 몽골 왕조 일 칸국으로 시집가는 원나라 공주의 호송단에 참가하여 수마트라, 말레이, 스리랑카, 인도 서남부 말라바르를 거쳐 페르시아의 호르무즈에 도착했고, 1295년 베네치아로 돌아왔다. 이들이 베네치아로 돌아오고 4년 뒤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동방무역로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마르코 폴로는 제노바의 감옥에 갇혀 피사 출신 작가 루스티첼로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루스티첼로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1298년부터 1299년 사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이



마르코 폴로 동상(로마, 이탈리아)

구술(口述)의 결과가 『세계의 기술(記述)』(Description of the World), 즉 『동방견문록』이다. 이 책은『일밀리오네』(Il Milione)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동방견문록의 진위여부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일본의 몽골사 전문가 스기야마 마사아키는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중국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것을 감옥에서 루스티첼로에게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위를 떠나 『동방견문록』은 몽골 제국기 유라시아 이해를 위한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르코 포올로
- 다국어 표기 Marco Polo(영어) marko 'po:lo(이태리어)
- 연관 검색어 아무다리야, 카스, 롬노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ALSg>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604&cid=59014&categoryId=5901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655&cid=40942&categoryId=33474>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Polo, Marco & Rustichello of Pisa (January 1, 2004. *The Travels of Marco Polo - Volume 1*. Project Gutenberg.

Retrieved April 2, 2011.

Polo, Marco & Rustichello of Pisa (May 1, 2004. *The Travels of Marco Polo - Volume 2*. Project Gutenberg. Retrieved April 2, 2011.

I B015 | 마리아 차플리츠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aria Czaplicka



『Maria Czaplicka』 표지

Source: <https://www.nebraskapress.unl>.

마리아 안토니나 차플리츠카(1884년 10월 25일~1921년 5월 27일)는 러시아령 바르샤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폴란드계 영국 인류학자로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중앙아시아 투르크 관련 연구서들을 저술했다. 1910년 여성의 입학이 허용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류학자이자 종교학자인 로버트 레이날프 마레트(1866년~1943년, Robert Ranulph Marett)를 사사하고 1912년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러시아를 구사할 수 있었던 차플리츠카는 마레트의 조언에 따라 시베리아 민족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한다. 3,000킬로미터가 넘는 예니세이강에서 이루어진 학술탐사에 서 러시아 학자 쉬테른베르그(П.Я. Штернберг)와 요헬손(В.И. Иохельсон)의 도움으로 『시베리아의 원주민, 사회인류학연구』(1914)를 집필한다. 1916년 영국에 돌아와 집필한 『시베리아에서의 1년』은 큰 대중적 인기를 끌었고, 차플리츠카는 옥스퍼드 대학의 첫 번째 여성 강사가 되었다.

주요 저작으로는 『시베리아의 원주민, 사회인류학 연구』(1914), 『시베리아에서의 1년』(1916),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들』(1919)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리아 차플리츠카

● 다국어 표기 Мария Чаплицкая(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4cdm>

● 참고문헌(온라인) 마리아 차플리츠카

<https://www.peoplelife.ru/318343>

마리아 차플리츠카 - 인류학의 선구자

<https://culture.pl/ru/article/mariya-chaplickaya-pionerka-antropologi>

● 참고문헌(오프라인)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David N. Collins, ‘Czaplicka, Marya Antonina (1884-1921)’, vol 14, 2004, pp.872-874.

I B016 I 마마이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도자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Mamai

마마이(1335년~1380년, Мамай)는 킵차크 칸국의 템니크이다. 템니크는 만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칸에게 직접 예속된 군 사령관을 말한다. 그의 이슬람식 이름은 키치그-무함마드(Кичиг-Мухаммад)이다. 마마이 집안의 영지는 크림이다. 1361년부터 1380년까지 이르는 ‘대혼란의 시대’에 꼭두각시 칸을 내세워 킵차크 칸국의 서쪽 지역을 통치했다. 마마이는 1357년~1359년까지 킵차크 칸국을 통치했던 베르디베크 칸과 유년 시절 친구였다. 베르디베크 칸의 죽음 이후 킵차크 칸국에는 바투 왕조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고 ‘대혼란의 시대’가 시작된다. 1350년대 후반기에 마마이는 크림(Крым)과 북부 프리초르노모리예(Северное Причерноморье)의 총독이 되며, 1357년부터 베르디베크 칸의 베클라르베크로 일했다. 그는 국가의 군대를 통솔했고, 외교와 최고 법원을 관장했다. 베르디베크가 참칭자 쿨파에 의해 죽고 난 뒤 1359년, 마마이는 쿨파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대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베클라르베크는 칭기즈 칸 일족이 아니어서 칸이 될 수는 없었다. 1361년, 마마이는 바투 일족의 압둘파흐를 백장 칸국의 칸으로 내세우지만, 킵차크 칸국에서는 왕위를 노리며 이에 반대하는 자

들이 계속 등장했다. 마마이가 수도를 차지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본영은 주로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동부 지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그는 할 수 없이 유럽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마마이는 1374년, 모스크바 공국과 갈등관계에 놓이는데, 1380년에 러시아 동맹군과 쿨리코보 전투를 벌여 대패한다. 때마침 1377년, 티무르의 지원을 받은 칭기즈 칸 일족인 토타미시가 킵차크 칸국의 제위를 노리고 원정을 시작했다. 결국 1380년에는 킵차크 칸국 전역을 확보하게 된다. 1380년 말, 마마이는 칼카 강 전투에서 토타미시에게 패하고 크림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토타미시 부하들에게 잡혀 죽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모모이

● 다국어 표기 Мамай(러시아어), Mamay(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티무르, 베클라르베크, 토타미쉬, 대훈란의 시대

● 참고문헌(오프라인) Гумилёв, Лев Николаевич. Древняя Русь и Великая степь. — СПб.: Кристалл, 2002. — 767 с.

I B017 | 마살

● 시기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전 문학 ● 유형 소분류2 산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asal

마살(masal)은 튀르키예 구전문학 장르 중의 하나로, 일종의 구전 동화나 옛날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masa’의 어원은 암하라어의 ‘mes’에서 왔고, 아랍어 ‘mesel’에서 변형됐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îvânü Lugâti't-Türk)』에서는 ‘외드퀸취(ödkünç)’, 차가타이어에서는 ‘투트막(tutmak)’, 키르쿠크 투르크인들은 ‘마살(masal)’, 위구르어에서는 ‘최ček(çöçek)’, 타타르스탄과 바시키르 공화국에서는 ‘에키예트(ekiyet)’, 카자흐스탄에서는 ‘샤후브-샤브스(şahuv-şavis)’,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트렉(etrek)’,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에트레키(etreki)’라고 칭한다. 모두 용어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상력, 환상적인 이야기 구조, 열정, 로맨틱한 분위기 등을 담고 있다.

구비 문학으로 분류되는 마살의 특징은 독자를 고려하여, 도입과 결론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여담이 있다. 관용구에서는 운율이 있기는 하지만 중심 내용은 산문 형식이다.

마살은 정해져 있는 고유한 관용구 표현으로 시작된다. 도입 부분은 일반적으로 “옛날 옛적에”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마살은 다른 구전문학과 같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창작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통과 사회적 합의가 합쳐져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살에서는 암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마살은 사회적 풍자, 개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는 특권이 있다.

튀르키예에서 마살은 오래된 지식과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 13세기 아나톨리아 시인 메블라나 켈랄레딘(Mevlana Celaleddin)의 작품들을 자주 인용한다. 유머, 신화, 우화도 간간히 차용된다. 마살은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의 풍부함도 보여준다. 다음은 아나톨리아에서 수집된 마살이다. 제목은 「까마귀와 할머니」이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말고는 아무도 없던 시절이었다. 어떤 할머니와 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매일 매일 젖을 짜면 우유를 병에 담아서 문에 걸어 두었다.

할머니가 우유병을 문에 걸어둘 때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우유를 몰래 마셨다. 첫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매일 이렇게 계속 반복됐다.

할머니는 참다 참다 화가 났다.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젖을 짜고 우유를 병에 담아 문에 걸어 두었다.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까마귀가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우유병이 문에 걸려 있는 것을 본 까마귀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와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부리를 우유병에 박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들고 있던 가위로 까마귀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꼬리가 잘린 까마귀는 재빨리 도망쳤다. 이를 본 까마귀들과 다른 새들은 꼬리가 없는 까마귀를 보고 깔깔 웃으면서 놀려댔다.

모든 새들이 자신을 보고 웃고 놀려대자, 까마귀는 며칠을 계속 하염없이 울어댔다. 꼬리 잘린 까마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할머니에게 가서 꼬리를 돌려 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까마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 꼬리를 돌려주시면 내가 꼬리를 꿰매어 볼게요. 친구들이 나를 보고 웃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꼬리 때문에 너무 창피해요.”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저리 가, 네가 먹어 치운 우유를 가져오면 그때 꼬리를

줄게.”

그러자 까마귀는 이번에는 소에게 가서 빌었다.

“소야, 소야, 나에게 우유를 좀 줘. 할머니에게 우유를 갖다주면 꼬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 같아. 꼬리를 다시 받아야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거야.”

소가 말했다.

“저리 가, 나에게 풀을 가져다 주면 그때 우유를 줄게.”

까마귀는 이번에는 풀밭에 가서 애원했다.

“풀밭아, 풀밭아, 나에게 풀을 좀 줘. 소에게 풀을 가져다주면 우유를 받을 수 있고, 할머니에게 우유를 드리면 꼬리를 돌려받을 수 있다. 꼬리를 다시 돌려받아야만 해. 그래야 친구들 놀림을 피할 수 있어.”

풀밭은 말했다.

“그럼, 가서 물을 가져 와”

까마귀는 이번에 우물에게 가서 빌었다.

“우물아, 우물아, 나에게 물을 좀 줘. 풀밭에 물을 갖다주면 풀을 받을 수 있고, 소에게 풀을 갖다주면 우유를 받을 수 있고, 할머니에게 우유를 갖다주면 꼬리를 돌려받을 수 있다. 꼬리를 다시 받아야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 거야.”

우물은 말했다.

“여인네들을 불러 와. 여인들이 여기서 춤 추고 노래하면 물을 줄게.”

결국 까마귀는 이번에는 여인들을 찾아 갔다.

“여보세요. 나랑 같이 우물가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 좀 춰 주세요. 그래야 우물에서 물을 받을 수 있고, 그 물을 풀밭으로 가지고 가면 풀을 받을 수 있고, 소에게 풀을 가져다 주면 우유를 받을 수 있고, 할머니에게 우유를 가져다 드리면 꼬리를 돌려받을 수 있대요. 꼬리를 다시 받아야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 거예요.”

여인들은 까마귀의 애처로운 애원에 못이겨, 다 같이 예쁜 옷을 입고, 머리에 예쁜 핀을 꽂고 목걸이, 팔찌 등으로 멋을 낸 후 우물 가로 갔다. 그들은 북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우물은 물을 주었고, 까마귀는 그 물을 풀밭으로 가지고 갔다. 그러자 풀밭은 풀을 주었다. 까

마귀는 그 풀을 소에게 가져다 주었다. 소는 대가로 우유를 주었다. 까마귀는 그 우유를 받아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마침내 할머니는 까마귀의 꼬리를 돌려줬다. 꼬리를 돌려 받은 까마귀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수 있었다.”

● 다국어 표기 Masal(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bayrak Nureddi, *Ansiklopedik Halk Edebiyatı Terimleri Sözlüğü*, LMYayıncılık, İstanbul, 2004.

Aslan Ensar, *Türk Halk Edebiyatı*, Maya Akademi Yayınları, Ankara, 2008.

Boratav Pertev Naili, “Masal ve Masalçı Üzerine”, *Masal Araştırmaları Folktales Studies I*, (Hazırlayan: Nuri Taner),

Artsan Yayınları, Yalova, 1988.

Boratav Pertev Nail, *Zaman Zaman İçinde*, Adam Yayınları, İstanbul, 1992.

Kaya Doğan, *Ansiklopedik Türk Halk Edebiyatı Terimleri Sözlüğü*,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7.

Sezer Melek Özlem, *Masallar ve Toplumsal Cinsiyet*, Evrensel Basın Yayın, İstanbul,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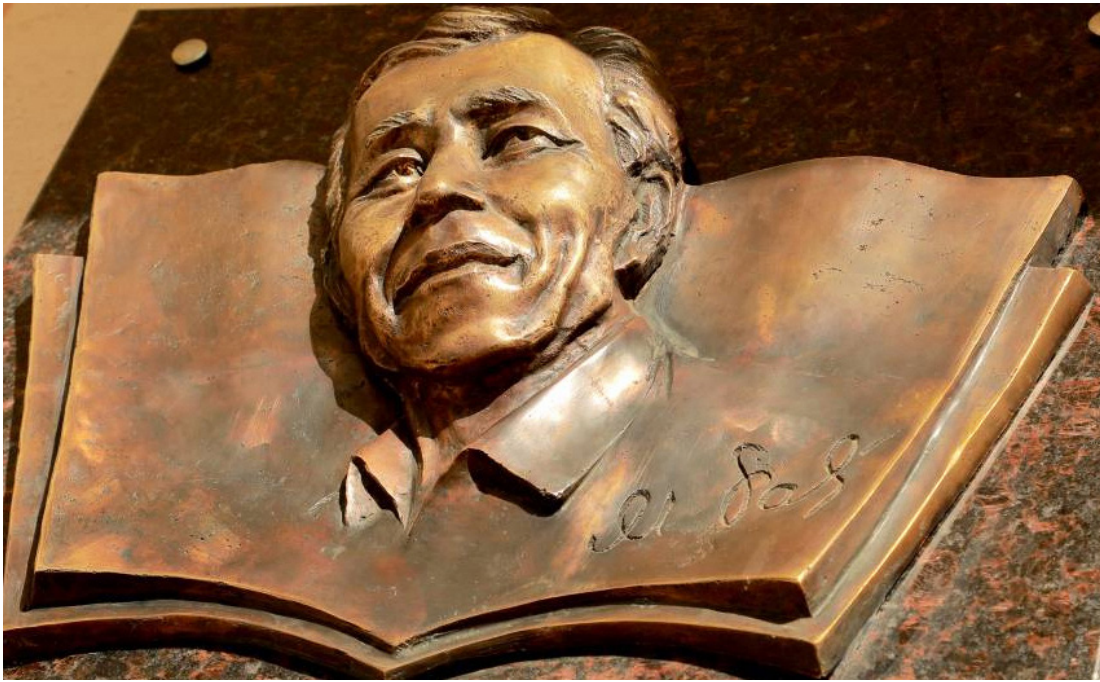
Turan Metin, *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9.

I B018 | 마쉬랍 버버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ashrab Boboyev

마쉬랍 버버예브(Mashrab Boboyev)는 동시(童詩), 시, 단편소설, 수필 그리고 희곡으로 유명한 20세기 우즈베키스탄 작가이다. 그는 1941년 사마르칸트 주 포야리크(Poyariq) 지역의 평범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집단농장에서 트랙터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했으며, 도서관 직원으로 일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교육대학교에서 수학 후 타슈켄트 연극예술대학교 야간과정에 진학했다. 예술대학 졸업 후 그는 사마르칸트 지역 민속예술을 이끌었고, 라디오·신문 기자로도 활동했다. 타슈켄트로 이주한 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 가푸르 굴럼 문학예술 출판사와 잡지 <동양의 별(Sharq yulduzi)>의 문학 편집자로 일했다.

마쉬랍 버버예브는 1960년대에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첫 시집인 『어머니에게 편지(Onamga xat)』는 1971년에 출판되었다. 이후 『봄의 즐거움(Bahor kayfiyati, 1972)』, 『단어



마쉬랍 버버예브
Source: <https://oyina.uz>

(So'z, 1978)』, 『멀리 있는 빛(Olisdagi chiroq, 1981)』, 『헌신(Bag'ishlov, 1984)』, 『내가 아는 비밀(Men bilgan sir, 1991)』 등 여러 시집을 출간한다. 시집에 수록된 시는 전통, 순수한 사랑, 미래 그리고 꿈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는 『나의 목화-나의 행복(Paxtam mening - baxtim mening, 1975)』과 같은 동시집도 출간했다.

마쉬랍은 10여 편의 희곡을 집필했는데, 그중 『삼십 대(O'ttiz yoshlilar, 1976)』, 『지구의 뿌리(Yer tomiri, 1979)』, 『활발한 교제(Gurung, 1979)』, 『어머니(Onaizor, 1985)』, 『만세, 선생님(Yashasin, afandi, 1985)』, 『어려운 무역(Mushkul savdo, 1989)』 등의 작품이 특히 인기가 있었다. 『어디니, 나의 별(Qani, mening yulduzim, 1987)』, 『이름없는 별(Nomsiz yulduzlar, 1991)』과 같은 시 선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의지(Iroda, 1986)』와 『사랑의 외침(Sevgi Nidosi, 1991)』과 같은 TV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그는 발렌틴 카타예브(Valentin Katayev)나 오타르 칠라제(Otar Chiladze)의 작품을 번역

하기도 했다.

현대 우즈베크 문학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작가로 평가받는 마쉬랍 버버예브는 1995년 ‘우즈베키스탄 명예 예술가’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2003년 7월 23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쉬라브 보보예브
- 다국어 표기 Mashrab Boboev(우즈베크어), Бабаев Машраб(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rjcr>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babaev-mashrab>
<https://ziyouz.uz/ozbek-ziyolilari/mashrab-boboev-1941-2003/>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B019 | 마아리프나메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aârifnâme

「마아리프나메(Maârifnâme)」는 수피즘 신앙과 윤리에 대해 시난 파샤(Sinan Paşa)가 작성한 두번째 산문 작품이다. 시난 파샤가 타자루나메 이후 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시하트나메(Nasihatname)와 아흘락나메(Ahlâknâme:윤리서)라고도 불린다.

시난 파샤는 세상의 악에 대해 비판하며, 최고의 도덕을 인정하고, 지혜의 길에서 윤리를 찬양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고 언급한다. 그는 「마아리프나메」에서 선택적이고 절제된 문체로 쓴 산문을 통해 이슬람의 도덕 원리를 예시를 들어 가르치고자 했으며,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수피사상의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인간의 존재 이유, 우주, 생명,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논평을 곁들였다.



시난 파샤 모스크(이스탄불, 튀르키예)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 필사본의 경우 이스마일 히크멧 에르타일란(Ismail Hikmet Ertaylan)에 의해서 1961년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리프나메
 - 다국어 표기 Maârifnâm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sinan-pasa>
 - 참고문헌(오프라인) Çelik, A., Sinan Paşa ve İlim. Mertol Tulum Kitabı, 229. 2017.
- Solmaz, S., SİNAN PAŞA'NIN MAÂRİF-NÂMESİ'NDE İDEAL İNSAN. Türek Uluslararası Dil, Edebiyat ve Halkbilimi Araştırmaları Dergisi, (12), 106. 2018.

I B020 | 마이데레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aidere

마이데레(Maidere)는 알타이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주 울겐이 만들어 세계의 통치자로 세워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운명을 알려주도록 한 무사이다. 그는 울겐이 자신을 만든 것처럼 최초의 여성을 만들었는데 갈대로 뼈를 만들고 진흙으로 몸을 만들어 흠어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 마이데레는 에르긴-엘렌(эргын-элэн)이라는 풀을 손바닥에 짓이겨 그녀에게 붙여 넣었다. 그러자 뱀이 생겨나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자신의 피조물을 지키라고 개에게 명했지만, 마이데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에를릭이 와서 개를 가죽과 먹이로 유인하고는 그 여성에게 생기를 띠게 했다. 또 에를릭은 코와 귀에 영혼과 지혜를 붙여넣었다. 하지만 여성의 영혼은 뱀처럼 사악했고, 지혜는 변덕스러워서 울겐이 창조한 어떤 남성도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마이데레는 에를릭과 이 여성과 그녀가 낳은 자손들을 해도 달도 없는 두 바다 사이에 위치한 땅으로 내쫓았다. 마이데레 자신은 울겐이 창조한 일곱 사람 중 세 명을 자신의 조력자와 서기로 삼아 그들과 함께 황금 산(알틴-투 Алтын-туу)으로 떠났다. 마이데레는 불교의 미래 부처인 미륵(마이트레야 Maitreya)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륵, 매데레
- 다국어 표기 Майдед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에를릭, 울겐
- 참고문헌(오프라인) Неклюдов, С. Ю. “Тюркские сюжеты о Гесере и их отношении к монгольским версиям,” Documenta Barbarorum, Otto Harrassowitz/Wiesbaden 1983: 253.

I B021 | 마이트리시미트 놈 비틱

● 시기 B.C. ~ 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itrisimit nom bitig

『마이트리시미트 놈 비틱(Maitrisimit nom bitig)』은 『미륵회견기(彌勒會見記: Maitreyasa-mitināṭaka)』의 위구르어 번역본으로 그 원문은 산스크리트어에서 토하라어(아그나어, 동토하라어)로 번역한 판본이다. 마이트리시미트 놈 비틱은 각기 낱장의 형태로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현존하는 미륵회견기는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소그드어 버전 등이 있지만, 토하라어 번역본이 가장 길다. 위구르어 본은 「서문」과 「27장(ülüş)」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서에는 원전에 없는 예배(yükünç)와 관련된 장이 있어, 이는 원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집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번역본의 원전은 비바사사(Vaibhāṣika)파의 아비달마의 야잔드라(Āryacandra)가 산스크리트어에서 토하라어로 번역했고, 이 토하라어 번역본에서 위구르어로 번역한 것은 일 발릭(İl baklık-고창) 출신의 승려 프란즈나라크시타(Prajñārakṣita Keṣṣi Ācarya)였다. 위구르어 번역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륵회견기』는 제목대로 미륵과 만나는 이야기와 미륵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위구르어 본은 변문(變文)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위구르어 본에서는 각 장 첫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이 끝날 때는 무대에서 나가라는 지시와 유사한 구절들이 있다. 이 책의 본문에 나오는 ‘극, 드라마’라는 의미의 위구르어 ‘körünç’가 있으며, 토하라어 본 제목의 ‘nāṭaka’는 ‘연극’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이 경전을 연기 극본이라고 보기도 한다. 즉, 이 경전은 단순히 낭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으로 진행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경전에 등장하는 ‘새로운 날(yañı kün)’이라는 단어로 인해 연초를 기념하기 위한 연극 극본이라고 보기도 한다. 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이 민중에게 더 쉽게 불교를 가르치는 도구였다는 의미로 당시 위구르의 미륵불 사상에 대해 유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극과 관련된 단어가 ‘극’, ‘드라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맥락상 ‘기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 책은 불교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를 비롯한 연극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구르어 문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륵회경기, 마이트리시밋, 마이트리시미트
- 다국어 표기 Maitrisimit(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Todd B. Krause and Jonathan Slocum_Tocharian Online
<https://lrc.la.utexas.edu/eieol/tokol>
- 참고문헌(오프라인) Klimkeit, Hans-J. "Buddhism in Turkish Central Asia", *Numen* Vol. 37, Fasc. 1 (Jun., 1990), pp.53~69.
Shimin, Geng. "Budist Uygur Edebiyatı", *Türkler 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1422~1469.
Bakırcı Fatih, "Uygurca Bir Sivil Hayat Belgesi: Maitrisimit", *Journal of Old Turkic Studies*, 2 (1), 7~23.

I B022 | 마인츠 프로젝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독일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학술 연구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ainz Project

마인츠 프로젝트(Mainz Project)는 독일의 투르크학 프로젝트로 1997년 독일 연구 기금(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이 자금을 지원한 장기 학제간 특별 연구단위 프로젝트(Sonderforschungsbereich)로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서남아시아와 동북아프리카의 언어 문화의 관계(Kulturelle und sprachliche Kontakte in Südwestasien und Nordostafrika)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 고고학, 언어학, 민족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투르크 및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 및 언어 변이 현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크리스티안 불루트(Christiane Bulut)와 필리즈 크랄(Filiz Kiral)은 '남동부 아나톨리아와 서부 이란 지역의 투르크 방언의 언어 변이 현상 및 표준화과정'과 관련된 소주제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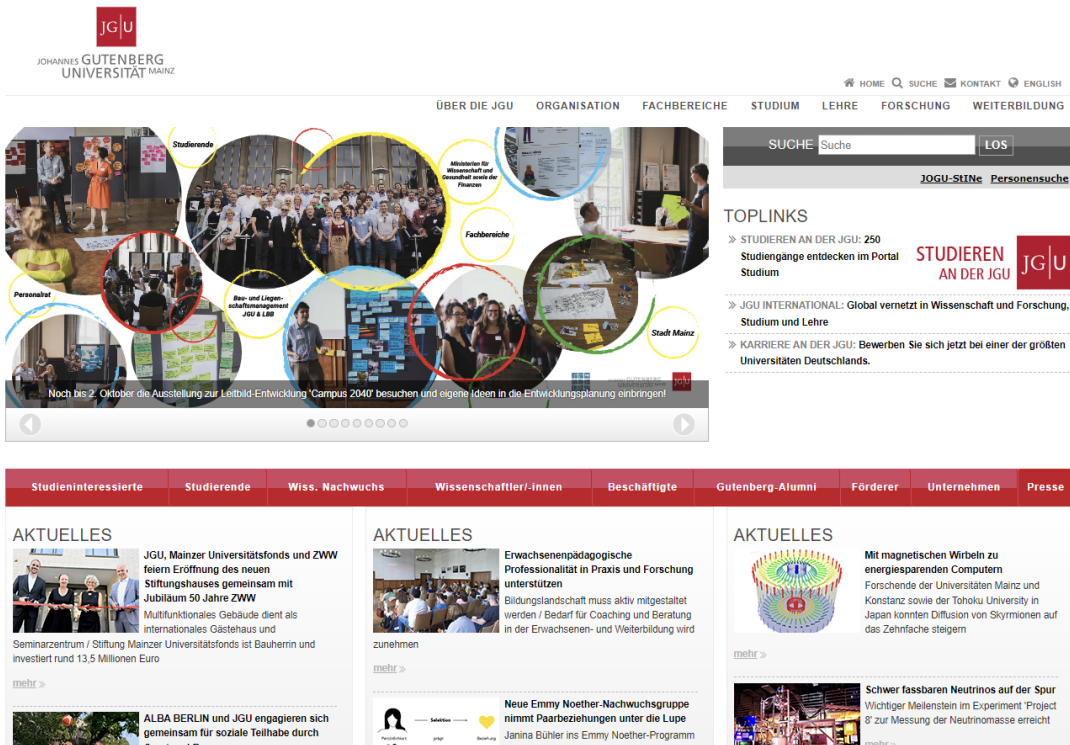
연구의 초점은 이란 및 셈어와 관련이 있는 동부 아나톨리아의 디야르바크르와 우르파 지역

에서 사용되는 쿠르드어와 아랍어의 하위 및 상위 계층의 언어 융합 현상, 아다나 지역 및 이란의 바하레스탄(Baharestan)의 칼라지어와 누라바드와 파루자데에서 통용되는 카쉬카이어와 같은 튀르키예어 변이 현상에 맞춰졌다.

연구팀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혹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하마단(Hamadan) 지역의 바야디스탄(Bayadistan)의 아프사르 방언, 누라바드(Nurabad) 및 피루자데(Firuzade)에서 사용되는 오구즈어 방언, 케르만사 북동부에 위치한 손코르(Sonkor) 정착지 사용되는 방언을 연구 자료로 수집했다.

동부 아나톨리아와 이라크, 서부 이란의 경우 오래전부터 오구즈 투르크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자료의 부족과 함께 정확한 지역 유형 분류가 불가능하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언어는 역사적 발전을 반영한다. 투르크어를 구사하는 화자들은 대부분 셀주크 왕조의 후손이다. 14세기와 15세기 사이 아크코윤루(백양 조) 및 카라코윤루(흑양 조)의 발전과 함께 이들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Mainz 홈페이지
Source: <https://homepage.uni-mainz.de/>

지역에서 비로소 투르크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페르시아어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과거 오구즈 왕조들의 문화 및 행정 언어의 역할을 했다.

16세기 초, 아제르바이잔어는 이 지역의 지배언어가 되었으며, 서부 아나톨리아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어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지배 언어가 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오랜 기간 교류의 산물인 튀르키예어(과거 오스만 제국의 오스만 투르크어)-이란어(페르시아어)이며, 이 지역의 사람들은 2개 국어, 많게는 3개 국어를 구사한다.

마인츠 프로젝트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남동부 아나톨리아와 서부 이란에 거주하는 공동체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가 문화적, 언어적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었으며, 다민족 관계 속에서의 민족 언어학적 변이 현상을 발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인스 프로젝트, 독일 투르크학 프로젝트
- **다국어 표기** Mainz Projesi(튀르키예어), Mainz Project(영어)
- **연관 검색어** 아크코윤루(백양조), 카라코윤루(흑양조)
- **참고문헌(오프라인)** Lars Johanson,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Grafiker: Ankara. (Çev.Nurettin Demir&Emine Yılmaz), 2009.

I B023 | 마카마트

- 시기 A.D.1000년~A.D.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qamat

마카마트는 이라크 바르사 출신의 알 하리리(Al-Hariri, 1054년~1122년)가 지은 마카마스 타일, 즉 가상 이야기꾼의 입을 통해 가상의 주인공을 내세워 구성된 짧은 이야기 모음집 형식으로 지은 책이다. 마카마 형식의 책은 모두 ‘마카마트’ 또는 ‘마카마’로 부르는데, 다른 작가의 마카마 장르의 책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책을 『하리리의 마카마트(Maqamat al-Hariri)』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랍어로 된 이 책은 아랍어의 섬세함, 표현력, 언어 유희를 통해 지혜, 선

함, 진실, 관대함, 지혜, 도움과 같은 덕성을 이야기하거나, 비도덕적이고 무능한 관리를 비판하기도 한다.

주인공 아부 자이드(Abu Zayd)가 여러 모험을 겪으며 주제를 말하는 총 5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4세기부터 투르크어를 비롯하여 히브리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마카마트의 세밀화가 삽입된 판본이 언제부터 제작되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12세기 이후 가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자극이나 공연예술의 영향을 받아 세밀화가 삽입된 판본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판본은 1236/37년에 야하 이븐 마후무드 알 와시티(Yahya ibn Mahmud al-Wasiti)가 제작한 것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rabe 5847] 중이다.

맘루크 조 이집트에서 제작된 세밀화 판본은 비엔나 국립 도서관 소장[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Chart. Ar. 25612], 영국 도서관[British Library Or. 1200, Or. 9718, British Library Add, 22,114]과 옥스포드 보드레이안 도서관[Oxford Bodleian Libraries Marsh 458]에서 소장 중이다. 맘루크 시대의 작품에서는 아랍 세밀화에서 나타나는 인물 묘사에서 벗어나 투르크-몽골식 인물 묘사의 영향을 받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 비엔나 국립 도서관 소장품 첫 장에서도 술잔을 들고 왕좌에 앉은 아미르와 주변의 음악인들, 재주꾼, 궁중 여인들이 금박 위에 셸주크 스타일 의상을 입고 있으며, 아랍인과 달리 솟은 눈매의 눈을 가진 이국적인 형상 등, 위구르와 셸주크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 필사본 연구소[Институте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MS S. 23]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다른 판본[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Arabe 3929, arabe 6094]이 보관되어있으며, 맨체스터 존 라이랜즈 도서관[John Rylands Library, arab. 680]과 이스탄불 설레이마니이에 도서관[İstanbul Süleymaniye Kütüphanesi, Esad Efendi 2916]에도 다른 판본이 있다.

마카마트는 세밀화 소재로 크게 선호되지는 않아서 대체로 13세기~14세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려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까마트

● **다국어 표기** Makamat(튀르키예어), Maqomat al-Hariry(우즈베크어), Makama(아제르바이잔어), Makama(카자흐어), Makama(투르크멘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PYLS>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2/Arabischer_Maler_um_1335_001.jpg/1024px-Arabischer_Maler_um_1335_00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 YKY, 2009.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14.

Rice, D. S. "The Oldest Illustrated Arabic Manuscript",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22, No. 1/3 1959, pp.207~220.

Turan, Hayrunnisa. "Süleymaniye Kütüphanesi Esad Efendi 2916 Numarada Kayıtlı Makamat Nüshasının Bazı Minyatürler",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Cilt: 10 Sayı: 48, Şubat 2017 pp.345~370.

I B024 | 마کم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이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qom

마کم(Muqom)은 고전음악 장르의 일종으로, 음악과 시와 춤을 결합한 종합 예술 형태로 연행된다. 마کم은 일반적으로 기악과 보컬로 구성되어 있다. 가창자와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으로 이루어진 악단이 함께 연행한다. 보컬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관용 후렴구와 시(詩)가 혼용돼 있다.

‘마کم’이라는 용어는 ‘음계(音階)’를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유래했고, 9세기-10세기부터는 문학, 수피즘,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또한, 마کم은 ‘멜로디’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마کم은 ‘마کم(maqom: 우즈베크어과 타지크어)’, ‘무감(mugam: 아제르바이잔어)’, ‘무감(muqam: 위구르어)’, ‘다스타고흐(dastagoh: 페르시아어)’, ‘누바(nu’ba: 마그립)’ 등과 같이 지역과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된다.

‘마کم’이라는 용어는 유클리드(Euclid),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등 그리스 학자들의 음악

이론이 아랍어로 번역된 8세기-10세기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9세기 학자 야흐야 이븐 아부 만수르(Yahya ibn Abi Mansur)는 그리스 음악이론 이전에도 동부 무슬림 지역에 그 지역만의 고유한 음악이론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کم 연구자들에 따르면 마컴의 기원은 아베스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거흐(Dugoh)’, ‘세 거흐(Segoh)’, ‘처르거흐(Chorghoh)’, ‘판즈거흐(Panjgoh)’가 고대부터 사용되던 마컴이다. 11세기~18세기에는 수피즘을 바탕으로 한 ‘열 두개의 마컴(O’n ikki maqom)’이 보편적으로 쓰였다.

마컴은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뛰어난 음악가들은 궁(宮)에서 활동했고, 전문 음악가들이 마컴을 작곡하고 연주했다. 마컴은 아름답고, 복잡한 이론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아부 나스르 파러비이(Abu Nasr Farobiy), 아부 알리 이븐 시너(Abu Ali ibn Sino), 사이피딘 우르마비이(Sayfiddin Urmaviy), 쿠티비딘 셰로지이(Outbiddin Sheroziy), 압두라흐먼 저미이(Abduraxmon Jomiy) 등과 같은 사상가들은 마컴 관련 논문이나 책을 저술하고, 마컴 이론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Uyghur Muqam of Xinjiang

▶ 0:00 / 0:13

Uyghur Muqam of Xinjiang



Nomination
file No. 00109

Decision

Previous: 3.COM 1



Periodic reporting

China

Inscribed in 2008 (3.COM)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riginally proclaimed in 2005)

The Xinjiang Uyghur Muqam is the general term for a variety of Muqam practices widespread among the Uyghur communities, which form one of the largest ethnic minor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out its history, the Xinjiang region has been marked by a high degree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due in particular to its central location along the Silk Road.

Xinjiang Uyghur Muqam includes songs, dances, folk and classical music and is characterized by diversity of content, choreography, musical styles and instruments used. The songs vary in rhyme and meter and are performed solo as well as by groups. The lyrics contain not only folk ballads but also poems written by classical Uyghur masters. Thus, the songs reflect a wide range of styles such as poetry, proverbs, and folk narrative, bearing witness to the history and contemporary life of the Uyghur society. In Muqam ensembles, the lead instruments are made from local materials and vary in form (they may be bowed-stringed, plucked or wind instruments). The dancing skills involve unique steps, rhythms and formations as well as figures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위그르 마컴

Source: <https://ich.unesco.org>

히바 칸국(Xiva xonligi, 1511년~1920년), 부하라 토후국(Buxoro amirligi, 1785년~1920년) 통치자들은 마컴의 순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반인들은 마컴 공연을 오직 왕정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명절에만 관람할 수 있었으며, 마컴 공연은 오로지 전문 음악가만 할 수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해졌다.

마컴은 스승이 제자에게 구전 형태로 기능을 전수하는 도제식 방식으로 전승되다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악보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20세기부터는 가수나 작곡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작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비평가 피트랏(Fitrat, 1886년~1938년)은 『우즈베크 음악에 관하여(O'zbek musiqasi to'g'risida, 1928)』라는 저서에서 “마컴은 300곡 이상의 클래식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15개 정도의 악기가 사용된다. 마컴 관련 고유 이론과 연구방법론이 있다.”고 정의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컴은 지역에 따라 ‘부하라의 샤쉬마컴(Buxoro Shashmaqomi)’, ‘호라즘의 마컴(Xorazm maqomiari)’과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컴(Farg'ona-Toshkent maqom yo'llari)’으로 분류된다.

샤쉬마컴은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에게 속한 고전 음악 장르이다. 18세기 부하라에서 현재의 형태가 완성됐다. ‘샤쉬마컴’은 ‘6개의 마컴’이라는 뜻으로, 이 6개의 마컴은 각각 부즈룩(Buzruk), 로스트(Rost), 나버(Navo), 두거흐(Dugoh), 세거흐(Segoh), 이력(Iroq)이다.

1923년 부하라 작곡가이자 민속학자 우스펜스키이(V. A. Uspenskiy)가 마컴 연주자였던 스승 어타 잘랄 너시로프(Ota Jalol Nosirov)와 어타 기요스 아브두가니(Ota G'iyos Abdug'ani)의 샤쉬마컴 연주를 채록했다. 또한, 최초로 샤쉬마컴을 기록한 『음악을 담은 여섯편 시(詩)/샤쉬마컴(Olti musiqali poema/Shashmaqom)』이 모스크바에서 1924년 출판되었다.

이후, 파이줄라예브(B. Fayzullayev), 서히버브(Sh. Sohibov)와 샤희버브(F. Shahobov)가 5권의 선집(選集)으로 구성된 『샤쉬마컴(Shashmaqom)』을 모스크바에서 타지크어로 출간했다. 샤쉬마컴은 1959년 유누스 라자비이(Yunus Rajabiy)의 『우즈베크 민속음악(O'zbek xalq musiqasi)』 선집 제 5권에 수록되었으며,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유누스 라자비이가 샤쉬마컴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출간했다.

호라즘 마컴은 부하라 샤쉬마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호라즘 마컴은 호라즘 지역민들의

영적인 세계와 일상적 체험 그리고 세계관이 담겨있으며 호라즘인들의 심상과 조화를 이루는 멜로디로 표현된다.

로마노브스카야(E.Romanovskaya)는 『호라즘의 고전음악(Xorazm klassik muzikasi)』이라는 저서 서문에서 “19세기 칸국 시대 히바에서 연주됐고, 1934년 우즈베키스탄 예술연구소 연구원이 기록한 마کم은 사실 부하라 마کم이다. 부하라 마کم을 약 130년 전 고대 우르간츠의 가수 나요즈 호자(Niyoz Xoji)와 악기 연주자들이 히바로 전했다.”고 밝혔다. 로마노브스카야는 『호라즘 마کم 연주법(Xorazm maqomlarining cholg'u yo'llari)』을 악보와 함께 출판했다. 1947년~1949년 마트니요즈 유수퍼브(Matniyoz Yusupov)는 호라즘 마کم 선집을 집필했고, 1951년~1980년에 걸쳐 연구와 조사를 지속한 결과 새로운 유형 호라즘 마کم을 만들어냈다. 1980년~1988년에는 5권으로 편성한 『호라즘 마کم(Xorazm maqomlari)』을 출판했다. 마트니요즈 유수퍼프는 이 책에서 호라즘 마کم과 샤희마کم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대 샤희마کم을 기반으로 호라즘 마ک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명칭이 변했고, 새로운 음악의 발명으로 호라즘 마کم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호라즘 마کم은 독특하고 고유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우르간치(Urganch), 히바(Khiva) 그리고 한카(Khanka)에서는 호라즘 마کم 공연이 계속되고 있다. 호라즘 마کم 전통은 잘 보존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호라즘 지역에서는 히바의 어타니여저브(K. Otaniyozov)와 호지혼 벌타예브(Khojikhon Boltayev) 마کم대회, 그리고 카라칼파크의 후데이슈쿠러브(O. Khudoyshekurov) 마کم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호라즘 마کم 전통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타슈켄트 마کم(Farg'ona-Toshkent maqom yo'llari)은 앞서 언급한 샤희마کم과 호라즘 마کم과 달리 궁전 뿐만이 아니라 궁전 밖 사람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용기, 행복, 기쁨, 사랑 등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1930년대 우스펜스키이(V. Uspenskiy)와 벨랴예브(V. Belyayevlar)는 『페르가나-타슈켄트 마کم(Farg'ona-Toshkent maqom yo'llari)』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ک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자 1975년에는 타슈켄트에서 “마کم, 무감과 현대 작곡가들의 창작(Maqom mug'om va zamonaviy kompozitorlar ijodi)”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

렸다. 1978년 10월에는 사마르칸트에서 “중동 및 근동 민족들 구전 전통에 나타난 음악성과 현대성(O’rta va Yaqin Sharq xalqlarining og’zaki an’analaridagi professional musiqasi va zamonaviylik)”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983년에는 타슈켄트 국립음악원에서 조직한 제1회 마컴 연주자 전국 대회가 열렸다. 제2회는 1987년에 개최되었다.

2003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샤쉬마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지정됐고, 2008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우즈베키스탄 문화부는 2018년부터 2년 간격으로 카쉬카다리아(Qashqadaryo)주 샤흐리자브즈(Shahrizabz) 시(市)에서 “국제 마컴 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고대부터 전승된 무형문화유산 마컴을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캄, 무컴, 마콤, 마컴

● 다국어 표기 Maqom(우즈베크어), Makom(러시아어), Mugam(아제르바이잔어), Muqam(위구르어), Dastagoh(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샤쉬마컴, 호라즘 마컴,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컴

● 멀티미디어 링크 국제 마컴 예술 페스티벌 공연 영상 .

Uzbek Tv. www.mtrk.uz 2018년 9월 7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rUKSxUKbSv0>

Maqom, Munojot Yo’lchiyeva- “O’lturgusi” Navoiy gazal 04.03.2021

<https://www.youtube.com/watch?v=dKX7btWLD4E>

Jo’ra Posonlar - 라이브 공연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g3CMnsiurec>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yev Rustam Samigovich, *O’zbek mumtoz musiqasi*, Yangi nashr, Toshkent, 2008.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Rajabov I, *Maqomlar masalasi doir*, O’zSSR Davlat Badiiy adabiyot nashriyoti, Toshkent, 1963.

Rajabov I, *Maqomlar*, San’at, Toshkent, 2006.

Xudoynazarovich M. B, *O’zbek musiqasi tarixi*, Barkamol fayz media, Tohkent, 2018.

Yusupov M, *Xorazm maqomlari*, Gafur Gulom, Toshkent, 1980.

I B025 | 마크수드 커리에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aqsud Qoriyev



Source: <https://www.goodreads.com>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크수드 커리에브(Maqsud Qoriyev)는 1926년 8월 1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1947년에 타슈켄트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1949년 처음 언론계에 발을 디뎠고, 1954년~1963년에는 신문 <타슈켄트의 사실(Toshkent Haqiqati)>에서 부편집장과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1963년부터 1984년까지 그는 신문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Sovet O'zbekistoni)>을 주도적으로 발행했고, 1984년~1988년에는 잡지 <주먹(Mushtum)>의 편집장이었다. 후에 신문 <메흐리 기여흐(Mehrigiyoh)>을 발간했다.

문단활동은 1960년대 지역 언론으로 시작했다. 『빛나는 밤(Oydin kechalar, 1968)』, 『보리장나무에 꽃 피었을 때(Jiyda gullaganda, 1970)』, 『월식의 밤에(Oy tutilgan kecha, 1971)』, 『아프라시얍의 미인(Afrosiyob go'zali, 1974)』, 『학이 드높이 날아갈 때(Turnalar baland uchganda, 1976)』, 『신부의 결혼식(Qiz uzatib borganda, 1978)』과 같은 단편소설에서 그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망 그리고 가족과 관계된 희노애락을 섬세하고 서정적인 필체로 묘사했다.

그의 역사 소설 『스피타멘(Spitamen)』은 민족해방을 위한 우즈베크 민족의 천년 투쟁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역사소설 『이븐 시나(Ibn Sino)』에서는 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의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설 이외에도 「아시아의 미인(Osiyo go'zali)」, 「티무르에 대한 이야기(Temur haqida hikoyalar)」, 「별에 대한 그의 생각(Yulduzlarda edi xayoli)」, 「자업자득(Qaytar dunyo)」,

「타지마할(Tojmahal)」과 같은 역사를 주제로 한 시(badia)도 창작했다. 그의 에세이 『선(善)을 향하여(Ezgulikka intilib)』는 그의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 「신사와 집시(Mirzo va Lola)」는 TV극으로 만들어졌으며, 「제비는 봄에 돌아온다(Qaldirg'ochlar bahorda keladi)」 등은 장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80세의 고령에도 『가즈나 제국(G'aznaviylar)』과 같은 새로운 역사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 7주년에 국가 명예 훈장을 받은 마크수드 코리에브는 2010년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크수드 코리에프, 막수드 코리에브
- 다국어 표기 Maqsud Qoriyev(우즈베크어), Мақсуд Қорие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PF6v>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maqsud-qoriyev-1926-2010>
<https://arboblar.uz/uz/people/koriev-maksud>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 Shokirova R, *O'zbek adiblari*,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2016.

I B026 | 마트락츠 나수흐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trakçı Nasuh

마트락츠 나수흐(Matrakçı Nasuh)는 오스만 세밀화에 있어 지형묘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화가이다. 본명은 나수흐 빈 카라괴즈 빈 압둘라흐 엘 보스나위(Nasuh bin Karagöz bin Abdullah el Bosnavi, 1480년~1564년)이다. 이 이름으로 보스니아(Bosnavi)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술탄 바이에지드 2세(II Sultan Bayezid, 재위: 1481년~1512년)시대에 엔데룬(Enderun)에 입학하



마트락초 나수흐가 그린 이스탄불 전경
Source: <https://muslimheritage.com>

여 사이 첼레비(Sai Çelebi. ?~1595년)를 사사했다.

나수흐는 미술가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역사, 수학, 서예 및 무술과 무기에도 재능이 있었다. 투르크인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겨루는 '마트락'이라는 무술 스포츠에서 그가 보였던 재능으로 그의 이름이 마트락 선수(Matrakçı)라고 알려지게 된다. 오스만 시대의 몇몇 역사 기록에도 남은 나수흐의 마트락 분야 재능으로 실레이만 1세(I. Sultan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는 그에게 '마스터(Üstat)' '리더(Reis)'라는 칭호를 하사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무기를 다루는 법에 관한 책 『Tuhfet-ul Guzat』을 집필하기도 했다.

수학자로서 나수흐는 술탄 셀림 1세 시대(I. Selim, 재위: 1512년~1520년)에는 기하학과 수학에 관해 정리한 책 『Cemâlü'l-Küttâb, Kemalü'l-

Hisâb. Umdetü'l-Hisâb』을 완성하여 술탄에게 바친다. 이 서적은 엔데룬에서 수학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역사가로서는 실레이만의 1세의 명에 따라 페르시아의 역사가인 알 타바리(Al-Tabari)의 역사책을 번역함과 동시에 여러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했다.

무엇보다 나수흐는 세밀화에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술탄의 원정을 기록한 책에서 원정길에서 본 도시와 성, 항구, 주요 거점을 그리게 된다. 도시를 묘사할 때 주요 건물과 도로를 일부는 건물 전면에서, 일부는 조감도처럼 묘사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실레이만 1세의 이란 원정을 기록한 책 『Beyan-ı menazil-i sefer-i Irakeyen』에서 이스탄불 전경을 묘사했는데, 여기에서는 톱카프 궁전, 이브라힘 파샤 궁전, 에스키 궁전, 파티흐 모스크를 비롯하여 아야소피아 성당 파노라마, 위스키다르, 크즈 쿨레시와 칼라타 타워 등을 그렸다. 이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가 참여했던 원정을 기록한 다수의 책에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 전경을 묘사하고 주요 건물이나 지점 등에 이름을 적어넣어 지도의 역할까지 하도록 했다. 당대의 유럽 지도에 나타난 도시

조감에 영감을 얻어 나수흐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쉴레이만 1세의 황자들의 할레 연회 축제를 위해 움직이는 성의 모습을 종이로 만들고 그림으로 장식했으며 이 안에서 군인들이 재주를 선보일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당대의 주요 도시 풍경과 건축물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후 원정이나 역사기록물 등에서 도시 풍경을 묘사하는 방식의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트락스 나수흐, 마트락츠 나수

● 다국어 표기 Matrakçı Nasuh(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1ovK>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3/Constantinople_1536.jpg

<https://zrr.kr/G14m>

● 참고문헌(오프라인)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 KabcacıYayınevi, 2005.

Bağcı, Serpil., Filiz Çağman, Günsel Renda, Zeren Tanındı, *Osmanlı Resim Sanatı*, Ankara :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12.

I B027 | 마할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행정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Mahalla

마할라(mahalla)는 아랍, 발칸지역, 서아시아, 남아시아 및 그 인근 국가들에서 지역 혹은 지리적 구획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크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공동체인 동시에 법적 최하위 행정구역 단위이자 시민자치기구이다. 이 마할라는 아랍어의 ‘공간, 자리, 장소’를 뜻하는 ‘마할라(mahal)’에서 파생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마할라는 종교, 민족, 직업 등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여러가구가 함께 모여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이다. 소련 연방 붕괴 이후 우즈베크 정부는 신생 국가의 정당성을 찾고, 국가의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마할라를 공식적인 행

우즈베키스탄 지역공동체 '마할라' 거지가 없는 나라로 만들다

우즈베키스탄의 지역공동체 '마할라'가 아닌 자신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도 흔히 거리의 거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데 말이다. 수도 타슈켄트의 키치메이나 사바르칸트 같은 유적지에 가면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임시 어머니들이 종종 눈에 띄는 거리의 거지라는 다른 부류도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절망과 고통의 땅으로 여겨도 곤경에 처하는 거지들을 별도의 장소에 강제 격리시킬 수 있다는 전제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마할라(Mahalla)'는 공동체에서 찾게 된다.



마할라 소개 홈페이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지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많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도 흔히 거리의 거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데 말이다. 수도 타슈켄트의 키치메이나 사바르칸트 같은 유적지에 가면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임시 어머니들이 종종 눈에 띄는 거리의 거지라는 다른 부류도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절망과 고통의 땅으로 여겨도 곤경에 처하는 거지들을 별도의 장소에 강제 격리시킬 수 있다는 전제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마할라(Mahalla)'는 공동체에서 찾게 된다.

이제는 중앙아시아 농경사회에서 발달한 지역 공동체나 마을의 유산에 대한 정량화 기록을 잊어버린 채로 사라진 마할라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모태를 증명할 수 있는 마할라를 중흥의 이념으로 재발견하고 있다. 마할라라는 말은 '마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운영된다. 마할라위원회(Mahalla Citizens' Assemblies)가 있으며, 그 산하에 마할라위원회(Mahalla Committees), 교육자문(educational advisors), 복지위원회(Welfare Commission),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군사위원회(Army Committee),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등이 존재한다. 공동체의 중요 요체는 우리의 반상 회의와 같은 '켄가시(Kengash)'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마할라 정기 회의

마할라라는 말은 '마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운영된다. 마할라위원회(Mahalla Citizens' Assemblies)가 있으며, 그 산하에 마할라위원회(Mahalla Committees), 교육자문(educational advisors), 복지위원회(Welfare Commission),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군사위원회(Army Committee),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등이 존재한다. 공동체의 중요 요체는 우리의 반상 회의와 같은 '켄가시(Kengash)'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마할라라는 말은 '마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운영된다. 마할라위원회(Mahalla Citizens' Assemblies)가 있으며, 그 산하에 마할라위원회(Mahalla Committees), 교육자문(educational advisors), 복지위원회(Welfare Commission),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군사위원회(Army Committee),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등이 존재한다. 공동체의 중요 요체는 우리의 반상 회의와 같은 '켄가시(Kengash)'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마할라라는 말은 '마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운영된다. 마할라위원회(Mahalla Citizens' Assemblies)가 있으며, 그 산하에 마할라위원회(Mahalla Committees), 교육자문(educational advisors), 복지위원회(Welfare Commission),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군사위원회(Army Committee),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등이 존재한다. 공동체의 중요 요체는 우리의 반상 회의와 같은 '켄가시(Kengash)'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마할라라는 말은 '마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운영된다. 마할라위원회(Mahalla Citizens' Assemblies)가 있으며, 그 산하에 마할라위원회(Mahalla Committees), 교육자문(educational advisors), 복지위원회(Welfare Commission),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군사위원회(Army Committee),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등이 존재한다. 공동체의 중요 요체는 우리의 반상 회의와 같은 '켄가시(Kengash)'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집행된다.

'마할라'를 소개한 한국의 잡지
Source: <https://www.posri.re.kr>

정체계로 편입하여 국가 통치구조를 균일화했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다양한 민족을 우즈베크화 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마할라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마할라를 민주적인 '시민자치 기구'로 확립시켰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는 다양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즈베크인들 생활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의 전통을 유지 및 계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할레
- 다국어 표기 Mahalla(우즈베크어), Mahalle(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마할레
- 참고문헌(오프라인) Дадабоев Муҳаммад Яҳёҳон, Хўқанди латиф: Махаллалари ва кўчаларининг номлиниш тарих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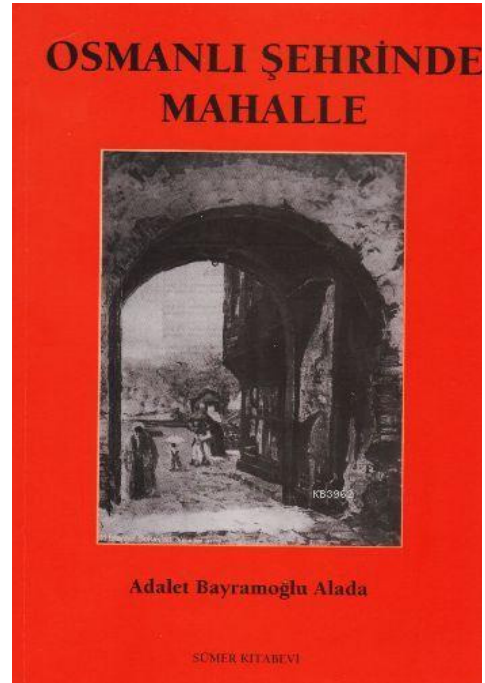
I B028 | 마할레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행정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ahalle

마할레(mahalle)는 오스만 제국 시대와 튀르키예 공화국 시대의 정착된 촌락, 즉 도시에 있는 동네와 시골의 마을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이다. 마할레는 전통적으로 종교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동질적인 인구 구성을 가졌고, 내부 조직이 긴밀하며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통적인 인식에 의하면 마할레는 대개 하나의 종교집단에 속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 결속력이 강한 무슬림 마할레에서는 마할레 모스크에 누군가가 나오지 않으면 눈에 필 정도로 주민들이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마할레 모스크의 이맘은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마할레 주민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국가 시책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부 마할레의 성원들은 대

단한 결속을 보여 자신들의 도덕률을 따르지 않는 성매매 여성이나 건달 등 위험 인물들을 마할레 밖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마할레 행정을 담당하는 이맘의 역할은 1829년부터 점차 종교인이 아닌 무흐타르(muhtar)에게 이관되었고 지방행정의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마할레에 대한 본격적이고 치밀한 분석은 매우 드물고,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고 있다. 마할레의 정의와 경계 자체가 가변적이기도 했고, 마할레 사이에 명확한 물리적 경계가 만들어지는 일은 오스만 중앙지역에서는 드문 일이어서, 외부인 및 이주민의 침투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대도시에는 많은 비무슬림 인구가 있었고, 종교적으로 혼합된 마할레



『Osmanlı Şehrinde Mahalle』 표지
Source: <https://www.eminyayinlari.com.tr>

들이 흔히 존재했다는 사실이 최근의 실증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스탄불, 이즈미르, 에디르네 등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전근대 오스만 도시 마할레의 인구 구성이 혼합적이었으므로, 마할레 모스크의 이맘이 마할레의 주민들을 통제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수의 비무슬림들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마할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향후에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국어 표기 Mahall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마할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delet Bayramoğlu Alada, Osmanlı Şehrinde Mahalle (Sümer Kitabevi, 2008.

Madoka Morita, "Between Hostility and Hospitality: Neighbourhoods and Dynamics of Urban Migration in Istanbul 1730-54)." Turkish Historical Review 7.1 2016: 58~85.

I B029 | 마흐두미 아잠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hdumi A'zam

이슬람 낙쉬반디 종단의 이론가 마흐두미 아잠(Mahdumi A'zam)의 정식 이름은 '사이드 아흐마드 이븐 마블랴나 잘라올릿딘 코드즈기 카사니 마흐무디 아잠(Sayyid Ahmad ibn Mavlyana Jaloliddin Khodjagi Kasani Mahdumi Azam)'이다. 그는 1461년 현 우즈베키스탄 코산(Kosan)에서 태어났다. 예언자의 후손의 일원으로 태어났기에 '가장 위대한 후손'이라는 의미의 '마흐두미 아잠(Makh dum-i A'zam)'이라는 경칭이 붙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스승이 그를 위대한 후손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마드라사에서 수학하던 마흐두미 아잠은 당시 정세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타슈켄트로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낙쉬반디(Naqshbandi) 종단의 칼리프(halife: 셰이흐의 이름으로 제자를 인도하다 사망 후 오르



마흐두미 아잠 영묘(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Source: <https://ziyouz.uz>

는 위치로 일반적인 의미의 칼리프와 다름) 중 하나였던 무함마드 카디(Khodja Akhrori Vali -Mavlyan Muhammad Kadi)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12년간 그 밑에서 수학하다 스승의 인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향의 상황이 혼란스러워 곧 사마르칸트로 이주하게 되었고, 때때로 부하라나 아흐시카스, 사마르칸트를 오가며 활동했다.

그는 생전에 많은 제자를 육성했으며, 페르시아어로 된 30여 편의 수피즘 이론서를 남겼다. 이들 이론서에는 주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원칙, 관용의 원리, 민족적, 인종적, 성별, 종교적, 사회 정치적, 보편 인간적인 관용에 대한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샤이바니 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샤이바니 왕실의 요청으로 『낙쉬반디 종단의 계보(Risolai bayoni silsila)』를 저술하기도 했다.

낙쉬반디 종단에서 카사니 분파의 설립자이기도 한 마흐두미 아잠은 초기 낙쉬반디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단일성 이론(Wahdat al-Wujūd)을 믿었으며, 메블라나의 책을 자주 인용했다. 그러나 기존의 낙쉬반디 전통에 반하는 몇몇 행위로 인하여 때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흐

리(cehri: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문을 읽는 것), 지크레(Zikre/Dhikr: 알라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법), 세마(sema: 춤과 노래가 있는 수행법)을 허가했고, 머리를 천 따위로 싸매지 않고 다녔으며, 대화에서 송시를 읊고, 과하게 기뻐하며, 정기 기도 이외의 기도를 대중과 함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낙쉬반디 학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마흐두미 아잠에 관한 언행과 전설이 담긴 다섯 편의 작품이 남은 것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중앙아시아 낙쉬반디 종단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마흐두미 아잠은 1542년 5월 7일 사마르칸트에서 사망했고 그의 유산은 와크프에 남겨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크두미 아잠
- 다국어 표기 Mahdumi A'zam(우즈베크어), Ahemed Kasani(튀르키예어), Makhdum-i A'zam(영어)
- 연관 검색어 존재의 단일성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Dywr>
- 참고문헌(오프라인) Tosun, Necdet. "KÂSÂNÎ, Ahmed",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4, Istanbul: TDV, 2001, pp.531~532.
- Turaev, Bakhtiyor; Muzaffar Artikov; Nafisa Nasrullaeva, *MAHDUMI-AZAM KASANI (1461-1542)*, Tashkent, 2020.

I B030 | 마흐무드 1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ahmud I

제24대 오스만 술탄이었던 마흐무드 1세(Mahmud I, 1696년~1754년, 재위: 1730년~1754년)는 무스타파 2세의 아들로, 삼촌인 아흐메드 3세가 민중반란으로 폐위되어 즉위하게 되었다. 즉위 직후에는 파트로나 할릴 반란의 여파로 정권을 잡은 하층민-에니체리 출신의 주모자들을 숙청하는 작업에 주력하여 그들을 척결했다. 1720년대 이래 나디르 샤와 아프샤르 왕조 이란과의 간헐적이고 오랜 전쟁은 1736년 평화협정에 이르렀으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것은 1746년

이었다. 1730년대 후반 러시아 및 그와 동맹한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은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시작되었고 이 시기의 오스만군은 의외로 연속하여 승전을 거두어 러시아와 합스부르크는 평화협정을 할 동기가 있었다. 프랑스가 오스만 편에서 중재해서 러시아 및 합스부르크와 맺은 베오그라드 조약(1739년)의 결과로 베오그라드를 오스만 측이 다시 얻었으며, 아작(아조프)은 러시아 수중에 남았다. 프랑스는 그 댓가로 오스만 정부로부터 상업상의 특혜를 인정받아 동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다.

이로부터 오스만 제국은 30년 가까이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누렸다. 마흐무드 1세 시대에는 이브라힘 무테페리카에 의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의 개혁을 모델로 서구식 군사개혁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프랑스의 망명 군인인 끌로드 알렉상드르 본느발 백작(훔바라즈 아흐메드 파샤)에게 포병 부대를 개혁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훈련에서 이론 및 응용수학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스탄불의 누루오스마니예를 바로크 양식으로 짓고 지금의 탁심 지역에 물 저장고를 지어 그 지명의 유래를 만든 것도 술탄 마흐무드 1세이다.



마흐무드 1세, 카프다올르 콘스탄틴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흐뭇 1세, 마흐무트 1세
- 다국어 표기 I.Mahmu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2세, 베오그라드 조약, 누루오스마니예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Mahmud 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44~345.
Abdülkadir Özcan "Mahmud 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7, pp.348~352.

I B031 | 마흐무드 2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ahmud II

제30대 오스만 술탄인 마흐무드 2세(1785년~1839년, 재위: 1808년~1839년)는 압뉘함미드 1세의 아들이자 셸림 3세의 사촌이며, 이복형인 무스타파 4세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그가 즉위한 시기는 왕위계승이 가장 폭력적인 형태를 띠었던 시기로 무스타파 4세는 셸림 3세가 반란과 정변으로 폐위된 뒤 왕위에 올랐고, 마흐무드 2세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당시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노선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 그리고 예니체리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방 토호(아이안) 세력의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마흐무드 2세는 무스타파 4세가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의 정변으로 폐위되자, 셸림 3세가 이미 살해된 상태였으므로 유일한 왕위 계승 후보로서 즉위한 것이며, 그 이후의 오스만 술탄들은 모두 그의 자손이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근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개혁군주였고, 그의 사후에 시작된 탄지마트 개혁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즉위 초, 오스만 제국은 영국 및 러시아와 전쟁중이었으며, 지방 토호(아이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위가 서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의 즉위에 공을 세운 아이안 출신의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는 이스탄불에 전국의 아이안들을 소집해 협약 문서(sened-i ittifak)를 만들어 개혁을 지지하는 대신 아이안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시도했다. 마흐무드 2세는 아이안 권력의 성장에 경각심을 가져서 곧 일어난 예니체리 반란에서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가 제거되는 것을 방관했으며, 단지 예니체리가 무스타파 4세를 복위시키지 못하게 그를 처형시켰다. 이리하여 다른 마땅한 왕위계승자가 없었으므로 예니체리는 마흐무드 2세와 일시적으로 불편한 타협을 했다.

영국과는 1812년 5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러시아와는 1812년 부쿠레슈티 조약을 체결한 뒤야 전쟁이 끝났다. 마흐무드 2세는 우선적으로 중앙집권화에 집중하여 아이안을 억제했으니, 대부분의 아이안을 전국에 걸쳐 재배치하는 것이 그 주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아이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야니나의 알리 파샤를 토벌하여 1822년 2월 처단했다. 알리 파



마흐무드 2세, 앙리 기욤 솔레진저 작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샤 토벌과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 그리스 독립 전쟁(1821년~1829년)인데, 이는 오스만 제국 안에서 가장 수가 많고 지위가 높은 비무슬림인 그리스 정교회 공동체의 충성을 의심하게 하는, 오스만 엘리트에게는 대단히 가공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리스인들의 반란은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민간에서도 무슬림들의 반(反) 그리스인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편, 정작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의 반란 진압은 지지부진했으니, 예니체리들이 반란 진압을 위해 출정하는 것을 기피했고, 전선에서도 효율적인 전투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술탄의 명으로 이집트의 군사실력자 메흐메드 알리가 보낸 이집트 군대는 신식 군대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었으니, 그들의 승리는 신식 군대 창설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결국 1826년 신식 군대 창설에 반대하여 일어난 예니체리 반란을 진압하면서 마흐무드 2세는 예니체리를 폐지하고 숙청했으며(이른바 ‘경사스러운 사건’, vak’a-i hayriye), 새로 만들어진 신식 군대는 ‘무함마드의 승리하는 군대’(Asakir-i Mansure-i Muhammediye)라 명명되었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그리스 독립 전쟁은 유럽의 개입을 초래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 함대가 1827년 10월 나바리노 항구에서 오스만-이집트 해군을 격멸시켰고, 그리스인들의 처리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게 되자 마흐무드 2세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1828년~1829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오스만 측에 더 큰 손해를 가져왔으니, 에디르네 조약에서 오스만 측은 다뉴브 삼각주와 카프카스 지역의 영토를 상실했고, 그리스 독립도 1832년에 승인하게 되었다. 그리스 독립 전쟁의 예기치 못한 결과는 이집트의 메흐메드 알리와 내전이었으니, 메흐메드 알리는 마흐무드 2세의 비타협적인 전쟁 추구 때문에 함대를 잃고 나서 오스만 중앙의 명을 공공연히 거역했다. 그는 1831년~1833년 시리아를 침공하여 차지한 후 아나톨리아로 진격하다가 러시아의 개입으로 겨우 중지했고, 오스만 중앙이 다시 시리아를 차지하려 1839년 재차 싸움을 시작했지만, 니집(Nizip) 전투로 이집트군의 월등한 전투력이 다시 입증되었다. 마흐무드 2세는 그로부터 1주일 후 폐결핵으로 사망했으니, 제국을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에 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집트와의 전쟁이 있었던 1830년대에 마흐무드 2세는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했으니, 질병 격리제도, 근대적 우편 제도, 군의 학교와 사관학교의 설립, 최고 입법 위원회(Meslisi Vala-yı Ahkam-ı Adliye)의 설치, 서구식 복장 개혁 등등이다. 개혁의 추진 과정 가운데 그의 무슬림

및 비무슬림 신민들은 모두 많은 고생을 했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흐무트 2세, 마흐무트 2세
- 다국어 표기 II. Mahmu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알리, 탄지마트, 아이안, 경사스러운 사건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Mahmud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45~347.
Kemal Beydilli, "Mahmud 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7, pp.352~357.

I B032 I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중국, 키르기스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Mahmud al-Kashgari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는 투르크 인문학자, 민속학자, 그리고 언어학자이다. 본명은 마흐무드 이븐 알-후세인 이븐 무함메드 알-카쉬가리(Maḥmūd ibnu 'l-Ḥussayn ibn Muḥammad al-Kāšġarī)이다. 1028년 또는 1029년에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 남동 해안에 위치한 도시 바르스한에서 태어났다(당시에 카라하니도프 정부 Караханидов). 사망일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몇몇 학자들은 1085년~1086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는 투르크학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아랍어로 쓴 저서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wan Lughat al-Turk)』으로 유명하다.

그는 바그다드와 카시가리의 마드라사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투르크 민족과 부족들의 영역과 국가들을 여행했고, 1072년~1074년 사이에 칼리프 알-무크타디에게 헌정된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iwan Lughat al-Turk)』을 집필했다. 아랍의 인문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쓴 이 책은 언어학, 민속학, 문학 연구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초기 투르크 방언학에 관한 유일한 기념비적 저서이다. 이 책에서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현상, 방언의 형태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사전은 중앙아시아와 동투르크스탄(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불가강과 우랄 지역의 투르크 부족과 민족에게서 채록한 구연시 창작 텍스트, 그리고 400개 이상의 속담, 격언, 금언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슈가리 마흐무트, 카쉬가르 마흐무트
- 다국어 표기 محمود الكاشغري (아랍어), Махмуд аль-Кашгари (러시아어), Махмұд Қашқари (카자흐어), Kâşgarlı Mahmud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마드라사, 키르기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V0F9>
- 참고문헌(온라인) <http://feb-web.ru/feb/kle/KLE-abc/ke4/ke4-6983.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 Т. 3. 2004. С. 502. Кратк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4. 1967.

I B033 | 마흐무드 파샤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대재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ahmud Paşa Angelovic

메흐메드 2세 시대의 대재상이었던 마흐무드 파샤(Mahmud Paşa)의 계보에 대해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귀족의 혈통을 이었다는 이야기가 비잔티움의 사료들에 나타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노보 브르도(Novo Brdo) 출신의 미하엘 앙겔루스였고, 집안이 태살리아의 세르비아 참주들 가운데 앙겔리와 관련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노보 브르도에서 스메데레보(세멘디레)로 이동하던 중 오스만군의 메흐메드 아아에 의해 포로로 잡혔는데, 그의 후원과 교육을 받아 입궁했다고 한다.

그는 에디르네의 궁정에서 한동안 교육받았고, 메흐메드 2세의 즉위 후에 오작 아아스로 시

작하여 술탄 측근으로 근무했다. 또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당시 에디르네 카프에서 에디쿨레 사이 구역의 공격을 담당했으나 당시의 정확한 관직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재상의 위치에 올라간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직후 찬다를르 할릴 파샤가 처형되었을 때는 아니었고, 자가노스 파샤의 해임(1454년)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1456년 베오그라드 포위 당시 사망한 삼촌 카라자 베이로 대신하여 루멜리 베일레르베이가 되었고, 그 무렵 대재상(vezir-i azam)이 되어 한동안 이 두 관직을 겸임했다.

그는 메흐메드 2세의 많은 원정에 참여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1458년 세르비아 원정을 맡아 골루바츠 요새를 점령했고(1460년), 해모레아 원정에도 참여하여 미스트라 참주 데메트리우스를 항복하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듬해 아마스라, 시놉, 트라브존 원정에 나섰다. 제노바의 식민도시 아마스라는 함락시켰고, 시놉은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항복을 받았으며, 트라브존도 마흐무드 파샤의 이종사촌 게오르기오스 아미루체스의 중재를 통해 비잔티움 황제 다비드를 항복시켰다. 시놉 정복 이전에 부르사에서 메흐메드 2세의 군영에 머무를 때 습격을 받아 큰 상처를 입었으나 술탄이 3일간 그의 곁을 지키는 등 정성을 쏟았고 곧 회복했다.

1462년 블라드 드라쿨을 상대로 한 왈라키아 원정에서 크게 성공했으며, 여름에는 미달리(미탈레네/레스보스) 섬의 정복에 성공하여 섬의 공작을 포로로 얻었다. 1463년 보스니아 원정에서는 야이차로 도망한 보스니아 왕 스테판 토마세비치와 협상해 항복을 얻어냈으나, 이 과정에서 술탄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또한 베네치아의 미달리 섬 포위 공격을 물리쳤고, 1463년~1464년에는 헝가리 원정으로 헝가리군의 남하를 막았다. 1467년 알바니아 원정에 참여했고, 1467년~1468년의 카라만 원정에서 코니아 등의 성채를 정복했는데, 도주한 카라만 국왕 피르 아흐메드를 추격했으나 잡지는 못했다. 이 사건을 그의 경쟁자 룸 메흐메드 파샤가 술탄에게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술탄은 한동안 화를 누르고 마흐무드 파샤에게 카라만 주민들을 이스탄불에 이주시키는 임무를 맡겼으나, 이때 마흐무드 파샤가 일부 주민들을 현지에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퍼지자 대재상직과 루멜리 베일레르베이 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그는 겔리볼루 산작베이 겸 선단의 장이 되어 1470년 에리보즈(에우보에아) 정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1472년에는 대재상으로 다시 기용되어 악코윤루의 우준 하산과의 아나톨리아에서의 결전이었던 오틀룩벨리 전투에서 상당한 공을 세웠으나, 역시 경쟁자들의 모함으

로 해임되었다. 생전에 사이가 나빴던 무스타파 왕자가 죽었을 때 조문했으나 술탄은 그를 냉랭하게 대했고 지속된 모함으로 의심을 사서 체포됐고 에디쿨레 성채에 투옥된 후 1474년 살해되었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슬픔으로 받아들여졌고, 일반 백성으로부터도 ‘성인’(veli)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에게는 많은 저서가 헌정되었고, 그 자신이 시인으로 상당한 재능을 발휘했다. 생전에 선행을 많이 베풀어 이스탄불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마흐무드 파샤’라는 구역에 시장, 모스크, 도서관, 목욕탕, 학교 같은 시설들이 있다. 앙카라, 부르사, 에디르네, 하스콰이, 소피아 등지에도 그의 이름이 붙은 소규모 시설들이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파샤, 마흐무트 파샤

● 다국어 표기 Mahmud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Şehabeddin Tekindağ, “Mahmud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7 2003, pp.376~378.

C. H. Imber, “Mahmud Pash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6 1991, pp.69~72.

I B034 |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디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ahmudxo‘ja Behbudiy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디이(Mahmudxo‘ja Behbudiy)는 우즈베키스탄의 작가, 극작가, 언론인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다. 그는 1875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마르칸트에서 교육받았으며, 주법원에서 복무하다가 이슬람 법학자인 무프티(mufti)로 임명되었다.

베흐부디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러시아, 타타르스탄, 바시키르 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불행과 빈곤의 근본적 원인은 무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계기

로 그는 진보주의자가 되어 사마르칸트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신문 <사마르칸트(Samarkand)>와 <거울(Oyna)>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계몽 및 개화에 초점을 둔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다이(Mahmudxo'ja Behbudiy)는 1911년 극작품 「파다르쿠쉬(Padarkush)」를 집필했지만 출판 허가를 받지 못했다. 1913년이 되어서야 우즈베크어와 타지크어로 작품을 출판했고,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부하라, 안디잔, 나만간, 카르시, 코칸드, 카타코르곤(Kattaqo'rg'on) 극장에서 공연했다. 이 작품은 예술적 기교와 가감 없이 사람들의 삶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자디드 문학으로서 지식과 계몽적 교훈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우즈베크 극작법 형성과 특히, 계몽전통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공연 및 연극학 이론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연극의 교훈적이며 심미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투르키스탄 전역에 대중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극장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는 「연극이란 무엇일까(Teatr nimadir)」, 「사마르칸트에서 연극(Samarqandda teatr)」, 「투르키스탄의 첫 번째 극장(Turkistonda birinchi teatr)」, 「역할 맡아줄 배우들이 없다(O'ynayturg'on odam yo'qdir)」, 「뮤지컬과 시(Teatr musiqiy, she'riy)」 등이 있다. 이처럼 그는 계몽주의 이념을 보급하고, 차르 식민정책을 비판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민주국가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다이(Mahmudxo'ja Behbudiy)는 1917년 코칸드(Qo'qon) 자치구의 고위급 관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소비에트 정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하지만 1919년 사마르칸트로 여행길에 오른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다이(Mahmudxo'ja Behbudiy)는 샤희리사브즈(Shahrisabz)에서 간첩으로 몰려 카르시에서 처형당하고 말았다.

니호니는 『아스라한 태양(Zavolli quyosh)』, 출판은 『마흐무드호드자를 기억하며(Mahmu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다이
Source: <https://corp.uzairways.com>

dxo'ja xotirasi)』, 피트랏은 『나는 베흐부디이의 묘지를 찾아봤다(Behbudiyning sag'anasini izladim)』, 아이니는 『베흐부디이의 영혼(Behbudi ruhini ittixof)』라는 작품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는 독립 이후 복권되었으며, 그의 작품들도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마흐무드 호자 베흐부디이(Mahmudxo'ja Behbudiy)는 민족주의자, 계몽주의자 및 애국주의 예술가로서 우즈베크 극작법의 기초 및 근간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인물이다. 베흐부디이는 역사적으로 계몽주의자와 투르키스탄 자디드 운동가들의 지도자였으며 우즈베키스탄 극작법과 극예술의 창시자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흐무드허자 베흐부디이, 마흐무드호자 베흐부디
- 다국어 표기 Mahmudxo'ja Behbudiy(우즈베크어), Махмудхожа Бехбудий(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lku0>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uzbek-ziyolilari/mahmudxoja-behbudi/>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aim, *Mahmudxoja Behbudiy*, O'zbekiston, Toshkent, 2011.
Mirzayev Saydulla, *XX Asr O'zbek Adabiyoti*, Yangi asr avlodi, Toshkent, 2005.
Qosimov B. va boshqalar, *Milliy uyg'onish davri o'zbek adabiyoti*, Ma'naviyat, Toshkent, 2004.

I B035 | 마흐무르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axmur

우즈베키스탄의 문학가 마흐무르(Maxmur)는 18세기 후반에는 코칸드 노르보타헌(Norbo'taxon)의 마드라사 교사였다. 그는 당대 저명한 지식인이자 시인이었던 셰르무함마드 악말(Shermuhammad Akmal) 가(家)에서 태어났다. 마흐무르(Maxmur)의 생몰 연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우즈베크어와 페르시아어(타지크어)에 능통했던 덕분에 두 언어를 적절히 조합하여, ‘무

람마(mulamma)’ 스타일의 작품을 썼다. 마흐무르는 자신의 작품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 특히 고위직을 주로 등장시켰다. 그는 작품을 통해 그들의 부정부패, 무지, 억압과 같은 당대의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했다. 동시에 이로 인해 지식인들이 겪게 되는 가난과 정신적 고통을 다루었다.

마흐무르(Maxmur)의 대표작 『하팔락(Hapalak)』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팔락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통치자에게 보내는 청원 형식의 가잘(g’azal)이다. 이 작품의 언어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실제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0년대까지 그의 작품은 『시 선집(Majmuat ush-shuaro)』에 인용된 「하팔락(Hapalak)」 등 5개의 가잘(g’azal)과 커리 쿤두지이(Qori Qunduziy)의 『타와리히 만주마(Tavorihi manzuma)』에 나오는 일부 시만 알려졌다. 문학 연구자들은 이 시들을 통해 마흐무르의 작품과 창작 활동을 연구했다. 1950년대 초 코칸드 시인 차르히이(Charxiy)와 사상가 폴라트전 더물라 카유모프(Po’latjon Domulla Qayyumov)는 마흐무르의 희곡 작품들을 포함한 필사본을 발견했다. 이 필사본에서 약 70개에 달하는 가잘(g’azal), 무함마스(muxammas), 마스나비이(masnaviy) 형태로 창조된 희곡 작품들을 발견했다. 아지즈헌 폴라티비치 카유모프(Azizxon Po’latovich Qayumov)는 그의 작품을 연구하여 『마흐무르(Maxmur, 1956)』를 출간했다.

마흐무르는 19세기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흐무르

● 다국어 표기 Maxmur(우즈베크어), Maxmup(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차르히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maxmur-1844>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 Vohid,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67.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Orzibekov Rahmonqul, *Ozbek adabiyoti tarixi XVII-XIX*, O’zbekiston Yozuvchilar uyushmasi Adabiyot jamg’armasi nashriyoti, Toshkent, 2006.

Qayumov A, *Maxmur*, Fan, Toshkent, 1956.

I B036 | 마흐무트 마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ahmut Makal

마흐무트 마칼(Mahmut Makal)은 튀르키예 농촌문학(Köy Edebiyatı)을 창시한 시인이자 작가이다. 튀르키예의 농촌문학은 마흐무트 마칼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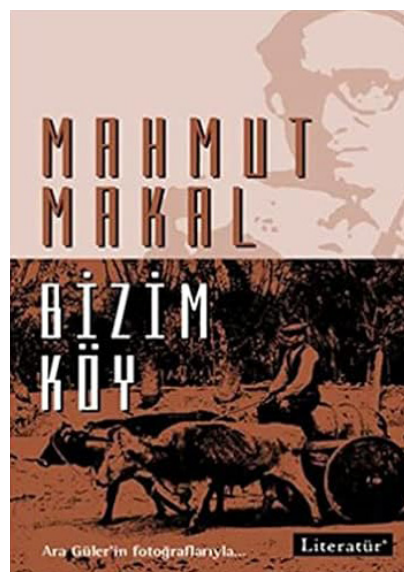
튀르키예 공화국은 1806년 발발한 전쟁으로 영토와 경제, 인적 자원들을 잃고 쓰러져 가는 제국에서 다시 출범했다. 독립 전쟁 중이던 1920년에는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8%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그중 여성은 3%도 되지 않았다. 1927년 튀르키예 인구조사 결과 인구수는 1,4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78%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골 사람 중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했다.

1940년에 문을 연 마을학교(Köy Enstitüleri)의 목표는 기회가 제한된 시골 어린이들을 교육하여 그 어린이들을 마을에 필요한 교사나 보건 공무원과 같은 직업종사자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문맹율을 퇴치해 나갔는데, 마을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문학에 입문하면서 문학적 지평은 점차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성장한 ‘마을학교 세대’는 튀르키예 문학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마흐무트 마칼(Mahmut Makal)이 그 대표적인 작가이다.

마칼은 1930년 약사라이 데미르지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할아버지 쉬윅 쉴레이만은 독립 전쟁에서 전사했고, 친할아버지는 참전 중 부상을 당하여 절름발이 쉴레이만(Topal Süleyman)이라고 불렸다.

1930년대 튀르키예에는 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1937년 드디어 마흐무트 마칼의 동네에도 학교가 세워졌고 덕분에 마칼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마칼은 1942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브리즈 마을학교(İvriz Köy Enstitüsü)에 등록했다. 마칼은 자신이 다녔던 마을학교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마을학교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별처럼 일하고, 직접 쌀을 수확하여 밥을 짓고, 교실과 침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수로를 직접 파고, 수도관을 직접 깔고,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입을 옷을 직접 재봉하고, 포도밭과 정원을 직접 가꾸고, 소와 양을 몰아서 젖을 짜는 공동체였다.”

그는 마을학교를 통해 자신이 문학과 연결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마을학교에 입학한 그 주에 교육부 장관 하산 알리 유제와 통구취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선배 형들이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형들이 손에 들고 있는 책들을 보고 학교 도서관에 갔다. 얼마 뒤 고등 마을학교(Yüksek Köy Enstitüsü)에서 교생 실습을 나온 교사 베키르 세메르지가 국어(튀르키예어) 시간에 사바 핫딘 알리의 책 『물레방아(Degirmen)』를 텍스트로 수업했다. 나는 이 『물레방아』와 러시아 소설가 고리키의 『이제르길 노파(Kocakarı İzergil)』에 흠뻑 빠졌다. 신선하면서도 씩씩한 이야기였다. 이 두 권은 내가 현실에서 마주한 첫 문학작품이었다.”



『우리 마을 (Bizim Köy)』 표지
Source: <https://tr.wikipedia.org>

마을학교는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었기에 마칼은 학교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키워나갔다. 다행히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도서관에서 당시 문학잡지와 세계 고전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뒤 1947년 교사로 임용되었고, 글쓰기도 이때부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글은 1948년 문예지 <와르륵(Varlık)>에 기고한 자신의 마을을 주제로 다룬 것이었다. 1950년에는 『우리 마을 (Bizim Köy)』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튀르키예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 마을』이 출판되자 튀르키예 정치계, 문학계에서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정권이 바뀌자마자 마흐무트 마칼은 체포되었고 더는 교직에 있을 수 없게 됐다.

이어 그는 1952년 『꿈과 현실(Hayal ve Gerçek)』, 1954년에는 『고향의 주인(Memleketin Sahipleri)』을 출판했고, 독자들의 책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마을학교 교사로 6년 동안 재직하다가 앙카라 가지 대학교를 졸업한 마칼은 안탈리아, 앙카라, 아다나에서 초등교육 교육감으로 근무했다. 근무 시 안탈리아에서 체험한 내용은 『메마른 사랑(Kuru Sevdâ, 1957)』으로, 앙카라에서 지낸 이야기는 『시골로 떠난 사람들(Köye Gidenler, 1959)』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마흐무트 마칼은 작품에서 튀르키예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마칼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 1962년 영국으로 갔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세상 공기(Ötelerin Havası, 1965)』라는 책으로 펴냈다. 1965년에는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에 체류했다. 마칼의 글이 정치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자 1966년에는 행정에도 관여하게 된다. 창작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마칼은 이 기간을 소중히 여겼다. 낙후된 시골 완(Van) 지역에 근무하면서 지역 사회 문제를 『땅 밑 아나톨리아(Yer Altında Bir Anadolu, 1967)』라는 책에 담았다.

1968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된 마칼은 가난에 시달렸다. 다행히 1971년부터 1972년까지는 베네딕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문학을 가르쳤다. 마칼은 1966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봉사상을 받았고, 196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청년으로 뽑히기도 했다. 같은 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공로상을 받은 마흐무트 마칼은 문학가 협회에서도 금메달을 받았다.

1980년 튀르키예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났던 시기에 마칼은 독일에 있었고, BBC의 ‘향토 사회에 보내는 편지(Köye Mektup)’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칼은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했다. 이 방송 때문에 마칼은 튀르키예로 돌아왔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흑해 구리광산에서 간신히 노동자로 일을 구했다. 그러나 당시 엘리트 정치가들의 방해로 그마저도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 결국 구직을 포기한 그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썼던 기록을 편집하여 『한 노동자의 일상(Bir İşçinin Günlüğünden, 1980)』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마흐무트 마칼은 튀르키예 문단에 등장한 ‘시골 마을학교 출신’ 첫 세대이다. 그리고 마을학교 세대에서 문하생을 키워낸 선구자이기도 했다. 마흐무트 마칼은 1950년대 마을학교 출신으로 파키르 바이쿠르트, 두르순 악참, 바샤란, 위미트 카프탄즈오을루, 알리 케말 교우쥬카라, 오스만 샤흐, 하산 투란, 하산 크야페트, 케말 부르카이 등 뛰어난 업적을 남긴 많은 시인과 작가를 양성했다.

2018년 8월 10일 생을 마감한 마흐무트 마칼의 묘지는 앙카라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흐뭇 마칼
- 다국어 표기 Mahmut Maka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rak Mehmet, *Köy Enstitülü Yazarlar Ozanlar*, Töb-Der Yayınları, Ankara, 1978.

Bayrak Mehmet, *Köy Enstitüleri ve Köy Edebiyatı*, Özge Yayınları, Ankara, 2000.

Kocabaş Kemal(Yayına Hazırlayan), *Mahmut Makal'a Armağan*, Yeni Kuşak Köy Enstitüleri Derneği Yayınları, İzmir, 2011.

I B037 I 막잔 주마바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Magzhan Zhumabai

막잔 주마바이(Magzhan Zhumabai)는 1893년 악몰라 지역의 이슬람 신앙심이 강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이슬람 시문학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후 주마바이는 페트로파블롭스크로 가서 아랍어, 이란어, 튀르키예어를 공부했고 우파에서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했다. 1912년부터 주마바이는 카자흐 언어로 시를 쓰고 문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카자흐 민족과 민족주의적 사고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민족주의적 알라쉬 오르다 정부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주마바이도 가담했다. 카자흐인의 자치국가를 건설하려는 염원을 가진 카자흐 지식인이라면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소비에트 정권이 강화되면서 카자흐인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자 주마바이는 모스크바로 이주했다. 모스크바에서 주마바이는 주로 레르몬토프, 고리키 등 러시아 작품과 유럽 작가의 작품을 아랍어, 카자흐어 이란어 및 튀르키예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 이들 번역 작품이 주마바이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이때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막잔 주마바이
Source: <https://bolashaq.edu.kz>

1927년 카자흐 공화국으로 돌아와 교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주마바이의 인생 행로는 과거 그가 관여했던 알라쉬 오르다 정부와의 관계와 카자흐 민족주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주마바이는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받고 투옥되었고, 이러한 생활은 카렐리아 지역과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유형소에 서도 이어졌다. 1934년에 막심 고리키의 청원으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지만, 주마바이는 결국 1935년 알마티에서 소련 국가인민위원부에 체포되어 1938년에 처형되었다. 이른바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막잔 주마바이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자국어인 카자흐어를 비롯하여 이란어, 튀르키예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했다. 그는 철저한 카자흐 민족주의 성향으로 카자흐스탄 국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그잔 주마바이
- 다국어 표기 Мағжан Жұмабай Бекенұлы(카자흐어), Магжан Жумаба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막잔 주마바예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iWu2>
<https://www.youtube.com/watch?v=LRCkrVPpvc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olashaq.edu.kz/en/novosti-en/alash-orda-magzhan-zhumabayev/>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Ⅰ B038 Ⅰ 만구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angus

만구스는 몽골의 여러 민족의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서 부족에 따라 만가드(мангад: 부라트), 만-가드하이(ман-гадхай: 부라트), 만가스(мангас: 오이라트 칼묵), 만가(манга: 할-하스크), 만게(мангэ: 다구르스크), 만구드제(мангудзе: 몽고르스크)로 불리기도 한다. 다른 몽

골 신화의 악한 존재들과 달리 만구스는 주로 설화적 서사 세계에만 등장한다. 만구스는 서사적 시대의 옛 사건의 등장인물이며, 후일 서사시의 주인공에 의해 제거된다. 『게세르』의 부랴트 판본에서 만구스는 땅에 떨어진 사악한 동쪽의 텡그리 아타 올란(Ата Улан)의 유해가 변해 생겨났다고 하며, 오이라트 서사시에서는 해로운 황색 바다의 거품에서 생겨난 검은 할머니 괴물이 낳은 개구리 형상의 75마리의 검은 만구스가 등장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서사시의 주인공인 칸-하란구이(Хан-Харнгуи)가 마법으로 변해 만구스가 되었다 한다.

만구스는 도달하기 어려운 중간계(사막이나 매우 춥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 땅)의 끝에 살고 있으며, 하계에 나타나긴 하지만 하계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만구스는 유르트나 정자, 궁전 등에 거주한다. 만구스는 이름이 없이 묘사하는 단어와 결합되는데, ‘15개의 머리를 가진 아트가르 황색 만구스’, ‘20개의 머리를 가진 호트고르 검은 만구스’ 등으로 불린다. 뱀의 형상을 닮은 만구스의 외양의 특징은 여러 개의 머리(12, 15, 22, 25, 35 등)를 가졌다는 것이다. 만구스의 색은 황색과 검은색이며 그 입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를 정도로 거대한 몸을 가졌으며 그 배는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만구스에게는 가족도 있는데 그의 아내와 딸은 추악한 마녀로 영웅-주인공을 공격하기도 하며, 그의 아들은 칼이나 불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구스는 주인공의 고향과 가족을 파멸시키고, 재산과 가축, 공물을 약탈하지만, 무엇보다 주인공의 아내나, 누이, 또는 어머니를 납치해 간다. 여성 납치는 만구스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설화에서 만구스는 식인귀, 흡혈귀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설화와 서사시에 등장하는 만구스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라마교의 영향으로 만구스의 형상은 다소 변화하게 된다. 다수의 머리(영혼)는 여러 괴물의 구현으로 발전하면서 후대 만구스 형상의 주요 특징인 변신 능력이 강조된다. 인도, 티베트 신화의 여러 악령의 형상이 몽골 만구스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만구스, 특히 설화적 유형의 만구스는 여러 투르크 민족의 구비 문학에서도 등장한다. 살라르 민족의 문기스카르(мунгыскаp)와 황색 위구르, 투바, 야쿠트 민족의 만기스(мангыс)의 음성학적 형태는 이들 형상이 몽골의 만구스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알타이족의 몬우스(монъус, 적이란 의미), 몬구스, 모구스, 무즈(монгус, могус, муз, 거인, 무사란 의미) 등의 단어도 만구스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몽골 신화에서의 만구스와 달리 투르크 민족의 유사형상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몽구스, 망구스, 먼구스
- 다국어 표기 мангус(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게세르, 유르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Неклюдов С.Ю.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монгольских народов. Устные и литера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М.:Наука, 1984, 98, с. 111~112.

I B039 | 만그디시레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angdyshire

만그디시레(Mangdyshire)는 에를릭과 싸우기 위해 조물주 울겐이 창조한 무사이다. 그를 창조하기 위해 울겐은 돌에서 액체를 추출해 특별한 합금을 고안했는데, 이 때문에 만그디시레의 육체는 돌보다 더 단단하다고 한다.

울겐은 만그디시레가 에를릭과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나누어 주었고, 만그디시레는 먼저 케레이-칸(Керей-Кан)과 비-카라시(Бий-Караш)를 무찌른 다음 에를릭과 싸우기 시작했다. 에를릭은 자기가 만든 짐승들(곰, 오소리, 두더지)을 내보내 만그디시레를 저지하려 했지만, 울겐이 만들어준 청동 창으로 만그디시레는 에를릭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다. 만그디시레는 에를릭을 땅으로 추락시켰고, 그가 만든 세계를 파괴했다. 에를릭의 부하들은 에를릭의 뒤를 따라 떨어져 바다로, 산으로, 가축 속으로, 숲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에를릭의 부하들은 자신이 떨어진 곳의 정령이 되었다. 만그디시레의 이름은 보통 책과 칼로 묘사되는 북방 불교의 문수보살(만주시리Manjushri)에서 기원한다.

전설에 따르면 만그디시레는 거대한 몇몇 물고기로 이루어진 우주의 기둥을 지켰는데, 그 물고기 위에 울겐이 우주를 고정했다. 만그디시레는 중앙에 있는 물고기의 아가미에 고리로 고정된 올가미를 하늘에서 쥐고 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만그드쉬레
- 다국어 표기 Мангдышир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에를릭, 올겐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таш, С. С. “Мифы, легенды, предания алтайцев (к вопросу об идейно-тематическ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 терминологии).” Культура и текст 2 1997, с. 38.
Сагалаев, Андрей Маркович. Алтай в зеркале мифа.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1992, с. 29~39.

I B040 I 만나 왕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Mannaëa

만나 왕조는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현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존재했던 국가이다. 만나 왕조는 우르미야 호수우르미야 호수(Urmiya gölü, 지금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 주변에 존재했던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였으며, 그 수도는 이지르투(Izirtu)였다. 역사가들은 만나 왕조(Manna dövləti)를 쿠티(kuti), 룰루비(lullubi), 투루크키(turukki) 부족들의 동맹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의 연속체라 주장하고 있으며, 만나 왕조를 중동 최초의 투르크 국가로 여기는 역사학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B.C. 843년 살마나사르 3세의(살마나사르 3세, 3-cü Salmanasar, 아시리아의 왕) 설형문자 비문에는 만나 왕조와 만나 왕조 최초의 왕인 우다킨(Udakin)에 대한 기록과 함께, 당시 살마나사르 3세의 군대가 만나 왕조 국경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B.C. 829년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리아인들의 설형문자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나는 우다르키(Udarki)의 나라에 접근했다. 내 무기의 눈부신 빛에 겁을 먹은 우다르키(Udarki)는 수도 이지르투(Izirtu)를 떠나 도주했다. 나는 그의 뒤를 쫓아가, 그의 많은 가축과 재산을 빼앗았다. 나는 그들의 도시를 멸하고 불에 태웠다.’

아시리아인들의 비문에 따르면 만나인들이 말, 낙타, 소, 양 등 가축 사육에 능했으며, 만나 왕

조에서는 구티족(kutilər)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순비족(sunbilər), 타우르족(taurlar), 달리족(dalilər)도 함께 거주했다고 전해진다. 이그라르 알리에프(İqrar Əliyev)는 구티족이 사용하던 구티어를 캅카스-후리아어에 속한다고 했으며, 다크노프(İ.M. Dyakonov)와 라이네르 미카엘 보에메르(Rainer Michael Boehmer)는 구티어가 엘람어(elam dilləri) 언어 체계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멜리키쉬빌리(Q.A.Melikişvili)는 구티어가 자그로스-엘람어(Zaqros-elam dilləri) 언어 그룹에 속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마흐무드 이스마이일로프(Mahmud İsmayılov)와 기야새딘 게이불라예프(Qiyasəddin Qeybullayev)는 이들 언어가 튀르크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만나 왕조 내부에서 사용되었던 구티어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만나 왕조에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던 부족들도 함께 거주했다. 그란토프스키(E.A.Qranto vski)에 따르면, 기원전 9세기부터 8세기까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던 부족들은 캅카스 산맥에서, 일부는 투르키스탄(Türkistan)영토에서 이란 고원으로 이주했다.

만나 왕조의 몰락은 바빌로니아의 아시리아 공격과 관련이 있다. 바빌로니아의 통치자 나보팔라사르(Nabopalasar, 기원전 605년 사망)는 아시리아를 공격했는데, 당시 아시리아의 정부 관리들과 그들을 도왔던 만나 왕조의 만나인들을 모두 체포했으며 이를 계기로 만나 왕조는 멸망한다.

고고학자들은 만나 왕조 시대의 많은 성-도시(qala-şəhərlər)의 유적들을 발견했는데, 당시 고인의 소지품을 함께 매장하던 풍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만나 왕조의 많은 유물이 전해지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만나이, 만나이 왕조, 만나이 국가
- 다국어 표기 Manna dövləti(아제르바이잔어), Manna devleti(튀르키예어), Mannaea(영어), مانیون(아랍어), Reino de Mannai(스페인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kr/flqa>
- 참고문헌(오프라인) Ağasıoğlu Firudin. *Qədim türk eli* (Saqa-Qamər boyları). Bakı, “Çıraq”, 2006, 128 səh. Ağasıoğlu Firudin. *Azərbaycan türklərinin İslamaqədərki tarixi*. (Doqquz Bitik); 3-cü Bitik: Azərbaycanda qurulan qədim dövlətlər. Bakı, 2014, «Ağrıdağ» nəşriyatı, 310sə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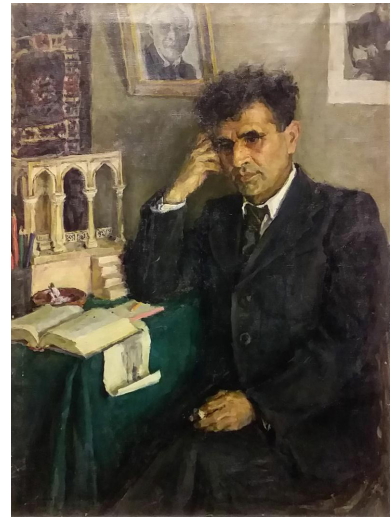
Azərbaycan tarixi. Yeddi cildə. Birinci cild (Ən qədimdən – b.e. 3-cü əsri). Bakı. “Elm”. 2007. 520 səh.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Qaşqay Solmaz. *Qədim Azərbaycan tarixi mizi yazılı qaynaqlarda*, Bakı 2006.
 Qeybullayev Qiyasəddin. *Azərbaycan Türklərini təşəkkül tarixindən*, Bakı, 1994.
 Mahmud İsmayıl. *Azərbaycan xalqının yaranması*. – Bakı, 1995.
 Rehimov Arif. *Azərbaycan paleotoponimiyasında Maq etnonimi*, “Azərbaycan onomastikası problemləri haqqında konfransın materialları”. Bakı, APİ nəşri, 1986, səh. 83~85.

I B041 | 만년 우이구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연
- 유형 소분류2 연극 연출가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 라틴 문자 Mannon Uyg'ur

만년 우이구르(Mannon Uyg'ur)는 우즈베키스탄의 연극인이다. 그의 본명은 압두만년 마지더브(Abdumannon Majidov)이다. 1897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1909년~1914년 타슈켄트의 아흐마트 호자 마드라사(Ahmad Xo'ja)와 근대식 학교에서 수학했다.

1918년 우즈베키스탄에 국립극장이 설립되는데, 이는 만년이 주도한 것이다. 이 극장에서 만년은 어비드 잘리러브(Obid Jalilov), 사이피 커리 옐리머브(Sayfi qori Olimov), 아브러르 히도야터브(Abror Hidoyatov)와 같은 젊은 연극인들과 함께 활동했다. 만년은 극장 시스템을 정비하고, 감독, 극작가 및 배우도 맡았다. 「투르키스탄 의사(Turkiston tabibi)」는 그가 집필하고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이외에도 「파니의 집(Faniy uy)」, 「12시간짜리 정부(O'n ikki soatlik hokimiyat)」와 같은 작품의 대본도 직접 집필하고, 무대에 올랐다. 물론 다른 작가들이 쓴 다수의 작품에서도 배역을 맡아 수준 높은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만년 우이구르, Abdulhaq Abdullayev 作
 Source: <https://ocau.uz>

이후 그는 연극 연출도 시도했다. 1919년~1920년에 함자의 「부자와 하인(Boy ila xizmat chi)」, 「유독한 삶 또는 사랑의 희생자들(Zaharli hayot yoxud ishq qurbonlari)」, 「중상자들의 처벌(Tuhmatchilar jazosi)」과 같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만년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중 1924년~1927년에 모스크바의 우즈베크 드라마 스튜디오로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의 무대 스타일과 예브게니 바흐탄고프의 연출법의 이론과 실재를 체득하고 귀국한 만년 우이구르는 「아르신은 부자이다(Arshin mol olan)」,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 「파르허드와 쉬린(Farhod va Shirin)」과 같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 극들은 우즈베크 뮤지컬 장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햄릿」, 「오델로」, 「검찰관」과 같은 서구 유럽과 러시아의 고전 걸작들을 연출했다.

전쟁 시기 만년은 「침략자에게 죽음(O'lim bosqinchilarga)」, 「잘릴릿딘 만구베르디(Jaloliddin Manguberdi)」, 미허엘스와 함께 공동연출한 「무칸나(Muqanna)」 등 영웅주의, 애국심과 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945년에 그가 연출한 「알리셰르 나비이(Alisher Navoiy)」는 우즈베키스탄 무대 역사상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반세기 이상 공연되고 있는 이 고전 작품은 여전히 우즈베크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만년 우이구르는 번역가로도 활동했다. 그는 몰리에르의 「수전노」, 매매드 새이드 오르두바디(Məmməd Səid Ordubadi)의 「안달루시아의 마지막 날들(Əndəlusun son günləri)」, 위제이르 바즈베요프(Üzeyir Hacıbəyov)의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다(Na qondur, na qondirur)」 등 극본을 러시아어나 아제르바이잔어에서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그는 부하라, 초르조이(Chorjo'y), 카르키(Karki) 등 여러 도시에 극단을 조직하고 노동자와 청년극단을 이끌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연극계의 미래를 이끌 감독을 비롯한 차세대 예술가들을 양성했다. 아브로르 히더야터프(A. Hidoyatov), 어비드 자릴러프(Obid Jalilov), 버버저 너프(B. Bobojonov), 샤르프 카유머프(Sharif Qayumov), 사이피 커리 올리머프(Sayfi qori Olimov), 서라 에션투라예바(Sora Eshonturaeva), 슈쿠르 부르하너프(Shukur Burhanov), 올림 허자예프(Olim Xojaev)를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문화계를 이끌어간 많은 인물들이 그의 제자다.

그는 1932년 우즈베키스탄 '국민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알리셰르 나비이(Alisher

Navoiy)」를 공연한 공로로 1949년에 국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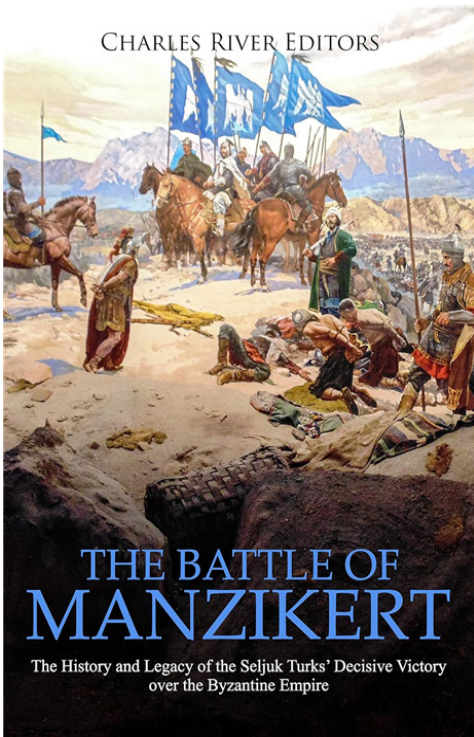
1955년 만년 우이구르는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타슈켄트 중심가 지역과 수르헌다리여(Surxondaryo) 주의 뮤지컬 극장은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 타슈켄트 국립 예술대학교도 만년 우이구르(Mannon Uyg'ur)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만년 우이구르는 2001년에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만논 우이구르, 만논 우이구르
- 다국어 표기 Mannon Uyg'ur(우즈베크어), Маннон Уйгур(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milliyteatr.uz/truppa/rezhisserlar/155-mannon-uygur.html>
<https://arboblar.uz/uz/people/mannon-uygur>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Turssunov Toshpo'lat, *XX asr o'zbek teatri tarixi*, Toshkent, 2009.

I B042 | 만지케르트 전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ttle of Manzikert

만지케르트 전투는 셀주크 조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과 비잔틴의 황제 디오게네스 사이에 벌어진 1071년의 전투를 말하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셀주크는 아나톨리아 정복의 교두보를 쌓게 되었다. 비잔틴 제국 동부전선인 아나톨리아 지방이 셀주크 투르크의 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자, 그에 자극받은 로마누스는 대군을 모아 그곳을 평정하려 했다. 1071년 봄 그는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아르메니아 일부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남쪽 지류를 따라 아르메니아로 진입했다. 투르크멘인 부대를 비롯한 용병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는 만지케르트(지금의 튀르키예 말라즈키르트) 시 부근에서 둘로 나뉘어 일부는 가까이 반(Van) 호수에 면해 있는 아클라트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앞으로 진격하고 나머지는 그와 함께 만지케르트로 들



『만지케르트 전투』 표지

어갔다. 비잔틴의 침공 소식을 듣고 서둘러 만지케르트로 출정한 알프 아르슬란은 그곳에서 황제군을 맞이했다. 만지케르트를 포기하고 아클라트 포위 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아클라트 도로의 계곡으로 들어갔으나 정찰병을 보내 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아서 투르크인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는 용감히 싸웠으며 이길 가능성도 있었으나 전투 전날 밤 투르크멘 부대가 적의 편으로 넘어갔고 장군 중의 한 사람인 안드로니쿠스 두카스도 패전의 기미를 느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달아남으로써 전력이 약해졌다. 특히 셀주크군은 50,000명에 불과했지만, 매복과 기습작전을 적절히 구사해서 셀주크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비잔틴 황제 디오게네스와 많은 사령관이 생포되었다. 알프 아르슬란은 비잔틴 황제를 처형하는 대신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그를 콘스탄티노플로 돌려보냈다. 강화조약의 내용은 비잔틴의 연공 지급,

크즐 오르막과 타르수스 동부지역을 셀주크에 양도할 것, 그리고 전쟁포로의 석방 등이었다. 이 전투는 투르크 민족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투르크 민족사가 아나톨리아에서 새롭게 시작되어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비잔틴의 핵심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게 됨으로써 십자군 전쟁에서 보여 주었듯이 향후 역사 전개에서 이슬람 세력의 방어와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만제케르트 전투, 말라즈기르트 전투
- 다국어 표기 Manzikert(영어), Malazgir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kr/Mjrz>
- 참고문헌(오프라인) 록 관텐,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Carey, Brian Todd; Allfree, Joshua B. & Cairns, John, *Warfare in the Medieval World*. Barnsley: Pen & Sword Books. Konus, 2006.

Fazli. *Selçuklular Bibliyografyası*. Konya: Çizgi Kitabev, 2006.

I B043 I 말 사육 축제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Horse breeding festival (Traditional spring festive rites of the Kazakh horse breeders)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주 울르타우 지역의 테리사칸(Terisakkan)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전통적으로 말 사육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가 열린다. 말 사육자들은 기존의 말 사육을 종식하고 새로 사육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는 초원과 유목 생활에 근간을 둔 유목민들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대개 이러한 의식은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치며, 행사진행도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암컷 말 묶기(비에 바을라우 Biye baylau)이다. 무리에서 암말과 새끼들을 떼어 놓고 초유 짜기 의식을 한다. 즉 말젖을 처음으로 짜내는 것인데 이때 노래, 춤, 놀이 등으로 축하한다. 두 번째는 종마의 교접(아이기르 코수 Ayghyr kosu)이다. 무리 속 말들의 교배를 위한 의식이다. 세 번째는 크므즈 나눔 의식(크므즈 무른득 Kymyz muryndyk)이다. 이 크므즈는 채소 섭취를 하지 않는 유목민들에게 비타민을 공급하는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말 사육을 위한 축제는 대개 3주 동안 행해지며 매년 봄이 되면 주기적으로 거행된다. 그러나 카자흐인들이 점차 정착 생활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전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일부 말 사육사들은 전통적 형태를 현재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켜 보존 시킴으로써 전통이 보존되고 있다. 2018년에 유네스코는 카자흐스탄 말 사육사들의 봄 축제를 세계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자흐스탄 말 사육사들의 봄 축제



말 사육 축제

Source: <https://ich.unesco.org>

- 다국어 표기 Традиционные весенние праздничные обряды казахских коневодов (러시아어), Қазақ жылқы өсірушілерінің дәстүрлі көктемгі мерекелік рәсімдері(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축제
- 멀티미디어 링크 카자흐스탄 말 사육사들의 봄 축제 사진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spring-festive-rites-of-the-kazakh-horse-breeders-01402>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chcourier.unesco-ichcap.org/article/traditional-spring-festive-rites-of-kazakh-horse-breeders/>
- 참고문헌(오프라인) Janet Blake, Lucas Lixinski (eds.), The 2003 UNESCO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I B044 | 말라야 시야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Malaya Siya

말라야 시야(Malaya Siya)는 시베리아 투르크인들이 살았던 시베리아 남부 하카스 지방에서 발견된 후기 구석기시대의 정착지이며, 이 지역을 통해 남부 시베리아 구석기 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하카스의 말라야 시야 지역에서 약 34,000년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플루트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가 출토되었다. 이 악기를 구성하는 재료와 관련해서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이 악기가 메머드 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라리체프(V. E. Lariçev) 발굴팀은 이 악기는 적철광으로 알려진 철광석을 가공하여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 악기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발굴 책임자였던 라리체프(V. E. Lariçev)는 현재 모스크바 박물관에 보존된 이 악기를 어느 하카스인 사냥꾼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이 악기가 헤이즐넛 나무 혹은 너도밤나무로 만든 자신들의 고유 전통 악기라 밝혔다. 실제로 악기는 하카스인들의 관악기인 프르으(pirği)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관악기 이외에도 말라야 시야는 과거 알타이 민족들의 전통 가옥들의 34,000년~35,0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고대 알타이인들의 주거지에는 태양 숭배사상과 함께 그들의 우주관이 드러나 있다. 고대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인들의 주거지 내부에서 불 혹은 난로를 피웠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가옥의 윗부분 지붕에는 대피소 역할을 하는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구멍은 ‘툰 독’이라고 불린다. 투르크인들의 전통 가옥 지붕 중앙에 있는 구멍 ‘샹으락’과 그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 이 구멍을 통해 그들은 난로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빠져나가고 빛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말라야샤

● 다국어 표기 Malaya siya(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letov, T. B., *Sibirya'dan Anadolu'ya Türk Şamanizmi'nin Sosyolojisi*, İstanbul: Urzeni Yayınları, 2021.

I B045 | 말레크 자브잔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alek Zawzan mosque

말레크 자브잔 모스크(Malek Zawzan mosque)는 호라산 남부 카프주 조잔(Zozan) 지역에 세워진 모스크이다. 호라즘 샤 시대였던 1219년 건축되었다. 본래는 거대한 모스크였으나, 현재는 약 45m 간격으로 서 있는 두 개의 이완만 남아 있다.

두 개의 이완이 있는 모스크로서 대 셀주크 시대의 전형적인 모스크 형태와는 차이를 보인다. 키블라가 있는 이완의 크기는 13.5m x 27.9m이다. 양옆에 남아 있는 아치의 흔적으로 보아 중정을 둘러싼 갤러리가 있었던 것 같다.

키르만 주가 호라즘 샤에 의해 정복되었던 1210년에 알라앗딘 무함마드 2세(Ala ad-Din Muhammad II, 재위: 1200년~1220년)는 말레크 자브잔의 총독이었던 카왈 알 딘 무이드 알 말루크 아부 바크르 알리 알 주자니(Qawam al-Din Mu'id al-Maluk Abu Bakr Ali al-Zuzani)에게 이 도시에 거대한 궁을 짓게 한다. 이 궁은 모스크의 뒤편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완의 양옆 위층 공간이나 미흐랍 왼편에 존재하는 문, 미흐랍 방향은 약 80°가량 잘못된 위치를 향하는 등이 모스크의 이상한 형태는 원래 모스크가 궁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볼트가 파손된 이완의 높이는 약 30m이며 뒷벽에는 남색과 터키석 색의 메달과 비문 및 장식이 있으며, 13m x 15m가량의 타일 판이 있다. 이 장식들은 13세기 초에 남은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이다. 남색 유약으로 칠해진 쿠픽 서체 장식을 읽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이 판 왼편에 있는 장식에는 1219년이라고 나스크 서체로 표기되어 있다.

말레크 자브잔 모스크는 그 흔적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호라즘 샤 시대의 건축양식을 알 수 있



말레크 자브잔 모스크(조잔, 이란)

는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이며, 특히 타일 제작 발전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말렉 자우잔 모스크, 제브젠 모스크
- 다국어 표기 مسجد ملک ون (페르시아어), Zevzen camii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yyo0>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4/ZuzanMosque9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Godard André, *The art of Iran* (Tran: Michael Heron), New York: Praeger, 1965

I B046 | 말리크 샤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Malik Shah I

말리크 샤(Malik Shah I)는 대 셀주크 튀르크(Great Seljuq Turk)의 최대 강역, 시리아부터 호라산을 차지했던 술탄(1055년~1092년, 재위: 1072년~1092년)이다. 그의 본명은 '잘랄 앓 다 올라 무이즈 앓 둔야 와 앓딘 아불 파스'이다. 그는 이스파한의 근교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부친이자 2대 군주인 알프 아르슬란에 의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전쟁술 훈련을 받았고, 1064년 캅카스 원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 그는 트란스옥시아나 카라한 조의 왕녀인 테르켄 카툰과 혼인했다. 1066년 부친의 후계자로 임명되었고, 이스파한을 봉토(封土)로 지급받는 땅인 이크타(Iqta)로 수여받았다. 그는 부친을 따라 만지케르트 전투(1071년)에 참전하기도 했으며, 부친이 카라한 조와의 전투에서 호라즘의 총독 이우수프 호라즈미에 의해 살해된 후(1072년) 부친을 대신하여 와지르 니잠 알 몰크와 함께 부친의 군대를 장악했다. 그러나 당시 서쪽에는 알프 아르슬란의 형제인 카부르드가 술탄 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결국 1073년에 두 사람은 이란 중서부에 위치한 카라즈(Karaj)라는 도시에서 충돌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말리크 샤는 삼촌인 카부르드를 처형하고 그의 두 아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후 말리크 샤의 술탄 자리는 공고해졌고 이듬해에 압바스 조의 칼리프 알 무크타디의 승인을 얻어 술탄이 되었다.

20년에 걸친 그의 재위기간 동안, 변경에서는 영토 확장 전쟁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평안했다. 그가 즉위한 직후, 가즈나 조의 술탄 이브라힘이 후라산의 점령을 위해 침략했으나 말리크 샤는 그를 성공적으로 제압했고, 혼인동맹을 통해 평화조약을 맺은 후 이를 20년 동안 유지했다. 반면에 부친의 사망에 원인이 되었던 트란스옥시아나로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여 1073년~1074년 사이에 카라한 조를 옥서스 강 너머로 쫓아내고 티르미드를 차지했다. 더 나아가 1089년에는 사마르칸트를 차지하고 군주인 아흐마드 칸을 감금하기도 했다. 그의 공세는 카쉬가르를 거점으로 하는 카라한 조 동부의 영역, 세미레치에까지 이르렀다.

서쪽에서도 그는 주변국을 공격하여 영역을 넓혀나갔는데, 아라비아 동부의 이스마일리 시아파 집단인 카르마트(1086년~1087년), 캅카스의 샤디드조(1078년~1079년, 1086년), 디야르

바크르의 쿠르드 세력인 마르완 조(1086년)를 공격한 후에, 모술과 알레포를 거쳐 에데사, 알레포, 안티오크까지 장악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파티마 조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으므로, 알레포나 다마스쿠스 등 시리아의 대도시에서 수니파의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말리크 샤는 자신의 군사력의 기반인 투르크멘 부대를 이 지역으로 파견하여, 근방의 초원지대인 아란이나 디야르바크르 등에 주둔시키기도 했다. 셀주크 투르크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다다르면서 기존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아랍인과 유럽 순례객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깨어졌고, 특히 술탄들조차 저지할 수 없는 유목 군대가 유럽 순례객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유럽에서는 십자군 원정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한 후에 각 지역을 다스릴 지방관과 왕자를 파견했다. 우선 새로 차지한 시리아와 캅카스에는 자신의 굴람(노예)을 샤흐나(도시의 사령관)로 파견했는데, 이는 그의 사망과 함께 이 지역에 지방 왕조가 건설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1077년에 아나톨리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룸 셀주크를 건국한 술레이만 이븐 쿠툴루미쉬는 말리크 샤의 재위 초창기에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었다. 또한 셀주크의 오랜 영역이었던 쿤두즈, 토하리스탄, 헤라트, 키르만,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등에는 셀주크의 왕자들이 말릭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부친의 와지르(중신, 재상)였던 니잠 알 물크를 아타벡(고관)으로 삼았고, 비군사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말리크 샤의 재위 말기에 두 사람의 사이는 후계자 문제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니잠 알 물크는 셀주크 공주의 아들인 베르크-야루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주장했으나, 카라한 조의 공주인 테르켄 카툰은 말리크 샤의 총애를 얻어 자신의 어린 아들 마흐무드를 후계자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니잠 알 물크는 1092년에 암살을 당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사신에 의한 암살이라는 설과, 말리크 샤의 사주에 의한 결과라는 설이 있다. 후자의 설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말리크 샤가 니잠 알 물크의 사망 직후 테르켄 카툰의 측근을 와지르(재상)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편 말리크 샤는 1087년에 자신의 딸과 칼리프의 혼인을 성사시켰고, 두 사람의 자녀인 자파르를 칼리프로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오랜 와지르가 사망한지 한 달여 만에, 바그다드 부근에서 사냥 도중 사망했는데, 그의 사망을 사주한 이는 칼리프였는지, 니잠 알 물크의 도당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의 아들 마흐무드는 그를 계승했으나 2년만에 이스파한에서 삼촌인 베르크-야루크의 반란에 직면했고, 어머니와 함께 니잠 알 물크의 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

한편 말리크 샤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은 페르시아 태양력인 잘랄리력을 제정한 것이다. 1071년의 춘분을 기원(紀元)으로 삼는 이 달력은, 이전의 여러 부정확한 태양력을 대체하는 당대의 천문학적 성과를 집약한 결정체이다. 이 달력 이후로 페르시아의 새해 첫날인 노루즈는 태양이 양자리로 들어서는 시점, 즉 태양이 천구상에서 춘분점을 지나는 시기로 고정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멜릭 샤
- 다국어 표기 Malik Şah(튀르키예어). ملكشاه (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대 셀주크, 카라한 조, 가즈니 왕조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M3C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maleksah>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Malik-Shah," Encyclopaedia of Islam 6, Leiden: Brill, 1991, pp.273~275.
C. E. Bosworth, "The Political and Dynastic History of the Iranian World (A.D. 1000-1217)," In Frye, R. 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ume 5: The Saljuq and Mongol perio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pp.1~202.

I B047 | 맘루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amluks

맘루크 왕조(1250년~1517년)는 노예가 세운 이슬람 왕조를 뜻한다. 아랍어의 맘루크(Mamluk; مملوك)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 노예를 뜻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튀르키예, 시르케시, 비잔틴, 쿠르드, 슬라브 등 출신의 백인 노예를 의미한다.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맘루크 왕조 초기의 주요 인물들은 투르크계가 대부분이었다. 맘루크는 대부분 어린시절 노예가 되어 군인으로 길러지며, 성장하면서 대부분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후에도 자신을 양육한 주인에 대하여 절대적 충성을 다했다. 이슬람 사회는 노예에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기회를 얻으면 높은 교양을 쌓을 수도 있었고 국가와 사회 요직에도 등용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인정하면 어머니가 노예일지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여자 노예의 아들이 이슬람 제국의 왕위를 잇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는 노예가 세운 왕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맘루크 왕조 시대의 요새(아카바, 요르단)

9세기 중엽 이후 압바스 제국

(749년~1258년)이 서서히 약화되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자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맘루크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맘루크는 십자군 전쟁, 몽골 침입 등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필수 불가결한 군사집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맘루크 국가는 아유브 조의 술탄 살리흐(al-Malik al-Ṣalīḥ 재위: 1240년~1249년)가 죽자, 그의 하렘 출신 아내인 샤자르 알 두르(Shajar al-Durr)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녀는 80일 동안 중근동 무슬림 세계의 유일한 여성 통치자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맘루크군 총사령관인 아이박(Aybak, 재위: 1250년~1257년)과 재혼하여 이집트를 공동 통치했다. 이것이 맘루크 통치의 시초이다. 맘루크 국가는 바흐리계(Bahri系, 1250년~1390년)와 부르지계(Burji系, 1382년~1517년)로 나눌 수 있다. 바흐리계는 아유브 조의 살리흐가 그의 노예군을 나일강의 섬에 주둔시켰기 때문에 강(Bahr)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인종적으로는 주로 투르크 족과 몽골 족이었다. 반면에, 부르지계도 근위병으로서 바흐리 맘루크 술탄 깔라운(Qala'un, 재위: 1279년~1290년)이 창설했으며, 그들은 요새의 탑(burj)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 인종적으로는 서부 캅카스 지방의 시르카시아인(Circassia, 러시아어로는 Cherkasia)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바흐리계에서는 때때로 술탄의 세습제가 시행되었으나 부르지계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족별주의는 계승 문제와 정책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 두 계열의 맘루크 국가의 술탄은 대부분 비명횡사했으며, 평균 통치 기간도 6년이 채 되지 않았다. 맘루크 국가의 실질적인 건설자는



1280년 술탄 칼라운이 지은 복합단지의 상들리에

술탄 바이바르스(Baybars, 재위: 1260년~1277년)인데, 그는 당시 술탄 꾸투즈(Qutuz)의 부관
 으로 출전하여 1260년 아인 잘루트에서 침입한 몽골군의 격퇴에 도움을 주었다. 그 후 곧 그는
 술탄을 내쫓고 스스로 술탄 위에 올랐다. 이듬해에 그는 자신의 술탄 위에 대한 정통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이미 망한 압바시야 조의 공자를 카이로에 불러 허수아비 할리파로 만들어 시아파
 의 극성을 예방하게 했다. 이것이 곧 카이로에 세워진 허수아비 할리파조의 시작이다. 이 맘루
 크 체제가 250년 이상이나 지속된 경제적 바탕은 국제 무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 세계
 와 무슬림 세계가 서로 장기간 충돌한 십자군 원정(제1차 1096년~1099년, 제7차 1270년)에 뒤
 이은 정치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지중해권과 인도양권 사이의 무역은 거의 중단되었다. 이 두
 해양 사이에 위치한 이집트만이 중계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번성했다. 북부를 잇는 교통로는
 몽골족이 세운 일 칸국과 킵차크 칸국이 1330년~1340년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차단되었다. 이

에 더해 14세기 말에 티무르는 중근동 전역을 휩쓰는 대원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북부 통상로가 장기간 차단되어 이집트가 덕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말에 유럽에는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가 도래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인이 남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과 통하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자, 이집트의 중계 무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맘루크 이집트는 거의 저항 없이 오스만 제국에 의하여 1517년에 합병되었다. 맘루크 국가의 통치 아래서 문화와 예술 활동은 비록 향상되지 못했지만, 빛나는 전통은 그대로 계승, 유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목록

● 다국어 표기 مملوك (아랍어) Mamluklar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티무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Bwr>

네이버 지식백과 터키사 맘루크 원정과 칼리프위의 획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9683&cid=62103&categoryId=62103>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Ⅰ B048 | 맘루크 조의 모스크 등잔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유리공예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Mamluk mosque lamp

모스크 등잔은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유물로 꼽힌다. 특히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이집트의 카이로와 시리아의 알레포, 다마스쿠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모스크를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현재 이슬람 세계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모스크에서 사용되는 등잔은 주로 오일을 활용해 불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허리로 내려가면서 입구가 좁아지는 형태를 하다 허리 밑 몸통 부분이 다시 넓어지면 둥근 구체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등잔 아래에는 발굽이 달려있어 독자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맘루크 조의 모스크 등잔(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

일반적으로 등잔 외부에 장식적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사슬고리에 사실을 연결하여 모스크 위쪽에 매달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은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현대에서는 전기와 전구를 사용해 불을 밝힌다.

이슬람 세계의 유리 공예의 집약체이기도 한 모스크 등잔은 불투명한 유리 등잔 몸통에 에나멜을 활용한 장식을 넣었다. 장식의 색은 매우 화려하게 사용되었고, 코란 구절과

기증자 성명, 기증자가 원하는 문구, 혹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식적 문구를 사용해 등잔을 꾸몄다.

코란 문구 중에서는 특히 빛의 구절이라고 하는 코란 24장 35절 문구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십니다.’라는 문장이다.

맘루크 조의 등잔이 특히 더 유명한 이유는 2000년 14세기 맘루크 조의 모스크 컬렉션이 경매에서 고가로 거래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맘루크 조에서 생산된 모스크와 유사한 형태의 유리 장식품을 생산하고 보급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맘루크 조 등잔과 함께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제국에서 생산된 모스크 등잔도 존재한다. 오스만 제국의 경우 이즈니크라고 하는 푸른빛이 도는 흙을 활용해 구워낸 도자기를 등잔으로 활용했다. 사파비 제국에서는 16세기에 등잔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주로 금이나 황동, 은을 활용해 제작했다. 유리를 사용해 제작한 맘루크 조와 다른 제작 기법과 재료를 보인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맘루크 조의 유산이 가장 높게 평가됨에 따라, 모스크 등잔 작품은 카이로의 이슬람 미술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 등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목록 모스크 램프

● 다국어 표기 Mamluk mosque lamp(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GaTA>

● 참고문헌(오프라인) Blair, S. S., & Bloom, J. M..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slam 1250-1800*. Yale University Press, 1996.

Colomban, P., Tournié, A., Caggiani, M. C., & Paris, C. Pigments and enamelling/gilding technology of Mamluk mosque lamps and bottle. *Journal of Raman Spectroscopy*, 43(12), 1975~1984. 2012.

I B049 |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및 문법서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Et-Tuhfetü'z-Zekiyyefi'l-Lügati't-Türkiyye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및 문법서』는 5세기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로 작성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 작품에는 저자, 날짜 및 집필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지만 이집트와 시리아에 위치했던 맘루크 조의 주 지배 계급이 투르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랍 언어학자들이 투르크어를 배우고 가르칠 목적으로 본 서적을 집필했으리라 추측된다.

작품은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아랍어-투르크어사전이다. 아랍어 단어는 아랍문자 순으로, 명사, 동사 순으로 배열된다. 작품에는 총 3,500여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법 규칙을 설명한다. 아랍어 문법 구분에 따라 킵차크 투르크어의 명사와 동사에 대한 설명을 다룬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의 가장 오래된 작품은 예뵤 하얀 알 안델뤼시(Ebû Hayyân al-Andelüsi)가 1312년(이슬람력 712년)에 완성한 『Kitâbü'l-Idrak li-lisâni'l-Etrak』이다. 그 뒤를 이어 중요하게 평가되는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및 문법서』는 현재 단 한 권의 사본만이 전해지며, 베이아지드 국가 도서관(Beyazit State Library)의 Veliyyüddin Efendi섹션에 3092번으로 등록되어 보관되어 있다.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및 문법서는 1945년 베심 아탈라이(Besim Atalay)가 번역, 색인 및 판본 인쇄를 하여 출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트 투흐페튀즈 제키예 필 뤼가티트 튀르키예
- 다국어 표기 Et-Tuhfetü'z-Zekiyefi'l-Lügati't-Türkiyy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 베심 아탈라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Melek Özyetgin, Ebū Ḥayyān: Kitābu'l-İdrāk li Lisāni'l-Etrāk, Fiil: Tarihî Karşılaştırmalı Bir Gramer ve Sözlük Denemesi, Ankara 2001, s. 57~59.
Paşa Yavuzarslan, "Türk Dilinin Sözcük Tarihi Açısından Önemli Bir Eser: et-Tuhfetü'z-Zekiyye Fil-Lügati't-Türkiyye", TDAY Belleten 2004/1 2006, s. 153~162.

I B050 | 맘루크의 몰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집필자 송경근 ● 라틴 문자 Massacre of Mamelukes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입한 후에 프랑스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민중들은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작했다. 무능한 과거의 지배자 맘루크나 오스만 제국이 보낸 총독을 반대했고, 그들이 원하는 무함마드 알리를 지도자로 선출했다. 당시 세르비아 반란에 시달리던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 술탄은 마지못해 그를 이집트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무함마드 알리는 그 당시로는 아주 드물게 민중의 혁명과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민중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 오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대를 중심으로 이집트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다. 줄기찬 그의 개혁 의지와 노력은 이집트를 중세 이슬람사회를 급격히 근대화 했다. 개혁으로 인해 그의 위치는 확고해졌으나, 그의 정권 유지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군벌 세력 맘루크였다. 무함마드 알리는 안정된 집권과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맘루크의 핵심부를 제거하고 해

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11년 3월에 무함마드 알리는 자신의 둘째 아들 투순 파샤가 아라비아의 와하비 종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식을 갖는다는 핑계로 카이로의 살라딘 성곽으로 500명 정도의 맘루크 지도부를 초대했다. 낮 동안 그들을 잘 대접한 무함마드 알리는 저녁 무렵 그들이 성곽을 떠나려 하자, 성곽의 좁은 통로로 유도한 후, 출입구를 모두 막은 상태에서 성곽 위로부터 그의 알바니아 여단이 총탄 세례를 퍼부어 그들을 몰살시키려 했다. 맘루크들은 탈출할 수가 없었으며, 살라딘 성곽의 좁은 통로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다. 대부분의 맘루크의 지도자들이 살해된 후 무함마드 알리는 카이로 시내와 근교에 남아 있던 나머지 맘루크 1,000명 가량을 숙청했다. 일부가 남쪽으로 도주하여 그곳의 맘루크와 연합하여 저항하자, 자신의 큰 아들인 이브라힘을 보내어 토벌했고, 또 다른 맘루크 1,000명을 제거했다. 이로써 수백 년간 이집트를 장악하고 지배했던 맘루크는 이집트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했다. 그가 맘루크를 숙청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는 하나, 그런 식의 맘루크 제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다. 무장 수구 세력의 제거는 전격적인 무력 기습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집트의 종주국 역할을 한 오스만 제국도 무장 수구 세력인 술탄 친위대 예니체리를 그런 식으로 제거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맘루크의 몰살

● 다국어 표기 Massacre of Mamelukes(영어), ذبح المماليك ; dabh al-mamalik(아랍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손주영, 송경근, 『이집트 역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pp.332~335. 2009.

Afaf Lutfi al-Sayyid Marsot. «A Short History of Modern Egyp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6, p.28. Philipp.

Thomas & Haarmann, Ulrich. «The Mamluks in Egyptian politics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8, p.5.

I B051 | 망가신 후레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Mangasyn Khuree

망가신 후레(Mangasyn Khuree)는 몽골의 흉노 성지이다. 움누고비 아이막 한보그드 솜 지역의 발빙 고비 서북부에 위치하는데, 몽골 국경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다. 바잉불락 성터와 위도 42도 선에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바얀 불라그 유적과 서로 200km 떨어져 있다. 토성은 외부에는 평면 형태 원형의 토성벽, 중앙에는 방형의 내성이 있는 구조로 특이하다. 내부의 방형 토성은 규모가 130m×130m이다.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1.6m~1.7m가량이며, 성벽이 무너진 쪽은 폭이 6m~18m이다. 북벽과 남벽에 성문이 있는데, 성문의 너비는 18m~19m이다. 토성 내부에는 건물지로 판단할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 공간을 나누기 위한 동서방향의 벽체 흔적이 남아 있다. 방형토성의 바깥으로는 직경 595m, 너비는 2m~5m, 높이는 50cm가량의 원형 토성이 남아 있다. 벽의 북서쪽과 남쪽 일부에는 석조구조물이 남아 있는데, 청동화살촉, 철제도끼, 토기편과 같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연구자들은 망가신 후레 유적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바얀 불라그 성지와 같은 시기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유적은 흉노 제국과 한 왕조 사이의 자연적인 경계에 기반한 국경요새의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망가신 후레 유적은 정식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습된 유물이 많은데, 바양 불락 토성과 매우 유사하다. 두 유적 모두 흉노 변경 지역에 설치된 방어용 성으로 생각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만가스 쿠리, 만가신 쿠레
- 다국어 표기 Mangasyn Khuree(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렉젠,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B052 | 매함매드 꺾줄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Muhammad Fuzuli

16세기 아제르바이잔의 고전 시인인 매함매드 꺾줄리(Məhəmməd Füzuli)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야트(Bayat) 부족 출신이다. 그러나 아버지 쉴레이만(Süleyman)이 아제르바이잔의 애래스(Ərəş) 지역에서 이라크로 이주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꺾줄리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모국어 튀르크어 외에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도 구사했다.

그가 창작을 시작한 때는 이라크가 사파비 제국에 속했던 시기였다. 이후 이라크는 오스만 제국에 병합됐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그가 창작에 사용한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초기 저술은 현대에 맞추어 구분하자면 아제르바이잔 튀르크어로 볼 수 있다. 후기 작품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쓰이는 튀르키예 튀르크어와 비슷하다.

튀르크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세 가지 언어에 능통했던 꺾줄리는 세 가지 언어 모두를 사용해 작품을 썼다. 각각 다른 언어이지만 모두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시작(詩作)은 다양한 형식이 시도됐다. 가젤(qəzəl), 송시(qəsidə), 19세기 파키스탄과 튀르크 문학에서 유행했던 6행시(müsəddəs: aaaa bb 형식), 고전시(tərkiqbənd, tərçibənd), 4행시(rübai: aaba 형식), 가젤이나 송시와 비슷하지만 1연은 자유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태(qitə), 4행 고전시(mürəbbe) 등을 지었다.

그는 권력자에게도 많은 작품을 헌시(獻詩)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편과 와인(Bəngü Badə)』을 샤이스마일 해타이(Şah İsmayıl Xətai)에게 헌시(獻詩)했고, 태흐마시브 1세(I Şah Təhmasib)와 그의 지휘관들, 각종 주지사과 칸들을 위해 찬미시(讚美詩)을 썼다. 술탄 쉴레이만 가누니(Sultan Süleyman Qanuni)에게도 시집을 헌정했다. 그러나 꺾줄리는 최소한 권력자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궁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정치권력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의 대표적인 장편 서사시 『레일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은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세계 문학의 정수로 손꼽힐 만한 작품 중 하나이다. 그가 술탄 쉴레이만 가누니(Sultan Süleyman Qanuni)와 함께 바그다드(Bağdad)로 온 해알리(Xəyali)와 애흐야 베이(Yəhya bəy)를 만났을



퓌줄리 동상과 드라마 극장(바쿠, 아제르바이잔)

때, 이들의 부탁을 받아 1537년에 저술한 작품이다. 『레이리와 매투스(Leyli və Məcnun)』을 최초 저술한 작가는 니자미 갠재비(Nizami Gəncəvi)이다. 튀르키예, 페르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많은 시인들이 같은 주제로 작품을 썼지만 퓌줄리의 『레이리와 매투스(Leyli və Məcnun)』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의 작품보다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오리지널 투르크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린뒤-자히드(Rindü-Zahid)』, 『마음의 동반자(Ənisül-qəlb)』, 『새해트와 매투스(Səhhət və Məraz)』와 같은 작품들은 그가 말년에 쓴 것들이다. 시인의 『해디게튀스-쉬에다(Hədiqətüs-süeda)』는 이슬람 역사의 카르발라(Kərbəla) 참사를 소재로 저술한 작품이다. 그가 편지 스타일의 산문 형식으로 쓴 『평론(Şikayətnamə)』은 날카로운 통찰력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 중에 나오는 ‘인사를 했는데 뇌물이 아니어서 아무도 안 받았다’라는 귀절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표현이다.

많은 시인들이 퀴줄리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의 작품을 모방했다. 그는 후진 양성을 위해 문학학교를 만들었지만 투르크 시인 중 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시인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1555년에 캐르벨라(Kərbəla)에서 페스트에 걸려 사망했으며, 묘지는 캐르벨라(Kərbəla)에 있다.

한편, 그의 문학세계는 현대에도 재현되고 있다. 『레이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으며, 유제이르 하즈배일리(Üzeyir Hacıbəyli), 자한기르 자한기로브(Cahangir Cahangirov), 아리프 맬리커브(Arif Məlikov) 등이 노래로 작곡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 퀴줄리

● 다국어 표기 Muhammd Fuzuli(영어), Mehemmed Fizuli(튀르키예어), Магомед Физул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zUxw>

● 참고문헌(오프라인) Cəlal Mir, *Füzuli sənətkarlığı*, Bakı: Çağioğlu nəşriyyatı, 2018.

Əliyev Sabir, *Füzuli, Bakı*: Azərənşr, 1996.

Əlyar Səfərli, Yusifli Xəlil,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Qasımzadə Fuad, *Qəm karvanı, yaxud zülmətdə nur*, Bakı: Azərənşr, 1968. Quluzadə Mirzəğa, *Füzulinin lirikası*, Az.SSR EA nəşriyyatı, 1965.

I B053 I 매햄매드 하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əhəmməd Hadi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20세기 낭만주의 시인인 매햄매드 하디(Məhəmməd Hadi)는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사마크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네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으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완벽하게 배웠다. 1902년~1906년에는

숨가이트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아스트라칸에서 잠시 거주했는데, 알리 베이 후세인자대(Əli bəy Hüseynzadə)의 <퓌유 자트(Füyuzat)> 잡지사에서 근무하며 시와 칼럼을 썼다. 1910년에는 이스탄불 <타닌> 신문사에서 근무했다. 이 신문은 토포그 피크렛과 후세인 자비드가 함께 공동으로 발간했는데,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얻었다. 1914년에는 다시 바쿠로 귀국해 <이그발>, <베시레트> 등의 신문사에서 근무했다. 1915년에는 카프카즈 군대에서 의료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오스트리아(Avstriya) 전선인 카파티안(Karpat)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슬람 군인들을 위한 신학자로 근무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이 붕괴한 후 1920년 5월에 발생했던 간자(Gəncə) 반란 사건 때문에 사망했다.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첫번째 시 「실토한 진실(Bəyani-həqiqət)」을 <하야트 신문(Həyat qəzeti)> 1905년 6월 25일자에 발표했다. 이 시는 그를 단기간에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시인으로 만들어줬다.

그의 대표적 시집은 『피르도브시-일함(Firdovsi-ilhama, 1908)』, 『사랑은 위대하다(Eşqi-möhtəşəm, 1914)』, 『쉬쿠페이-히크메트(Şükufeyi-hikmət, 1914)』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맴매드 하디

● 다국어 표기 Mahammad Hadi(튀르키예어), Muhammed Hadi(영어), Mehmet Hadi(튀르키예어), Мухаммед Хадди, Магомед Хадди(러시아어), Məhəmməd Had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leqraf.com/storage/2019/12/24/hadi1.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adi Məhəmməd,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5.

Mirəhmədov Əziz, *Məhəmməd Hadi (monoqrafiya)*,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5.

Osmanlı Vəli, *Məhəmməd Hadinin romantizmi*, Bakı: “Elm” nəşriyyatı, 2006.

Qəribli İslam, *Məhəmməd Hadi və mətbuat (1905–1920-ci illər)*,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11.

I B054 I 매흐새티 갠재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 1 인물 ● 유형 소분류 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əhsəti Gəncəvi

매흐새티 갠재비(Məhsəti Gəncəvi)는 12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첫 여성 시인이다. 그녀는 1089년에 5월 12일,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도시인 갠재(Gəncə)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매니재(Mənicə)이며, 매흐새티(Məhsəti)는 필명이다. 매흐새티 갠재비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작품들을 보면 그녀가 동양의 많은 도시들을 여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흐새티 갠재비는 술탄 샌재르(Sultan Səncər), 술탄 매햄매트(Sultan Məhəmməd), 술탄 매햄매트의 아들인 술탄 마흐무트(Sultan Mahmud)의 궁(宮)에서 살았다.

그녀는 매우 존경을 받는 명망가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의 삶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녀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13세기 「에미르 애흐매드와 매흐새티(Əmir Əhməd və Məhsəti)」 서사시에서 얻을 수 있다. 그녀의 삶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전설에 가까우며 신화적이다.

매흐새티 갠재비는 주로 디반시를 창작했다. 그녀는 주로 뤼바이(rübai) 형식으로 작품을 썼다. 그녀의 작품 세계에는 종종 자유로운 사랑, 음악 파티, 선술집 등이 등장한다. 이는 이슬람 전통과 도덕규범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은 늘 논쟁거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높은 미학적 수준을 기반으로 한 뤼바이는 후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매흐새티 갠재비는 당시 전통에 따라 페르시아어로 저술했는데, 그녀가 쓴 뤼바이들의 주요 주제는 자유로운 낭만적 사랑, 와인, 죽음, 인생의 즐거움 등이다.

매흐새티 갠재비는 1160년 6월 5일 갠재에서 사망했고, 갠재에 묻혔다.



매흐새티 갠재비, Güllü Mustafayeva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세티 겐제비

● 다국어 표기 Mehseti Gencevi(튀르키예어), Mahsati Ganjavi(투르크멘어), Махсати Ганжави(타타르어), Mahsati Ganjavi(타타르어), Мехсети Гянджеви(카자흐어), Мехсети Гянджеви(러시아어), مهستی گنجوی(페르시아어), Məhsəti Gəncəv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llahverdiyeva Zəhra, *Məhsəti Gəncəvinin Rübailər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6.

Gəncəvi Məhsəti, *Rübailər*, Bakı: Lider nəşriyyatı, 2004.

Hüseynov Rafael, *Məhsəti Gəncəvi : Özü, Sözü, İzi*,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5.

Hüseynov Rafael, *Məhsəti Gəncəvi : Edebi Orter*,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13.

Səmədov Abbas, *Məhsəti Gəncəvi-900*, Gəncə, ASC poliqrafiya, 2013.

Səfərlər Əlyar, Yusifli Xəlil,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Yusifli Xəlil, *Məhsəti Gəncəvi*, Gəncə, GDU nəşriyyatı, 2013.

I B055 | 맴매드 새이드 오르두바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ammad Said Ordubad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인 맴매드 새이드 오르두바디(Məmməd Səid Ordubadi, 1872년~1950년)는 아제르바이잔의 오르두바디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드라사에 입학한 뒤, 미르재 바흐쉬(Mirzə Baxşı) 학교를 다녔고, 시인인 맴매드 타그 시드기(Məmməd Tağı Sidqi)가 만든 근대식 학교에서 공부했다. 20세기 초에는 정치 활동에 가담해 러시아 볼셰비키와 함께 활동했다.

1914년 1월에는 정치 활동 때문에 체포돼 러시아의 사리티슨(Saritsin)으로 추방된 후 매우 힘든 유배 생활을 했다. 그러나 힘든 유배지에서도 예술과 저널리즘은 포기하지 않았다. 1917년 2월 혁명의 여파로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에는 곧 볼셰비키와 인연을 맺고 혁명 활동을 계속했다. 1918년 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아제르바이잔 볼셰비키들의 초대를 받아 아스트라한(Həştərخان)으로 오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힘매트(Hümmət)> 신문에서 일한다.

그의 정치사상은 볼셰비즘과 연관돼 있었고, 황금군대(XI Qızıl Ordu) 일원이 된다. 아제

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연방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레닌상(賞)(Lenin ordeni)과 명예 훈장(Şərəf nişanı)을 받았다.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거리와 문화 및 교육기관들이 그의 이름을 따다. 오르두바드(Ordubad)와 바쿠에는 하우스 뮤지엄이 설립됐고, 나흐체반에서는 그의 흉상이 세워졌다. 오르두바디는 오랜 투병 끝에 1950년 5월 1일, 바쿠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바쿠에 있는 현충원 '명예의 묘지(Fəxri Xiyaban)'에 안치됐다.

오르두바디는 14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으나, 훨씬 늦은 1903년에 문단에 데뷔한다. 트빌리시에서 그의 시가 <동러시아> 신문에 실리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는 1906년에 트빌리시에서 시집 『개플랏(Qəflət)』과 1907년에 『조국과 자유(Vətən və hüriyyət)』를 출판했는데, 이 시집들에는 그의 계몽사상이 반영돼 있다. 1906년 4월부터 재릴 맴매드굴루자대(Cəili Məmmədquluzadə)의 편집으로 트빌리시에서 출간된 잡지 <몰라 내스랏딘(Molla Nəsrəddin)>은 그의 창작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 잡지에 '해르담해알(Hərdəmxəyal)'이라는 필명으로 풍자시와 문예란 기사를 연재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불행한 백만장자(Bədbəxt milyonçu)』, 『안달리스 최후의 날 혹은 그라나다의 행복(Əndəlisin son günləri, yaxud Qrenadanın təslimi)』등을 저술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창작했지만, 무엇보다 산문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역사 소설 장르 창시자로 평가된다. 그의 역사소설로는 『안개 낀 테브리즈(Dumanlı Təbriz, 1933-1948)』, 『다툼 중인 도시(Döyüşən şəhər, 1938)』, 『비밀스러운 바쿠(Gizli Bakı, 1940)』, 『검과 펜(Qılınc və qələm, 1946-1948)』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소비에트 시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이다. 그 외에도 오페라 『코르오글루(Köroğlu)』, 『네르기즈(Nərgiz)』, 『니자미(Nizami)』와 뮤지컬 코미디 『오마나트짜리 며느리(Beş manatlıq gəlin)』, 『마음을 훔치는 자들(Ürək çalanlar)』 등도 썼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그의 대표적 희곡으로는 『안달리스 최후의 날 혹은 그라나다의 행복(Əndəlisin son günləri, yaxud Qrenadanın təslimi)』, 『아제르바이잔 혁명(Azərbaycanda inqilab)』, 『10월 혁명(Oktyabr



맴매드 새이드 오르두바디 묘비

inqilabı)』 등이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록으로 『피를 본 해들(Qanlı sənələr)』, 『나의 삶과 환경(Həyatım və mühitim)』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맘마드 사이드 오르두바디

● 다국어 표기 Mammad Said Ordubadi(튀르키예어), Мамед Саид Ордубади(러시아어), Muhammad Said O'rdubodiy(우즈베크어), محمد سعيد(아랍어), Məmməd Səid Ordubad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Axudlu Yavuz, *Məmməd Səid Ordubadi: həyatı, dövrü, mühiti və yaradıcılığı*, Bakı: Elm və təhsil, 2012.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Həbibbəyli İsa, *Böyük ədəbiyyat nəhəngi Məmməd Səid Ordubadi*, Bakı, Elm və təhsil, 2012.

Vəzirova Fəridə, *Məmməd Səid Ordubadi*, Bakı: Gənclik, 1970.

I B056 | 맴매드 아라즈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ammad Araz

맴매드 아라즈(Məmməd Araz)는 1933년에 아제르바이잔 나흐치반 자치공화국(Naxçıvan Muxtar Vilayəti)의 도시 샤희부즈(rayonu) 누르수 마을(kəndi)에서 태어났다. 아제르바이잔 교육대학교(Azərbaycan Pedaqoji İnstitutu)에서 수학한 그는 1954년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시골 마을에서 교사로 일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모스크바에 있는 소비에트 작가연맹에서 문학 수업코스를 이수한 후에는 문예지 <별(Ulduz)>에서 근무했다. 동시에 <문학과 예술> 신문과 아제르바이잔 국영 출판사에서는 부편집장도 역임했다.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1974년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문예지 <아제르바이잔의 자연(Azərbaycan təbiəti)> 편집장으로 일했다.

1991년에는 문학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아제르바이잔 민족 시인(Azərbaycanın

Xalq şairi' 명예칭호를 받았고 1995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독립훈장(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İstiqlal ordeni)을 받았다.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Azərbaycan Yazıçılar Birliyi)은 1993년부터 그의 이름을 딴 <멤매드 아라즈(Məmməd Araz)> 상을 제정했다. 그는 2004년 12월에 바쿠에서 사망했으며 현충원 명예의 묘지(Fəxri Xiyaban)에 묻혔다.

1952년에 첫 시 「빛나라, 나의 빛이여(Yanın, işıqlarım)」로 데뷔한 그는 『사랑의 노래(Sevgi nəğməsi, 1959)』, 『세 아들의 아버지(Üç oğul atası, 1951)』, 『아라즈는 흐른다(Araz axır, 1964)』, 『내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Anamdan yadigar nəğmələr, 1966)』, 『인생의 카라반(Ömür karvanı, 1967)』, 『날개 달린 바위(Qanadlı qayalar, 1973)』, 『내 아버지의 책(Atamın kitabı, 1974)』, 『세상은 너의 것, 세상은 나의 것(Dünya sənin, dünya mənim, 1983)』, 『돌의 외침(Daş harayı, 1993)』, 『갈림길에서의 대화(Yol ayrıcında söhbət, 1997)』, 『예술에서 마지막 목적지는 없다(Sənətdə son mənzil olmur, 2001)』, 『우는 바위들(Ağlayan qayalar, 2002)』, 『조국이라고 하세요(Vətən deyın, 2003)』 등 다수 시집을 출간했다.

BİOQRAFİYA

BİOQRAFİYA

«Arzularının əlləri uzalı qalan, ürəyini dağlara əmanət edən» şairin qısa biografiyası.

14.X.1933-cü il - Naxçıvan Muxtar Respublikasının Şahbuz rayonu, Nurs kəndində anadan olmuşdur.

1940-cı il - Şahbuz rayonunun Nurs kəndinin 1-ci sinfində təhsilə başlamışdır.

1945-ci il – Atası İnfal kişi «xalq düşməni» adı ilə Sibirə sürgün olunmuşdur.

1949-cu il – Kəndşahbuzda orta məktəbi bitirmişdir.

VƏSİYYƏT

Qara cilddə çap eləyin kitabımı
Məndən sonra.
Qara cilddə.
Tünd qara.
Qoy qara kağızım olsun
O kitab dostlara, tanışlara.
Mən o rəngi sevardım;
Boynu bükülü dördim,
Pardaxlı sevincim
O rəngdə geyinərdi

Mən o rəngi sevardım.
O rəngdəyi varşajlarda
Fikrimin yazı geyimi...
O rəngə hörmətindədir,
Sevgililərə, qarabədaylara.
O rəngli kirpiklərin kölgəsində
Əksim yaşardı.
O rəngin bir ev dolusunda
Mənim yaşardı.

PUBLİSİTİK YAZILAR

Bizim Nizami yaşlı ağsaqqal, müdrik poeziyamız, eyni zamanda, həmişə gənclik həvəsi, gənclik ehtiraslı olub.

Əsl sənət «söz oxuna meyilli» deyil

Başqa cür desək, sənətkar insan da dağlar kimidir.

Şair doğmalığı, şair yadığılı!

Təbiiət arxayın idi, toxtaq idi. Ancaq zaman ele zaman idi ki,

Uzun müddət xatirə yazmağı xoşlamamışam. Ele indi də xoşlamıram.

Niyətimiz haradır, Mənzilimiz?...

Ucağıq, mərdlik və dostluq poeziyası

멤매드 아라즈 홈페이지
Source: <http://www.memmedaraz.az>

초기에 ‘멤매드 이브라힘(Məmməd İbrahim)’이라는 이름으로 작품활동하던 그는 아제르바이잔이 분단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분단을 상징하는 도시 이름 ‘아라즈(Araz)’를 필명으로 사용했다. 번역작가이기도 한 그는 러시아 시들을 아제르바이잔어로 옮겼다. 멤매드 아라즈는 아제르바이잔 문단에서 철학적이며, 사회참여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멤매드 아라스

● 다국어 표기 Memmed Araz(영어), Mammad Araz(튀르키예어), Mehmet Araz(튀르키예어), Мамед Араз(러시아어), آراز محمد(페르시아어), Məmməd Araz(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memmedaraz.az/>

● 참고문헌(오프라인) Araz Məmməd, Seçilmiş əsərləri, I-IV cildlər, Bakı: Ozan nəşriyyatı, 2003.

Araz Mammad, Poet. Bakı: Khan Publishing, 2015.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Okumuş Salih, *Çağdaş Azərbaycan şairi Memmed Araz: hayatı, sanatı və eserleri*, Ankara: Türkiye Diyanet Vakfı Yayınları, 2009.

Yusifli Vaqif, *Məmməd Araz dünyası*, Bakı: Şur nəşriyyatı, 1994.

I B057 | 멤매드 재패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ammad Jafar

멤매드 재패르(Məmməd Cəfər)는 1909년 아제르바이잔 나흐치반에서 태어났다. 1928년 ~1932년에는 나흐치반 교육전문학교(Pedagogical College)와 아제르바이잔 교육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에서 수학했다.

그는 학계와 언론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1932년부터 1935년까지는 <청년근로자(Gənc işçi)>와 <교육 근로자(Maarif işçisi)> 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일했다.

1935년~1938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교육대학원에서 아랍문학을 연구했고, 1938년~1939년에는 같은 대학교에서 아랍문학과장, 1939년~1941년에는 바쿠 교육대학교 교수, 1941년~1943년에는 <문학신문(Ədəbiyyat qəzeti)> 편집부장, 1943년~1945년 구바 교육대학교 논문학부 학부장, 1945년~1949년에는 <문학신문> 편집장 및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 학과장, 1949년~1951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문학연구소 전임 연구원, 1951년~195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학과장, 1959년~1962년에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니자미 언어문학연구소 소비에트문학부장, 1963년~1982년에는 문학이론부장을 역임했다. 1984년~1987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인문학부장으로 일했다.



맘메드 재페르 모비

문학비평가이며 교육자였던 그의 활약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및 유럽문학 교류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대학 시절 시(詩)로 문단에 데뷔한 그는, 이후 문학비평과 문학이론 논문들을 발표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학 비평가를 겸하는 것은 그의 학술서적 집필에 도움을 주었다. 대표작으로는 『미르제 페텔리 아쿤도브 문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M.F.Axundovun ədəbi-tənqidi görüşləri, 1950)』, 『문학적 고찰(Ədəbi düşüncələr, 1958)』, 『피줄리는 생각한다(Füzuli düşünür, 1959)』, 『히세인 자비드(Hüseyn Cavid, 1960)』,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낭만주의(Azərbaycan ədəbiyyatında romantizm, 1963)』, 『צל릴 맘메드굴루자데(Cəlil Məmmədquluzadə, 1966)』, 『현자의 인격(Mütəfəkkirin şəxsiyyəti, 1966)』, 『인생의 로맨스(Həyatın romantikası, 1968)』, 『19세기 러시아 문학(XIX əsr rus ədəbiyyatı, 1968)』 『예술로 가는 길에서(Sənət yollarında, 1975)』, 『모두 우리와 함께(Həmişə bizimlə, 1980)』, 『니자미 철학의 세계(Nizaminin fikir dünyası, 1982)』 등이 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낭만주의 작품 연구와 낭만주의 이론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문학

세계는 소비에트 영향이 크다. 특히 현대문학에 연구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의 많은 문학평론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 언어로 번역됐고, 『미르재 알라크배르 사비르(Mirzə Ələkbər Sabir)』와 『잘릴 맴매드굴루자데(Cəlil Məmmədquluzadə)』는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튀르키예어로 출판됐다.

맴매드 재패르는 1991년 사망했고, 바쿠 현충원 ‘명예의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맴매드 자페르, 메흐메드 자퍼르
- 다국어 표기 Memmed Cafer(튀르키예어), Mammad Cafer(영어), Мамед Джафар(러시아어), Məmməd Cəfər(아제르바이잔어), Мехмет Джаф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 Cəfərov Məmməd, *Bibliografik göstərici*, Bakı: Çinar-çap nəşriyyatı, 2003.
- Cəfərov Məmməd, *Məqalələr toplusu*, Tərtib edən İsa Həbibbəyl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09.

I B058 | 마츠카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yatskay

마츠카이는 토볼 타타르(시베리아 타타르의 하위 민족) 신화에 나오는 악귀로 무덤을 떠나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죽은 마법사의 영혼이다. ‘메츠크에이(мэцкэй)’, ‘쿠프킨(купкин)’으로 불리기도 한다.

외관상 마츠카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지만, 가끔 땅바닥까지 길게 늘진 붉은 혀를 가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밤에 마츠카이는 붉은 원 형태로 땅 위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질병이나 역병을 전파한다. 만일 사람이 파레라고 불리는 악한 정령을 삼키거나 파레가 그 사람을 삼키면, 살아있는 사람도 산 채로 마츠카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슬

람 성직자의 기도는 마츠카이를 찾아내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 마츠카이는 흡혈귀의 일종으로 알려질 때도 있다.

투르크 민족에게는 마츠카이와 비슷한 신화적 존재들이 있는데, 타타르나 바시키르 민족의 ‘우비르(убыр, увыр)’, 추바시 민족의 ‘부파르(вупар)’, ‘카라차예프’, 크림 타타르, 가가우즈 민족의 ‘오부르(обур)’가 그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아츠카이

● 다국어 표기 мяцкай(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 ред. Мелетинский Е.М.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г. 672.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1, 193.

I B059 I 메다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ddah

튀르키예의 전통극 메다흐는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아랍어 ‘메드흐(medh)’에서 기원한다. 메다흐는 ‘마디흐(mâdih)’, ‘메디하구(mediħagû)’, ‘메디하세라(mediħaserâ)’라고도 불린다. 다른 여러 문화권에도 재담 문화가 존재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경우 하산 이븐 타비트(Hassan ibn Thabit, 562/563년~680년)가 예언자의 시를 칭찬했던 것, 즉 ‘찬양’했던 것을 메다흐의 시작으로 본다. 메다흐는 카라괴즈(Karagöz)나 오르타 오유누(Orta oyunu)와는 달리 연극적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투르크 민족들에게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들을 박시(Baksi)나 오잔(ozan)이라고 불렀다. 오잔의 경우 보통은 악기와 함께 하는 시 낭송을 하는 것에 가까웠다. 셀주크 시대의 성과 군대에서 페르시아어로 시를 쓰는 시인도 있었으나, 오잔은



메다흐 공연
Source: <https://ich.unesco.org>

투르크어로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시으크(사즈 반주로 노래하는 시인)은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에도 구전 영웅 서사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오스만 시대의 궁정에서도 이 전통은 계속되어 오잔뿐만 아니라, 네딤(nedim: 고위직 상대로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 배우들이 투르크 메다흐를 발전시켰다. 오스만 시대에는 ‘쿿사한(kissahan)’이라고 불리던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꾼이 있었다. 이들은 초기에는 종교성인 강한 이야기를 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동물 흥내나 야한 농담을 하고, 성적행위를 흥내 내기 시작했다. 이들 모두를 일컬어 메다흐라고 했다.

16세기-18세기에 메다흐의 수는 점점 증가하며 궁정뿐만 아니라 거리와 커피숍에서도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전통 속에서 투르크 만의 메다흐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메다흐의 주요 소재는 다양하다. 바탈 가지(Battal Gazi), 카르발라 전투, 무함마드의 삼촌이자 첫 번째 무슬림이었던 함자(Hamza ibn Abdul-Muttalib, 568년~625년),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Ali bin Ebu Talib, 600년~661년)의 이야기와 같이 이슬람의 색채가 강한 사건과 인물, 페르시아의 전설과 샤흐나메(Shahnameh)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데데 코르쿠트(Dede Korkut), 퀴롤루(Köroğlu)와 같은 전통적인 투르크 민족의 이야기 등이 있다.

후기의 메다흐는 조금 더 관객을 웃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익살스러운 요소 뿐만 아니라 듣는 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했다.

다른 전통극 형태와 다르게 재담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워, 주제에 따라 관객의 감정과 배우가 일치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일례로 1616년 부르사(Bursa)에서 시인 하일리 아흐메드 첼레비(Haylı Ahmed Çelebi)가 카페에서 베디와 카슴(Bedi ve Kasım)의 이야기를 해줄 때 관객은 각각 베디나 카슴의 편을 들며, 각기 자신들이 응원하는 주인공을 언급할 때마다 환호했다. 이때 시인 하일리는 카슴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편을 들던 사착츠자데(Saçakçızade)라는 다른 이야기꾼과 다툼을 벌이다 하일리가 사착츠자데를 칼로 찔러 죽

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배우는 막대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바닥을 쳐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뜻을 알리기도 한다. 또한, 막대는 악기나 빗자루, 총 따위, 손수건의 경우 여성의 머리쓰개나 모자를 흉내 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다, 멧따

● 다국어 표기 Meddah(튀르키예어), Меддан(카자흐어), Meddah(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카라괴즈, 오르타오유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txN8>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3/33/Meddah_story_teller.png, <https://www.youtube.com/watch?v=ThlANz7dirU>

● 참고문헌(오프라인) Nutku Özdemir, “Meddah”,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8, Ankara, 2003, pp.293~294.
And Metin, *Başlangıcından 1983’e Türk tiyatro tarihi*,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14.

I B060 I 메르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rgen

메르겐은 일반적으로 지혜의 신이며 사수(射手)로 알려져 있다. 메르겐은 문화권에 따라 ‘페르겐(Pergen)’이나 ‘에르히 메르겐(Erhiy Mergen)’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르겐은 일반적으로 남신으로 취급되는 듯하나 텔레웃 투르크(Teleuts)족은 메르겐을 여신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알타이 투르크족에게는 선신인 율겐(Ülgen) 또는 카이라칸(Kayrakan)의 아들 중 하나로 취급하기도 한다.

메르겐은 인간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는 지식과 철학의 상징이다. 대체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다. 태양의 여신인 킌 아나(Gün Ana)와 함께 천계 제7층에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혜로운 만

큼 능력자이다. 위구르인은 메르겐의 활의 상징을 두 날개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 구전에서는 메르겐은 월겐의 사자(使者)로 신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투르크-몽골 신화에 존재하는 에르히 메르겐(Erhiy Mergen)의 경우, 일반적인 영웅 서사시 주인공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런 믿음은 알타이, 투바, 몽골에 널리 퍼져 있다. 구전에 의하면 에르히 메르겐은 창조 초기에 하늘에 있던 다섯 개의 태양 중 네 개를 쏘아 땅으로 떨어트렸다. 그러나 마지막 태양을 쏘지 못해 초원은 바이바크(baybak)로 변한다.

메르겐은 사수이자 지혜의 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에 비유하기도 한다. 투르크 영웅신화나 동화 등에서는 활을 잘 쏘는 인물로 메르겐이 등장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마르겐

● 다국어 표기 Мэргэн(몽골어), мәргән(바시키르어), Mergen(아제르바이잔어), Merge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월겐, 권 아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cilt I, 5.baksı, Ankara: 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2010.

Beydili Celal, “Erlık-Yerlik”, *Türk Mitolojisi Ansiklopedik Sözlük*(Çev: Eren Ercan), Ankara: Yurt Kitap, 2005.

pp.200~201.

Bayat Füzuli, *Türk mitolojik sistemi I*, İstanbul: Ötüken, 2007.

-----, *Türk mitolojik sistemi II*, İstanbul: Ötüken, 2007.

Çoruhlu Yaşar, *Türk mitolojisinin ana hatları*, İstanbul : Kabcacı Yayınevi, 2010.

I B061 | 메르브 셀주크 궁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rv Seljuk Palace

메르브 셀주크 궁전(Merv Seljuk Palace)은 투르크메니스탄 메르브에 있던 솔탄 갈라(Soltan Gala:솔탄의 성벽) 내에 세워졌다. 현재는 거의 다 파손되고 그 흔적만 남았다. 평면 자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남은 흔적으로 대략의 모습만 추정된다. 궁전은 45mx39m 크기



메르브 셀주크 궁전(투르크메니스탄 메르브)

에 동쪽에 입구가 있었다. 궁전 내에는 다시 4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인 16m x16m 크기의 중정과 그 주변을 감싼 50개의 방이 있었다. 궁전 북쪽에는 정원이 있었다. 동쪽 입구 앞의 도로로 이어지는 길 주변에도 정원이 있었다고 한다. 입구에 있는 이완은 현재까지 일부가 남아 있다.

북쪽 벽도 일부분만 보존되어 있는데, 이 벽은 흠이 파인 지지대로 받쳐진 흔적이 남아 있다. 외벽의 높이와 계단의 흔적으로 2층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완에는 특별한 장식은 없으나 벽감 상단부에 양각 장식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서쪽 이완에는 장식 패널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완 양옆에 존재했던 방은 교차 볼트로 덮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

주재료는 어도비 진흙이며 벽의 경우 이 진흙을 체스판 모양으로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전면부가 반원기둥으로 장식된 직사각형의 공간은 술탄의 도서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궁전은 편의상 궁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술탄이 살았다고 보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 논란의 대상이기도 해, 일각에는 공공기관 건물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르브 쿠피크
- 다국어 표기 Merw köşk(투르크멘어), Merv Selçuklu Saray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르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ikolsoftware.com/public/resized/high/image_data/original/570572df50d16d10a291454551d3e9b155b7ce4c/5819dd0baedbf.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6sl4>
<http://www.selcuklumirasi.com/architecture-detail/merv-seljuk-palace?lng=en>
- 참고문헌(오프라인)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 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I B062 | 메르브 전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Battle of Merv

부하라 칸국 샤이버니 왕조를 세운 샤이버니이 칸(Muhammad Shayboniy, 영문 표기: Muhammad Shaybani, 1451년~1510년)은 15세기 말 트란스옥시나아 지방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사파비 조를 세운 이스마일 1세(Ismail I, 재위: 1501년~1524년)는 동시대에 이란 전체를 통일했다. 이로 인해 트란스옥시아나와 페르가나, 호라산 지방을 두고 이스마일 1세와 샤이버니이 칸의 긴장감은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다. 1508년 샤이버니이 칸은 샤 이스마일에게 시아가 아닌 수니 이슬람을 믿으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이스마일 1세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샤이버니이 칸은 오히려 이를 자신을 모욕했다는 구실로 삼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호라산 남부로 진격했다. 이스마일 1세도 이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1510년 키르만, 이란, 아제르바이잔에서 군대를 징집했고 담간 지역으로 진군했다.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샤이버니이 칸의 사위인 아흐메드 술탄은 수비를 포기한다. 이스마일 1세는 헤라트 지방까지 진출했고, 샤이버니이 칸의 전투는 잘 풀리지 않았다. 샤이버니이 칸은 호라산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 군대와 맞서 싸



메르브 전투를 묘사한 이스파한 체헬 소톤 프레스코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웠으나, 결국 메르브 성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샤이버니이 칸도 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 사파비 왕조는 현대의 이란 지역,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포함하는 호라산 지역을 새롭게 통할 수 있게 되었다.

- 다국어 표기 Marv jangi(우즈베크어), Merv Savaşı(튀르키예어), Merv döyüşü(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이스마일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Adle C., Irfan Habib; K M Baïpakov; *History of civilizations in Central Asia. v.5 Development in contrast :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cations, 2004.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B063 | 메블라나 젤라렛딘 루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VLANA



메블라나 젤라렛딘 루미

메블라나 젤라렛딘 루미(Mevlânâ Celâleddî-i Rûmî)는 메블라나(Mevlevî; 아랍어 마울라위 Mawlawî) 수피종단의 창시자이자 수피문학의 대가이다. 그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이슬람력 604년 3월 6일(1207년 9월 30일) 아프가니스탄 호라산의 발흐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루미(Rumi)’는 ‘로마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이 붙은 것은 ‘로마의 땅’으로 받아들여졌던 아나톨리아로 이주한 이후이다. 영어권에서는 주로 ‘루미’로 불린다.

그는 성장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아버지 바하엠티딘 웰레드(Bahâeddin Veled)의 영향이 컸다. 몇몇 정치적 사건에 연루됐던 아버지 바하엠티딘 웰레드는 몽골이 침략해온 혼란기를 틈타 1213년 발흐를 떠났다. 온 가족은 함께 니샤푸르(이란), 바그다드, 쿠파(이라크), 다마스쿠스(시리아)를 거쳐 아나톨리아에 정착했다.

메블라나 루미는 ‘술탄눌 울레마(sultânü'l-ulemâ)’라고 불렸던 아버지 바하엠티딘 웰레드에게서 처음 이슬람 신학을 배웠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문학생들에게 피르(pir, 聖者)와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 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후광도 있었지만 메블라나 루미에게도 문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메블라나 루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프티(이슬람 법학자)로 추대됐다.

메블라나 루미와 타브리즈 켄셋딘(튀르키예어 Tabriz Şemsettin; 아랍어, 샴스 알 딘 알 타

브리지, Shams al-Din al-Tabrizi; 출생연도 미상, 1247사망)과의 관계는 매우 유명하다. 메블라나 루미는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썬셋딘에게서 수행법을 배웠고 내적 깨달음을 얻었다. 훗날 메블라나 루미가 메블레비 종단을 창단하게 된 힘은 그의 스승 타브리즈 썬셋딘에게서 전수받은 영적 깨달음에 기반한 것이다. 신학자에서 수피시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도 모두 그의 영적인 스승 타브리즈 썬셋딘의 영향이다.

메블라나는 그와 함께 수행하면서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완전한 성숙한 기운(mutlak kemâlin varlığını)’을 ‘신의 광명(Tanrı nurlarını)’으로 해석했다. 썬셋딘 때문에 메블라나 루미가 변화하자 신도들은 루미를 ‘신앙심이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해결책으로 코니아를 떠나 다마스쿠스로 갔다.

한동안 썬셋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던 메블라나는 1247년이 되어서야 다시 코니아로 돌아와 썬셋딘과 함께 음악과 세마(Sema, 수피 명상춤)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얼마 뒤 썬셋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살해당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메블라나는 사라진 썬셋딘이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고 믿고, 그를 찾아 다마스쿠스로 간다. 몇 번을 코니아와 다마스쿠스를 왕복하기를 반복한 후에야 그는 썬셋딘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메블라나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은 그가 썼던 가젤(gazel) 시로 남겨져 있다.

메블라나의 시와 편지는 간혹 아랍어도 있지만, 대부분은 페르시아어이다. 시(詩)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간주한 그는, 시를 수피사상을 전파하고 확립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의 시는 인도, 이란, 그리스 신화, 성경, 코란, 아랍과 이란의 민속, 고정관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담고 있다.

메블라나의 주요 작품은 우선 『디반 케비르(Dîvân-ı Kebîr, 테브리즈 썬셋딘의 시집)』가 있다. 가젤(Gazel)과 루바이(Rubâî: 4행시)를 사용하여 약 2만 5천구로 구성된 작품은 그 규모가 방대하다. 2만 5천여 대구(對句)로 이루어진 대서사시 『메스네비(Mesnevî; Mathnawi)』는 수피 사상을 집대성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피히 마 피흐(Fihî mâ fih)』는 메블라나가 살아있을 때 아들 술탄 웰레드와 문학생들이 기록한 대화록이다. 메블라나가 사망한 뒤 출판됐다. 『메잘리시 세바(Mecâlis-i Seb'â)』는 메블라나가 설교하거나 교우들과 교제할 때 나눴던 대화를 담은 언행록으로, 이야기를 코란의 구절이나 하디스(무함마드의



메블라나 모스크(코니아, 튀르키예)

연행록)를 곁들여 설명한다. 『멕투바트(Mektûbât)』는 메블라나의 서한집(書翰集)이다.

메블라나 젤라렛딘 루미가 창당한 메블레비(Mevlevi; 마울라위 Mawlawî) 종단은 메블라나가 철학과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아들 술탄 웰레드(Sultan Veled)가 체계를 잡았다. 13세기에 창시돼 오늘날에도 현존한다.

44년을 코니아에서 보낸 메블라나 루미는 1273년 12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메블라나 루미의 기일은 그가 새롭게 환생한 날로 여겨진다. 그가 사망한 날은 그가 추앙한 하나님(알라)에게 도달했다는 의미로 ‘결혼식 날’ 또는 ‘신부의 밤’을 의미하는 “쉐비 아루스(Şeb-i Arûs)”로 명명됐다. 매년 12월 17일, 코니아에서 열리는 쉐비 아루스(Şeb-i Arûs) 기념식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메블레비 수피 종단 추종자들이 참석하여 메블라나를 추모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을라나 루미, 메울라나 루미

- **다국어 표기** MEVLANA, Mevlânâ Celâleddî-i Rûmî(튀르키예어), Al-Rumi Jalal al-Din(جلال الدين محمد رومی)(아랍어), جلال الدين محمد رومی(페르시아어), Jalâl ad-Dîn Muhammad Rûmî(영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세마, 메블레위(메블레비, Mevlevi) 종단, 메블라나 영묘
- **참고문헌(오프라인)** Eflaki Ahmed, *Ariflerin Menkıbeleri*, Haz: Tahsin Yazıcı, Kabalcı Yayınları, İstanbul, 2006.
Gölpınarlı Abdülbâki, *Mevlânâ Celâleddin*, Ülkü Matbaası, Konya, 1962.
Kadir A., *Bugünün Diliyle Mevlana şiir8. Basım* (이중 Abdalbaki Gölpınarlı'nın 'Önsöz' ve 'Hayatı' bölümleri), Say Yayınları, İstanbul, 1993.
Köprülü M. Fuat, *Türk Edebiyatında İlk Mutasavvıflar*,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66.
Öngören Reşat, "Mevlânâ Celâleddîn-i Rûmî", *Türkiye Diyanet Vakfı İslam Ansiklopedisi*, C.29, Türkiye Diyanet Vakfı Yayınları, Ankara, 2004, s.441.

I B064 I 메블라나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vlana Mausoleum

메블라나의 영묘는 메블라나 데르갸흐(Mevlana Dergâhı 또는 메블라나 켈리에시(Mevlana Külliyesi)내에 있다. 데르갸흐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단의 복합단지(Complex)이며, 켈리에는 종단을 한정하지 않고 모스크를 중심으로 만든 복합단지를 일컫는 말이다. 모스크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다른 복합단지와 달리 메블라나 데르갸흐는 영묘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슬람 수학자 메블라나는 1273년 12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영묘 건설은 알레맷딘 카이세르(Alemeddin Kayser)와 무이네딧 페르반네(Muineddin Pervane) 그리고 그의 부인 귀르쥬 하툰(Gürcü Hatun)이 주도했다. 건축가는 베드렛딘 테브리지(Bedreddin Tebrizi)이다. 건설비용은 160,000 디르헴이었다. 메블라나 영묘에는 건축 연도에 대한 어떠한 비문도 없으나 메블라나의 사망 이후인 1274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건설된 영묘는 수많은 복원 공사와 수리를 거치며 현재는 원형과 많이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묘의 초기 모습은 4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관이 상하지 않도록 세운 남쪽 벽 정도로 이



메블라나 영묘 전경

루어진 단순한 형태였다고 한다. 여러 번의 수리 중 가장 큰 공사는 카라만과 오스만 시대에 있었다. 카라만 왕조의 알라엠티딘 알리 베이(Alâeddîñ Ali Bey, 재위:1357년~1398년)시대에 현재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기둥은 보강되었고 스타 볼트가 있는 돔과 16등분이 된 높은 미너렛을 건설한다. 이 미너렛은 터키석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알리 베이는 '녹색의 영묘'를 건설했다고 나온다. 또 다른 대대적인 수리는 오스만 시대의 경우 베야지드 2세 시대의 경우로 영묘 내부의 기둥, 돔, 남쪽 벽은 칼렘(kalem işi)로 장식하게 된다. 1964년 수리 때는 타일을 모두 쿼타히아 타일로 바꾸기도 했다.

영묘와 인접해 있는 복합단지인 신비주의 수행자들이 춤을 추며 수행하는 공간인 세마하네(semahâne), 세마하네와 이어진 작은 기도소, 수행자 숙소, 부엌, 정원, 경전 독송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킬라벳 방 등 다양한 부속시설이 20세기까지 끊임없이 추가되어 증축되었다. 1925년 튀르키예 정부의 이슬람화를 경계한 세속주의 정책 때문에 수피종단의 예배소인 텍케(tekke)나 자비에(zaviye)의 대부분은 폐쇄됐다. 1927년 이 메블라나 영묘는 다른 부속 시설과 함께 메블라나 박물관(Mevlana Müzesi)으로 바뀌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메블라나 박물관에는 메블

라나와 이슬람 수피즘과 관련된 유물을 비롯해 셀주크 시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블레위 영묘, 메블라나 박물관, 메블라나 켈리에시, 메블라나 모스크, 메블라나 데르야흐
- **다국어 표기** Mevlana Türbesi(튀르키예어), Mevlana Müzesi(튀르키예어), Mevlana Külliy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메블라나 젤라렛딘 루미, 메블레위 종단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22022013/6447d2ea-5fdf-411a-b0f0-7498753ce071.jpg>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large/22022013/d7ddf6a1-1719-4406-adf1-028a1858a5d6.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magaralı Haluk, “Mevlana’nın Türbesi”, *Türk Etnografya Dergisi*, 7-8, (1964~1965) 1966, pp.38~42.
Bakır Naci, “Konya Mevâna Dergahi”, *İstem Yılı* 5, sayı 10, 2007, pp.191~202.

I B065 I 메블레위 종단

- 시기 A.D. 10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vlevi Order

메블레위 종단(Mevlevi Order, 메블레비Mevlevi)은 1273년 코니아에서 사망한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젤랄렛딘 루미를 추종하는 수피 종단이다.

튀르키예어 식 표현으로 메블레비(Mevlevi) 혹은 메블라나(Mevlana) 종단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메블라나(아랍어의 mawlana, 튀르키예어 Mevlana,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라고 불렀고, 종단의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루미의 저작 가운데 페르시아어 운문으로 쓰여진 마스나위(Mathnawi: 운을 맞춘 이행 대구로 이루어진 책)는 매우 유명하며, 수피즘의 신봉자들 가운데서는 이 책이 코란 다음으로 신성한 이슬람의 경전으로 여기기도 한다.

젤랄렛딘 루미는 시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춤과 음악을 수피 의례에 도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에 의하면 춤을 통해 신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고 신과의 합일을 이루고 나면 그 경험과 감정은 단순한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고 오직 시와 음악으로만 전할 수 있다. 그의 제자들



메블레위 종단 초기를 재현한 동상(메블라나 박물관, 코니아)

은 빙빙 도는 춤을 메블레위 의례 형식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빙빙 도는 탁발승’(whirling dervish)이라는 명칭으로 서양에 알려졌다. 종단이 시작된 것은 루미의 아들 바하웃딘 왈라드에 의해서였고 그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종단의 수장 피르(pir, 페르시아어로 노인 혹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 아랍어에서의 셰이흐와 비슷한 의미임)가 루미의 성묘 주변에 건물을 증축해서 종단의 본부를 만들었다. 종단의 회원들은 15세기 이전에 이미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오스만 지배층과도 가까웠다.

종단의 피르는 메블레위의 이름으로 대단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단에 기부된 재산으로 재력도 대단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의 견제를 받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메블레위 피르는 정치적인 행보를 삼갔고 왕실의 기부 재산을 보상으로 받았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 셀림 3세 시기(1789년~1807년)의 근대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한 이스탄불 갈라타

메블레위하네(메블레위 수피 회관)의 셰이흐 갈립 데데와, 개혁의 부산물로 나타난 중과세 때문에 개혁을 지지하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메블레위 수피들이 그 사례다.

메블레위 수피들이 종종 음악과 서예를 가르쳤으므로 메블레위 수피 회관은 도시 문화의 중심지였다. 마스나위 이외에도 메블레위 종단이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들의 작품을 애호하고 번역했으므로 메블레위 종단은 페르시아어와 문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의 많은 시인, 음악가, 세밀화가 등 예술가들이 메블레위 종단의 회원이었고 거기서 훈련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블레비 종단, 메블레비 종단, 메블리에 종단, 메블라나 종단
- 다국어 표기 Mevlevi tarika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블라나 젤랄엠티 루미, 메블라나 영묘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Mevlevi Order»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77~378.
Serdar Ösen, Osmanlı Devlet ve Toplum Hayatında Mevlevilik: 19. Yüzyıl. İstanbul: Kitap, 2015.

I B066 | 메쉬루티예트 문학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URKISH LITERATURE OF CONSTITUTIONALISM PERIOD

17세기 말 영토를 잃고 서양보다 뒤처지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은 과거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술탄 마흐무드 1세(I. Mahmud)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했는데, 개혁운동의 첫걸음은 1731년에 육군 장교 양성을 목표로 헨데세하네(Hendesehane)라는 서양식 학교가 세워지면서 시작됐다. 무스타파 3세, 셸림 3세, 마흐무드 2세와 같은 술탄도 개혁 정책을 이어갔다.

이들은 분열되고 해체되는 제국을 살리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 행정, 예술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개혁을 시도했다. 메쉬루티예트(Meşrutiyet) 시대 또는 '탐색의 시대'로 불리는 이 시기는 1908년에 시작된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함께 1922년 11월 2일 오



메쉬루티예트 거리(안카라, 튀르키예)

스만 제국에서 술탄이 폐지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끝이 난다.

메쉬루티예트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 사회에는 투란주의, 오스만주의, 이슬람주의, 튀르크 민족주의로 구분되는 네 가지 주요 정치 노선이 있었다. 공통된 목표는 오스만 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방법과 정치노선 및 이념은 차이가 있었다. 투란주의는 모든 튀르크 민족이 공동 노선과 연대를 하여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오스만 주의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가치를 이념화한 지식인 그룹이었다.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는 가치로 연대를 주장했다. 튀르크 민족주의는 당시 오스만 제국 내의 튀르크인들의 연대를 주장하여 후에 튀르키예 공화국 출범 당시 기본 튀르키예 민족주의의 토대가 된 이념이다. 이런 네 가지 정치노선과 이념은 자연스럽게 문학에도 반영되어 문학에서도 각각 다른 문예사조를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839년 11월 3일 공포된 탄지마트 칙령은 서양의 가치와 제도를 국가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서구적 가치와 기준에 맞춘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과 개선이 이뤄졌다.

제1차 메쉬루티예트는 ‘새로운 오스만’을 창설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나므크 케말, 지야 파샤, 미하트 파샤 같은 지식인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고, 1876년 12월 23일 오스만 제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제2차 메쉬루티예트는 1889년 비밀리에 설립된 연합진보당의 노력으로 1908년 7월 23일 실행됐다.

제2차 메쉬루티예트 시대가 탄지마트 개혁과 다른 점은 ‘조직과 단체’가 실행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은 메쉬루티예트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튀르키예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했던 연합진보당은 이 시기에 생겨난 조직이다.

제2차 메쉬루티예트 기간에 정치와 문예사조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내셔널리즘, 사회주의에

서 영향을 받았다. 여성들의 활동도 활발해졌고, 출판 분야에서도 여성 잡지가 발행되었다. 정치와 사회생활에도 반영이 돼 몇몇 정당과 협회는 별도로 ‘여성부’를 설립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전쟁이었다. 오스만 제국에 속한 나라 중에 아랍과 알바니아가 독립운동을 확대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을 발칸반도에서 밀어내기 위해 결속했다. 이러한 결속이 계속되자 오스만 제국은 지속되는 항전에 패배를 거듭했고, 급기야 불가리아 군대는 이스탄불 교외 차탈자(Çatalca)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다.

메쉬루티예트 시대의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작가들은 두 가지 노선으로 나뉘었다. 이 시대 작가들은 거의 모두 정치활동에 뛰어들었고, 작품에서도 자신의 이념을 다채롭게 묘사했다. 전쟁을 겪는 오스만 제국 지식인들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몰입했는데, 하나는 몰락하는 조국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모든 상황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희망을 키우는 두 가지 부류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분위기는 개인주의와 사회참여형 작가 그룹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작가들은 페즈리아티(Fecr-i Ati) 동인이 됐고, 사회 참여 성향이 강한 작가들은 민족 문학(Milli Edebiyat) 문예사조를 형성했다.

제2차 메쉬루티예트의 뚜렷한 특징은 출판 기술의 혁신으로 인쇄기술이 발전했으며 풍자 문학이 대세라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예 입헌 혁명기 문학
- 다국어 표기 Meşrutiyet Dönemi Edebiyatı(튀르키예어), TURKISH LITERATURE OF CONSTITUTIONALISM PERIOD(영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1세(I. Mahmud), 무스타파 3세, 셀림 3세, 마흐무드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kırımlı Atilla, *Edebiyat İncelemeleri. Cem Yayınları*, İstanbul, 1983.
Sanhan Zeki, *Kurtuluş Savaşı Günlüğü*, C.1, Öğretmen Yayınları, Ankara, 1982.
Tanpınar Ahmet Hamdi, *19 uncu Asır Türk Edebiyatı Tarihi*, İstanbul, 1967.
Tuncay Mete ve diğerleri, *Türkiye Tarihi Cilt 4: Çağdaş Türkiye*, Cem Yayınları, İstanbul, 1992.
Tunaya T. Zafer, *Türkiye’de Siyasal Partiler*, C.1, Hürriyet Vakfı Yayınları, İstanbul, 1984.
Tural Sadık Kemal ve diğerleri, *Türk Dünyası El Kitabı 3. Cilt Edebiyat*, 2. Baskı,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Ankara, 1992.

I B067 | 메스케티 투르크인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조지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장주영 ● 라틴 문자 Meskhetian Turks



메스케티안 투르크 민족 국기

메스케티 투르크인(아히스카 투르크: Ahiska Turk 혹은 에디게스:Ediges)라고도 불림)은 조지아 남부와 남서부의 바툼(Batum)의 근교 메스케티아(Mesketya)에서 발원한 투르크계 민족으로, 현재는 55만 명 정도가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에 분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튀르키예에는 각각 10만 정도의 메스케티 투르크인이 살고 있다. 러시아의 스타브로폴스키 변

강(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에서는 메스케티 투르크인들이 50%로 가장 많은 인구비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을 투르크(тюрк), 아히스카(ахыска), 아히스카-투르크인(турки-ахыска), 자바헤티-투르크인(турки-джавахцы), 메스케티 투르크인, 캅카스 투르크인 등으로 부른다.

11세기 조지아의 메스케티 산맥 지역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술탄과 조지아 왕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왔지만,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편입되면서 투르크계 민족이 되었다. 하지만 1829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아드리아폴스키 조약에 따라 메스케티-자바헤티 지역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제국에 할양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면서 조지아에 편입된다.

1944년 스탈린에 의해 약 16만 명의 메스케티인들은 메스케티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고, 기차의 짐칸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수송되던 중 무려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비에트의 메스케티인에 대한 탄압은 1989년 절정에 달했으며, 그 결과 메스케티인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접경지대들에 정착하거나 러시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약

20만 명의 인구 중 상당 부분이 이후 캅카스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중 몇백 명만이 다시 그들의 고향 메스케티아에 정착할 수 있었다. 메스케티인들은 중앙아시아와 메스케티아를 제외하고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튀르키예어의 아나톨리아 동부 방언을 사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스케트 투르크인
- 다국어 표기 **أترك المسخيت** (아랍어), **Турки-месхетинцы** (러시아어), **Ahıska Türkleri**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bunX>
- 참고문헌 (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Johanson L., Demir, N., & Yilmaz, E.,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Grafiker, 2002.

I B068 | 메이하나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Meyxana

메이하나(Meyxana)는 아제르바이잔의 타악기 연주에 맞춰 시를 낭송하는 장르이다. 메이하나를 부르는 사람은 메이하나츠(meyxanaçı)라고 부른다. 메이하나에는 2명 이상의 메이하나츠가 있어야 한다. 메이하나츠들은 시를 낭송하면서 즉흥적인 재담을 덧붙여야 한다. 메이하나의 하위 구조인 고시마(qoşma)’, 바야트(bayati)’, 개라일르(gəraylı)’ 등은 다른 아제르바이잔 구전 문학 시 장르처럼 정해진 규칙이 없다. 그러나 메이하나의 독특함이 이 장르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메이하나의 역사는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음악 전문가들은 메이하나의 역사가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메이하나가 최소 550년~600년 전에 시작되었다

는 것이다. 니자미 타그소이(Nizami Tağısoy)는 메이하나가 ‘قام-박스(qam-baksı)’와 ‘오잔-아시옥(ozan-aşuq)’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메이하나츠로 활동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은 19세기에 활동한 미르재 바그르(Mirzə Bağır)이다. 그는 주로 바쿠의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공연했다. 그는 소박한 시적 문체,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 고전 시인 작품들의 능숙한 활용 면에서 매우 뛰어난 메이하나츠이다.

메이하나의 장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압운과 래디프(rədif, 각 연Beyt의 마지막에서 압운 다음 반복되는 어휘)’가 있는 장르와, 압운과 래디프가 없는 장르로 구분된다. 다른 시나 음악 장르와 마찬가지로 메이하나 장르에서도 애국심과 종교를 주제로 하는 메이하나들이 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메이하나가 금지되기도 했다.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하기 전까지 메이 하나는 각 마을에서 메이하나츠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구술공연됐다. 메이 하나는 소비에트 시기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학계에서는 메이하나가 진지한 예술의 형태로 여겨지지 않았고, 남자들의 놀이문화 정도로 여겨졌다.

메이하나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는 엘리아가 바히드(Əliəğa Vahid)’가 꼽힌다. 그는 20세기 들어 1920년~1930년대에 활동하면서 사회·정치적 이슈를 주제로 메이하나를 창작했다. 그는 1940년대에 히틀러(Hitler)’와 파시스트 군대에 대항해 풍자적인 메이하나를 창작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이하네
- 다국어 표기 Meykhana(영어), Meyhane(튀르키예어), мейхана(러시아어), Meyxana(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메이하나츠
- 참고문헌(오프라인) Rəhimova Aytac Elxan qızı. *Azərbaycan Musiqisində Meyxana Janrı*. Bakı: Nurlan, 2002.

I B069 | 메츠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몽골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악령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chkey

메츠키(Mechkey)는 투르크 신화에 나오는 악령 또는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데, 지역에 따라 메스케이(meskey), 메트스카이(metskay), 마친(maçın), 메친(meçin), 므스탄(mıstan), 무스탄(mustan)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브르(Ubr), 우푸르(Upur), 오부르(Obur), 부파르(Vupar) 등도 유사한 존재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인 메츠키는 우랄, 시베리아 지역 투르크, 카자흐, 키르기스인들의 사이에서 숲의 영혼으로 알려져 있다. 바시키르와 타타르 전설에서는 묘지에서 나와(또는 쫓겨나)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존재이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닥까지 길게 늘어진 새빨간 혀를 가지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사람을 삼켜버린다.

다른 구전에 의하면 메츠키는 불의 형태로 호수(물에) 사는데, 그의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저주를 부리고, 여성이며, 많이 먹고 마시는 영혼이다. 가가우즈 투르크인은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메츠키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메츠키는 페스트 같은 전염병으로 죽음을 퍼트리고 다니는 곱사등 노인이다. 바시키르 동화에서 메스케이(메츠키)는 할머니로 묘사되는 일도 있다. 일부 구전에서는 메츠키는 피를 마시는 흡혈귀이며, 흡혈하며 페스트 같은 병을 퍼트린다고 전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스케이, 메트스카이, 마친, 메친, 므스탄

● 다국어 표기 Мәчкәй(타타르어), Meçkay(아제르바이잔어), Meçkey(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tnur Gülhan, “Anadolu, Tatar (Kazan) Ve Başkurt Türklerinin Masallarında İnsan Yeme (Yamyamlık) Motifi”, *Karadeniz Uluslararası Bilimsel Dergi* (9), pp.132~151.

Altın Kübra Yıldız, “Hastalık Adları Bağlamında Kötü Ruhların Dönüşümü: Türkistan’dan Anadolu’ya”, *Türk Dünyası İncelemeleri Dergisi*, 19/1 Yaz-Summer 2019, pp.159~180.

I B070 | 메틴 알트오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tin Altiok

메틴 알트오크(Metin Altiok)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집중했던 튀르키예의 현대 시인이다. 그는 1941년 3월 14일 이즈미르 베르가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쇄소에서 근무하는 실레이만 알트오크와 그의 부인 멜라하트 모랄 사이에서 첫째 아이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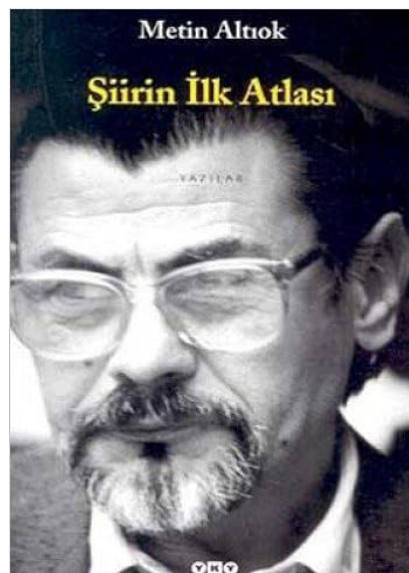
그는 이즈미르 카르쉬우야카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1963년 고등학교 졸업 후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대학 인도학과로 입학한 그는 철학과로 전과하여 1971년 대학을 졸업했다. 중학 시절부터 문학, 그중에서도 시에 관심이 컸던 메틴 알트오크는 앙카라에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림에도 폭 빠져 있었다. 이 무렵 튀르키예 화가인 아비딘 디노(Abidin Dino)를 알게 되었고, 디노의 그림에 시를 써주었다. 그의 첫 개인전은 1966년 앙카라 프랑스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철학과 재학시절에 만나 비평가로 활동하던 푸순 아카틀르(Fusun Akatlı)와 약혼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난 뒤였다. 적십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그는 같은 해 7월 결혼했고, 1969년 딸 제이넵이 태어났다. 이때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직업이 없이 지낸 알트오크는 1974년 중동행정국(Ortadoğu Amme İdaresi)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 무렵 그는 잡지 <소유트(Soyut)>, <튀르키예 문집(Türkiye Yazıları)>에 자신의 시를 발표했다. 1976년에는 첫 시집 『방랑자(Gezgin)』, 1978년에는 『정착 외국인(Yerleşik Yabancı)』, 1979년에는 세 번째 시집 『나만의 사냥꾼(Kendinin Avcısı)』을 출판했다.

1979년 부인과 이혼하고 난 후 앙카라에서 하던 일도 그만두자, 메틴 알트오크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대도시를 벗어난 적이 없는 알트오크는 지방도시로 가 빈필 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근무했다. 여기서 교직에 몸담고 있던 네바하트 체틴(Nebahat Çetin)을 만나 재혼했다. 1980년 9월 12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그 영향으로 삼엄한 분위기에 교직 생활을 하던 시인은 1982년 『작은 비극(Küçük Tragedyalar)』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1986년에는 같은 도시에 있는 겐취 고등학교로 전근을 갔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코니아 카라만 이맘

하탑 고등학교로 옮겼다. 같은 해 5번째 시집 『실크와 금실(İpek ve Kılaptan)』을 출간했다. 코니아에서 약 3년을 지낸 시인은 알코올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 1990년 퇴직했다.

은퇴 이후 앙카라로 돌아와 문학과 그림에 몰두하던 알트오크는 1990년에는 『진실의 이면(Gerçeğin Öte Yakası)』과 『사행시와 드로잉(Dörtlükler ve Desenler)』을, 1991년에는 『흑심(Süveyda)』, 1992년에는 『투르크 스타일 시들(Alaturka Şiirler)』를 잇따라 출간했다. 또한 문학잡지에 시화를 틈틈이 기고했다. 1990년대 초 앙카라에서 발행되는 잡지 <프로메테(Promete)>에서 시작한 「시의 첫 지도(Şiirin ilk Atlası)」를 1992년 책으로 묶어 발간하기도 했다.



『시의 첫 지도(Şiirin ilk Atlası)』 표지
Source: <https://www.yapikrediyayinlari.com.tr>

그는 『나만의 사냥꾼(Kendinin Avcısı)』으로 1980년에 외메르 파루크 토프락 상을, 1989년에는 할릴 코자괴즈 상을 받았고, 1990년에는 『흑심(Süveyda)』으로 시 부문에서 ‘제말 수레야 상’을 수상했다.

메틴 알트오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도시인의 고통과 아픔을 평범하고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알트오크 시는 사랑, 죽음, 외로움, 소외, 여행, 고통을 주로 다루었다. 메틴 알트오크의 시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다양해서 루바이(rübai; 4행시)와 가젤(gazel; 5연~15연으로 구성된 고전 운율시)과 같은 전통 형식은 물론 하이쿠(haiku; 일본 전통 시 형태로 3구 17자로 된 단시)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도 있다.

알트오크는 정형화된 시 형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내용 표현에 중점을 두었던 튀르키예의 ‘가리프(Garip)파’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튀르키예어의 언어 규칙을 뛰어넘고자 했던 ‘두번째 신작(İkinci Yeni)’파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사회주의 예술관이 지배적이었던 문단에서 소외된 개인의 내면세계를 다룬 메틴 알트오크는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 면에서 동시대 작가들과는 구별되는 색다른 시를 선보였다.

1993년 7월 2일, 피르 술탄 압달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참석했던 시바스에서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7일 동안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던 그는 7월 9일 앙카라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앙카라 카르쉬야카 묘지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틴 알트옥

● 다국어 표기 METIN ALTIO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앙카라, 코니아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ıok Metin, *Şiirin İlk Atlası*, Promete Yayınları, Ankara, 1992.

Altıok Metin, “Metin Altıok’a Sordular, Söyledi”, *Gölgesi Yıldız Dolu, Metin Altıok Kitabı*(Haz. Zeynep Altıok Akatlı), Doğan Egmont Yayınları, İstanbul, 2013.

Baki Hayatı, *Şiirin Kesik Damarları 2 Öldürülen Şairler Kitabı*, Promete Yayınları, Ankara, 1994.

Bek Kemal, “Metin Altıok Şiirinde Konu ve Biçim Özellikleri”, *Şiirden Eleştiriye, Bordo Siyah Yayınları*, İstanbul, 2004.

Canberk Eray, “Cumhuriyet Dönemi Şiirine Genel Bir Bakış”, *Şiir ve Şiir Kuramı Üstüne*, Düzlem Yayınları, İstanbul, 1996.

Dağistanlı Tuğba, *Metin Altıok ve Şiirlerinin Yapı, Tema ve Üslup Bakımından İncelenmesi*, Yüksek Lisans Tezi, Manisa: Celâl Bayar Üniversitesi, 2010.

Tüleylioğlu Orhan (Hazırlayan), *Merdivende Üç Şair*, Kırmızı Kedi Yayınları, İstanbul, 2012.

Yaşar Fatma, Metin Altıok’un Şiirlerinin Tematik ve Poetik Açısından İncelenmesi, Yüksek Lisans Tezi, Van: Yüzüncü Yıl Üniversitesi, 2005.

I B071 | 메흐디 휘세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ehdi Hussein

20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메흐디 휘세인(Mehdi Hüseyin)은 1909년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가자흐(Qazax mahalı) 지역 시골 마을인 쉬흘르(Şıxlı kəndi)에서 태어났다.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펼친 그는 작가, 극작가, 비평가였다. 그는 1964년에 아제르바이잔 민족 작가. 1950년에는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 국가상을 받았다. 그는 1929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 대학교 역사학과를 마치고, 1938년에 모스크바 국립 영화연구소를 졸업했다. 이어 아제르바이

잔 프롤레타리아 작가협회의 위원, 1930년~1934년에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작가연맹 조직위원회 사무관,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제1부장, 1958년~1965년에 소비에트 작가연맹 사무관을 역임했다. 1965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작가는 바쿠의 현충원에 묻혔다.

그의 첫 논문인 『우리의 미래주의 현상(Bizdə futurizm cərəyanı)』은 1926년에 출판됐다. 첫 단편 『양털 깎기(Qoyun qırxımı)』가 1927년에 발행됐다. 『봄의 물(Bahar suları, 1930)』이나 『하베르(Xavər, 1930)』라는 단편집에 실린 단편소설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당시 아제르바이잔 시골마을 사람들의 삶과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으며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메흐디 후세인 모비

『터널(Tunel, 1927)』, 『피의 복수(Qan intiqamı, 1928)』, 『양심(Kin, 1935)』, 『홍수(Daşqın, 1936)』와 같은 소설에서는 새로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 흥미롭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개성있는 줄거리를 만들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그는 이러한 사회주의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산문인 『테를란(Tərլan, 1940)』, 『고향의 꽃들(Vətən çiçəkləri, 1942)』, 『모스크바(Moskva, 1942)』와 『하트(Ürək, 1945)』, 『통곡(Fəryad, 1945)』, 『아침(Səhər, 1953)』에서는 소비에트 이념의 강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석유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압세론(Abşeron, 1949)』이라든가, 그 속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검은 돌들(Qara daşlar, 1959)』, 『땅 밑에 있는 강도 바다로 흐른다(Yeraltı çaylar dənizə axır, 1965)』는 사회와 도덕의 문제에 대한 과감한 비판적 관점이 눈길을 끈다.

극작가이기도 한 그는 역사 및 현대 주제에 관한 희곡들도 썼다. 그는 희곡 『명예(Şöhrət)』과 더불어 드라마 창작을 시작했다. 사극 『니자미(Nizami, 1942)』와 『자반쉬르(Cavanşir, 1957)』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애국심과 영웅 전통을 다루었다. 이밖에 『불(Alov, 1961)』, 『초조(İntizar, 1944)』, 『셰크 샤밀(Şeyx Şamil, 1941)』, 『형제들(Qardaşlar)』 등의 희곡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지만, 예술적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다.

그는 희곡작품 외에도 회고록과 기행문(road notes) 등도 저술했다. 그의 기행기 중에는 『한

달과 하루(Bir ay və bir gün, 1963)』란 작품이 잘 알려져 있다. 영화 시나리오도 썼는데, 『시인(Şair, 1939)』, 『패탈리 칸(Fətəli xan, 1947)』, 『아침(Səhər, 1958)』, 『검은 돌들(Qara daşlar, 1958)』 등의 작품이 있다.

그는 문학 비평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다른 문학 비평가들의 작품들과 다르게 그의 비평은 급진주의적이고 담대하다. 작가 관련 연구는 1958년에 발행된 『문학과 예술에 대한 문제들』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 그는 예술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비평과 문학론에서도 이념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디 후세인

● 다국어 표기 Mehdi Hüseyin(튀르키예어), Мехти Гусейн(러시아어), Mexdi Husayn(영어), Mehdi Hüseyin(아제르바이잔어), Mehti Hüssein(독일어), Mehdi Husay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메흐디 후세인,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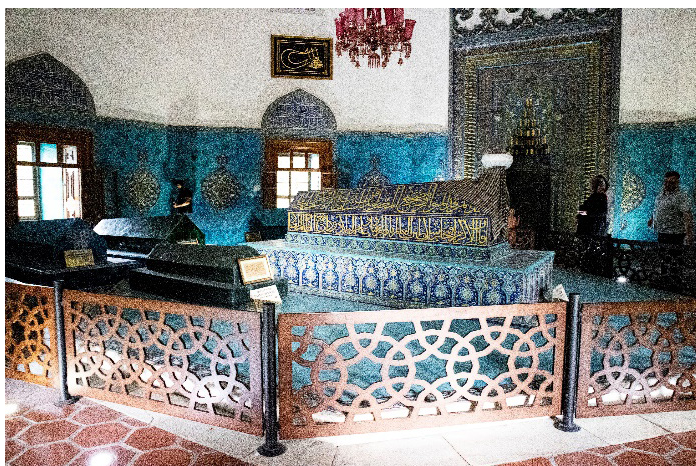
Seyidov Yəhya, *Mehdi Hüseyin (monoqrafiya)*,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79.

I B072 | 메흐메드 1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I

메흐메드 1세(I.Mehmed)는 바이에지드 1세와 데블레트 하툰이라는 노예 출신 후궁 사이에서 태어나 초기 오스만 국가의 최대 위기였던 내전 시기(1402년~1413년)를 종결하고 오스만 영토를 재통일했다. 그의 별칭은 왕자를 뜻하는 첼레비, 혹은 젊은 주인(genç efendi)을 뜻하는 키리시치(kirişçi)이다. 앙카라 전투로 중앙아시아의 유목 군주 티무르에 의해 선왕 바이에지드와 일부 왕자가 볼모로 사로잡혀 끌려가고 바이에지드 시대에 병합되었던 여러 아나톨리아 공국들이 재건되자 오스만 영토에 남은 쉴레이만, 이사, 메흐메드, 무사 왕자들은 모두 티무르

제국과 주군-가신 관계에 놓였고 각각 특정 지역에 자리잡고 복잡한 내전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은 영토를 각각 나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레이만이 이사를, 무사가 실레이만을, 메흐메드가 무사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골육상쟁을 벌였다.



메흐메드 1세의 관

메흐메드는 선왕 바이에지드 1세 재위시에 원래 에레트나 공국이 있었던 북(北)아나톨리아의

룸 주(일라예트)의 주장관으로 임명됐었고, 내전 시기 (발칸반도를 큰형 실레이만과 동생 무사가 차지하던 동안) 북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세력 기반을 구축했다. 초기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유력했던 실레이만 왕자를 견제하기 위해 메흐메드는 무사 왕자의 발칸에서의 봉기를 후원했으나 무사가 성공한 후에는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무사의 급격한 중앙집권 정책에 변방 전사(gazi)들이 이반하여 메흐메드가 통일 군주가 되었다.

그는 내전기 이전의 발칸 가신국들을 대부분 다시 복속시켰고 아나톨리아에 재건된 가신국들에 대해서도 차츰 다시 우위를 차지했다. 그의 치세는 많은 반란에 대한 진압으로 점철되었으니, 티무르가 풀어놓아 비잔티움 및 베네치아의 원조를 얻고 아이든 공국의 군주였던 쥐네이드와 협력한 무스타파 왕자의 반란(1415년~1416년), 종교 절충주의적 수피 신앙과 가지의 변방 정서가 결합한 셰이흐 베드렛딘의 반란(1416년)이 대표적이다. 이런 반란은 다시 아나톨리아 공국들의 이반의 기회가 되었으므로, 이스펜디야르 공국(1417년), 카라만 공국(1419년)들을 다시 토벌해야만 했다. 티무르 제국의 샤루흐가 카라코윤루의 불복종의 배후에 오스만 국가가 있다고 보고 메흐메드 1세에게 위협을 가해 온 것도 당시 오스만 국가에는 매우 무서운 일이었다. 샤루흐는 서신으로 내전기의 형제살해에 대해 몽골 제국의 야사(법)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을 가했고, 이에 메흐메드는 왕권은 나눌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오스만 국가의 전통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의 재위기간은 내전의 여파를 수습하고 오스만 국가와 제도의 영향력을 주변 지

역에 다시 떨친 시기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1세, 메흐메트 1세
- 다국어 표기 I. Meh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전투, 바이에지드 1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mehmed-i>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Mehmed 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62~364.
Halil İnalçık, “Mehmed I, ”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8. 2003 pp.391~394.

I B073 | 메흐메드 2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II

제7대 오스만 술탄인 메흐메드 2세(1432년~1481년,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는 무라드 2세의 4남으로 1432년 봄 에디르네에서 태어났다. 1443년 마니사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그는 1443년 말 형 알라엠티딘 알리 첼레비가 죽음으로써 유일한 왕위계승자가 되었다. (알라엠티딘 알리가 암살을 당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무라드 2세는 경건한 은둔 생활을 위하여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헝가리 및 카라만과 각각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메흐메드 왕자가 12세였을 때 술탄의 지위를 물려주고 부르사로 물러났다. 12세의 어린 술탄 치하에서 제국의 수도 에디르네는 많은 정치적 갈등, 예니체리의 반발, 후루피 수피 집단의 반란, 대화재 등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고, 헝가리 주도의 십자군이 쳐들어오자, 무라드 2세가 소환되어 군을 지휘하여 겨우 승리할 수 있었다(1444년 11월 바르나[Varna]의 십자군).

그 후에도 어린 술탄은 데브시르메 출신의 주전파 관료들과 합세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을 야심적으로 기획하고, 은 함량이 낮은 동전을 발행하여 예니체리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물의를 빚었고 결국 주화파 대제상 찬다를르 할릴 파샤의 종용으로 무라드 2세가 다시 1446년 술탄으로 복귀하고 메흐메드 2세는 폐위되어 마니사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는 폐위 후에도 코소보, 알바니아 등지의 여러 전투에 무라드 2세와 함께 참전했고, 마니사 주변의 서(西)아나톨리아를 사실상 지배하며 거기서부터 에게 해의 베네치아 영토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1451년 무라드 2세가 사망하자 그는 다시 즉위하여 일단 모든 기존 관료의 관직 임명을 다시 승인하는 등 조용한 유화책을 썼지만, 곧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452년 루멜리 히사르라는 요새를 보스포루스 해협의 유럽 해안에 건축했고 거대한 공성용 대포가 제작되었으며, 군을 결집하여 에디르네에서 1453년 봄 출정했다. 애초에 방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위는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54일간 이어졌고, 마침내 성벽의 부서진 틈으로 오스만군이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정복 성공 후 3일간 약탈이 허락되었다. 이 도시의 정복은 7세기 이래 무슬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로써 메흐메드 2세는 발칸과 아나톨리아, 흑해와 에게해를 모두 포함하는 대제국에 에디르네보다 걸맞은 수도를 얻은 것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스탄불로 개명되었고, 파괴된 부분들은 재건되었고, 궁전들과 상업지구와 거주지구가 개발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메흐메드 2세는 정복자(Fatih)라고 불렸고, 유목 군주의 칭호인 하칸(카간)과 함께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인 카이사르라고 칭하도록 하여 스스로 보편 군주임을 주장했다. 그의 재위기간은 정복 전쟁의 연속으로 점철되었으며 세르비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남단의 모레아 등 남아 있던 발칸 국가들은 이제 전투와 외교로 병합되거나 정복이 진행되고 있었고 베네치아 영토들은 오스만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시달렸다. 다뉴브강 이북에 대한 지배는 확고하지 못했고, 1456년 베오그라드 포위는 실패



메흐메드 2세, Gentile Bellini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했다. 흑해 북안에서는 제노바의 거류지들을 소탕했고 기라이 왕조의 크림 칸국을 가신국화했다. 아나톨리아에 잔존한 튀르크멘 공국들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카라만은 1474년 병합되었으며 우준 하산이 이끌었던 악코윤루도 1473년의 전투에서 크게 축소되었다. 트라브존에 있었던 비잔티움의 작은 잔존 세력도 1461년 병합되었다. 재위 말에 가서 군사적 팽창은 이전처럼 쉽게 전개되지 않았다. 맘루크와 헝가리와의 대치 상황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으며 로마를 최종 목표로 하는 이탈리아 원정과 성당 기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로도스섬 원정은 비용만 많이 든 실패작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행정적, 군사적, 정치적 전통이 정비되어 샤리아와 병존하는 ‘카논’이라는 이름의 세속 법제도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도 흔히 메흐메드 2세 재위기간 말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중앙집권적 제국 건설의 야망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으니, 여러 차례에 걸친 화폐의 평가 절하, 국가 전매의 확대, 세금 청부 계약의 확산, 사유지 몰수 등은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그러나 제국 건설의 시도가 대단한 업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2세, 메흐메트 2세
- 다국어 표기 II. Meh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라드 2세, 바이에지드 2세, 이스탄불, 데브시르메, 크림 칸국, 카논
- 참고문헌(오프라인) Colin Heywood, “Mehmed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64~368.
Halil İnalçık, “Mehmed 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8, 2003, pp.395~407.

I B074 | 메흐메드 3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III

메흐메드 3세(1566년~1603년, 재위: 1595년~1603년)는 무라드 3세와 알바니아계 후궁 사피에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증조할아버지 쉴레이만 1세의 재위 말년에 마니사에서 태어났는

데, 쉴레이만 1세는 정복자 메흐메드 2세의 이름을 따서 그를 메흐메드라고 명명했다. 8세였던 1574년 아버지 무라드 3세가 즉위하자 톱카프 궁전에 살게 되었고, 1582년 그의 할례를 기념하여 수십 일 동안 성대한 축제가 베풀어지기도 했다. 1584년 마니사에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메흐메드는 그곳에서 11년간 머물렀고 나중에 술탄이 된 두 아들 아흐메드와 무스타파가 각각 1590년과 1591년에 태어났다.

메흐메드 3세가 즉위하고 통치한 1595년부터 1603년까지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합스부르크와 헝가리 전선에서 긴 전쟁이 계속되었고, 대내적으로는 티마르 기병의 불만이 젤랄리 반란들이라고 총칭되는 16세기 말-17세기 초의 아나톨리아 군사 반란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할아버지 쉐림 2세, 아버지 무라드 3세와 마찬가지로 톱카프 궁에 머무르면서 제국을 통치하는 것을 선호했다. 궁정 정치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궁을 비우고 원정을 지휘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다. 그가 1596년 합스부르크와의 전쟁터에 나간 것은 고위 관료들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그들 중 하나가 전쟁터에 나가면 수도에 남아 있는 다른 파벌의 고위 관료가 보급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대재상 시난 파샤의 간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596년의 하초바(Haçova) 전투의 승전으로 그에게 가지(gazi)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그러나 전투에 나서서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무라드 3세가 권력 장악을 위해 자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총신(寵臣)을 육성하여 상당히 성공했던 것과는 달리 메흐메드 3세는 효과적으로 술탄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고, 그러한 공백은 술탄 모후 사피예에 의해 채워졌으니 사피예는 거의 섭정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

술탄 모후는 관료계와 궁정에 모두 대단한 충성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중앙 정치를 장악했다. 그러나 사피예 모후의 궁정 지배는 많은 폐단을 낳았고 시파히와 예니체리 등 중앙군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1600년 사피예의 측근으로 세금 청부계약의 운영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국정



메흐메드 3세, Cristofano dell'Altissimo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목된 유대인 여성 에스페란자 말히(Esperanza Malchi)는 시파히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으며, 1603년 젤랄리 반란의 진압군 지휘관들의 선정이 뇌물수수로 왜곡되었다고 반발하여 일어난 또 다른 시파히 반란에서는 궁정의 최고위 시종들이었던 백인 환관장 가잔페르 아아와 흑인 환관장 오스만 아아가 살해되었고, 전임 대재상 사앗츠 하산 파샤(Saatçı Hasan Paşa)는 술탄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피예 모후의 편지를 공개하고 사면받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형성됐던 궁정의 정치적 네트워크와 오스만 왕조의 혼란상을 잘 보여준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3세, 메흐메트 3세
- 다국어 표기 III. Mehem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라드 3세, 티마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Şefik Pekseven, “Mehmed I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68~370.
Feridun Emecen, “Mehmed I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8, pp.407~413.

I B075 | 메흐메드 4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IV

메흐메드 4세(1642년~1693년, 재위: 1648년~1687년)는 술탄 이브라힘과 그의 후궁 하티제 투르한의 아들로, 정변으로 아버지가 폐위되고 7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그는 최연소로 즉위한 오스만 술탄이었으며, 39년이나 되는 긴 재위기간은 쉴레이만 1세의 4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이다. 그가 즉위한 후 처음 8년간은 오스만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적 위기들로 점철되었다. 역병과 기근, 크레타 전쟁(1645년~1668년), 베네치아에 의한 해상 봉쇄, 물자 부족, 재정 적자, 특별세의 징수, 누적된 불만으로 걸핏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예니체리 등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었다. 게다가 술탄 메흐메드 4세의 궁정에는 할머니 쿼셈과 어머니 하티제 투르한, 두 명의 모후

가 있었고 이들이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하여 갈등을 벌인 끝에 쿠프렐뤼 하렘의 시종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1651년). 하티제 투르한과 그의 파벌이 궁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정치적 안정은 요원했다. 4건의 큰 반란이 수도 이스탄불에서 일어났고, 임명되었던 대재상이 13인이나 되었다.

결국 1656년 정치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해 하티제 투르한이 협상 끝에 임명한 대재상이 유명한 쿠프렐뤼 메흐메드이다. 그는 임기 중에 직무 수행의 안정을 위해 모든 관료의 임면권 등을 비롯한 여러 특권을 보장받고 대재상직에 임해 철권통치를 폈고, 5년 후에 죽었지만 그의 아들 쿠프렐뤼 파즐 아흐메드가 대재상직을 이어받았고, 요직들이 쿠프렐뤼 가문의 일원 혹은 측근들에 의해 장기간 채워졌다. 쿠프렐뤼 가문의 통치는 많은 반대파를 억압하고 죽이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질서를 재건했고, 크레타 전



메흐메드 4세, John Young II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쟁과 북방 원정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쿠프렐뤼 가문이 통치 전반을 장악한 반면에 메흐메드 4세는 소년 시절 이래로 온갖 재난을 겪은 이스탄불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에디르네에 거주하면서 사냥 여행을 즐겼다. 메흐메드는 이곳에서 여가를 즐겼고, 아들의 할례,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를 1675년에 2건이나 길게 베풀기도 했다. 그는 남자다운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데 꽤 신경을 썼고, 1672년 폴란드 원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의 사냥 취미는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치이자 술탄의 국정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로 보였다.

특히 1683년 제2차 빈 포위의 실패 이후 신성동맹(합스부르크, 폴란드-리투아니아, 베네치아, 교황령으로 구성)과의 전쟁 상황이 악화를 거듭했고, 헝가리 지역이 대거 점령당한 가운데 관료들의 부패로 최전선의 군대에 대한 보급이 부실하자 북방전선에서 군이 반란을 일으켜 이스탄불로 진격하여 메흐메드 4세를 폐위하고 동생 쉴레이만 왕자를 즉위시켰다. 메흐메드 4세는 자기 아들 무스타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반란자들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고 왕위를 내주었으니, 이는 메흐메드 4세가 시해당한 자신의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례에서 매우 명확하게 학습한 교훈, 즉 반란군의 요구를 제때 들어주지 않으면 폐위는 물론 시해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17세기 초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오스만 제국사에서 새롭게 패턴으로 등장한 중앙군의 반란에 의한 폐위와 정권교체에 왕실도 익숙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4세, 메흐메트 4세
- 다국어 표기 IV. “Avci” Mehme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크레타 전쟁(1645~1668), 키프릴뤼 가문, 대재상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han Börekçi, “Mehmed IV,”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70~371. Abdülkadir Özcan, “Mehmed IV,”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8, pp.414~418.

I B076 | 메흐메드 5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V(Reşid)

메흐메드 5세(1844년~1918년, 재위: 1909년~1918년)는 압달메지드 1세의 아들로, 형 압달하미드 2세가 연합진보당에 의해 폐위된 1909년 4월에 65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그의 재위기간 중 메흐메드 5세는 입헌군주였으며 실질적인 통치는 연합진보당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내우외환을 많이 겪었는데, 즉위 초인 1909년에는 아르메니아인의 반란들이 있었고, 1910년에는 알바니아 반란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1911년에는 이탈리아가 트리폴리타니아(리비아)를 공격했고, 발칸반도에서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가 동맹하여 오스만 제국을 쳐들어온 발칸전쟁이 일어났다. 오스만 제국은 리비아와 발칸반도 거의 전체를 잃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연합진보당은 1913년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를 시작했고 메흐메드 5세는 상징적인 국가 원수였을 뿐이었다.

오스만 제국이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불가리아와 같은 편에서 전쟁에 돌입한 후 연합진 보당은 술탄의 칼리프로서의 권위를 동원해 전 세계 무슬림을 선동하고자 했다. 메흐메드 5세는 전쟁이 끝나기 3개월 전, 1918년 7월 3일 사망했다. 그는 이슬람 문화에 심취하여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 능통했고 시 짓기와 서예에 뛰어났으며 메울레위 종단의 신실한 일원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5세, 메흐메트 5세, 레샤트, 레샤드
- 다국어 표기 V. Mehmed (Reşad)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제1차 세계 대전, 압틸메지드 1세, 연합진보당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9XUd>
- 참고문헌(오프라인) Selcuk Akşin Somel, "Mehmed V,"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371. Cevdet Küçük, "Mehmed V,"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8, pp.418~422.

I B077 | 메흐메드 6세(와흐뎃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VI(Vahdeddin)

메흐메드 6세(1861년~1926년, 재위: 1918년~1922년)는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술탄으로 압틸메지드 1세의 아들로, 형인 메흐메드 5세가 사망하고 나서 즉위했다. 전쟁 중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연합진보당 수뇌부 인사들이 1차 대전 패전과 함께 망명하자 메흐메드 6세는 이를 기회로 측근들을 고위관료로 등용하며 통치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패전 이후 그의 상황 인식은 승전국에게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고 협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으며, 특히 영국에 협조했다. 연합진보당을 적대시하여 그 회원들을 처벌했으며, 1918년 11월 23일 의회 해산을 명령했다. 아나톨리아의 오스만군을 무장해제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탄불로부터 흑해 지역에 파견된 무스타파 케말이 점령군에 대한 저항운동을 조직하자 그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군 장교직을 사임하고 민간인으로서 저항운동을 계속했다. 이 운동

의 조직에는 예전의 연합진보당의 인력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메흐메드 6세는 이 운동을 연합진보당의 정치활동의 지속으로 보고 억제하려 했다.

메흐메드 6세는 아나톨리아를 조각조각 분할하는 세브르 조약도 승인했다. 이 국민적 저항운동은 결국 튀르키예 공화국을 성립시키게 되었는데, 운동이 성공하는 기미가 보이자 술탄 메흐메드 6세는 앙카라에 기반을 둔 저항운동 지도부와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승전국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상실한 상황이어서 화해는 불가능했고 로잔에서의 평화협상에 앙카라와 이스탄불 양쪽으로부터 대표단이 초대되자 앙카라 측은 오스만 술탄제를 폐지해 버렸고(1922년), 칼리프만 새로 오스만 왕실에서 임명했다가 이마저도 곧 폐지했다(1924년).

술탄제 폐지 후 메흐메드 6세는 영국 군함을 타고 말타 섬으로 피신했으며, 산 레모에서 1926년 사망했다. 그는 튀르키예 민족주의 역사학에서는 배신자로 간주되는 인물이지만, 그의 행보에는 열강에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메트 6세, 메흐멧 6세

● 다국어 표기 VI. Mehmed(Vahdeddi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메흐메드 5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OMXt>

● 참고문헌(오프라인) Selcuk Akşin Somel, "Mehmed V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71~372.

Cevdet Küçük, "Mehmed V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8, pp.422~430.

I B078 |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hmed Siyah Kalem

‘검은 펜’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야흐 칼렘은 14세기 후반 15세기 초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세밀화가이다. 국적과 이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본명도 알 수 없다.

시아흐 칼렘의 작품 대다수는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파티흐 앨범[Fatih Albüm,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2152, 2153, 2154, 2160]에 수록되어 있는데 파티흐 앨범에 수록된 서명(Kâr-ı Üstad Muhammed Siyah Kalem)만이 그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다. 다만, 화풍의 특징으로 보아 그가 트란스옥시아나 지방, 즉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은 일상생활을 담은 작품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유목민, 종교인, 수도승과 같은 인물을 그렸다. 이와 달리 비일상을 담은 그림에서는 악령이나 요정과 같은 상상의 존재를 그렸다.

그림은 비단이나 피지에 단색 또는 몇 가지 색을 사용하여 그렸다. 그림 중 일부는 두루마기 형태로 잘려 있으며, 그림의 크기는 12x12cm에서 22x18cm 정도이다. 그림에 글은 존재하지 않아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화풍에 차이가 있는 작품에도 동일 서명이 남겨 있어 화가의 정확한 정체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시야흐 칼렘은 다수의 세밀화가가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의 다양한 직업과 인종의 사람들 및 상상의 존재를 담은 작품들은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 문화 전통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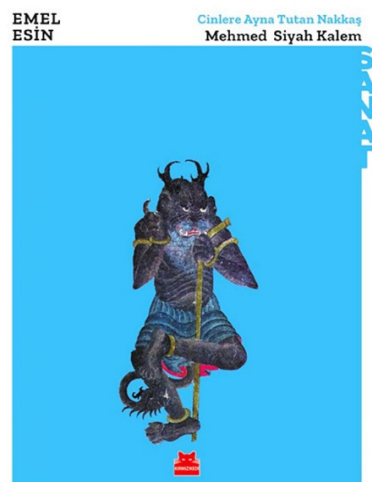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시야흐 칼렘, 메흐멧 시야 칼렘
- 다국어 표기 Mehmed Siyah Kalem(튀르키예어), Məhəmməd Siyah Qələm(아제르바이잔어), SIAH-QALAM(이란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Fh2F>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_악령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b/b3/Siyah_Qalem._Conversation._XV_cent_Topkapi.jpg/1200px-Siyah_Qalem._Conversation._XV_cent_Topkapi.jpg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b/b1/Siyah_Qalam_Caravan.jpg



『악마에게 거울을 비추는 메흐메드 시야흐 칼렘』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uk>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 YKY, 2009.

İpşiroğlu, Mazhar Ş. *Bozkır Rüzgârı*, İstanbul: YKY, 2004.

I B079 | 메흐메드 알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기타 ● 나라 이집트, 시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ehmed Ali

메흐메드 알리(Mehmed Ali)는 1805년부터 184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한 총독으로, 오스만 제국의 아이안(지방 유력자)로 결국 이집트에서 자신의 왕조를 개창한 인물이다. 그는 북부 그리스의 카발라(Kavala)에서 태어났고, 흔히 알바니아계로 알려져 있지만, 투르크계이거나 혹은 기독교인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가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향에 있던 시절 그는 대단한 담력으로 폭력배들을 거느리는 등 많은 물의를 빚곤 했다. 지방관이었던 그의 친척 아저씨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점령한 상태인 이집트에 원정군으로 인력을 차출할 때(1798년~1801년) 말썽꾸러기인 그를 함께 보내버렸는데, 이는 그에게 돌도 없는 기회가 되었다.

이집트를 점령하자마자, 잡다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원정군 안에서는 곧 대단한 권력투쟁이 벌어졌고 1803년 메흐메드 알리는 알바니아인 부대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확실히 이길 싸움에만 참여하곤 했던 그는 오스만 중앙정부가 임명한 총독과 사이가 벌어졌으나 권모술수와 인기 전략을 통해 카이로의 종교인과 상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스스로 총독으로 추대되었고, 전쟁과 정변 등으로 이집트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없던 오스만 중앙정부는 그를 놓아두었고 한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가운데 1811년 메흐메드 알리는 그의 주요 경쟁자들이었던 맘루크 지도자들을 카이로의 성채에 불러 연회를 베풀고 행진을 명목으로 성채 안의 좁은 구역에 몰아넣고 가둔 후 포격을 가해 살해했다. 라이벌이나 반대파, 반역자에 대한 인정사정없는 잔인함은 이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일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1811년 그는 오스만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아들 토

순을 지휘관으로 하여 아라비아반도의 와하비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1812년 메카를, 1813년 메디나를 정복했는데, 이러한 성지의 회복은 오스만 제국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군사적 성공을 거둔 그는 알바니아인 부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크고 근대화된 군대를 원하게 되었는데, 수단의 흑인 노예를 잡아 와서 병력으로 충원하려 했으나 그중 많은 수가 병으로 죽어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유럽의 징병제를 본떠 이집트 농민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농민을 징집하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는 없던 일이고, 많은 저항과 반란에 부딪혔으나 특유의 잔혹한 진압과 고문 등으로 밀고 나가 결국 500여만의 이집트 인구로부터



메흐메드 알리, David Wilkie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터 13만 대군을 만들어 냈다. 복무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많은 탈영병도 나왔지만, 이 군대는 지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고 술탄 마흐무드는 그에게 그리스 반란 진압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투 과정에서 이집트 군대는 예니체리에 비해 탁월하게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집트군의 놀라운 전과는 유럽 국가들이 경각심을 느껴 그리스 편에 서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서양의 역사와 위인전 등을 많이 접했던 그는 군사개혁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에도 힘썼다. 농민들에게 면화 농업을 시키고 면화 구매와 판매를 독점했으며, 직물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확충했다. 이러한 분야들은 대단히 크게 성장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성장이 엄청난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메흐메드 알리는 그리스 독립 전쟁 후반에 마흐무드 2세의 비현실적인 강경노선 때문에 열강과의 대결을 피하지 못하고 함대를 잃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앙정부를 믿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다. 1827년 시리아 총독직을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는 오스만 중앙정부가 징집을 피해 도망간 이집트 농부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1831년 아들 이브라힘 파샤를 지휘관으로 하여 시리아를 침공, 점령했고, 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 중앙부까지 파죽

지세로 밀고 들어갔다. 이때 러시아의 개입이 없었다면 철권통치로 인기가 없던 마흐무드 2세의 오스만 왕조는 존립 자체가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시리아 통치는 지역 내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종파주의를 심화시켰으며 민간 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1839년 오스만 중앙 정부는 시리아를 되찾으려 전쟁을 걸어왔으나, 다시 한번 이집트군에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다.

1840년에는 시리아가 이집트 점령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고, 영국의 무력시위 하에 이집트군을 18,000명으로 제한하고 수단을 제외한 모든 식민지에서 철수하는 대신 메흐메드 알리가 종신토록 이집트 총독직을 유지하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집트 총독이 대대손손 나오도록 일종의 왕조로 인정하는 협상이 이뤄졌다. (이 왕조는 20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지역 내 세력 간의 쟁패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열강의 의지에 의해 정치적 판도가 바뀌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다. 그는 놀랍게도 이러한 결말에 상당히 만족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오스만 제국 질서의 일부였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전과 번영을 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를 ‘무함마드 알리’라고 부르고 ‘근대 이집트의 건설자’로 인식하는 이집트 민족주의의 관점은 그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메트 알리, 메흐멧 알리, 무함마드 알리
- 다국어 표기 Mehmed Al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마흐무드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ieAi>
- 참고문헌(오프라인) 칼레드 파흐미 지음, 이은정 옮김, 『메흐메드 알리』, 일조각, 2016.
Bruce Masters, «Mehmed Al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372~373.

I B080 I 메흐메트 라우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hmet Rauf

메흐메트 라우프(Mehmet Rauf)는 튀르키예 문학사에서 최초로 심리 소설을 쓴 작가이다. 1875년 8월 12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메흐메트 라우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기숙사가 있는 바흐리에 학교(Bahriye Mektebi)로 배정해 줬다.

1893년 바흐리에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메흐메트 라우프는 1894년 인턴으로 크레타(그리스)에 갔고, 1895년에는 킬 운하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갔다.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는 이스탄불 군함 부함장으로 임명됐다. 부함장으로 이스탄불에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튀르키예 유명 작가 테브 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와 할리트 지야(Halit Ziya)와 친분을 갖게 됐다. 할리트 지야와 친분이 두텁다 보니 그의 작품을 제일 먼저 받아 읽기도 했고, 자료가 많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도 했다. 덕분에 메흐메트 라우프는 19세기와 20세기 희곡, 단편소설, 비평 등 주요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호기심을 가진 메흐메트 라우프는 겨우 12살이었을 때 「데나에트(Denaet)와 가스코뉴 해적(Gaskonya Korsanları)」이라는 모험소설을 썼고, 교육부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아낸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 소설을 출판하지는 못했다.

메흐메트 라우프가 이른 나이에 문학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초, 이스탄불에서 중요한 예술 장르였던 연극에 노력을 기울인 마나크얀(Manakyan)의 영향 때문이었다. 특



『9월(Eylül)』 표지
Source: <https://biyografya.com>

히 프랑스어를 번안한 작품을 게디크파샤 극장에서 연극으로 관람한 메흐메트 라우프는 문학과 연극에 흥미를 느꼈다. 마나크안 외에 메흐메트 라우프에게 문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한 다른 인물은 소설가 아흐메트 미하트(Ahmet Mithat)였다.

메흐메트 라우프는 유년시절부터 쪽 문학인으로서의 삶을 그려왔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가 출간한 첫 작품은 『넘어졌다네(Düşmüş)』라는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할리트 지야(Halit Ziya)의 도움으로 라우프 위지다니(Raûf Vicdâni)라는 필명을 사용해 1892년 신문 <히즈메트(Hizmet)>에 연재했다.

메흐메트 라우프의 문학에 대한 조예는 바흐리에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와 프랑스어 덕분에 더 깊어졌다. 또한 그는 알퐁스 도테(Alphonse Daudet), 에밀 졸라(Emile Zola),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를 원어로 읽었다.

당시 중요한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읽었던 메흐메트 라우프는 현대문학의 흐름을 터득하게 됐고, 그 시절 프랑스 문학에 관심을 가져 ‘산문시(Poèmes en prose)’ 장르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2차 메쉬루티예트 이후 그가 출판한 『백합 한송이 이야기(Bir Zambak'ın Hikâyesi)』라는 포르노그래픽 소설이 1910년 5월 21일 판매 금지되고 수거됐다. 이 때문에 그는 군사 재판에서 6개월 실형을 받았다. 또 군대에서도 퇴출당했다. 1920년대에 술레 네쉬기야트 에비(Şule Neşriyat Evi)라는 출판사를 연 메흐메트 라우프는 1921년 11월 1일부터 1922년 3월 2일까지 신문 <시간(Vakit)>에서 일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원칙을 고수한 메흐메트 라우프가 문학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작품은 1900년에 <세르베티 튀눈> 잡지에 연재했다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아 1901년에 소설로 출판한 『9월(Eylül)』이라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심리소설의 첫 예시로 평가되는데, 음악과 문학의 관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9월(Eylül)』이라는 소설에서는 꽤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걷던 오스만 제국이 서구화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면서 벌어지는 시대상과 문화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이 소설에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처음으로 피아노가 등장한다. 피아노는 그가 전달하고자 한 서구의 이미지이다.

메흐메트 라우프는 단편소설, 시, 장편소설뿐 만 아니라 희곡에도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본인이 희곡을 창작하기도 했지만, 메흐메트 라우프는 희

곡 장르에서는 본인의 기대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의 주요 작품은 「사랑하는 청년(1896)」, 「내일을 사랑하라(1897)」, 「9월(1900)」, 「신기루(1909)」, 「제비꽃(1913)」, 「카네이션과 자스민(1924)」, 「구월(1929)」, 「방어(1909)」, 「연애(1909)」, 「마지막 희망(1913)」, 「부인들 사이에서(1914)」, 「여성이 원한다면(1919)」, 「사포와 카르멘(1920)」, 「사랑에 빠졌던 지난 밤(Eski Aşk Geceleri, 1927)」 등이다.

메흐메트 라우프 작품의 특징으로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병적으로 예민하여 결국 자살로 마무리되는 혼란스러운 사랑, 죽음에 이르는 비관주의 등이 주요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격렬한 음악을 삽입되기도 한다. 간혹 영혼에 대한 극단적인 묘사도 있다. 주인공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 대체로 주인공들은 서구식 생활방식을 수용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극도로 예민하고, 사랑을 위해 사는 보헤미안이다. 예외적으로 몇 작품에서 지역색, 생계의 어려움, 애국심을 다룬 것도 볼 수 있다.

메흐메트 라우프는 <세르뷔티 뤼논> 문인들 중에서 가장 담백한 문체로 써 내려간 작가다. 그는 당시 작가들이 따르던 전형적인 창작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개성은 서로 맞춤법에서 형식까지 검열한 <세르뷔티 뤼논> 동인지 해체 이후에 더 분명해졌다.

메흐메트 라우프의 또 다른 특징은 출판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는 생계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잡지에 작품을 실었다. 첫 번째 메시루티예트 선포 이후에 여성들을 위한 잡지 <메하신(Mehasin)>을 야심차게 기획하고 발간했지만, 사람들은 기대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잡지 발행을 1년(12호 발행) 동안 지속했다. 이 외에도 「장식(Süs, 1923)」, 「천한번의 입맞춤(Binbir Buse, 1922)」, 「양귀비(Gelincik, 1924)」, 「영화배우(Sinema Yıldızı, 1924)」는 메흐메트 라우프가 문단에 데뷔하고 초창기 시절 썼던 작품들이다.

평생을 글 쓰는 데 몰두한 메흐메트 라우프는 작가로 벌어들이는 작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가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버티기도 했다.

노년에는 당시 이스멧 이뇌뉘(İsmet İnönü) 총리가 물리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래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26년 중풍이 든 메흐메트 라우프는 1928년에 두 번째 뇌졸중을 겪으면서 몸의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했고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했다. 결국 그는 병이 악화돼 제라흐파샤 병원에서 1931년 1월 23일 눈을 감았고, 이스탄불 마취카에 있는 가족묘에 안장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라우프
- 다국어 표기 Mehmet Rau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세르베티 뛰는
- 참고문헌(오프라인) Arslan Nihat, “Eylül ya da Bir Aşkın Analizi”, *Hece Türk Romanı Özel Sayısı*, Ankara, 2002.
Coşkun Erdoğan, *Mehmet Rauf*,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76.
Moran Berna, *Edebiyat Kuramları ve Eleştirisi*,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00.
Tanım Rahim, *Mehmet Rauf’un Hayatı ve Hikayeleri Üzerine Bir Araştırma*,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0.
Törenek Mehmet, *Hikaye ve Romanlarıyla Mehmet Rauf*,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99.

I B081 | 메흐메트 바샤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hmet Başaran

메흐메트 바샤란(Mehmet Başaran)은 농촌문학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작가이자 번역작가다. 그는 1926년 크르크랄레리 뤼레부르가즈 지역 제이란콰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는 3개 학년만 운영되어, 우준콰프뤼 가지 마흐무트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43년에는 케피르테페 마을학교(Kepirtepe Köy Enstitüsü)를, 1946년에는 하산오을란 고등마을학교(Hasanoğlan Yüksek Köy Enstitüsü)를 졸업했다.

이후 안탈리아 악수 마을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마을학교를 졸업한 비르센 바샤란(Birsen Başaran)과 결혼했다.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1947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당시 집권당이 고등마을학교 출신들을 모조리 군대로 징집했기 때문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바샤란은 발룩에시르의 에드레미트 지역에 파견교사로 발령받아 괴르메취, 에드레미트 가지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1960년 이후에는 이스탄불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튀르키예어 교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국가 대백과사전(Yurt Ansiklopedisi)』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1940년 이후에 문학을 접하기 시작한 마을학교 출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회적 단절, 도

시 빈민, 오랫동안 홀대 받아온 시골사람들이다. 그들은 교육을 비롯해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시, 단편, 장편소설에서 다루었다. 메흐메트 바샤란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작품 속에 진솔하게 표현했고, 튀르키예 리얼리즘 문학에서 중요한 작가로 꼽힌다.

1940년대 말부터 농촌 문학이 강세를 띠었는데, 마을학교 세대 작가들을 대표하는 메흐메트 바샤란은 단편 『엘리프라는 민요(Elif Diye Bir Türkü)』로 TRT 1970 예술상을 수상했다. 『이야기(Ayarlanmak)』로 1974년 사바하틴 알리 이야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소설 『군인 메흐메트(Mehmetçik Memet)』로 1979년 오르한 케말 소설상을 받았다.

문학평론가 외즈데미르(Özdemir)는 바샤란의 시가 가진 독창성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바샤란의 시는 튀르키예어 문단에서 독특한 영역이다. 이 독창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 바샤란의 시에서 ‘헌신’은 자신의 ‘이상’과 연결된다. 그는 자신이 창조하는 삶을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 (...) 시는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루멜리, 발칸에서 탈출한 힘겨운 이민자와 아나톨리아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시골 농민이 대상이다. 올리브를 줍는 일꾼과 과거의 어둠에 저항하는 교사들도 포함된다.”

메흐메트 바샤란은 사람들이 본인이 쓴 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랐다. 작가가 대중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계몽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사실 마을학교 작가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을학교 출신 작가들은 대물림되는 가난, 소작농, 소자본으로 장사를 시도하는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아무도 그들이 깨우치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바샤란은 문학의 긍정적인 기능을 믿었기 때문에 단편, 에세이, 시, 소설을 쓰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그의 대표작은 『돌배나무(Ahlat Ağacı, 시, 1953)』, 『마중(Karşılama, 시, 1958)』, 『4월의 지도(Nisan Haritası, 시, 1960)』, 『코자켄트: 대도시(Kocakent, 시, 1963)』, 『하늘 위 농작물



『엘리프라는 민요(Elif Diye Bir Türkü)』 표지

(Gök Ekin, 시, 1975)』, 『참나무 더미(Meşe Seli, 시, 1982)』, 『거대한 트로이 세계(Koca Bir Troya Dünya, 시, 1997)』, 『끓주린 추수(Aç Harmanı, 이야기, 1962)』, 『마음의 소리 올리브 나라(Yüreğin Sesi Zeytin Ülkesi, 이야기, 1964)』, 『추방자(Sürgünler, 이야기, 1970)』, 『군인 메흐메트(Mehmetçik Mehmet, 소설, 1979)』, 『금지된(Yasaklı, 소설, 1990)』 등이다

이 외에도 리하르트 레안더(Von Richard Leander)의 작품 중 세계동화로 선정된 어린이 동화 『마법의 반지(Dilek Yüzüğü)』를 메흐메트 바샤란이 번역했고, 독일어에서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책 두 권이 있다.

2015년 6월 27일 이스탄불에서 생을 마감한 바샤란은 태어난 제이란콰유에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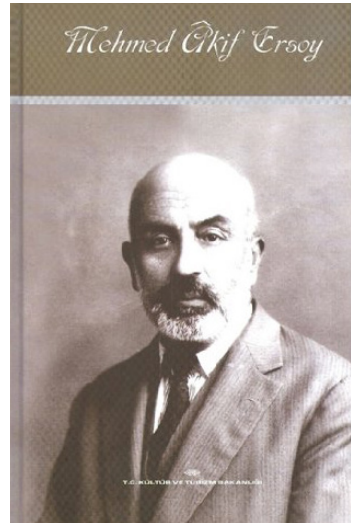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메트 바샤란
- 다국어 표기 MEHMET BAŞARAN(튀르키예어), MEHMET BASARAN(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Behramoğlu Ataul, “Yalın, Lirik, Toplumcu”, *Mehmet Başaran Armağan Kitabı* (Hazırlayan: Kemal Kocabaş), Yeni Kuşak Köy Enstitüleri Derneği Yayınları, İzmir, 2010.
Kocabaş Kemal, *Mehmet Başaran Armağan Kitabı*, Yeni Kuşak Köy Enstitüleri Derneği Yayınları, İzmir, 2010.
Özdemir Emin, “Başaran’ın Şiir Evreni”, *Dünya Sanat Eki*, 2 Ocak, 1954.

I B082 |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HMET AKIF ERSOY

튀르키예의 근대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인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Mehmet Akif Ersoy)는 1873년 이스탄불 파티흐지역 사르귀젤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메흐메트 타히르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알바니아 이펙지역 슈쉬사 마을에서 이스탄불로 이주했고 파티흐신학교(Fâtih Medresesi)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그의 어머니는 에미네 세리페이다.

그의 유년기 교육은 파티흐 지역에 있는 에미르 부하리 맥테비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통에 맞춰 4살 4개월 4일째 되는 날 시작했다. 이로부터 3년 뒤 초등학교로 진학했고, 파티흐 중앙 중등학교(Fatih Merkez Rüştiyesi)에 다녔다(1892년). 학교에 다니면서 파티흐 모스크에서 페르시아어 수업도 들었다. 언어 공부에 큰 관심을 가졌던 메흐메트 아키프는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튀르키예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과목에서 줄곧 1등을 했다. 그가 쓴 책 『사파하트(Safahat)』에서 그는 아랍어 공부와 관련해 “아버지는 내게 선생님이기도 했다. 모르는 것은 다 아버지께 배웠다.”라고 언급했다.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 평전』 표지

1885년 파티흐 중앙 중학교를 졸업한 메흐메트 아키프는 정치학교(Mülkiye Mektebi)에 지원했다. 무알림 나지가 그 학교 문학교사로 근무했었고, 그가 졸업반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1888년). 가장이 된 메흐메트 아키프는 바로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어 1889년 새로 설립된 뮈لك예 바이타르 맥테비(Mülkiye Baytar Mektebi)에 다시 입학했다. 메흐메트 아키프는 1893년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졸업 이후 농림부 축산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첫 근무지는 이스탄불 에디르네였다. 이후 아나톨리아, 루멜리 등 여러 지역에서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일을 했다. 이스탄불에 거주할 당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할칼르 농업학교(1906년)와 농기계 기술학교(1907년)에서 공문 작성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2차 메쉬루티예트가 공포 되자 메흐메트 아키프는 에빌울라 마르딘(Ebü'l'ulâ Mardin)과 에쉬레프 에디프(Eşref Edip'le)가 함께 만든 잡지 <옴은 길(Sırât-ı Müstakîm)>에서 편집장을 맡아 1908년 8월 27일부터 잡지를 출간다. 이 잡지는 당시 지식과 생각이 모이는 중요한 장이었고, 영향력 있는 시와 기사를 실었다. 같은 해 메흐메트 아키프는 다뤘튀논(현재 이스탄불 대학교) 문학교사로 임명됐다.

메흐메트 아키프는 2차 메쉬루티예트가 공포된 직후 연합진보당에 가담했다. 그러나 얼마 뒤 위원회의 강압적인 운영에 실망하여 이 조직에서 탈퇴했고, 연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

로 돌아섰다. 1911년과 1912년에는 국방협회(Müdafaa-i Milliye Cemiyeti) 회원 자격으로 베야즈트, 파티흐, 쉴레이마니예, 쉐라틴 모스크에서 설교했다. 아키프는 발칸전쟁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내고자 노력했다. 1913년 말이 되자 정부는 연합진보당에 가담했던 대학교수들은 모두 사직하라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1914년 1월 3일 이집트로 출국했던 그는 전쟁성(국방부의 전신)의 첩보 활동을 위해 비밀 조직(Teşkilât-ı Mahsûsa)의 임무를 맡기도 했다.

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휴전 협정 조건으로 그리스에 이즈미르까지 내주게 됐다. 기울어 가는 제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그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1920년 2월 발루케시르로 향한 메흐메트 아키프는 여기에서 민병대(Kuvâ-yi Milliyeciler)와 만났다. 그는 자아노스 파샤 모스크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독립운동을 독려하는 대중 설교와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행보 때문에 대국민의회 의장 무스타파 케말 파샤의 공천을 받은 메흐메트 아키프는 1920년 6월 5일 부르두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앙카라 정부는 국가(國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마침내 교육부 주관으로 1920년 11월 7일부터 ‘국가(國歌) 공모전’이 열렸다. 작사와 작곡 최우수상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당시 큰돈이었던 500리라가 상금으로 걸렸다. 공모전 방식, 특히 상금을 지급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메흐메트 아키프는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에 작품을 응모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 장관 함둘라 수피 탄르외베르의 설득으로 그는 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튀르키예 국가 작사를 수락했다.

독립운동이 승리로 끝나고 1923년 3월 21일, 의회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메흐메트 아키프는 가족과 함께 이스탄불로 돌아갔다. 1923년 9월에는 압바스 할림 파샤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갔다가 1924년 봄까지 머무르다 돌아왔다. 1925년 말 다시 이집트에 간 그는 1935년 건강 문제가 생기자 1936년 6월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왔고, 그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묘지는 에디르네카프 쉐히트리이에 있다.

메흐메트 아키프는 바이타르 맥테비에 다닐 때 시를 배웠다. 그가 출판한 첫 번째 시는 「코란에 바치는 헌시(Kur'an'a Hitap)」이다. 1908년부터는 아루즈 운율을 사용해 스토리를 시의 운율로 표현했다. 발칸전쟁부터는 서사시를 쓰기 시작했다. 첫 대서사시는 「차낙칼레 순교자들에게(Çanakkale Şehitleri'ne)」였다. 두 번째 대서사시는 부르사 점령에 관해 쓴 「뿔뿔(Bülbül)」이

라는 시이다. 세 번째는 독립 전쟁을 묘사한 「독립행진곡(튀르키예 국가)」이다.

메흐메트 아키프가 살아있을 때 총 7권으로 나눠서 출판한 것을 사후에 한 권으로 모아 출간한 『사파하트(Safahat)』는 전체가 아루즈 형식이며, 총 1만 1240행과 108개 운율 시로 구성되어 있다.

『아슴(Asım)』은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의 예술성이 정점을 찍었다고 인정되는 작품이다. 그의 첫 작품 『사파하트(Safahat)』 이후 ‘스토리를 담은 운율시’ 형식으로 쓴 가장 완벽한 작품이다. 『그늘(Gölgeler, 1933)』은 1918년~1933년 사이에 쓴 41개 운율 시를 포함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메트 아키프 에르소이

● 다국어 표기 MEHMET AKIF ERSOY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Düzdağ Mehmet Ertuğrul, *Mehmet Akif Hakkında Araştırmalar*, Marmara Üniversitesi Mehmet Akif Araştırmaları Merkezi, İstanbul, 1987.

Gökçek Fazıl, *Bir medeniyetin Şairi Mehmet Âkif*,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Ankara, 2013.

Okay Orhan, *Mehmet Akif - Bir Karakter Heykelinin Anatomisi*, Akçağ Yayınları, Ankara, 1989.

Sarıhan Zeki, *Vatan Türküsü İstiklal Marşı, Tarihi ve Anlamı*, Öğretmen Dünyası Yayınları, Ankara, 1984.

I B083 | 메흐메트 알리 아아카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남부 유럽
- 나라 튀르키예, 그리스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ehmet Ali Ağakay

메흐메트 알리 아아카이(Mehmet Ali Ağakay)는 1893년 그리스 크레타 하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곳에서 초등교육을 마치고 튀르키예 이스미르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중등교육을 마쳤다. 육군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으나 1912년 발칸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군대에 입대한다. 그 후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지만, 다시 육군 의과대학으로 복학하여 1917년에 졸업했다. 그는 독립 전쟁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립 훈장을 받았으며, 전쟁이 끝난 뒤 여러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1936년 메흐메트 알리 아아카이는 언어와 관련된 몇 편의 논평 및 기사를 통해 튀르키예 공화국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관심을 끌었고, 그로 인해 그는 1936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분 분과(TDK Terim Kolu,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를 구분하여 튀르키예어로 번역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이드 및 사전의 형태로 출판하는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의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의 연구 생활의 시작은 그가 의사이면서도,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가 몰두했던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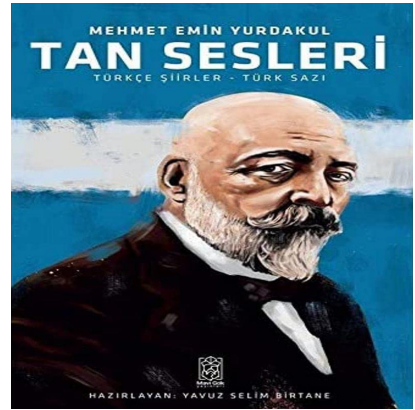
그는 1941년에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사전 분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62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1945년 처음으로 출판된 튀르키예어 사전은 이후 매 판마다 확장되어 출판되었는데, 이는 메흐메트 알리 아아카이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는 이 사전을 통해 ‘언어혁명’이 시작된 지 약 13년 만에 튀르키예 최초로 수천개의 관용구, 새로운 단어 및 이전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던 용어들을 다양하게 수집해 수록했는데, 그의 이러한 사전 집필 방식은 사전 편집 방법에 혁신을 가져왔다. 또한 1962년 발간된 프랑스어-튀르키예어 사전은 분야의 간극을 메워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흐메트 알리 아아카이는 1965년 앙카라에서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알리 아가카이, 메흐메트 알리 아가카이
- 다국어 표기 Mehmet Ali Agakay(영어)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앙카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SMsR>
- 참고문헌(온라인) <http://sosyolojisi.com/mehmet-ali-agakay-kimdir-hayati-ve-eserleri-hakkinda-bilgi/48872.html>
<https://www.beyaztarih.com/ansiklopedi/mehmet-ali-agakay>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05.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kçağ, 2004.

I B084 |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hmet Emin Yurdakul

튀르키예 근대문학에서 중요한 음절시인 5인 중 한 명인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Mehmet Emin Yurdakul)은 1869년 5월 13일 이스탄불 베석타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부 발룩츠 살리흐 레이스(Balıkçı Salih Reis)였다. 어머니는 불가리아 이민자로 귀족취 메흐메드 아아(Körükçü Mehmed Ağa)의 딸 에미네(Emine)였다.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은 초등학교(Sıbyan mektebi)를 졸업한 뒤 베석타쉬 군사 중학교(Beşiktaş Askerî Rüşdiyesi)를 거쳐 고등학교(Mülkiye İdâdisi)를 다니다가 1887년에 중퇴하고 무급으로 총리실(Sadâret Dairesi Evrak Kalemi)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의 소리(Tan Sesleri)』 표지
Source: <https://www.amazon.com>

1889년 법대에 등록했으나 2년을 다니다가 다시 그만뒀다.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은 이 시기에 문학과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발간한 정신적 고귀함이 가문의 존귀함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덕과 고귀함(Fazilet ve Asalet)』을 읽은 사드라잠 제와트(Sadrazam Cevat) 파샤는 1892년에 그를 관세청 세관(Rüsûmat İdaresi) 공무원으로 추천했다. 덕분에 세관에서 근무하던 그는 이후 기록관 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1892년 이스탄불에 온 정치운동가 자말 압딘 알 아프가니(Cemâleddîn-i Efgânî)의 강연에 참석했다가 큰 영감을 얻었고, 이 강연은 그가 작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7년 오스만-그리스 전쟁 당시에는 살로니카에서 발행하는 신문 <아스르(Asır)>에 「전쟁에 참전할 때 아나톨리아에서 들리는 함성(Anadolu'dan Bir Ses yahut Cenge Giderken)」이라는 시를 기고했다. 이 시는 음절이 갖는 리듬과 운율을 살리면서도, 간결한 튀르키예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족정서를 표현하여 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인 1898년에는 오스만 제국

공직자이며, 문학평론가인 레카이자드 마흐무드 에크렘(Recâizâde Mahmud Ekrem), 극작가 압뉘하크 하미드 타르한(Abdülhak Hâmid Tarhan), 썸셋딘 사미(Şemseddin Sâmî), 르자 테브피크 빌릭바쉬(Rıza Tevfik Bölükbaşı), 파즐르 네집(Fazlı Necib)을 칭송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궁정 화가 파우스토 조나로(Fausto Zonaro)의 그림을 넣은 『튀르키예어로 쓴 시(Türkçe Şiirler)』라는 시집을 출간했다.

1907년에 연합진보당(İttihat ve Terakkî Cemiyeti)에 가입한 그는 같은 해 에르주룸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 1908년에는 2차 메쉬루티예트 칙령이 내려지자 트라브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튀르키예 정치사에서 “3·31사건(31 Mart Olayı)”으로 불리는 보수파들의 반란 이후에는 해군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그는 극구 이 자리를 거부했다. 결국 1909년 10월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방 헤자즈(Hicaz) 주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메카 통치자 휘세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빚다가 1910년 5월에 시바스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후 1911년 1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그는 지야 괴칼프(Ziya Gökalp)의 민족주의 흐름이 왕성할 때는 여기에 뜻을 함께 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설립은 일 년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1911년 7월에 출범한 ‘튀르크 협회(Türk Ocağı)’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한 달 뒤 1911년 8월에는 에르주룸 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일 년 뒤에 은퇴했다.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 시기에도 절친한 친구 유수프 악추라(Yusuf Akçura)의 활동에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살로니카에서 발행하는 잡지 <바흐체(Bahçe)>에 시와 글을 실었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사례로 들며 알찬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1913년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은 지금의 이라크 모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14년에는 12월 17일 튀르키예 협회(Türk Ocağı)는 처음으로 ‘튀르키예의 국민시인(Türkler’in ilk büyük millî şairi)’을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차낙칼레 전쟁 중에 결성된 이스탄불 문학사절단(İstanbul Heyet-i Edebiyesi)과 함께 전장에 나가 병사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휴전협정과 이스탄불을 점령한 뒤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앙카라로 이주했고(1921년 4월), 독립 전쟁이 한창일 때 병사들의 사기 고취를 위해 메흐메드 아키프(Mehmed Âkif)와 사미흐 리파트(Sâmih Rifat)와 함께 아나톨리아로 파견되어 연설을 하기도 했다. 공화국이 선포되자 그는 기레순 샤흐키나라히사르에서 1923년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27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1930년에 창당한 자유공화당(Serbest Cumhuriyet Fırkası)에 입당했다. 이후 우르파(1932년)와 이스탄불(1943년)에서도 각각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그의 목표는 시인으로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고민과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문학을 통해 만민 평등과 민족주의(milliyetçilik)를 위해 힘쓴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은 공화국 설립 이후에 수면 위로 등장한 애국주의(memleketçi) 문학 사조를 이끌었다. 튀르키예 사람들의 감정을 튀르키예어에 담아 ‘자유사상’, ‘민족 감정’, ‘민족 언어’, ‘정의’, ‘평등’, ‘문명’ 등 튀르키예 시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개념을 창출해냈다. 메흐메트 에민은 사회문제를 다루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소수 지배 계급과 지배당하는 다수 사이의 모순에 주목했다.

메흐메트 에민 유르다쿨의 주요 작품은 『덕과 고귀함(Fazilet ve Asalet, 1890)』, 『튀르키예어 시(Türkçe Şiirler, 1898)』, 『투르크인의 사즈(Türk Sazı, 1914)』, 『튀르키예여, 일어나라!(Ey Türk Uyan, 1914)』, 『새벽의 소리(Tan Sesleri, 1915)』, 『군대 찬가(Ordu'nun Destanı, 1915)』, 『티그리스 앞에서(Dicle Önünde, 1916)』, 『승리의 길에서(Zafer Yolunda, 1918)』,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 1928)』, 『단테에게(Dante'ye, 1928)』, 『앙카라(Ankara, 1928)』 등이다.

1944년 1월 14일 생을 마감했고, 그의 묘지는 이스탄불 진질리쿠유 아스리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에민 유르다쿨

● 다국어 표기 MEHMET EMINYURDAKU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Kaplan Mehmet, *Şiir Tahlilleri: Tanzimat'tan Cumhuriyete Kadar*, Dergah Yayınları, İstanbul, 1969.

Kurdakul Şukran, *Çağdaş Türk Edebiyatı*, Meşrutiyet Dönemi, Broy Yayınları, İstanbul, 1986.

Tevetoğlu Fethi, *Mehmet Emin Yurdakul Hayatı ve Eserleri*,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8.

Yazıcı Yüksel, *Mehmet Emin Yurdakul*,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87.

I B085 | 메흐메트 에민 호슈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소설가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EHMET EMIN HOŞUR

현대 위구르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메흐메트 에민 호슈르는 1944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굴자(Gulja)시 한 장인(공예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그는 당시 굴자시의 교육의 요람으로 여겨졌던 일리(İli)학교 학생 기숙사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았다.

1962년 그는 우루무치시에 위치한 신장 대학교의 문학과에 입학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1966년부터 1976년 사이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그의 전공과 무관한 사회 복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주의 선전담당관, 고속도로 규제위원장 등으로 근무했다.

1979년 문화대혁명 이후 그는 일리 지방 문학 예술가 연합에서 <일리 데리야스(İli Deryası)> 저널 관련 업무를 맡으며 1994년까지 편집자로 일한다. 199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작가 노조에 가입하여 회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다가 은퇴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자신이 쓴 시 등을 신문에 게재하며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던 메흐메트 에민 호슈르의 총 70편이 넘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은 <타림(Tarim)>, <텡그리타그(Teñritağ)>, <신장 문명(Şincañ Medeniyiti)>, <일리 데리야스(İli Deryası)> 잡지에 게재됐다.

메흐메트 에민 호슈르는 소설 이외에도 비평 작품, 인터뷰 형식의 작품, 과학 및 문학과 관련된 기사들을 작성하며 다재다능한 작가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풍자적인 스타일을 작품에 새롭게 도입했는데, 이는 위구르 문학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그가 쓴 많은 단편소설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중국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학우들(Savakdaşlar, 1986)』, 『히삼 형에게로의 인사(Salam Hisam Aka, 1989)』, 『세월은 이렇게 흘렀다(Yıllar Şundak Ötken, 1989)』, 『모래 밑 도시(Kum Baskan Şehir, 1996)』, 『노 젓는 사람들(Salçılar, 2012)』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멧 에민 호슈르, 메멧 에민 호슈르, 메멧 호슈르, 멤티민 호슈르

- 다국어 표기 Mehmet Emin Hoşur(튀르키예어), مەھمەت ئەمىن ھوشۇر(위구르어), memtimin hoshur(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6lQR>
- 참고문헌(오프라인) HASANCAN A., ÇAĞDAŞ UYGURYAZARI MEHMET EMİN HOŞUR VE ESERLERİ. Uluslararası Uygur araştırmaları dergisi, (8), 1~9, 2016.

I B086 | 메흐메트 푸아드 쿠프뤼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ehmet Fuad Köprülü

메흐메트 푸아드 쿠프뤼뤼(Mehmet Fuad Köprülü, 1890년~1966년)는 튀르키예의 투르크학 학자이자 사상가이다. 1890년 12월 4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그는 오스만 제국 시대 대재상을 다수 배출했던 쿠프뤼뤼(Köprülü) 가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190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스탄불 다뤼뤼뤼(İstanbul Dârülfünun, 현 이스탄불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다양한 유럽 문학 작품을 비롯한 서구 지식인들의 작품을 읽었다. 또한 부친의 서가에서 오스만 제국의 역사서와 고전 작품을 탐독했다. 1909년에는 문학 동인 모임인 ‘페즈리 아트(Fecr-i Âti)’를 만들었다. 그는 잡지 <세르베티 뤼뤼(Servet-i Fünûn)>을 통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미학에 관한 칼럼을 게재했다.

쿠프뤼뤼는 튀르키예의 사상과 사회 발전에 사회학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의 첫 칼럼은 사회에 관한 것이었으며, 1909년에 출간한 그의 첫번째 책은 번역서 『군중심리학(Psychologie des foules)』이었다. 사회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의 사상적 바탕이 된다. 쿠프뤼뤼는 『사상 활동, 과학과 철학 연구(Hayât-ı Fikriyye-Tetebbuât-ı İlmiyye ve Felsefiyye, 1910년)』 서문에서 서구의 지식을 통한 튀르키예의 지적, 사회적 혁명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서구 문학가들과 튀르키예 시인들을 분석·소개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1910년 그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최초의 문학사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쿠프뤼뤼는 투르크 민족주의와 지이야 괴칼프(Ziya Gökalp)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와 친분



메흐메트 푸아드 쿠피르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을 맺고 그가 주최한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쿠피르뤼의 민족주의 연구는 중앙아시아 투르크인에 대한 관심으로 뻗어나 가게 되었고, 이는 연구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품 세계에도 반영된다.

1913년 다뤘뤼논의 문학 교수가 된 쿠피르뤼는 이우누스 엠레(Yûnus Emre)나 아흐메드 야사비(Ahmad Yasawi)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나톨리아반도의 문화적 통합을 꾀한다. 또한, 투르크 민족과 튀르키예 문학에 새로운 시각을 담은 다수의 칼럼과 논문을 집필한다.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연구와 집필에 집중하면서, 다뤘뤼논 도서관의 자료 확보를 위해 서구의 투르크학 연구자들이나 동양학 연구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5년 넘게 집필했던 『투르크 문학에서 최초의 수피(Türk Edebiyatında İlk Mutasavvıflar)』가 출간된 1919년에 지이아 곱갈프는 체포되어 추방되었다. 쿠피르뤼도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된다. 독립 전쟁 동안에도 쿠피르뤼는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의 이슬람(Anadolu'da İslâmiyet)」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튀르키예 종교사 연구의 기초를 닦았고, 『튀르키예 역사(Türkiye Tarihi, 1923)』와 같은 역사 연구서도 출간한다.

1924년 쿠피르뤼는 다뤘뤼논 문학부 학장이 되었다. 같은 해 3월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투르크학 연구소(Türkiyat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1924년 11월 12일 연구소 설립이 승인되자마자 다음 날 쿠피르뤼는 차관직을 사임했다. 대학으로 돌아온 그는 동시에 투르크학 연구소 소장이 된다. 또한, 쿠피르뤼는 다뤘뤼논 문학부 이외에도 여러 고등교육 기관에서 종교사, 정치사, 문명사 등을 가르쳤다.

쿠피르뤼는 다양한 논문과 저서로 기존 서구 학계에 퍼져 있던 투르크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지식을 바로잡는다. 1927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1937년에 아테네 대학, 1939년에는 소르본 대학에서 각각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쿠피르뤼는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고, 대 가뭄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로 퍼졌다는 공식적인 논지에 반대한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 설립되는 연구기관에서

배제되었고, 학장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1933년 대학 개혁 과정에서 다시 문학부 학장으로 임명되었고, 1935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카르스(Kars)의 국회의원이 된다. 1941년 의원직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교육부 장관의 압력을 받아 이스탄불 대학을 떠나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쿠피르튀리는 학자로서 국가 상황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946년 1월 7일 민주당 창당의 주요 멤버로 참여했다. 195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자 쿠피르튀리는 외무부 장관이 되었고 한동안 부총리도 역임했다. 그러나 학자적 성향은 정치와 맞지 않는 면이 있었고,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1956년 외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1958년에는 미국으로 가서 역사학 관련 연구를 지속했고, 하버드 대학교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학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1960년 5월 27일 쿠데타 후 9월 6~7일 사건을 이유로 체포되어 야스아다(Yassı ada)로 유배되었으나 4개월 후 무죄로 풀려난다. 그후 쿠피르튀리는 정계에서 은퇴하고 연구 활동에만 집중한다. 1966년 6월 28일 이스탄불에서 세상을 떠났고, 쿠피르튀리 가문 묘지에 안장되었다.

쿠피르튀리의 연구는 무엇보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명확했고, 풍부하고 정확한 문헌 연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이슬람 전후의 중앙아시아 투르크 문학, 차가타이 문학, 오스만 고전 문학, 투르크 민속 문학, 음유 시인, 민담, 메다흐, 수피 민속 문학, 데르비쉬 문학, 튀르키예 종교사, 아나톨리아의 이슬람, 투르크 중세 역사, 오스만 역사, 오구즈 민족학, 언어사, 민속, 마술, 투르크 중세사회 및 시민 제도사, 법률사, 관습법, 경제사, 금석학, 화폐학, 투르크 미술사, 장식 미술사, 투르크 고전 음악사, 투르크학의 역사, 투르크 문화 등등 손에 꼽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쿠피르튀리의 이러한 폭넓은 연구는 투르크학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메드 푸앗 쿠피르튀리, 쿠피르튀리자데 메흐메드 푸앗
- 다국어 표기 Mehmed Fuad Köprülü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지이아 괴칼프, 다릴튀논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0/M_Fuat_Koprulu.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kün, Ömer Karuk. "MEHMED FUAD KÖPRÜLÜ",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28, Ankara: TDV,

2003, pp.471~486.

Park, George T. *The Life and Writings of Mehmet Fuad Köprülü: The Intellectual and Turkish Cultural Moderniz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75.

Sönmez, S. Erdem. *Mehmed Fuad Köprülü And The Rise Of Modern Historiography In Turkey* (Basilmamaış Doktora Tezi) Ankara: Bilkent Üniversitesi, 2018.

I B087 | 메흐테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조직
- 집필자 최선아, 우덕찬 ● 라틴 문자 Mehter

메헤테르(Mehter)는 오스만 제국의 궁전 조직 중 하나인 음악대로 메흐테르하네(Mehterhâne)라고도 불린다. 메흐테르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의 ‘더 큰, 가장 큰’이라는 의미의 미흐테르(mihter)라는 단어가 튀르키예어화 된 메히이에르(mehyer, 복수형은 mehterân)이다.

투르크 국가에서 군악대의 역사는 깊다. 8세기 오르혼 비문과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Dîvânü lugâti't-Türk)』 등에서 군기(軍旗)와 함께 북을 치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돌궐 시대 이래로 왕의 천막 앞이나 궁전 앞에서 북을 중심으로 음악을 연주하던 전통은 11세기 투르크-이슬람 국가에서도 지속되었다. 11세기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동에 존재하던 투르크 군악대의 존재는 피르다우시(Ferdowsi, 935년~1020년)와 니자미 갠재비(Nizami Ganjavi, 1141년~1209년)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 군악대는 드럼(küvrüg/kös), 북(tabl/davul), 나팔(borguy/boru), 주르나(nây-i Türki/zurna), 종(çeng/zil)과 같은 악기들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악기 편성은 메흐테르와 거의 유사하다.

오스만 제국의 메흐테르 조직의 성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메흐테르’라는 명칭이 기록상으로는 16세기에 최초로 등장하지만, 이미 14세기 공국 시대부터 군악대가 있었으며 티무르와 맞붙었던 앙카라 전투(1402년)에서도 두 진영 모두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군악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술탄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오스만 군악대 메흐테르 연주(이스탄불)

1451년~1481년)시대로, 술탄은 이스탄불 정복 이후 이스탄불 주요 지구에서 하루 세 번 нама즈(정기 기도) 시간에 맞추어 네브벳(nevbet: 복을 중심으로 한 음악)을 울리라고 명했다. 쉴레이만 1세(I.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시대에 영토와 국가 조직의 확장과 함께 메흐테르에 대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궁전 조직으로 메흐테르 이외에도 에스나프 메흐테리(esnaf mehteri)라고 하는 일반 백성을 즐겁게 해주는 연주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리더는 메흐테르 관리 기관(tabl ü alem mehterleri) 산하에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행사에서 활약했으나 전시에는 전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1826년 예니체리 군대가 해체되면서 메흐테르도 함께 해체되었고, 그 대신 유럽식 군악대(Muzika-yi Hümâyun)가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1914년 오스만군사 박물관 산하 ‘칸의 메르테하네’(Mehterhâne-yi Hâkânî)라는 이름으로 재창립되지만, 공화국 설립 이후 1935년 다시 해체되었다. 1952년 총사령부의 명으로 다시 창립된 메흐테르는 1953년 5월 29일 이스탄불 정복 5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연주했다. 1968년 군사박물관에 의해 재정비된 메흐테르가 창립되기도 했으며 이 메흐테르는 현재도 ‘군사박물관 문화 영역 사령부’(Askerî Müze ve Kültür

Sitesi Komutanlığı) 산하 ‘메흐테란 단’(Mehteran Bölüğ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부 ‘이스탄불 역사 음악회(Kültür Bakanlığı İstanbul Tarihi Türk Müziği Topluluğu)’와 일부 구청 단위에 메흐테르 팀이 있어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주 시 메흐테르의 연주가들은 원형으로 모인다. 가운데에는 북 연주가(tabbâlîn), 뒤에는 종 연주가(zencciyân), 북 연주가 옆에는 체브간(çevgân: 말을 타고 긴 막대기로 겨루는 경기) 선수가, 왼쪽에는 주르나 연주가(zurnazenân)와 나팔수(borazancılar)가 서고, 주르나 연주가 옆에는 나카레 연주가(nakkâreciler)들이 책상다리로 앉는다. 메흐테르의 리더가 주르나를 들고 원 가운데에서 인사를 하고, 메흐테르 단원들이 이에 답을 한다. 이후 메흐테르 리더의 신호에 맞추어 기본자세를 취하고, 리더는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외친다. 연주 중간중간 체브간 선수가 고함을 지르며 채를 흔든다. 연주는 메흐테르 곁반기(mehter gülbangi)라는 기도와 함께 끝난다. 그 후 메흐테르는 메흐테르 리더에게 인사하며 뒤로 물러선다.

다양한 메흐테르의 연주곡은 알리 우프키 베이(Ali Ufkî Bey 또는 Wojciech Bobowski, 1610년~1675년)의 『기악 및 성악 작품 모음(Mecmûa-i Sâz ü Söz)』과 디미트리 칸테미르오을루(Dimitri Kantemiroğlu 또는 Dimitrie Cantemir, 1673년~1723년) 음악에 의한 『결정과 실행의 책(Kitâbü İlmi'l-mûsikî alâ vechi'l-hurûfât)』과 같은 작품집에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초 이 연주곡들을 함파르숨 리몬지안(Hamparsum Limonciyan, 1768년~1839년)이 자신만의 악보 표기법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메흐테르 곡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세기 작품이다.

메흐테르 연주곡은 17세기 2차 빈 전투(1683년)에서 오스만군악대를 지켜보았던 유럽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18세기 북을 앞세우고 일부 메흐테르 악기(또는 그와 유사한 악기)를 사용하여 메흐테르를 떠올리게 하는 작곡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종류의 음악을 ‘알라 투르카(alla turca)’ 즉 ‘투르크 풍의 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메흐테르 음악은 오스만 제국의 독창적이며 민족적인 음악으로써 오스만군대에 영향을 주었고, 현대에도 민족적 영광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용돼 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텔

● 다국어 표기 Meht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주르나, 다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w0pz>

메흐테르_연주

<https://www.youtube.com/watch?v=7VG5HU9U4QY>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can Nuri, “Mehter”, *TDV İslâm Ansikopedisi*, Cilt.28, Ankara:2003, pp.545~549.

Ögel Bahaeddin, *Türk Kültür Tarihine Giriş: Türklerde Devlet ve Ordu*,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1978.

I B088 I 멘테세 공국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주연 ● 라틴 문자 Emirate of Mentеше

멘테세 공국은 13세기 말부터 1424년 사이에 서(西)아나톨리아 해안에 위치했던 투르크멘 공국이다. 이 공국에 ‘멘테세’라는 이름을 부여해주었던 이 공국의 시조인 멘테세 벡의 부친은 13세기 말에 룸 셀주크 투르크의 해안을 지키던 아미르(Amīr al-Sawāḥil)이었다. 이들은 룸 셀주크가 1243년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아 쇠퇴했을 때 지방세력 중의 하나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거점은 아나톨리아의 남서부였고 그 수도는 밀라스(Milas)였다. 이 공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베니스나 로도스의 구호 기사단, 그 외에 여러 유럽 세력과 갈등과 연합을 반복했다.

그들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멘테세 벡의 손자인 아흐메드 가지의 명문을 보면, 그들은 일비스탄에서 이크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1291년에 밀라스에서 발행한 룸 셀주크 술탄의 이름이 담긴 동전으로 볼 때, 13세기 말까지는 룸 셀주크의 지배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일 칸국의 게이하투가 콘야에 있던 카라만 공국을 점령했을 때 멘테세도 그 약탈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1300년에 멘테세 벡의 후계자인 아들 마수드 벡은 로도스 섬의 일부를 점령하여 8년 동안 이곳을 구호 기사단에게서 빼앗았다. 1320년에는 그의 아들인 오르한 벡이 재차 로도스 섬 점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관한 기록은 아나톨리아 이외의 이슬람 사료에도 보이는데, 이븐 바투타는 그를 ‘밀라스의 술탄’이라 했고, 알 우마리는 오르한 벡의 도시와 병력에 대해 소개했으며, 마수드 벡의 동생 이사 반독립 세력이었던 푸케(피니케)의 키르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344년 등극한 이브라힘 벡은 아이든 공국의 우무르 벡을 돕기도 했으나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오히려 베니스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은 크레테 조정의 중재를 받아 화해했다. 1360년에 이브라힘 벡이 사망하고 국가는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으며, 1389년에 코소바의 전투에서 바야지드가 등장하면서 그와 연맹을 맺게 되었지만, 결국 1391년까지 세 명의 벡이 사망하면서 멘테세 공국 전역은 오스만에게 점령되었다.

티무르가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바야지드 1세에게 승리한 이후, 앞서 언급한 이브라힘 벡의 세 아들 중에 무함마드 벡의 아들인 일야스 벡이 티무르의 가신으로 있었다. 이 시기에 오스만은 바야지드 1세 사망 이후로 공위시대가 이어지면서, 바야지드의 여러 아들 간의 세력 싸움이 한창이었는데, 이때에 여러 투르크멘 공국들도 이 싸움에 가담했다. 멘테세 공국은 아이든 공국 및 사루한 공국 등과 함께 이사 첼레비를 지원했으나, 승리자는 그의 상대인 메흐메드 첼레비가 되면서 그에게 강제 복속되었다. 이 시기에 멘테세가 예게 해에 보유하고 있던 섬을 상실하면서 1403년 베네치아와도 반강제로 조약을 맺게 되었다. 1415년에 일야스 벡은 오스만의 지배를 받아들여 동전에 메흐메드 첼레비의 이름을 새겼으며, 아들을 오스만 궁전으로 보냈다. 1421년에 일야스 벡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들이 오스만 궁전에서 탈출하여 멘테세 공국을 계승했으나, 무라드 2세가 멘테세를 점령하고 두 아들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서 이 공국은 끝나게 된다. 이 공국은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유명하며, 여러 학자들을 지원하고 여러 언어의 작품을 투르크어로 번역한 것으로 유명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멘테세 공국, 멘테세 베이리이, 멘테세, 멘테세 도웅라르
- 다국어 표기 *Menteşeoğulları Beyliği*(튀르키예어), *منتشا*(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룸 셀주크, 바야지드 1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080227195426/http://www2.let.uu.nl/Solis/anpt/ejos/pdf/VG07.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C. E. Bosworth, *The new Islamic dynasties -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pp.369~370.

E. MERCIL, "MENTESHE-OGHULLARI," Encyclopaedia of Islam 6, Leiden: Brill, 1991, pp.1018~1019.

Halil Inalcik, "The Rise of the Turcoman Maritime Principalities in Anatolia, Byzantium, and Crusades" Byzantinische Forschungen 9, 1985.

I B089 | 멜리흐 제브데트 안다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elih Cevdet Anday

멜리흐 제브데트 안다이(Melih Cevdet Anday)는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며, 극작가이고, 시인이며, 번역작가이다. 1915년 3월 13일 차낙칼레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무자페르 멜리흐(Muzaffer Melih)이다. 안다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이 이스탄불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이스탄불에서 다녔다. 시(詩) 습작은 초등학교 때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테페괴즈 하이리(Tepegöz Hayri)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고등학교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앙카라로 거주지를 옮겼고, 가지(Gazi)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오르한 벨리 카르크(Orhan Veli Kanık)와 옥타이 르파트(Oktay Rifat)를 알게 되었다. 튀르키예 문학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던 가리프(Garip)파가 이때 형성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안다이는 법대에 입학했지만 얼마 다니지 못했다. 바로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과에 재입학했다. 동시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벨기에로 파견되었는데, 이마저도 2차 세계 대전이 발발로 2년만에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다. 이후 1942년에는 앙카



『은밀한 명령(Gizli Emir)』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라에 있는 교육부 출판국 자문관으로 발령이 났고, 앙카라 도서관에서도 근무했다.

1945년 10월에는 같은 교육부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바하트 테르테미즈(Sabahat Tertemiz)와 결혼했다. 결혼 1년 뒤 첫 시집 『평안을 잃은 나무(Rahatı Kaçan Ağaç)』를 발표하는 등 시인으로 자리를 잡아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 사바하트 부인은 1956년 5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3년이 흐른 뒤, 야샤르 게디코을루(Yaşar Gedikoğlu)와 재혼했고 함께 번역일을 했다. 1983년 1월 25일까지는 두 번째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이때 아들이 이드리스(İdris)가 태어났다. 그러나 두번째 결혼생활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야샤르 부인과 이혼했다. 이어 수나 아칸(Suna Akkan)과 1983년 6월 16일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이스탄불에 자리를 잡으면서 신문 <악şam(Akşam, 저녁)>, <büyük gazete(Büyük Gazete, 위대한 신문)>, <Tanin(Tanin)>, <Cumhuriyet(Cumhuriyet, 공화국)>에 칼럼과 에세이를 썼고, 문화예술부 편집을 담당했다. 1954년부터는 이스탄불 시립예술학교 연극부에서 발성·발음 교정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7년 은퇴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는 튀르키예 공영방송 TRT 이사로도 활동했다. 1979년에는 문화고문관으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다녀왔다.

안다이는 1946년 첫 시집 『평안을 잃은 나무(Rahatı Kaçan Ağaç)』를 출판했고, 이어 1952년에는 『전신전화국(Telgrafhane)』, 1956년에는 『나란히(Yanyana)』를 발표했다. 세 시집(詩集)은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안다이가 얼마나 시를 매개로 대중에게 다가가기고 노력했는지도 알 수 있다.

안다이가 철학, 역사 그리고 신화를 소재로 쓴 시집으로는 『양팔이 묶인 오디세우스(Kolları Bağlı Odysseus, 1962)』, 『바다 위의 떠돌이(Göçebe Denizin Üstünde, 1970)』, 『배의 침몰(Teknenin Ölümü, 1975)』, 『불멸의 길가메시(Ölümsüzlük Ardında Gilgamiş, 1981)』, 『친숙한 세상(Tanıdık Dünya, 1984)』, 『빛속에서(Yağmurun Altında, 1995)』 등이 있다.

다양한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안다이에겐 중요한 것은 신문이었다. 그러나 신문사는 그의 개성을 받아주지 않았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악şam(Akşam Gazetesi)> 신문사 문학예술부에서 일했지만 상사와의 불화로 해고되었다. 이후 도안 카르데쉬 출판사(Doğan Kardeş Yayınları)에서 번역을 담당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이유로 쫓겨났다. 1958년부터는 <테르쥘만(Tercüman, 번역)>, <büyük gazete(Büyük Gazete)>, <신(新)타닌(Yeni Tanin)>, <이크담(İkdam, 혼신)> 등에 여러 가지 필명을 사용하여 에세이와 기사 그리고 소설을 연재했으며,

1960년부터 1997년까지는 일간지 <쭈후리에트(Cumhuriyet)>신문에 사설을 썼다.

안다이의 1960년 이후 시에서는 신화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시집 『양팔이 묶인 오디세우스 (Kolları Bağlı Odysseus, 1962)』 출간 이후부터 그는 아나톨리아에 남겨진 고대 그리스 문화를 통해 튀르키예의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자 했다.

안다이의 수상 경력은 꽤 화려하다. 1970년에는 『은밀한 명령(Gizli Emir)』으로 TRT 소설상을, 타리에이 베소스(Tarjei Vesaas)의 작품을 번역한 『얼음 궁전(Buz Sarayı)』으로 1973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번역상을, 『친숙한 세상(Tanıdık Dünya)』으로 1976년 예디테페상(시 부문)을, 『말뭉치들(Sözcükler)』로 1978년 세다트 시마비 바크프 문학상을, 『불멸의 길가메시(Ölümsüzlük Ardında Gilgamiş)』로 1981년 노동은행(Iş Bankası) 대상을 수상했다. 1991년에는 튀야프(TÜYAP)의 명예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시, 번역 할 것 없이 다양한 장르에서 튀르키예 문학사에 두각을 나타낸 안다이는 2002년 11월 28일 이스탄불에서 세상을 떠났다. 안다이의 묘는 이스탄불 뷁육아다(Büyükkada)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멜리흐 제브뎃 안다이

● 다국어 표기 MELİH CEVDET ANDAY(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ay Melih Cevdet, “Çimen Yaprakları”, *Akşam*, 12 Nisan 1954.

Durmuş Mitat, Melih Cevdet Anday’ın Şiir, *Millî Eğiti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1.

Kabacalı Alpay, *Ölümsüzlük Yolunda Melih Cevdet Anday*, Pen Yazarlar Derneği, İstanbul, 1991.

Oral Zeynep, *Sözden Söze*, Cem Yayınevi, İstanbul, 1990.

Timuroğlu Vecihi, *Melih Cevdet Bilge ve Duyarlı*, Prospero Yayınları, Ankara, 1994.

I B090 | 멤메다가 설라리에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emmedağa Şiraliyev

아제르바이잔의 언어학자 멤메다가 설라리에브(Memmedağa Şiraliyev)는 1909년 9월 18일 아제르바이잔 샤마흐(Şamahı)에서 태어나, 1931년 바쿠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동양학부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한동안 교사로 근무했으며, 1936년 아제르바이잔 국립 교육학 연구소 언어·문학부 부학장이 되었다. 194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45년 이 대학의 부총장직을 맡았다. 그는 1949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 특파원으로, 이후 1962년에는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그는 소피아 대학의 투르크 문헌학과에서 강의를 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미르자자데(M. Mirzazade)와 함께 투르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그는 불가리아어에서 사용되는 투르크어 방언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그는 1970년 바쿠에서 출판되기 시작한 저널 <소비에트 투르크학(Sovetskaya Tyurkologia)>의 편집장이었다. 설라리에브는 아제르바이잔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던 최초의 학자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메드아아 설랄리에브
- 다국어 표기 Memmedağa Şiraliyev(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ERTKAYA O. F. 1995, MEMMEDAĞA ŞİRALİ OĞLU ŞİRALİYEV. Türk Dili Araştırmaları Yıllığı-Bellekten, 40, 1992, 196~197.

I B091 | 모굴리스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ogulistan

모굴리스탄은 텐산(천산) 산맥 북쪽의 현 카자흐스탄 동남부, 즉 발하슈 호와 이식쿨 호의 중간에 있는 초원(스텝) 지대를 의미한다. 그 지역은 차가타이 칸국에 속해 있었으며,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몽골인들은 유목생활을 이어 나가며 토착 투르크 계와 섞이게 되었다. 이들은 모굴인이라고 불린다. 모굴리스탄 칸국은 1346년에 차가타이 칸국이 분열된 이후 차가타이 칸국의 동부에 수립된 정권이다. 1706년 마지막 칸이 호자 가문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존속했다. 차가타이 칸국의 동부 지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동차가타이 칸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모굴인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모굴 칸국이라 이르기도 한다. 모굴리스탄 칸국은 초원 지대와 오아시스 지대의 환경이 상이한 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산 산맥 북방(= 모굴리스탄)은 초원의 유목 지대였고, 천산 산맥 남부(= 타림 분지)는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는 정주 지대였다. 오이라트의 서남쪽이었고, 몽골의 서북쪽, 티베트의 북부와 북동쪽과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16세기 초에 모굴리스탄 칸국은 모굴리스탄 영토를 상실하고 타림 분지의 정주지대로 이동했다. 이후 모굴리스탄 칸국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게 되었고 동시에 정주화 되었다. 16세기 초반에는 부하라 칸국과 모굴 칸국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1530년 이후부터 부하라와 모굴 칸국 사이는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지배 가문들이 통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카자흐족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과 양국 사이의 교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이를 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모굴리스탄 칸국, 모굴 칸국, 모굴 한국
- 다국어 표기 مغولستان(페르시아어), Moğolustan(아제르바이잔어), Моғолстан(카자흐어), Moğolistan Hanlığı(튀르키예어), Mo'g'uliston(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김호동, 「前期 모굴汗國의 繼承紛爭을 통해 본 遊牧的 部族政治의 特徵」, 『동양사학연구』 33, 1990.

김호동, 「15-16세기 中央아시아 新遊牧集團들의 動向;前期 모골汗國의 崩壞와 관련하여」, 『러시아연구』 3, 1993.
 고마츠 히사오, 나카미 타츠오, 하마다 마사미 공저, 이평래 옮김, ‘중앙유라시아의 주변화’,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5.

Gulchekhra Sultonova, “The dynamics of interrelations Bukhara and Yarkand khanates: inter and external factors,”
Central Eurasian Studies, T.C. Maltepe Universitesi yayinlari, no.46 2011/5.

I B092 | 모린 톨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Morin Tolgoi

모린 톨고이는 투브 아이막 알단볼락 сом 제5박 지역에 속하며,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남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흥노의 무덤군은 산의 남쪽 기슭에 분포하는데, 낮은 언덕에는 서쪽에만 무덤이 있다. 1957년 발굴조사에 참여한 러시아에서는 ‘라씨안 볼락’이라고 칭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역명을 따라서 ‘모린 톨고이’라고 명명했다.

흥노시대 무덤 이외에도 청동기시대 판석묘 130여기가 분포하고, 사슴돌 3개가 내부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 흥노 이전부터 무덤으로 이용된 곳이다. 흥노시기의 무덤은 1975년 몽골-소련 역사문화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발굴했다. 그 뒤에 몽골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한국과도 2000년에 한국-몽골 공동조사단이 1기를 조사했다. 한국과 조사한 00-1호는 유적 내에서 가장 큰 무덤이다. 지표면에 노출된 적숙부의 지름이 14m에 달하는데, 묘도가 없는 방형무덤이다. 무덤은 3단으로 토광을 파서 목곽을 묻은 구조이다. 1차 무덤광(5.6m×4.6m)은 지표 아래 0.7m 아래에 추가장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둘로 가닥차이었는데, 1.5m~1.8m 아래에서는 2차 무덤구덩이(3.75m×3.15m)가 확인되었고,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웠다. 2차 무덤광의 북쪽에서 토기편 등 기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3차 무덤구덩이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접합되어서, 무덤은 이미 도굴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2차 무덤구덩이 아래에서는 3차 무덤구덩이의 상부를 덮은 횡목(3.11m×1m) 20개가 아래의 목곽을 고정하면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북쪽에는 도굴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소형토기, 백화수피, 인골, 소뼈 등이 확인

되었다. 목곽 안에는 목관이 있었고 뚜껑위에 비단으로 쓴 중국 한경이 반파되어 확인되었다. 3차 무덤구덩이의 바닥까지의 깊이는 4m에 이른다. 유물은 대부분 목관의 북쪽 바깥에서 확인되었다. 주인공은 30세 전후의 여성이다. 자작나무 껍질은 복원 결과 화살통 혹은 칼집으로 판명되었다. AMS 측정결과 인골은 주인공 여성인골은 B.C. 75년~A.D. 100년, 목관 뚜껑은 A.D. 85년, 나무접시는 A.D. 15년이다. 중국거울은 규구경(規矩鏡)으로 A.D. 1세기 중엽~후엽의 것이다. 이들 유물을 보면 무덤은 기원후 1세기대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몽골 모린 톨고이 유적

● 다국어 표기 Морин Толгой(러시아어), Morin Tolgoi(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몽골 모린 톨고이 유적』, 2001.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2008.

G. Eregzen,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B093 | 모모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타지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omo

모모는 타지크와 우즈베크의 몇몇 부족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 정령이다. ‘마마’라 불리기도 하며 ‘할머니’란 의미이다. 모모는 산파와 사면을 돕는 여성의 수호신이다. 타지크 전설에 따르면 모모는 점잖은 부인의 모습을 하고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 모모, 마마 모두 ‘할머니’란 의미이다. 우즈베크에서 ‘모모’란 단어는 다른 정령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데 주로 사면과 관련된 정령을 지칭한다. 존경의 표식으로 모모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다른 신화적 등장인물들의 이름 앞에 붙는다. 뇌우를 부르는 정령 모모 쿨두로크(Момо-Кульдурок), 인류의 첫 여성인 모모 하보(Момо-Хаво)가 그 예이다. 일부 우즈베크 지역에서 모모는 집에 기거하는 정령인데 장

난질을 통해 존재를 드러낸다고 한다. 모모-쿨두로크는 부르쿠트 바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몸모
- 다국어 표기 Мом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부르쿠트 바바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1, 170.

I B094 | 모스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건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osque

모스크(mosque)는 ‘엎드려 절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아랍어 ‘마스지드(مسجد)’가 스페인어(mezquita)와 프랑스어(mosquée)를 거치며 변형되어 정착된 영어식 표기이다. 한국에서는 모스크를 사용하거나 성원(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튀르크어에서는 아랍어 마스지드가 각 언어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로 표기하는 한편, 튀르키예어에서 ‘자미(Cami)’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을 의미하는 ‘마스지드 자미(masjidi jami, 아랍어: مسجد جامع)’의 준말이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금요 예배를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민바르가 있는 곳은 ‘자미’, 설교단이 없는 곳은 ‘메스지드(mescid)’로 표기한다.

명절과 장례를 위한 모스크는 무살라(Musalla, 아랍어: مصلى)로, 길가에 위치하고 천장이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페르시아어인 намазгаһ(Namazgah, 페르시아어: نمازگاه)로 불렸다.

이슬람 신학자들은 최초의 모스크는 아브라함이 메카에 지은 카바신전이며, 이 주변에 세워진 마스지드 알 하람(Masjid al-Haram)이라고 말한다.

헤지라 이전은 무슬림들이 이교도들의 박해를 피해 신자들의 집과 계곡에서 비밀리에 기도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오르타코이 모스크(이stanbul, 튀르키예)

를 올리던 시기였다. 아부 바크르(Abu Bakr, 573년~634년)는 메카에 있는 자신의 집 정원에 작은 마스지드를 만들었고, 이를 무슬림이 만든 최초의 모스크로 여긴다.

헤지라 이후, 무함마드는 메디나 인근에 쿠바 모스크(Quba Mosque)를 지었고, 이어 쿠바에서 메디나로 가는 길에 알 마스지드 안 나바위(Al-Masjid an-Nabawi)를 건립했다.

이슬람의 확장과 함께 메디나를 중심으로 모스크 건축도 증가했고, 전쟁을 할 때도 그곳에 모스크가 있으면 공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부족 중 일부는 옛 신전이나 예배소 자리에 모스크를 건립했다. 이슬람이 확장되어 신도시가 건설 될 때는 우선적으로 모스크가 지어질 자리를 명확히 확보해야 했다.

우마이야 조와 압바스 왕조에서는 메디나의 모스크를 모델로 삼아 모스크 건축했다. 특히 도시당 하나씩 세워졌던 금요 예배가 가능한 대형 모스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 도시에도 여러 개

로 늘어났다. 국가 고위직의 권력자들이 권력의 상징으로 모스크를 건축하기도 했다.

모스크를 건축하는 데 있어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스크는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키블라 벽과 키블라를 표시하는 미흐랍,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 금요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민바르, 여성을 위한 기도 공간,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아잔을 읽을 수 있는 탑 미너렛, 기도 전 정화의식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분수대 또는 세면대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의 형태와 자재는 해당 지역의 환경과 스타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성을 갖는다.

모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다. 깨끗한 곳이나 집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으나, 모스크에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순나(Sunnah,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에 어긋난다. 특히 금요일과 명절 예배는 반드시 다른 신도들과 함께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스크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무함마드 시대에도 예언자가 모스크를 방문했을 때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을 보고 흡족해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초기 예는 코란과 하디스가 주로 교육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고전 아랍시와 같은 문학이나 의학 등으로 과목이 확대되었다. 각 종단 이맘들도 모스크에서 교육 받고 성장하여 선생이 되기도 했다. 도시들이 모스크 내에 도서관이나 서가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스크는 정치적 기능도 수행했다. 특히 무함마드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떼어낼 수 없는 구조였기에 무함마드는 모스크 내에서 이맘으로서의 역할과 행정 업무를 동시에 처리했다. 이후에도 칼리파들은 행정명령을 설교 시간에 설교대에 올라가 읽기도 했고, 외국 대사 영접을 모스크에서 하기도 했다. 종교와 정치가 차츰 분리되며 이러한 전통은 사라졌으나 통치자들이 민중을 한 곳에 모아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거나, 법률 해석과 판정을 내리는 곳, 전쟁 선포나 병사들의 사기충전을 위한 장소 그리고 전시(戰時)에는 병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스크 운영은 정부가 지원하거나 모스크가 소속된 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모스크에는 기도를 집도하는 이맘과 설교자 하팁, 아잔을 읽는 무아딘, 코란 낭독자, 청소부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스지드, 자미, 마스지드

● 다국어 표기 Meshit(카자흐어), Masjid(우즈베크어), Cami(튀르키예어), Mescid(아제르바이잔어), Məçet(타타르어), metjidi(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미너렛, 미흐랍, 민바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Önkâl Ahmet ;Nebi Bozkurt; Semavi Eyice; Mehmet Şener, “Cami”, *TDV İslâm Ansiklopedisi*cilt 7, Istanbul: TDV, 1993, pp.46~92.

Pedersen Jons, “Masdjid”, *Encyclopaedia of Islam* VOL. VI(ed. C. E. BOSWORTH, E. VAN DONZEL, W. P. HEINRICHS AND CH. PELLAT), Leiden: E.J. Brill, 1991, pp.644~677.

I B095 | 모음조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언어현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Vowel Harmony

모음조화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 음절의 모음이 앞 음절의 모음의 영향을 받아 같거나 그에 가까운 성질인 모음으로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어와 동일하게 투르크 어도 알타이어군에 속하기 때문에 투르크 어군 대부분 언어에 모음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모음조화는 모음 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대립하는 두 모음군의 대립 양상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튀르키예어에서는 후설모음조화(Kalın ünlü benzeşmesi)와 전설모음조화(İnce ses benzeşmesi)로 나뉘어진다.

튀르키예어의 모음은 [a, e, ɪ, i, o, u, ö, ü]로 총 8개이다. 단어의 첫음절을 구성하는 모음인 주모음이 후설모음(a, ɪ, o, u)이면, 뒤음절의 모음도 후설모음(a, ɪ, o, u)이 온다. 첫음절 주모음이 전설모음(e, i, ö, ü)이 오는 경우, 전설 모음(e, i, ö, ü)이 수반된다.

동일하게 평순 개모음(a,e) 뒤에는 평순 개모음(a,e) 혹은 평순 폐모음(ɪ,i) 이 이어지며, 평순 폐모음(ɪ,i) 뒤에는 평순 폐모음 혹은 평순 개모음(a,e)이 와야한다. 원순 개모음(o,ö) 뒤에는 원순 폐모음(u, ü) 또는 평순 개모음(a,e)이, 원순 폐모음(u, ü) 뒤에는 원순 폐모음(u, ü) 또는 평순개모음(a, e)이 위치한다. (예: kitaplık+ta, okul+da)

격조사 어미도 단어의 마지막 음절 모음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외래어 중 단어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a, o, u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rol+ün)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모음 조화
- 다국어 표기 Ünlü benzeşmesi(튀르키예어), Vowel Harmony(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서재만, 『기초 튀르키예어 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I B096 | 모하치 전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헝가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Battle of Mohacs

모하치 전투는 1526년 8월 29일, 헝가리의 (오늘날 헝가리,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경계에 있는) 모하치 시 남쪽에서 치러진 전투이며 이 전투의 결과로 중세 헝가리 왕국의 독립에 종지부가 찍혔고, 헝가리를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다.

이 전투의 원인으로는 헝가리 왕 러요시 2세가 오스만 제국 가신국이었던 왈라키아에 개입하여 왈라키아가 오스만 제국에 반복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점, 그리고 쉴레이만의 정복 전 계획에서 헝가리 정복이 중요한 위치를 점을 들 수 있다. 이 전투 투입된 오스만군은 약 6만의 티마르 기병과 중앙 상비군, 거기에 4만~5만 정도의 보조인력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기(雨期)와 4개월 간의 행군 그리고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헝가리 군 총사령관 팔 토모리 대주교가 오스만군 전체가 약 7만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상당히 진실에 부합했을 가능성이 높다(일부 15만에서 30만까지로 평가한 후대 기록이 있으나 이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오스만군대가 7만이었다고 해도 그것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헝가리 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세한 숫자였다. 오스만 측은 약 200문의 포를 쏘으나 헝가리인들은 80문 정도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것은 대포가 아니라 예니체리들과 그들의 총격이었다.

이 전투는 1241년 헝가리가 몽골에게 무히 전투에서 패배한 후로 가장 처참한 패배였다. 국왕 러요시 2세, 대부분의 병사들과 고위 성직자, 500명의 귀족, 4천 명의 기병, 1만 명의 보병이 사망했다. 이로써 헝가리의 오스만 제국을 중부 유럽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1세기 반

에 걸친 노력은 실패로 끝이 났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전투는 합스부르크-오스만 사이의 군사 대결 국면으로 이어진 것과 같았다. 1526년 일단의 헝가리 귀족들이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 대공을 왕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페르디난트는 1564년 사망할 때까지 헝가리의 왕으로 재임했으며, 헝가리의 중부와 동부도 헝가리 왕으로 선출된 서포여이 야노시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북서부만을 지배했다. 자폴리아의 친(親) 오스만 정책 덕분에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사이의 충돌은 그의 사망 시까지 미루어졌다. 페르디난트가 1541년 부다를 포위했지만, 함락에 실패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이 중부 헝가리를 정복하도록 만들었고, 헝가리는 제국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 다국어 표기 Mohaç Muharebes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zabó, János B, “The Ottoman Conquest in Hungary: Decisive Events (Belgrade 1521, Mohács 1526, Vienna 1529, Buda 1541) and Results”, *The Battle for Central Europe*. Brill, 2019, pp.263~275.

Gabor Agoston, “Mohacs, Battle of” in Gabor A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88~389.

I B097 | 몰라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이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칭호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llah

몰라는 몬라(monla), 문라(munla), 물라(mulla) 등으로도 사용되는 아랍어의 ‘우리 주인님’에 해당하는 단어의 호격이 변화되어 현재의 형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몰라는 이슬람 사회에서 유명 종교인이나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물에게 부여하는 호칭이다. 몰라는 대체로 이슬람법과 신학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을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지는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다르며, 몰라 자체의 의미가 변화하기도 했다. 예컨대, 과거 이란 사파비 왕조에서는 이슬람 학자들에게 붙이는 칭호로 사용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남발되어 현재는 다소 비하하는 속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설교하는 몰라(러시아, 시베리아)

오스만 제국 이전 아나톨리아에서도 몰라는 학자를 위한 호칭이었으며, 일부 수피교의 특징을 참조하고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메블라나 종단의 경우 ‘몰라 이 룸(Molla-i Rûm, 아나톨리아의 몰라)’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마드라사의 고위급 학자들이나, 일급 재판관(Kadi)에게 사용했다.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일종의 귀족층을 형성한 울레마들이 이 칭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회 계급과 자신들을 구분하고자 했다. 울레마의 자녀가 몰라 칭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셰이훅이슬람(Şeyhülislam, 오스만 시대의 최고위급 종교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일정한 지식수준을 갖춘 관료의 자녀가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황제의 결정에 달려있었다. 오스만 제국 말기 이후에는 이런 의미는 대부분 사라지고, 마드라사 학생들에게 사용되거나, 여성들에게 코란 등을 읽어주는 종교적 봉사를 수행하는 여성들의 이름 뒤에 사용되었다. 현대 튀르키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카잔 타타르와 크림 타타르에서는 몰라는 ‘학문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러시아 제국에서는 모스크의 성직자를 의미했다. 카프카스 지역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몰라’ 부르기도 했으며, 현대 중앙아시아에서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상대를 높여주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몰라

● 다국어 표기 Mullah(영어), Molla(튀르키예어), Molla(아제르바이잔어), Mulla(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호자

● 참고문헌(오프라인) Algar Hamid, “Molla”,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30, Istanbul: TDV; 2005, pp.238~239.

Calmaid J, “MOLLA”, *The Encyclopaedia of Islam* Vol. VII Mif-Naz(Ed: C.E. Bosworth, E. Van Donzel W.P. Heinrichs. Ch. Pellat), Leiden-NewYork; E.J. Brill, 1993, pp.221~225.

I B098 | 몰라 패나흐 와기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온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olla Pənah Vəqif

몰라 패나흐 와기프(Molla Pənah Vəqif, 1717년~1797년)는 1717년에 아제르바이잔 가자흐(Qazax) 지방 유카르 살라흐르(Yuxarı Salahlı)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패나흐(Pənah)이다. 지인들이 그의 학식과 덕망을 기려 이슬람 원로를 뜻하는 ‘몰라’(Molla)라는 칭호를 줬기 때문에, ‘몰라 패나흐(Molla Pənah)’로 알려지게 됐다. 그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모국어 외에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뿐만 아니라 신학 외에도 세속 학문도 공부했다. 그는 오랫동안 슈샤(Şuşa)에서 카라바흐(Qarabağ) 칸국(Khan) 이브라힘헬릴 칸(İbrahimxəlil xan)의 고관으로 일했다. 아가 매함매드 샤흐 가자르(Ağa Məhəmməd şah Qacar)는 슈샤(Şuşa)에서 암살당했는데, 아가 매함매드 샤흐 가자르가 살해당한 이후 왕위에 오른 매함매드 베이(Məhəmməd bəy)는 와기프를 체포했다. 1797년 와기프는 아들 알리 베이(Əli bəy)와 함께 처형당했고, 묘소는 슈샤(Şuşa)에 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중세 전통과 정신을 계승한 시인이다. 새롭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언어 형식은 민속시를 지향했다. 그의 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 시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주로 고쉬마(qoşma), 태즈니스(təcnis), 가젤(qəzəl) 등 고전시 형식으로 시를 썼다. 「바람아, 내 마음에 소식을 전해주길(Badi-səba, bir xəbər ver könlümə)」, 「명절이 왔다(Bayram oldu)」, 「월수의 시선(Gözlərin cəlləddir, baxışın yağı)」, 「두루미(Durnalar)」, 「나는 반했다(Heyran olmuşam)」, 「쿠르 강(江)가의 경치 좋은 곳(Kür qırağının əcəb seyrangahı var)」, 「보라(Bax)」, 「나는 보지 못했 노라(Görmədim)」 등이 대표 시(詩)이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 언어가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각각 음절의 숫자를 맞춰 운율을 살리는 아제르바이잔의 정형시 형식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언어로 표현해냈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시작(詩作)은 일상언어를 문학언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제르바이잔 시인이자 극작가인 세메드 부르군은 1937년에 「와기프(Vəqif)」라는 헌시를 바쳐 그의 업적을 기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몰라 페나 와깁, 몰라 페나흐 바기프
- 다국어 표기 Molla Penah Vagif(영어), Molla Panah Vagif(튀르키예어), Молла Панах Вагиф(러시아어), واقف ملاپناه(아랍어), Molla Penah Vaqif(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Cəfərov Nizami, *Füzulidən Vaqifə qədər (Monoqrafiya)*, Bakı, 1991.
Dadaşzadə Araz, *Molla Penah Vaqif: həyat və yaradıcılığı (Monoqrafiya)*, Bakı: Azərbaycan SSR EA nəşriyyatı, 1966.
Dadaşzadə Araz, XVIII əsr Azərbaycan lirikası (Monoqrafiya), Bakı: Elm nəşriyyatı. 1980.
Molla Penah Vaqif Əsərlər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4.

I B099 | 몰타공성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Great Siege of Malta

몰타공성전(Great Siege of Malta)은 1565년 5월 18일부터 1565년 9월 11일까지 이어진 중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섬 몰타(Malta)를 둘러싼 오스만 제국과 성 요한 기사단 사이의 전쟁이다. 볼테르(Voltaire)가 “몰타 공방전 보다 널리 알려진 사건은 없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1560년, 제르바섬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패한 스페인 군대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오스만 제국 군대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고, 이어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도 승리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 전쟁은 소수 병력이지만 해상전, 육지전의 프로 중의 프로였던 기사단과, 동시대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육해군이라는 정예병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점 외에도, 역사상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몰타공방전은 지중해 장악을 위한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의 패권전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몰타 점령에 실패한 오스만의 쉴레이만 대제는 제노바공화국이 반 오스만 첩보를 몰타 기사단에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알레 파샤에게 제노바 영토였던 에게해(海) 키오스(Chios) 섬을 점령하게 했다. 오스만의 키오스 정복은 몰타 공방전 패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지중해 서부로 향한 오스만

제국의 해양진출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몰타 공방전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이 유럽이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경계선상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지중해의 해상교통, 더 나아가서는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것이었다는 점에 있다. 동 지중해를 사실상 제압하고 이후에도 바다와 육지에서 격렬



몰타공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인트 마이클 요새(1550년대 축조)

한 공세를 지속하던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맞서서 최전선 보루 지중해를 지키는 것, 그것몰타 섬과 기사단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오스만 제국의 위세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레이만 대제의 강력한 전제 통치 아래 범 이슬람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 오스만 제국의 팽창은, 육지에서는 빈 포위(1529년), 바다에서는 몰타 공성전을 거친 후 대제 사후에 벌어진 레판토 해전(1571년)을 끝으로 멈추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말타공성전, 몰타전투

● 다국어 표기 L-Assedju l-Kbir(몰타어), Great Siege of Malta(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cyzP8pxjJ8>

● 참고문헌(오프라인) Abulafia David, *The Great Sea: A Human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radford E., *Akdeniz-Bir Denizin Hikâyesi*. İstanbul: Köprü, 2013.

Gürkan E. S., "The centre and the frontier: Ottoman cooperation with the North African corsairs in the sixteenth century", *Turkish Historical Review* 1.

İnalçık H., *The Ottoman Empire, the Classical Age, 1300-1600*. London: Phoenix, 1994.

우덕찬,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 『지중해지역연구』, 22(4), 2020.

I B100 | 뫼미내 하툼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ömine Xatun Mausoleum



뫼미내 하툼 영묘
Source: <https://unesco.preslib.az>

뫼미내 하툼 영묘는 나흐츠반 시 중앙에 위치한 나히체반 강가에 엘디귀즈 왕조 또는 아타벡 왕조의 시조인 삼 사딘 엘다니즈(Shams al-Din Ildeniz, Eldigüz 또는 Shamsaddin Eldaniz, 재위: 1136년~1175년)가 그의 아내 뫼미내 하툼(Momine Khatun)을 위하여 만든 영묘이다. 1186년 삼 사딘 엘다니즈의 아들인 무함마드 자한 파흘라반(Mahammad Jahan Pahlavan, 재위: 1136/1137년~1186년) 시대에 완성되었다. 아타베이 돔이라는 이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건축가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 건축가인 아자미 빈 아부바크르 나흐치바니

(Ajami ibn Abubakr Nakhchivani)이다. 2003년 복원공사를 했다.

주재료가 벽돌인 이 영묘의 원래 전체높이는 34m였으나 원뿔 형태의 지붕이 훼손되며 현재 전체 높이는 25m가량이다. 내부는 원통형이고, 돔이 있으며 외부는 십각형이다. 지붕의 훼손으로 인하여 내부에 있던 돔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돔의 내부에는 4대 칼리프의 이름이 적힌 메달이 있다.

각 면은 좁고 긴 아치 형태이며 직사각형 형태의 몰딩으로 구역을 나누었다. 윗부분은 쿠픽 서체의 명문과 무카르나스 형태로 마무리 지었다. 십각형 면의 쿠픽 서체 명문 사이사이를 터키 석 색의 타일을 이용하여 장식했다.

원통형의 두 개의 미너렛과 첨두아치로 장식되었던 입구도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입구 상단 직사각형 장식 내에 건축 연도와 건축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문이 존재한다. 이런 미너렛으로

이루어진 입구는 아나톨리아 셀주크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카라한 칸국에서 보였던 유사 형식이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아나톨리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의 무덤방 볼트 부분에 있던 묘비는 도난당해 정확히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없지만, 삼사 단 엘다니즈와 뫼미네 하툰, 그들의 아들인 마하마드 자한 파흘라반이 묻혀있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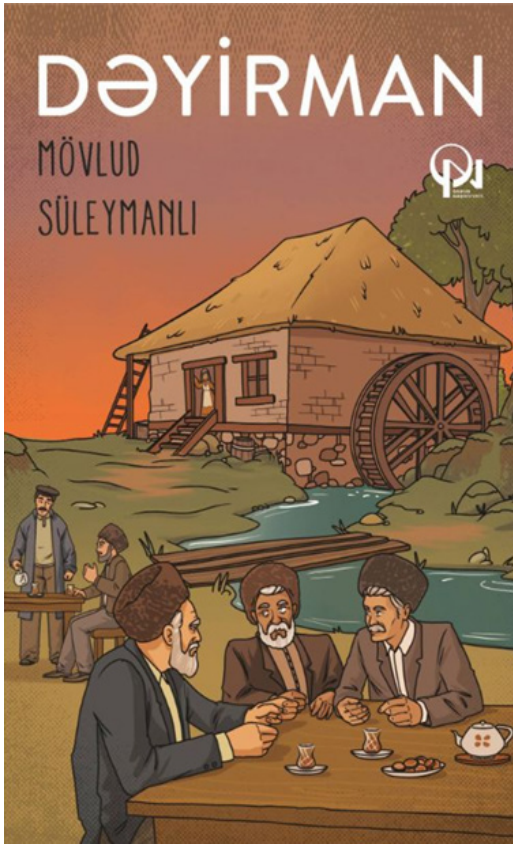
이 영묘는 높은 완성도로 중세 이슬람 건축의 걸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1998년 9월 30일, 긴급 보호가 필요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모미네 하툰 영묘, 뫼미네 하툰 튀르베시, 모미네 하툰 튀르베시, 뫼마네 하툰 쿼베티
- 다국어 표기 Möminə Xatun türbəsi(아제르바이잔어), Mümine Hatun Kümbeti(튀르키예어)
- 관련 검색어 나히치반 자치 공화국, 아타베그 왕조, 아자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unesco.preslib.az/images/site/image076.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unesco.preslib.az/en/page/wC116Gk9sD>
- 참고문헌(오프라인) Çetin Yusuf, “Nahçıvan Mümine Hatun Kümbeti”, *Atatürk Üniversitesi Güzel Sanatlar Enstitüsü Dergisi*, Sayı 11, Yıl 2003, pp.17~24.

I B101 | 뫼브루드 쉴레이만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övlud Süleymanlı

뫼브루드 쉴레이만르(Mövlud Süleymanlı)는 뛰어난 아제르바이잔 작가이다. 1943년 3월 18일 아르메니아의 칼리노 지방(Kalinino rayonu) 시골 마을인 그즐 세페그(kəndi)에서 태어났다. 그즐 세페그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그는 인근 마을 일매즐리(İlməzli kənd)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후 1962년~1967년에 바쿠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아제르바이잔어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68년부터는 아제르바이잔 국립 라디오 방송국, 문예지 <청춘(Gənclik)>과 <문학과 예술(Ədəbiyyat və incəsənət)> 편집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기관지 <별



『제분소(Dəyirman)』표지
Source: <https://kitabevim.az>

(Ulduz)>과 <아제르바이잔(Azərbaycan)>의 산문부서장을 지냈다. 신문사 <오구즈의 고향(Oğuz eli)>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시, 단편, 소설, 희곡,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로 작품활동을 했다. 1964년 신문 <아제르바이잔 청년(Azərbaycan gəncləri)>에 처음 실린 시(詩) 「나의 양손(Əllərim)」으로 문단에 데뷔한 그는 1974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언론인 연합으로부터 황금펜(Qızıl qələm) 상(賞)을 수상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로 처음 출간한 「목자 이브라힘과 자전거(Çoban İbrahim və velosiped)」로는 소비에트 막심고리키 문학상(1983년)을 수상했다. 『농촌생활을 말하는 최고의 작품(Kənd həyatına həsr edilmiş ən yaxşı əsərə görə)』은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 문학상을 받았다. 이어 1995년에 예술과 다큐멘터리 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아라즈(Araz) 문학상을 받았고, 소설 『이주(Köç)』는 ‘올해 최고의 작품’

상을 수상했다.

그는 소설 『이주(Köç)』를 통해 그는 큰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아제르바이잔인의 민족정신과 기억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뿌리와 도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외에도 『무염(無鹽, Duzsuzluq)』, 『악마(Şeytan)』, 『엘 애흐매드의 배일리 가문(Yel Əhmədin bəyliyi)』, 『제분소(Dəyirman)』, 『소리(Səs)』, 『죄의 기도(Günah duası)』, 『아르메니아 이름에 박힌 문자들(Erməni adındakı hərflər)』 등과 같은 소설을 출판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제분소(Dəyirman)』와 『배신자(Satqın)』는 무대에 올려 지기도 했다. 문학사에 남긴 그의 공헌을 인정받아 2006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작가’라는 명예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그의 작품들은 세계의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모블루드 슬레이만르, 뫼브루드 슬레이만르
- 다국어 표기 Movlud Suleymanli(영어), Мовлуд Сулейманлы(러시아어), Mövlud Süleymanl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Əliyeva Rəna, *Mövlud Süleymanlı yaradıcılığında folklorə motivləri (dissertasiya)*, Bakı: 2013.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Salahlı Səyyad, *1960-1980-ci illər Azərbaycan nəsrində psixologizm: Mövlud Süleymanlının yaradıcılığı üzrə(dissertasiya)*, Bakı: 2005.

I B102 | 무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ğam

무감(Muğam)은 아제르바이잔의 고전 음악 장르의 하나로 가수과 악사가 함께 하는 즉흥성이 강한 음악이다. 무감(Muğam)의 뜻은 ‘자리’, ‘곳’ ‘위치’이다. 즉, 음계를 의미하는 아랍어 ‘마قام(maqam)’에서 왔다. 동일한 어원에서 기원한 음악 장르에는 아랍의 마قام(maqam), 튀르키예의 마قام(makam),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무컴(muqom), 신장 위구르인들의 무감(muqam)이 있으며, 이들 음악 장르는 해당 민족과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했으며, 각 장르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무감은 가수의 노래와 악사의 음악이 함께 한다. 무감 예술가들을 하낸대(xanəndə)라고 부르며, 무감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현악기인 타르(tar), 카만차(kamança)와 타악기인 가발(Qaval: 다프(Daf)라고도 함)이다.

아제르바이잔의 무감은 선법(모드)을 사용하여 연주되며, 이 선법은 당연하게도 서양 음악 체계와 다르게 고유한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무감의 주요 선법에는 라스트(Rast), 슈르(Şur), 세르가흐(Sergah), 슈쉬태르(Şüştar), 바야트-쉬라즈(Bayati-Şiraz), 차하르가흐(Çahargah), 휘마운(Hümayun)이 있으며, 보조적인 선법에는 샤흐나즈(Şahnaz), 사렌즈

(Sarənc), 제2유형 차하르가흐(2-ci növ Çahargah)가 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선법이 존재한다. 각 선법을 바탕으로 연주자가 엄격한 기초를 가지고 연주하기 때문에, 무감은 연주자의 즉흥성이 있으나, 완전히 충동적인 즉흥 음악은 아니다.

대스트가흐(Dəstgah)는 무감 곡 전체 하나를 다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스트가흐는 샤해(Şaxə: 해당 대스트가흐의 무감에 기반하고, 대스트가흐의 인토네이션에 영역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작은 단위의 대스트사흐), 쇼배(şöbə: 즉흥 부분), 구시애(guşə: 멜로디의 가장 인상적인 성악-기악 부분), 태스니프(təsnif: 노래), 랭(rəng: 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가 일정한 규칙에 맞춰 순서대로 진행된다. 샤해, 쇼배, 구시애는 독립적으로 연주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연주될 수 있을 만큼 음악적인 논리적인 전개가 있다.

노래 가사는 아제르바이잔의 중세 시와 현대 시에 기반한다. 시의 주요 주제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엄밀하게는 세속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신을 향한 사랑에 가까우며 수피즘에서 말하는 신과의 초월적인 합일을 의미한다. 다만, 시적 표현이나 비유, 은유 등으로 인하여 관객들은 세속적인 의미의 사랑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깊이 있고 고상한 시적 언어로 된 노랫말과 엄격한 규칙이 있는 연주법으로 인하여 무감은 상류층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했고, 도제 관계를 통해 계승되었다. 매즐리스(məclis)라고 불리던 음악 연주 모임은 공연을 감상하고, 음악가들이 경쟁하던 장소였으며, 동시에 무감을 전승하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했다. 12세기 이후에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도시에는 매즐리스가 존재했다.

무감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다. 일부 학자들은 무감의 기원을 '아베스타'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일부는 그 기원을 이슬람교의 예언자들로부터 찾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14세기까지 중동 지방에서 거의 분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무감이 발전했다는 점이다. 당시에 12개의 주요 무감이 존재했다. 위시샤(Üşşaq), 내바(Nəva), 부샬릭(Busəlik), 라스트(Rast), 애락(Əraq), 이스파한(İsfahan), 지래칸드(Zirəfkənd), 뷔쨬크(Büzürk), 쟈궤래(Zəngülə), 래하비(Rəhavi), 뤼세이니(Hüseyni)과 함께 추가로 6개의 아바자트(avazat: 파생 선법)가 있으며, 아바자트는 샤흐나즈(Şahnaz), 마이애(Mayə), 샬맥(Səlmək), 노브루즈(Novruz), 캐르다니아에(Kərdaniyə), 귀바시트(Güvəst)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무감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분화된 각 국가와 민족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거나 변화하게 되었다. 이들 중 라



무감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들

스트(Rast)만이 전 국가와 민족에서 변화되지 않았으며 고정된 형태를 유지했다. 라스트는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선법에도 포함되었다.

14세기~18세기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무감은 궁중 음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시 장르인 아루즈(aruz)나 가잘(Gazal)을 무감 실연을 통해 부르게 되었다. 19세기는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무감이 공연되며, 주요 도시에서 콘서트가 개최되었고, 일종의 표준화와 무감 구조의 안정화가 시작되었다.

1907년 1월 20일 바쿠의 예술가 협회 홀에서 무슬림 자선 협회(Müsəlman xeyriyyə cəmiyyəti)가 <동양의 밤(Şərq gecəsi)> 콘서트를 개최했고, 이곳에서 민속 악기 반주로 연주하는 ‘무감 아라즈바르(Arazbari)’가 연주되었으며, 「귄래-귄래(Gülə-gülə)」가 노래되었다.

1908년 1월 12일 초연된 위제이르 하즈베요프(Üzeyir Hacıbəyov, 1885년~1948년)의 오페라 레일리와 매크눈(Leyli və Məcnun)은 무감을 기반으로 한 오페라였다. 이 오페라는 훗날 무

감을 바탕으로 하는 오페라 장르인 무감 오페라(muğam operası)의 토대를 마련한다.

1922년 바쿠에서 개교한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유럽식 음악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에는 무감이 포함되었다. 1930년대~1960년대 소련의 이른바 ‘철의 장막’ 정책으로 인하여 무감은 해외로 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예술적 지위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무감은 1950년대부터 현대화를 시도하며, 과거 형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무감 형식을 만들어냈다.

1971년 유네스코는 세계 전통 음악 선집(Anthology of World Traditional Music)에 무감을 포함시켰고, 1972년 나짐 엘리베르디베요프(Nazim Əliverdibəyov, 1926년~1986년)는 미르자 샤피 바제흐(Mirza Şafiq Vəzəh, 1794년~1852년)의 시를 바탕으로 발레 무감을 만들었다.

아제르바이잔 작곡가 연맹(Azərbaycan Bəstəkarlar İttifaqı)에 민속음악부서가 개설되며 민속음악과 무감 연구가 발전하게 된다. 작곡가 가라 가라예프(Qara Qarayev, 1918년~1982년)와 피크라트 아미로프(Fikrat Amirov, 1922년~1984년)도 무감을 바탕으로한 교향곡을 작곡함으로써, 무감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다.

아리프 바바예프(Arif Babayev, 1938년~)는 1990년 ‘무감 교수’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1999년 무감 예술가 알림 가스모프(Alim Qasimov, 1957년~)는 유네스코 국제 음악 위원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of UNESCO)에서 수상한다.

2003년 11월 7일 무감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의 걸작으로 선언되었고, 2008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9년 12월 27일 바쿠에는 아제르바이잔 무감센터(Beynəlxalq Muğam Mərkəzi)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8일~25일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에서 국제 무감 음악 축제가 열렸다. 현재도 아제르바이잔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무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암, 마캄

● 다국어 표기 Maqom(우즈베크어), Muğa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마캄

● 멀티미디어 링크 무감_알림 가스모프

<https://www.youtube.com/watch?v=mopn4w7dTZM>

● 참고문헌(온라인) https://unesco.az/az/articles/intangible_cultural_heritage/azerbaijani-mugham

<http://mugam.musigi-dunya.az/m/mugam.html>

<https://azerbaijan.az/related-information/39>

● 참고문헌(오프라인) Axundov İmran, *Azərbaycan Muğamları*, Bakı: Mütərcim, 2015.

Dessiatchenko Polina, “Exploring Intersections of The Historical, Musical, And Poetical Journeys Of Azerbaijani Mugham” *Musiqi Dünyası*4 (61), 2014, pp.7235~7241.

Huseynova Aida, *Music of Azerbaijan: from Mugham to Oper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6.

Akhundova Dadashzadeh Zumrud, “Mugham in Cultural Paradigm of Modern Azerbaijan”, 『국악교육연구』, 10(2), 2016. pp.277~297.

I B103 | 무납바르커리 압두라쉬드헌 오글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navarqori Abdurashidxon o'g'li

무납바르커리는 1878년 타슈켄트 이슬람 학자 가정에서 출생했다. 이후 일정기간 타슈켄트와 부하라의 마드라사에서 교육받았다. 1890년경 타슈켄트로 돌아와 다르헌(Darxon) 마드라사의 이맘이자 교사로 활동하다가 1901년 타슈켄트 최초로 ‘자디드(usul-i jadid, 새로운 방법)’ 학교를 개설한다. 곧 이 학교는 타슈켄트에서 가장 크고 좋은 학교가 된다.

무납바르커리는 곧바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집필했다. 그가 집필한 교과서에는 문법과 알파벳의 기초를 개괄하는 교과서에서부터 읽기, 쓰기 등을 위한 교과서, 수학 교과서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그는 근대주의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출판사명: Xurshid)를 운영했으며 여러 언론사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1917년에는 첫번째 우즈베크어 신문 중 하나인 <후르쉬드(Xurshid, 태양)>를 발행했다. 1917년에는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를 지원했고, 1918년 4월에는 투르키스탄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됐다. 무납바르커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조직과 종교 조직에서 교육활동을 했다. 주로 세속민주주의를 지향했다. 1920년대에 소련 정권 수립 이후에도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1929년 11월 6일 반정부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모스크바 부티르카(Бутирка) 감옥으로 이송되

었다가 1931년 총살형으로 사망한다. 그리고 모스크바 바간코보(Vagankovo)묘지에 매장되었다.

무납바르커리는 우즈베크인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민족영웅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나바르 카리 압두라쉬디칸 오글리

● 다국어 표기 Munavvarqori Abdurashidxon o'g'li(우즈베크어), Munawwar Qari Abdurrashidkhan ogli(영어),
Мунаввар Қары Абдурашидхан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자디드운동

●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Kurzman Charles, Modernist Islam, 1840-1940: a sourcebook,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Khalid Adeeb,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 Jadidism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8.

I B104 | 무니스 호라즈미이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역사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nis Xorazmiy

무니스의 본명은 셰르무함마드(Shermuhammad)로 1778년 3월 30일 히바에서 고위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탄생했다. 무니스는 기초 교육을 아버지의 고향인 키야트에서 완료한 후 히바 마드라사에서 종교학을 공부했다. 1800년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아바즈 이노크 칸(Avaz Muhammad inoq, 재위: 1790년~1804년)의 궁정 서기관이 된다. 아바즈 칸의 뒤를 이었던 엘투자르 칸(Eltuzarxon, 재위: 1804년~1806년) 치세 1805년부터 콩그라드(Qonggirad) 왕조의 역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1806년 전쟁으로 사망한 형제를 대신하여 수자원 관리직(mirob)을 수행하게 되지만, 엘투자르 칸 사망 후 히바 칸국의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직을 그만둔다. 1806년 무함마드 라힘 칸(Muhammad Rahimxon, 재위: 1806년~1925년)의 통치가 시작되자 칸의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궁전에 들어서고 다시 수자원 관리직에 오른다. 그는 칸의 명령으

로 『행복의 정원(Firdavsul-iqbol)』이라는 히바 칸국의 역사서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1819년, 칸의 명령으로 미르칸드(Mirkhand 1433년~1498년)의 페르시아어로 된 역사서 『순수한 정원(Rawzat aş-şafā')』을 투르크어로 번역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하던 집필작업은 잠시 멈추게 된다. 무함마드 라힘의 사망 이후 제위에 오른 얼라쿨리 칸(Olloqulixon, 재위: 1825년~1842년)의 명령으로 『행복의 정원』의 집필을 다시 시작했다. 이와 함께 번역 일도 지속했다. 그러나 1829년 얼라쿨리 칸의 원정에 동행했던 무니스는 귀환 중 콜레라로 사망하게 되며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그가 미처 다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카이자 제자였던 무함마드 리자 아가히(Muhammad Riza Mirab Agahi, 1809년~1874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무니스(Munis Xorazmiy)
Source: <https://ziyouz.uz>

무니스는 역사서 이외에도 시를 집필했다. 1804년 짧은 고전시집으로 엮었다가, 1815년 8446 대구(對句, beyit)의 장편 고전시집으로 재구성했다. 1815년~1829년에는 『우삭의 무니스(Munis ul-ushshoq)』라는 이름의 고전시집으로 재출간했다. 궁정 서예가는 이 시집을 여러 번 카피하기도 했으며 1880년 히바에서 인쇄되었다. 유명 페르시아 시인들과 중앙아시아 투르크 시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무니스의 알리셔르 나버이이(Alisher Navoiy, 1441년~1501년)의 풍에 가깝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의 시는 차가타이 투르크어 사전 등에도 차용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닛스
- 다국어 표기 Shermuhammad Munis(우즈베크어), Munis Xorazmiy(우즈베크어), Munis Xarazmi(아제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행복의 정원, 알라쿨리 칸, 무함마드 르자 아가히
- 참고문헌(오프라인) Yiğit İsmail, “Munis”, *İslam Ansiklopedisi*Cilt 31, Istanbul: TDV, 2006, pp.147~148.
Muhammad Munis Mirab; Yuri Bregel; Muhammad Riza Agahi; Mirab Firdaws al-iqbal; *history of Khorezm*, Leiden : E.J. Brill, 1988.

I B105 | 무라드 1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rad I(Hüdavendigâr)

무라드 1세(I. Murad, 재위: 1362년~1389년)는 오스만 왕조의 제2대 군주 오르한과 야르히 사르가 정복된 후 사로잡힌 성주의 딸 닐뤼페르의 아들이라고 한다. 서유럽 자료들에서는 동시대에는 'Moratibei', 후대에는 'Amurath'라고 알려졌다. 그는 원래 오르한의 큰아들이자 발칸 정복에 큰 공을 세워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쉴레이만 파샤가 1360년 요절하자 그 뒤를 이어 발칸 정복의 지휘를 맡았고 정복사업에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의 중요한 군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마저도 오스만 사료와 유럽 자료에서 불일치와 혼돈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비잔티움 사료가 가장 나은 편이지만 그마저도 비잔티움 군주의 복잡미묘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컨대 한때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던 에디르네와 같은 큰 도시의 정복 연도도 1361년에서 1371년 사이에 다양한 학설이 있으며, 당시의 많은 군사적 승리도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오스만 치하에 느슨하게 묶여 있던 변방의 전사들(가지[gazi] 혹은 아킨즈[akıncı])들이 자발적으로 약탈전을 나서 성공을 거둔 것인지 불분명하다.

무라드 1세 시기의 정복사업은 1360년대에 초를루, 데모티카, 귀뮐지네, 에디르네 등에서 트라키아를 석권하고 비잔티움의 황제 이오안니스 팔레오로고스를 가신으로 삼았으며, 동(東)아나톨리아의 토카트까지 진출했다. 1370년대에는 치르멘(케르마논) 전투에서 세르비아인들을 격파하여 승기를 잡고 마케도니아의 세레스, 드라마, 카발라 등을 영유했으며 아나톨리아의 게르미안, 하미드 등의 공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1385년 이후에는 에피루스와 소피아, 니쉬 등을 점령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1389년 세르비아와의 코소보 전투 중이나 승전 직후에 암살되었다. 비록 세르비아인 귀족이 거짓으로 투항했다가 그를 암살했다는 일화가 전해지지만, 신빙성 있는 동시대 사료에서는 암살의 경위가 불분명하다. 무라드 1세는 초기에는 자신의 아버지 오르한처럼 '베이(Bey)'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치세 말기에 가서 오스만 왕조 최초로 술탄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으며, 페르시아어로 군주를 뜻하는 '히다웬디가르(Hüdavendigâr)'라는

별칭도 사용했다. 그는 찬다를르 카라 할릴 파샤를 중용하여 행정과 군사 부문을 체계화했고 변방의 전사들로부터 전리품 노예의 1/5을 군사로 차출하는(pencik) 등 중앙정부의 권위를 변방의 전사들 위에 세우려고 노력했다. 예니체리 부대도 최초에는 이러한 차출된 노예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라드 1세 시기에 중앙과 변방의 구분이 생겼으며, 오스만 국가가 많은 가신국을 거느린 종주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라드, 무라트, 무랏
- 다국어 표기 Hüdavendigâ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르한, pencik, 찬다를르 가문
- 참고문헌(오프라인) J. H. Kramer, “Murad I”,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Brill). Cemal Kafadar, *Between Two Worl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I B106 I 무라드 2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rad II

무라드 2세(1404년~1451년, 재위: 1421년~1444년, 1446년~1451년)는 오스만 제국의 제 6대 술탄으로, 메흐메드 1세의 4남 7녀 중 장남으로 1404년 아마시아에서 출생했다. 12세에 아마시아, 토크트, 시와스, 초룸 등이 포함된 북(北)아나톨리아의 룸 주의 주장관으로 제왕수업을 시작했으며 왕자 시절부터 관할 영역 내외의 여러 반란 진압에서 공을 세웠다. 1421년 부왕 메흐메드 1세가 승하하고 17세의 나이로 즉위했다. 메흐메드 1세가 무라드의 2명의 어린 동생들을 인질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재상들의 조언에 따라 거부했고, 즉위 초부터 비잔티움에 내보낸 삼촌 무스타파 왕자의 반란을 맞이해야 했다. 무스타파 왕자는 한때 에디르네에 입성하고 갈리폴리(겔리볼루)를 차지하는 등 맹위를 떨쳤으나 머지않아 진압되었고 오스만 왕자임을 부정당하고 ‘가짜(Düzmece)’ 무스타파라는 이름이 붙여진 채 처형당했다(1422년). 또한 하미

드 지방의 행정을 맡고 있던 남동생 무스타파도 비잔티움과 아나톨리아 공국들의 부추김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내부 이탈자들이 증가하여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다(1423년). 그 후 아이든, 멘테세, 게르미안, 테케 등의 아나톨리아 공국을 병합하여 서부와 남부 아나톨리아를 오스만 지배하에 편입시켰고, 가장 강력한 공국 카라만을 복속시키지 못했지만, 계승분쟁을 이용하여 영토를 일부 받고 우위를 점했다. 아나톨리아의 지배를 확고하게 한 후 그는 발칸에서 공세를 취하며 베네치아, 헝가리와 대결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1423년 비잔티움이 베네치아에 양도한 살로니카를 8년간의 포위 끝에 정복했고,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대항하여 주변 가신국들로 여러 겹의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 한 헝가리왕도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 왈라키아, 보스니아에 헝가리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압력을 넣어 이들은 자꾸 편을 바꾸거나 이중의 가신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컨대 세르비아는 오스만국가와 결혼동맹에 인질까지 보낸 상태였지만 그다지 의지할 만한 동맹이라고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1430년대가 지나는 동안 차츰 오스만 제국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골루바츠, 살로니카, 스메데레보 등의 발칸 주요 거점을 점령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바이에지드 1세 당시의 영토범위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1440년대 헝가리와의 대결은 격화되어 특히 당시 트란실바니아의 주 장관이자 베오그라드의 군사령관이었던 명장 야노시 후녜디가 이끄는 헝가리군과 많은 전투가 있었다. 강인한 성격이었던 한편 감상적이고 수피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특히 총애하고 신뢰했던 큰아들이 아마시아에서 사망하자 그는 헝가리와 카라만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확보하고 12세의 메흐메드 왕자에 양위하고 부르사로 물러나 경건한 종교생활을 했다. 이 상황은 엄청난 위기로 이어졌으니, 알바니아의 이스켄데르 베크의 반란, 모레아 참주령의 저항, 비잔티움이 오스만 측의 인질 오르한을 풀어놓아 생긴 정치적 혼란, 에디르네에서 일어난 후루피 반란 등과 동시에 헝가리 주도의 다국적 십자군이 오스만 영토를 쳐들어온 것이었다. 이 위기 상황에 대재상 찬다를르 할릴 파샤는 무라드 2세에게 부르사로부터 나와 군대를 통솔할 것을 요청했고, 무라드 2세의 지휘 하에 오스만군은 십자군을 1444년 11월 바르나에서 패퇴시키고 헝가리 왕을 잡아 처형했다. 그 후에도 소년 술탄 메흐메드의 무리한 통치는 1446년 예니체리의 반란을 촉발시켰고 무라드 2세가 다시 술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복귀 후 그는 모레아와 알바니아 원정, 제2차 코소보전투에서 헝가리 위주의 십자군에 승리 등 군사적 업적을 쌓았고, 1451년 사망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의

영역지배를 상당히 공고하게 확보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라트 2세, 무랏 2세
- 다국어 표기 II. Mura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1세, 멘테세, 게르미안, 테케, 살로니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murad-ii>
- 참고문헌(오프라인) “Murad II”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99~401.
Reşat Ekrem Koçu, Osmanlı Padişahları (Istanbul:Doğan Kitap , 2006, 초판 1960 pp.73~92.

I B107 I 무라드 3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소분류1 인물 ● 유형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rad III

무라드 3세(1546년~1595년, 재위: 1574년~1595년)는 셀림 2세와 베네치아 출신의 누르바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 셀림이 바이에지드 왕자의 반란에 대항해 쉴레이만 1세의 명으로 전투에 나섰을 때(1559년), 10대의 나이로 중앙 아나톨리아 악세히르의 지방관으로서 전투에 참여한 바 있다. 쉴레이만 1세에 의해 1562년 마니사에 지방관으로 임명되었고, 1574년 부왕이 사망하여 즉위하게 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했다.

그의 치세에는 1578년에서 159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페르시아와의 힘겹고 소득 없는 전쟁이 있었고, 1570년대와 1580년대에는 종교 관료계 커리어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촉발된 마드라사 학생들의 반란들이 있었다. 1593년에는 이후 1606년까지 지속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페르시아와의 긴 전쟁과 16세기 말의 경제상황 악화는 오스만 정부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겼고, 이전에 순도가 높아 매우 신뢰받아온 ‘악체’라는 이름의 오스만 은화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평가절하되기 시작하여 예니체리를 비롯한 중앙군의 반란이 이에



무라드 3세 초상화, Paolo Veronese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촉발되는 사태들이 있었다. 그는 수피즘에 관심이 많아 할웨이티 수피 종단을 애호했고 자신의 꿈에 대한 일기도 썼고 ‘무라디’라는 필명으로 신비주의 시를 썼으며 많은 시인, 문필가, 신학자, 과학자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는 21년의 재위기간의 대부분을 안전한 톱카프 궁에서 보냈고, 전쟁을 지휘한 것은 웨지르(vezir)들이었다. 그는 이미 대단한 세력으로 성장한 고위관료들을 제어하고 술탄의 절대권력을 회복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재위기간 중 첫 5년간은 메흐메드 소콜루 파샤의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었을 때인데, 1579년 그가 탁발 수도자의 행색을 한 자객에게 암살당한 것은 아마도 무라드 3세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되고 있다.

그의 시대에는 술탄 모후(왈리데 술탄)의 권력이 크게 성장했으며, 그는 술탄 권력을 절대화하는 도구로 궁내 시종 출신자들을 고위관료에 등용하여 제도 외적인 특권을 주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측근들은 악폐 발행의 책임을 묻는 중앙군의 반란을 무마하기 위해 희생당하기도(1589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스만 궁정은 신비롭게 은둔하는 술탄을 이상화했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궁정 정치를 통해 술탄의 권위를 행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라트 3세, 무랏 3세

● 다국어 표기 III. Mura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수피즘, 메흐메드 소콜루파샤

● 참고문헌(오프라인) Şefik Pekseven, “Murad I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401~403.

Baki Tezcan, *The second Ottoman Empire: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early mod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I B108 I 무라드 4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rad IV

무라드 4세(1612년~1640년, 재위: 1623년~1640년)는 아흐메드 1세와 그가 총애한 후궁 쿼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동생들인 쉴레이만, 카슴, 바이에지드, 이브라힘과 함께 톱카프 궁에서 자라났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배웠고, 서예와 작시, 작곡에도 능했다고 하며, 승마, 투창, 궁술을 좋아했다고 한다. 1623년 무스타파 1세가 두 번째로 폐위된 후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렸으므로 모후 쿼셈이 섭정했다. 사파비 이란과의 전쟁, 아바자 메흐메드 파샤의 반란, 예니체리의 정치 개입, 수도 이스탄불에서의 파벌 싸움 등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자 그는 하렘의 환관장이었던 무스타파 아아와 함께 신분을 감추고 이스탄불 시내를 시찰하며 당시의 상황을 배워나갔다.

1632년 수개 월 지속된 군사반란을 제압한 후 무라드 4세는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통치를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무자비하게 관료계와 종교계의 요인들을 처형해가면서 철권통치를 폈다. 특히 타바느냐스(평발) 메흐메드 파샤가 대재상으로 재임했던 1632년부터 1637년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안정 속에 많은 개혁을 했다. 조세 수입의 재평가, 국유지 사여의 재분배, 농토를 떠난 농민의 재정착, 지방세력의 제압 등에 노력했으며, 아야 소피아 모스크의 유명 설교자 카드자데 메흐메드의 제안으로 모든 커피집을 폐쇄했고 기존에 이미 내려졌던 담배에 대한 금령을 다시 내렸다. 이러한 금령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혹했으니, 평복으로 돌아다니던 무라드 4세의 눈에 띄면 그대로 처형되는 일이 매우 흔했다. 이와 같은 엄혹함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도한 예니체리의 행태를 바로잡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무라드 4세는 초기 오스만 술탄의 전사이자 군사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부활시키려 했고, 이란에 대한 2차례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원정 중 수도에서 정변으로 술탄위가 찬탈될 것을 미리 막으려 1635년 바이에지드와 쉴레이만 왕자를, 그리고 1638년 카슴 왕자를 처형시켰다. 건장하고 매우 힘이 센 술탄이었지만, 그는 두 번째 원정에서 돌아올 때에는 매우 쇠약해져 1639년 6월 수도에 개선 행진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1640년 사망했다. 부

왕이 지은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경내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라트 4세, 무랏 4세
- 다국어 표기 IV. Mura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han Börekçi, “Murad IV,”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403~404.
Ziya Yilmazer,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p.183.

I B109 | 무라드 5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rad V

무라드 5세(1840년~1904년, 재위: 1876년)는 1840년 이스탄불에서 술탄 압뒸메지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배웠으며, 프랑스에서 책과 잡지를 주문해 보았고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왕자였다. 피아노도 치고 서양식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던 그는 삼촌인 술탄 압뒸아지즈가 이집트와 유럽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동반하여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비효율적인 술탄 독재를 실행하던 압뒸아지즈가 종전에 왕실에서 가장 연장자인 왕자가 전임 술탄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왕위에 오르던 제도를 고쳐 자신의 아들 유수프 이즈엣딘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무라드는 입헌파와 공모하여 압뒸아지즈를 폐위(1876년 5월 30일)했다. 비록 성공적으로 즉위했으나 즉위 직후에 술탄 압뒸아지즈의 의문사, 압뒸아지즈 측근이 정변 핵심 주동자들을 테러하는 등의 위협을 겪자,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경쇠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탄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입헌파의 거두였던 미드하트 파샤와 오스만 관료 엘리트들은 1876년 8월 31일,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압뒸하미드 2세를 즉위시켰다.

그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93일) 동안 재위한 술탄이었고, 여생을 이스탄불 베식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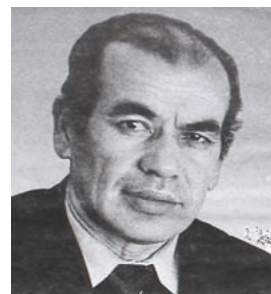
쉬 해변의 츠라안 궁에 유폐되어 보냈다. 압뎨하미드 2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무라드 5세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정변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여지없이 실패했다. 무라드 5세는 1904년 8월 29일 사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라트 5세
- 다국어 표기 V. Mura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압뎨 아지즈, 미드하트 파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OSNe>
- 참고문헌(오프라인) Selcuk Akşin Somel, "Murad V,"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404. Cevdet Küçük, "Murad V,"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pp.183~185.

Ⅰ B110 Ⅰ 무러드전 만수러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i Mihrayeva ● 라틴 문자 Murodjon Mansurov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무러드전 만수러프(Murodjon Mansurov, 1941년~2014년)는 1941년 3월 15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1957년~1962년 타슈켄트 공업기술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그는 한동안 산업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1963년 1월 15일부터는 <우즈베키스탄의 목소리(O'zbekiston ovozi)> 신문사에서 18년 동안 일했다. 1981년~1990년에는 문예지 <청춘(Yoshlik)>의 부편집장과 동방(Sharq) 출판사 편집장을 맡았다.



무러드전 만수러프
Source: <https://ziyouz.uz>

그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스승 가이라티이(G'ayratii)가 주도하는 유명 문학동아리에 참가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다가, 1963년에 첫 단편소설 『친애하는 사람들이여(Aziz inson)』를 발표했다. 책이 출간되기 전에도 그는 유명 작가 압둘라 카흐허르

(Abdulla Qahhor)와 어딜 여쿠부프(Odil Yoqubuv)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사다라이헌(Sadarayhon, 1965)』, 『삶의 갈림길(Umr chorrahilari, 1972)』, 『해안(Qirg'oqlar, 1975)』,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한다(Hammaning yashagisi keladi, 1980)』, 『염비(Yombi, 1985)』, 『영원한 전투(Mangu jang, 1985)』, 『거대한 죄(Gunohi azim, 1995)』와 같은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생생하고 치밀한 사건과 인물 묘사 그리고 간결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원한 전투(Mangu jang, 1985)』이다.

장편소설 『상실의 땅(Judolik diyori, 1998~2006)』은 고국을 잃고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의 삶과 모험을 다루고 있다. 무르드전 만수러프는 1999년 ‘노동 명예훈장’을 수여 받았고, 2014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르드존 만수르프
- 다국어 표기 Murodjon Mansurov(우즈베크어), Муроджон Мансуров(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v7R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murodjon-mansurov-1941-2014/>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Shokirova 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2007.

I B111 | 무르시드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Mürşid, Murshid

무르시드는 아랍어 동사 어원 ‘r-sh-d’에서 파생한 명사로 ‘선생, 안내자’의 뜻을 지닌다. 수피 전통에서 무르시드는 무리드(Murīd, 학생, 제자)를 이끄는 영적 스승이다. 페르시아어로 무르시드는 피르(Pir)라고 한다. 피르는 페르시아어에서 연장자를 뜻한다. 무르시드는 피르 외에도 아랍어 ‘셰이크(셰이흐)’, 튀르키예어 ‘바바(Baba)’로도 불린다. 수피전통에서 무르시드와 무리드의 관계는 시체를 염하는 사람과 시체의 관계와 같다. 시체를 염할 때 염하는 사람에게 모

든 것이 달린 것처럼 무리드는 전적으로 무르시드에 의존하여 충성을 맹세하며 영성 교육을 받는다. 무리드를 인도하는 무르시드는 무리드가 닿으려고 하는 수피 영성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무르시드는 수피종단의 적통을 잇는 사람으로 실실라(Silsila), 즉 종단 계보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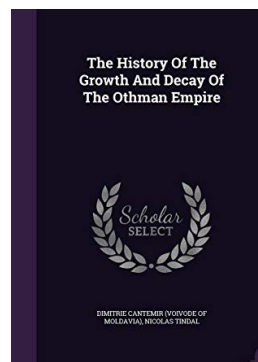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르쉬드, 뮌르쉬드
- 다국어 표기 Murshid(아랍어), Mürşi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수피, 피르, 실실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Esposito John L., “Murshid”, In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216. Oxford and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Bosworth et al., eds. “Murshid.” In *Encyclopaedia of Islam*, vol. 7, 631~632, Leiden: Brill, 1993.

I B112 | 무사비르 휘세인 이스탄불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savvir Hüseyin İstanbuli

무사비르 휘세인 이스탄불리는 오스만 제국 술탄 메흐메드 5세(IV. Mehmed, 재위: 1648년~1687년)과 쉴레이만 2세(II. Süleyman, 재위: 1687년~1691년) 시대에 활동한 세밀화가이다. 18세기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세밀화가 레브니(Levni)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레브니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무렵, 오스만 제국을 방문한 서양인 부자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오스만 상류층을 묘사한 그림을 제작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러한 낯장 그림들은 깊이감을 더한 자연경관이나, 서양화에서 쓰이는 그림자 기법을 자주 사용했다. 그리고 무사비르 휘세인 이스



『The History of the Growth and Decay of the Ottoman Empire』 표지
Source: <https://www.goodreads.com>

탄불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였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1682년에 제작한 실실레나메(Silsilenâm)[와크프 총괄국 아카이브 소장, 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 Arşivi no: 1872 K.4]에 그런 화풍이 잘 반영되어 있다.

1734년 런던에서 제작되었던 『오스만 제국의 성장과 쇠퇴의 역사(The History of the Growth and Decay of the Ottoman Empire)』라는 책에 삽입된 클로드 뒤 보스크(Claude du Bosc, 1682년~1746년)의 에칭 판화 오스만 제국 술탄 초상화는 무사비르 휘세인의 초상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사위르 후세인 이스탄불리
- 다국어 표기 Musawvir Hüseyin İstanbul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2lyd>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Mahir Banu, *Osmanlı Minyatür Sanatı*, İstanbul: Kabalcı Yayınevi, 2005.

I B113 | 무스타파 1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stafa I

무스타파 1세(1591년~1639년경, 재위: 1617년~1618년, 1622년~1623년)는 아흐메드 1세의 뒤를 이어 술탄이 된 그의 동생이다. 아흐메드 1세는 오스만 제국의 형제 살해 관행을 따르지 않고 동생 무스타파를 살려두었는데, 아흐메드 1세 즉위 당시에 아직 아들이 없었던 점, 무스타파가 정신건강이 취약했던 점, 그리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아흐메드 1세의 총비 쿵셈이 아흐메드 1세의 장남 오스만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아들이 살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스타파 왕자를 살려두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형의 재위기간 10여 년을 궁중에 유폐되어 지냈으므로 그의 정신착란이 심해지고 더욱 더 처형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아흐메드 1세 사후 왕위 계승 자격이 있는 여러 왕자가 모두 톱카프 궁에 거주하고 있는 사태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초유의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궁 안의 한 파벌은 선임 술탄의 동생이건 아들이건 연장자로 계승하는 새로운 원칙(ekberiyet)을 내세우며 무스타파를 즉위시켰으나, 무스타파 1세는 확연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술탄으로서의 겉모습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다른 파벌이 무스타파 1세를 유폐하고 오스만 2세(재위: 1618년~1622년)를 즉위시켰다. 오스만 2세는 무스타파를 살려 두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정신이상으로 실격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4세로 즉위한 오스만 2세가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야심적인 개혁 정책을 펴자 1622년 예니체리가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뒤엎고 무스타파 1세를 복위시켰으며, 오스만 2세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두 번째 재위기간은 중앙군의 전횡과 에르주룸의 아바자 메흐메드 파샤의 반란으로 극심한 혼란으로 점철되었으며, 무스타파는 통치의 구심점인 술탄위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국 올라마의 청원으로 술탄 모후가 퇴위 및 아흐메드 1세의 아들 무라드 왕자에의 양위를 승인하여 두 번째로 술탄위에서 물러났다. 그 후 궁에 유폐되어 1639년까지 살다가 아야소피아 모스크의 뜰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스타파
- 다국어 표기 I.Mustaf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han Börekçi, “Mustafa 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409~410.
Feridun Emecen, “Mustafa 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pp.272~275.

I B114 | 무스타파 2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stafa II

무스타파 2세(1664년~1703년, 재위: 1695년~1703년)는 메흐메드 4세와 그의 총애받는 후궁 라비아 에메툴라 귤뉘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삼촌들은 쉴레이만 2세와 아흐메드 2세가 각각 4년씩 재위하고 죽은 뒤 왕위에 올랐다. 쉴레이만 2세 사후 무스타파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으나 대재상 파즐 무스타파의 반대로 즉위하지 못했다. 무스타파 2세는 신성동맹과의 전쟁(1684년~1699년)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즉위했는데 당시 상황은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고 지방 관료들의 충성이 흔들려 반란들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신성동맹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베네치아, 폴란드-리투아니아, 교황령 및 러시아를 포함했는데(1686년부터), 즉위 직후 의욕에 넘친 무스타파 2세는 적국들에게 지하드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히 군대를 이끌었다.

그는 1695년 헝가리 원정에서 루마니아 일부 지역을 재점령하는 등 성공을 거두었으나, 1696년 이후에는 큰 패배를 겪었다.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 무스타파 2세의 정부는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방법들을 새로 모색했으니, 납세 인구의 총동원, 민병대의 배제, 종신 세금청부계약 등이 있었다. 이 중 종신 세금청부계약은 1695년 전임 술탄 시대에 제도화되었지만, 실행된 것은 무스타파 2세 재위기간 동안이었다. 종신 세금청부계약은 중앙에서 먼 지방 유력자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1696년 러시아가 돈 강 어귀에 있는 아작(아조프)을 점령했고, 1697년에는 세르비아 북부 티서 강 유역의 젠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티서 강을 도강하는 도중에 합스부르크의 명장 외젠 공이 지휘한 군대의 기습을 받아 대재상을 포함하는 25,000명이 사망했고, 오스만 측은 평화 협상을 서두르게 되었다.

평화 협상은 결국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를 합스부르크에, 포돌리아를 폴란드-리투아니아에, 달마티아 일부와 모레아를 베네치아에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카를로비츠 조약으로 귀결되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은 1700년에 별도의 평화조약에 이르렀다.) 이때 패전으로 위축된 오스만 제국 측은 이전과는 달리 유럽의 국제법과 외교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

화조약을 단순히 임시적인 휴전 상태가 아니라 25년~3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대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해야 했다. 카를로비츠 조약은 대단히 큰 영토 손실을 인정한 것이었고, 이 조약의 체결을 직접 진행한 술탄과 고위 관료들은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

조약 체결 후 무스타파 2세는 주로 에디르네에서 지내면서 왕자 시절부터 그의 스승이자 조연자였던 세이ihil이슬람 페이줄라 에펜디에게 대단히 큰 권력을 주었고, 그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이줄라 에펜디는 자신의 가족과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지나치게 많이 배치했고 이러한 족벌주의는 많은 사람을 정적으로 만들었다. 이스탄불에서 봉급 체불을 기화로 군사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군인만이 아니라 상공인, 종교인, 기타 엘리트층을 포함하는 반대 세력이 이스탄불에서 결집하여 에디르네의 술탄에게 협상을 제안했으나 결렬되고 결국 군사적 대치 끝에 무스타파 2세를 폐위하고 그의 동생 아흐메드 3세를 즉위시켰다. 수종 등 이미 있었던 병이 반란과 폐위의 충격으로 악화하여 폐위 후 5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유럽 사료나 민간의 소문에는 그가 독살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다국어 표기 II. Mustaf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4세, 카를로비츠 조약
- 참고문헌(오프라인) Gabor Agoston, "Mustafa 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410~411.
Abdülkadir Özcan, "Mustafa 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pp.275~280.

I B115 I 무스타파 3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stafa III

무스타파 3세(Mustafa III, 1717년~1774년, 재위: 1757년~1774년)는 아흐메드 3세(재위: 1703년~1730년)의 아들이며, 선왕 오스만 3세(재위 1754년~1757년)의 사촌동생으로 40세에 즉위했다. 무스타파 3세의 시대는 오랜 평화 끝에 발발한 러시아-오스만 전쟁(1768년~1774년)의



무스타파 3세, 콘스탄틴 카프다올르 작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참화가 있었던 것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1766년 5월에서 1767년 1월 사이에 발생한 네 번의 큰 지진으로 이스탄불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수도 이스탄불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대형 곡식 창고를 만들고 상수도 시설을 정비했으며 메흐메드 2세가 지었던 파티흐 모스크 등 많은 건물을 재건축했다. 랄렐리 모스크 복합단지가 건축되었고, 이스탄불의 남쪽 예니카프 앞의 해안선을 메워서 새로운 주거지역을 만들었다. 수운을 중시하여 이즈니크와 흑해를 잇는 운하 및 수에즈 운하의 계획을 승인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무스타파 3세의 대재상 중 1757년부터 1763년까지 집권한 코자 라급 파샤는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여 국력을 보존했으나, 군사 부문의 개혁을 등한히 했고 이는 이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손해를

초래했다. 1770년 카굴(카르탈)과 체슈메 전투에서 쓰라린 패전을 겪은 후 무스타파 3세는 프랑스의 포병장교 드 토트 남작의 도움을 얻어 야전포병단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이 전쟁에서의 큰 손실은 그 이전의 수십 년간의 평화기간 동안 축적한 부를 소진했으며 중앙 정부의 권위도 무너지고 말았다.

- 다국어 표기 III. Mustaf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오스만 3세, 러시아-오스만 전쟁
- 참고문헌(오프라인) Kahraman Şakul, “Mustafa II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411~412.
Kemal Beydilli, “Mustafa II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pp.280~283.

I B116 | 무스타파 4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stafa IV

무스타파 4세(Mustafa IV, 1779년~1808년, 재위: 1807년~1808년)는 압뒸하미드 1세의 아들이며 군과 관료계를 근대화하는 개혁을 시작했던 사촌 셸림 3세를 계승했다. 무스타파 왕자는 즉위 전부터 셸림 3세의 개혁 정책들을 반대하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07년 5월의 카박츠 무스타파 반란은 예니체리의 지지를 얻어서 셸림 3세를 폐위시키고 무스타파 4세를 즉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부분의 개혁파는 이스탄불에서 잡혀 살해되었으나 일부 살아남은 인사들은 북부 불가리아의 루스축의 아이안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의 휘하에 모여들어 재기를 다짐했다. 1806년부터 1812년까지 지속된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서 1808년 잠시 휴전협정을 맺었을 때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는 당시 대재상의 지지를 얻어 무스타파 4세를 폐위하고 셸림 3세를 다시 복위시키는 정변을 기획하여, 1808년 7월 28일 군사를 이끌고 이스탄불을 점령했다.

이때 무스타파 4세는 셸림 3세와 자신의 이복동생 마흐무드 왕자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셸림은 살해를 당했지만 마흐무드는 도주에 성공하여 결국은 즉위했다(마흐무드 2세). 이스탄불을 장악한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는 대재상이 되어 전국의 아이안을 수도에 불러서 이른바 협약 문서(sened-i ittifak)을 조인했으나, 이는 술탄에 대한 지지에 대한 대가로 아이안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이었다. 알렘다르 무스타파 파샤는 섹반 으 제디드 라는 이름의 신식 군대를 창설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술탄과 이스탄불 기득권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니체리 반란이 다시 한번 일어나 국정을 장악하자, 마흐무드 2세는 폐위된 무스타파 4세의 처형을 명했다.



무스타파 4세, 콘스탄틴 카프다울르 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 다국어 표기 IV. Mustaf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탈하미드 1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Selcuk Akşin Somel, “Mustafa IV,”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412.

Kemal Beydilli, “Mustafa IV,”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pp.283~285.

I B117 |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관료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stafa Reshid Paşa

무스타파 레시드(1800년~1858년)는 탄지마트 시대의 주요 외교관이자 개혁 관료였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1800년 3월 13일 관료의 아들로 태어났다. 10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형인 세이트 파샤에게 양육되었고 그의 지원으로 관료가 되었다. 오스만 관료계의 여러 직위에서 복무한 후 고위급 외교관이 되어 1834년 파리 주재 대사로 부임했고 1836년에는 런던 주재 대사가 되었다. 국내와 대외 정책 결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1837년에는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838년 발타 리마느 통상조약을 영국과 체결했으며 이 조약에 따라 영국에 많은 통상 이권을 주는 카피톨레이션이 수여되었다. 이는 특히 이집트의 메흐메드 알리와 대결 국면에서 대외정책에서 영국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는 메흐메드 알리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기 위해 1838년 8월 런던에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는 오스만 제국 근대화 의 모든 방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종합적 개혁 프로그램이었던 탄지마트를 개시한 신호탄이 되었던 귤하네 칙령(1839년 11월 3일)을 기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탄지마트 개혁을 호의적으로 보았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는 이집트에 대항하여 오스만 제국을 지지할 것을 보장하는 런던 조약(1840년)을 조인했다.

그는 1841년부터 1845년까지 두 번째 파리 주재 대사를 역임하면서 레바논의 마론파와 드루



탄지마트 개혁 법령 기념 우표(1964, 튀르키예)
Source: <https://www.hipstamp.com>

즈 사이의 갈등으로 불거진 국제분쟁의 해결을 도왔다. 1845년 10월 외교부 장관이 된 후 1년이 채 못 되어 1846년 9월 대재상이 되었다. 그가 대재상이 되었을 때 근대적인 국가 문서고가 설립되었고, 교육 개혁에 착수하고 세속 법정을 도입하는 등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1848년 보수파였던 부마 사이트 파샤에 의해 ‘공화주의를 지지한다’는 모함을 받아 실각했으나 곧 다시 대재상이 되었다. 이 두 번째 대재상 재임 기간 중 노예무역이 금지되고 오스만 제국의 학술원(Encümen-i Daniş)이 생겼다. 1848년 유럽을 휩쓴 혁명의 여파로 헝가리와 왈라키아로부터 반체제 민족주의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오스만 제국으로 들어왔을 때 러시아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망명객들을 보호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여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853년 예루살렘 성지의 관할권 문제로 동방정교회를 대표한 러시아와 가톨릭을 대표한 프

랑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외교장관 레시드 파샤는 영국 대사 스트랫포드 캐닝의 압력에 밀려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여 러시아와 크림 전쟁(1853년~1856년)에 돌입하게 되었다. 스트랫포드 캐닝의 지지로 그는 1854년 네 번째로 대재상이 되었으며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스탄불에서 스트랫포드 캐닝의 위세는 대단했고, 그로부터 지지받으며 친영 노선을 견지한 레시드 파샤에 대해서 불만이 싹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크림 전쟁이 끝난 후 유럽 열강은 오스만 정부로 하여금 법, 교육, 종교생활, 납세 등 모든 방면에서 무슬림과 비무슬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 칙령(1856년)을 반포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는 레시드 파샤의 후원 하에 성장했으나 그의 과도한 친영 노선에 불만을 품고 프랑스에 가까워진 개혁 관료 메흐메드 에민 알리 파샤와 케체지자데 푸아드 파샤에 의해 실행되었다. 레시드 파샤는 비무슬림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는 개혁 칙령의 내용이 오스만 제국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으며, 이 칙령은 그의 예견대로 무슬림 여론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1857년 10월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로 대재상에 임명되었고 알리 파샤와 푸아드 파샤를 비롯한 모든 경쟁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재임했으나 얼마 못 가 1858년 1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레시드 파샤가 탄지마트 개혁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종종 그가 문명개화의 선구자인 양 치켜세운 서술이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역사 서술에서 나타나지만, 개혁을 혼자서 이루어낸 것은 아니었고, 마흐무드 2세, 압뉘메지드 1세 같은 개혁노선의 술탄들과 개혁 관료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레시드 파샤는 오스만 제국이 살아남으려면 영국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그의 정책에 대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반발 및 인척관계로 왕실에 가까운 고관들의 견제로 그는 종종 고위직에서 파직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가 대재상직에 한번에 오래 있지 못하고 여섯 번이나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 개혁 추진이 일관성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그가 친영 노선을 견지했다는 것과 불평등 통상 조약의 경제적 해악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그는 개혁 관료들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스스로가 그다지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니, 아들을 부마로 만들어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확보하고 영향력과 재산을 증식한 것이 그 예다. 그는 예절 바르고 유능한 관료였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당한 일을 잊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되갚아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 **다국어 표기** Mustafa Reşid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탄지마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Yüksel Çelik, “Mustafa Reşid Pasha,” in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413~414.
Kemal Beydilli, “Mustafa Reşid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2006 pp.348~350.

I B118 | 무스타파 알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역사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stafa Ali

무스타파 알리(Mustafa Ali)는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관료,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갈리폴리(겔리볼루)에서 태어났으며 마드라사 교육을 받은 후 그의 시가 주목을 끌어 셸림 왕자(셸림 2세)의 디완 서기가 되었다. 셸림 왕자의 랄라(Lala: 왕자의 스승이자 고문인 정치가로, 셀주크 시대의 아타벡에 해당)였던 무스타파 파샤의 초청으로 디완 서기로서 알레포와 다마스쿠스에 가서 6년간 이 지역에 머물렀다. 랄라 무스타파 파샤가 예멘 군사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와 함께 이집트로 갔다. 무스타파 파샤가 파면되고 심문받게 되었을 때 사루한(마니사) 산작 베이였던 무라드 왕자(무라드 3세)의 보호 하에 있으면서 그의 중재로 사면받았다.

그 후 이스탄불에 가서 직접 지은 책을 소쿨루 메흐메드 파샤에게 바쳤으나, 원했던 제아메트 대신에 보스니아 베이레르베이 페르하드 파샤의 디완 서기직을 받았다. 그는 무라드 3세가 즉위하자 이스탄불에 가서 자기가 지은 시 몇 편과 『Zübde-yi Tevarih』라는 역사책을 바쳤으나 그 댓가로 아무 관직을 얻지 못해 보스니아로 돌아갔다. 무스타파 파샤는 조지아와 시르반 원정에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그를 호자 사아뎃딘 에펜디의 청탁을 통해 디완 서기로 임명되게 했다. 한동안 무스타파 파샤를 통해 데프테르다르 직을 얻고자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니샨즈 직을 달라고 자기가 나서서 술탄에게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알레포 티마

르 데르테르다르 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무스타파 파샤가 해임되고 나자 한동안 트라브존에 운송되는 식량의 저장과 운반을 관리해야 했다. 이 직책 후에 알레포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다. 1581년 알레포와 주변의 군사들과 완(Van) 지역의 수비 관련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항상 고위 관직에 가 있었고 계속 자기 처지에 대해 불평을 했으며 니산즈 직이나 이집트 지역의 산작베이 직을 원했다. 그는 직위에 대한 야심이 커서 웬만한 관직에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출세가 정체된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이스탄불에 와서 자신의 저작들을 발표하며 원하는 관직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알레포에서의 직책도 잃게 되고(1583년) 2년간을 직책 없이 지냈다. 1585년 타브리즈 원정에 나선 외즈데미르올루 오스만 파샤에 의해 에르주룸 국고의 데프테르다르 직에 임명 받았다. 6개월 후 바그다드로 옮겼으나 얼마 못 가 해임되고 이스탄불에 와서 오래도록 직책 없이 지냈다. 1592년 7월 예니체리 서기, 1592년 10월 데프테르 에미니, 1595년 1월 다시 예니체리 서기가 되었다. 1595년 새로 술탄이 된 메흐메드 3세에게 자신의 저작에 자료가 될 책이 많은 자리일 것이라고 예상한 이집트 데프테르다르 직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마시아 산작베이와 룸 데프테르다르 직에 만족해야 했다. 오래 가지 않아 룸 데프테르다르 직에서는 해임되고 아마시아 산작베이 직에서는 카이세리로 옮겨졌다. 그러다가 삼(시리아) 베이레르베이 직에 임명되었으나 실제로 업무를 개시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짓다 산작베이로 임명되어 짓다로 부임해 가는 도중 마지막 저작인 『Mevaidun Nefais』를 메카에서 끝마쳤고, 1600년 짓다 산작베이로 재임중 사망했다.

그는 공식적 직책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저작 활동, 특히 역사 저술로 큰 명성을 얻었다. 약 60권의 크고 작은 산문과 운문 작품들을 주로 관직을 얻기 위해 썼으나 그중 일부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역사 관련 저작들을 연대 순서대로 살펴보면 셀림 왕자(셀림 2세)와 바이에지드 왕자 사이의 왕위 계승 전쟁을 다룬 『Nadirül-Meharib』, 술탄 실레이만의 지게트바르 전투와 사망 및 셀림 2세의 즉위를 다룬 『Heft Meclis』, 예언자, 초기 교우들, 법학파의 주요 스승들과 하디스 전승자들을 다룬 『Zübdetül-Tevarih』, 조지아와 시르반 원정의 경험을 토대로 그 당시의 사건들을 서술한 『Nusretname』, 메흐메드 3세의 할례를 기념하는 축제를 묘사한 『Cami'ul-Buhur der mecalis-i Sur』, 서체의 역사와 유명 서예가, 화가, 제본가 등을 이야기한 『Menakib-ı Hünerveran』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고 분량이 긴 책은 『Künhül-Ahbar』인

데, 이 책에는 천지창조에서 1596년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그는 역사 이외에도 정치논설 류의 책들을 집필했는데, 1581년 말에 완성한 『Nushatül-Selatin』, 무라드 3세의 요청으로 집필한 『Kavaidül-Mecalis』, 이 책을 만년에 더 긴 분량으로 확대해 다시 집필한 『Mevaidün Nefais fi Kavaidil Mecalis』 등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 것은 그가 원하는 관직을 얻지 못한 울분에 차서 당시 오스만 국가 체제의 부패와 여러 집단의 생활상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으로,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독특하고 귀중한 자료이다.

율법과 종교인들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는 수피 성인들의 위계질서와 영향력을 논한 『Hilyatül-Rical』이라는 책도 있다. 서예가이기도 했던 무스타파 알리는 관직과 재산 욕심도 많고 거만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개성 때문에 번번이 엽관 운동이 좌절되었다.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많은 문인들과는 친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온갖 갈등 속에서 그가 내린 판단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특히 역사와 관련된 저작들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담긴 자료들이다.

- 다국어 표기 Mustafa Âl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라드 3세, 메흐메드 3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Bekir Kütükoğlu, “Ali Mustafa Efendi,” TDV İslam Ansiklopedisi, Vol. 2, 1989, pp.414~416.
K. Süsheim and R. Mantran “Âli,”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1, 1986, pp.380~381.

Ⅰ B119 |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Mustafa Kemal Atatürk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1881년~1938년)은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한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이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5년 갈리폴리 전투(The Battle of Gallipoli)에서 승전을 하며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오늘날의 튀르키예 영토가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



무스타파 케말 튀르크 동상(앙카라, 울루스 광장)

자 그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북부 흑해지역의 삼순(Samsun)을 기점으로 독립 전쟁(1918년~1923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외세를 축출하고 1923년 10월 29일 앙카라를 새로운 수도로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했다. 서구 몇몇 학자들은 독재자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는 집권기를 통해 많은 근대화 개혁을 단행했는데 칼리프

제도의 폐지, 서구법의 수용, 교육개혁, 문자개혁,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 등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서구 국가보다도 훨씬 앞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치적으로 튀르키예 의회는 1934년 만장일치로 ‘튀르키예인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타튀르크(Atatürk)라는 성을 수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스타파 케말
- 다국어 표기 Mustafa Kemal Atatür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rr.kr/2d8g>
- 참고문헌(오프라인) Ahmad Feroz, *The Making of Modern Turke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3.
Zürcher Erik Jan, *Turkey: A Modern History*, London; New York: I.B. Tauri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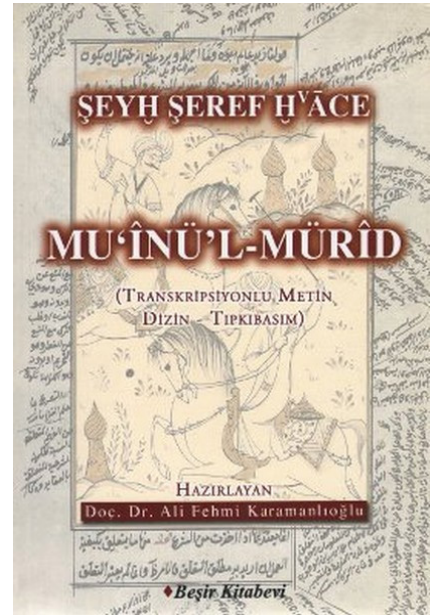
I B120 | 무이닐 무리드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u'inül-Mürid

무이닐 무리드(Mu'inül-Mürid)는 호라즘 제국 시기에 투르크인들에게 종교적 정보 및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집필된 이슬람 대중서이다. 이 작품은 1313년 11월(이슬람력 713년, 라마잔 달)에 이슬람(혹은 위르겐칠리 쉐이 쉐리프 호자)이라 알려진 투르크 시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 작품은 15세기 호라즘 투르크어로 작성되어 현지 방언 특성을 잘 담고 있어서, 특히 호라즘 투르크어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예빌 가지 바드르한(Ebulgazi Badırhan)은 세체레이 테라키메(Seçere-i Terâkime)을 통해 무이닐 무리드가 투르크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읽혀지고 있는 책이며, 이 작품의 저자가 쉐이 쉐리프 호자라고 밝힌다.

무이닐 무리드가 당시 투르크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도서인 점을 감안할 때 많은 필사본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재로서 부르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판본이 유일하다. 이 판본은 총 51쪽이며, 각 장은 16줄~17줄로 구성된다. 약 900개의 베이트(beyit)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종교시를 주제로 한다. 아랍어를 모르는 대중에게 신비주의와 피크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작품의 언어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다. 작품에서 저자는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종교적, 신비주의(신의 본성과 우주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종교적, 철학적 사상), 희생, 절제 등에 대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학계에서는 제키 벨리디 토간에 의해서 최초로 알려졌으며, 1988년 레젠프 토포를르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무이닐 무리드(Mu'inül-Mürid)』 표지
Source: <https://www.dr.com.tr>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니눌 무리드, 무니널 무리드

● 다국어 표기 Mu'inül-Mürid(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제키 벨리디 토간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ÖZYURT ULUTAŞ, S., TÜRKMENLERİN İSLAMİYET'İ KABULÜNE DAIR BİR KESİT; ERSARI BAY VE MUİNÜ'L MÜRİD. Turkish Culture & Haci Bektas Veli Research Quarterly, (94), 2020.

ULUTAŞ S. Ö., Türkmenlerin İslamiyet'i Kabulüne Dair Bir Kesit; Ersarı Bay ve Muinü'l Mürid. Türk Kültürü ve Haci Bektas Velî Araştırma Dergisi, (94), 2020.

ÜST ERDEM S. İ. B. E. L., Eski Türk edebiyatı geleneği oluşumunun türk dili tarihi açısından değerlendirilmesi. Türk Dünyası Araştırmaları, 107(209), 2014, 151~162.

I B121 | 무인 알딘 치쉬티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in al-Din Chishti

무인 알딘 치쉬티(Mu'in al-Din Chishti)의 본명은 콰자 무인 알 딘 하산(Khwadja Mu'in Al-Din Hasan)이다. 그의 생애에 관한 당대의 기록은 없으며, 모두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치쉬티는 1142년 시스탄에서 탄생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잃었으며, 구즈 투르크의 시스탄 약탈로 인해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인 방앗간과 과수원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로 가서 당시 유명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당시 니샤푸르의 하룬이라는 곳에서 우스만 하루니(Usman Harwani, 11세기 말 또는 12세기 초)를 만나게 되었고, 입문자 즉 그의 영적 제자로 12년간 교육을 받는다.

이후 독립하여 여행을 떠나 사마르칸트, 부하라, 바그다드, 니샤푸르 이스파한, 발흐, 가즈나 같이 당시 유명한 도시들을 방문했으며 유명한 수피들과 만나 교류하게 된다. 이 교류를 통해 당대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 후 인도로 돌아가는 길 라호르에서 은둔 수행을 하게 되었다. 이후 고르 왕조가 아즈메르를 정복하기 전, 이곳으로 이주했고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두 번의 결혼 중 첫 아내에게서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다.

치쉬티는 아즈메르에서 사망했는데, 그는 힌두교도와 무슬림 양측에서 존경을 받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지금도 그의 기일에 수십만의 사람이 그의 묘소에 모인다. 사망 당시 델리 술탄과 바부르조의 통치자들과 귀족들도 그의 무덤을 찾았다. 할지 술탄 조(Khalji Dynasty, 1290년~1329년) 술탄들에 의해 치쉬티의 영묘가 건설되었고, 16세기에는 주요 방문지가 된다.

치쉬티는 엄밀한 의미에서 치쉬티 종단의 설립자는 아니며, 종단 설립자는 아부 이샤크 샤미(Abu Ishaq Shami, ? ~ 940년)로 알려져 있다. 아부 이샤크 샤미가 치쉬티 지방에 자리 잡았기에 무인 알딘에게 ‘치쉬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치쉬티는 인도에서 치쉬티 종단의 기초를 다지고 아즈미르를 중심으로 인도에서 치쉬티가 널리 퍼지는 데 공헌한다. 동정심 많고, 감정적이며 포용력이 있던 그의 성격은 ‘존재의 단일성 이론(Waḥdat al-Wujūd)’이라는 수피 사상이 민중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는 종교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식이라 보았으며, 대중에게 관대함과 친밀함, 환대로 다가갈 것을 권유했다. 또한, 알라의 명에 따르는 가장 위대한 방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며,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보았다.

치쉬티 종단이 13세기~14세기 발간한 작품들의 사상적 기초는 치쉬티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치시티, 무인 알 딘 치시티

● 다국어 표기 Çiṣṭi(튀르키예어), Muʿīn al-Dīn Chishtī(우즈베크어), Xvoja Gharib(우즈베크어), Муин ад-Дин Чисти(카자흐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Nizami Khaliq Ahmad, “Çiṣṭī”,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8, Istanbul: TDV, 1993, pp.342~343. Nizami Khaliq Ahmad, “CISHTI,” *The Encyclopaedia of Islam*(ed: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New Edition, Volume II C-G, Leiden: E. J. Brill, 1991, pp.49~50.

I B122 | 무자이야나 알라비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zayyana Alaviya

우즈베크 민속학 발전에 기여한 무자이야나 알라비야 악말헌 키지(Muzayyana Alaviya Akmalxon qizi)는 1909년 5월 26일 타슈켄트에서 지식인의 딸로 태어났다. 부친인 악말한 토라(Akmalkhan t'ora)는 어시이(Osii)라는 필명으로 시를 쓴 타슈켄트의 주요 종교인 중 한 명이었다. 무자이야나 알라비야의 여성 친척들은 민요를 잘 알고 있었으며, 뛰어난 화술과 시에 재능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삼촌 압둘라 알라비이(Abdulla Alaviy 1903년~1931년)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였으며, 1920년대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동양학대학교에서 공부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배경은 무자이야나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요를 수집하며 시를 쓰기 시작한 무자이야나는 1927년 삼촌의 도움으로 사마르칸트의 사범 대학교에 입학한다. 같은 해, 「오늘의 나(Bugungi men)」라는 그녀의 시가 <교육과 교사(Maorif va o'qituvchi)>라는 잡지에 게재된다. 이후 무자이야나는 꾸준히 시를 창작했고, 1959년 시집 『나의 행복(Sevinchlarim)』을 출간했다.

1930년 대학 졸업 후 사마르칸트 토목공학 기술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1933년에 타슈켄트로 돌아와 1944년까지 타슈켄트시의 제1학교, 제76학교, 제139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동시에 니자미 사범대학교 원격 교육 과정에서 수학했고, 1938년에 졸업하게 된다.

1944년에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알리셰르 나버이이 언어문학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일반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1957년부터 남은 평생을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쳤다. 1959년 우즈베크 민요의 예술적 특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우즈베크 민족 세시풍속 민요(O'zbek xalq marosim qo'shiqlari, 1974)』, 『새로운 노래(Yangi qo'shiqlar, 1951)』, 『우즈베크 민속 사례들(O'zbek folkloridan namunalar, 1955)』, 『우즈베크 민요(O'zbek xalq qo'shiqlari, 1959)』 등이 있다. 그는 우즈베

크 민요집 『흰 사과 붉은 사과(Oq olma qizil olma, 1979)』, 『민요(Xalq qo'shiqlari, 1983)』를 출간하기도 했고,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바흐쉬 포질 올더쉬(Fozil Yo'ldosh)의 더스턴 『열망(Intizor)』을 채록해 출판했다.

무자이야나 알라비야는 우즈베크 민속자료 수집과 연구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문화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197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베루니이 국가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1988년 타슈켄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자야나 알라비아
- 다국어 표기 Muzayyana Alaviya(우즈베크어), Музайяна Алави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Abdulla Alavi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muza-yana-alaviya-1909-1988/>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zayev To'ra, *Muzayyana Alaviya, Hodi Zarif suhbatlari*, SHAMS-ASA, Toshkent, 2013.
To'lboev Olim, *XX asr o'zbek folklorshunosligi, Antologiya*,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17.

I B123 | 무자페르 이즈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Muzaffer İzgü

1933년 10월 29일 아다나에서 태어난 무자페르 이즈귀(Muzaffer İzgü)는 다섯 번째 아이이며, 막내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나 안타키야에 살다가 아다나로 이주해 왔는데, 키가 크고 파란 눈을 가진 미인이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 아버지는 커피하우스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생계를 겨우 이어나갔다. 어머니의 첫 남편은 프랑스가 아다나를 점령하고 있던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남편은 결핵으로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즈귀는 자신의 삶을 다룬 소설 『독의 뿌리(Zıkkımın Kökü)』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이렇게 썼다. “해는 1933년, 달은 10월, 날은 29일. 즉, ‘10주년’... 어머니는 그날 밤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햇불 행진을 보기’ 위해. 아버지는 ‘이 사람아, 곧 출산이라 당신 배가 쭈시고 아플 거잖아.’라며 말렸지만, 어머니는 ‘이 즐거운 날에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어?’라며 이웃집 아줌마들과 인파 속으로 뛰어 들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늘을 던져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였다. 고적대가 멀리서 보였고 ‘뽀뽀밤’ 소리가 날 무렵 “아이고!!!!” 어머니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경찰들이 어머니에게 길을 터줬고,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어머니는 집에 간신히 도착했고, 12분 후에 나를 낳으셨다.”

튀르키예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무자페르 이즈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고달픈 삶을 살아온 이즈귀에게 풍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풍선은 손에 쥐는 데 그리 큰 힘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의 그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즈귀는 단 한 번도 풍선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이 감정을 아프게 기억하기보다는 다른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작정했다. 어디에서든 풍선이 보이면 4개~5개 다른 색깔 풍선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줬다. 이즈귀는 어린 시절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은 이 감정이 영혼 깊숙이 자리잡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해서 이렇게 썼다. “어릴 때 한 번도 풍선을 잡아본 적 없어. 풍선 살 돈이 없었거든. 풍선 살 돈이 있으면 집에 빵 반쪽이라도 사들고 갔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풍선은 반드시 터지지. 그러면 돈이 공기 중으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중학교 2학년이 되자 그는 아다나 시골에 한 손에는 영사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고급스러운 조명을 들고 다니면서 이동 영화관을 꾸렸다. 영화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받은 달걀을 구멍가게에 팔아가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그는 이렇게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애썼다. 1952년에는 디야르바크르 사범 기숙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사가 됐다. 한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이즈귀는 교육대학교를 마친 후에는 튀르키예어 교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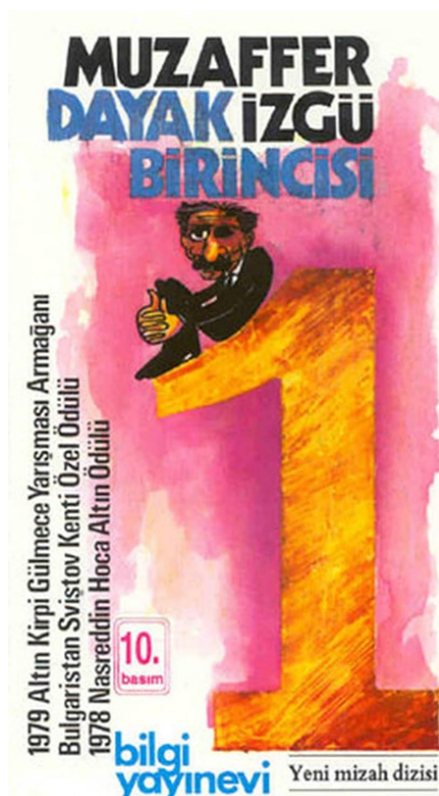
어린 시절 겪은 두 가지 사건은 무자페르 이즈귀를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 첫 번째는 1942년 아버지가 높은 물가를 탄식하는 비판적인 내용의 시를 신문에 실자, 그 이후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무자페르 이즈귀는 작가가 되어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글을 쓸 것을

다짐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저녁마다 자신에게 책을 읽어준 것이다. 그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다. 독서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책이 있고 읽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무자페르 이즈귀는 친구의 추천으로 아다나 시민(Halkevi)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해준 아다나 도서관이 나를 키웠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다.

무자페르 이즈귀는 첫 번째 글을 1959년 교사로 근무하던 도시 아이든에서 발행된 신문 <히라이든(Hüraydın)>에 실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자 이즈미르(Demokrat İzmir)>와 <악şam(Akşam)> 신문에도 글을 썼다. 사실 이즈귀는 유수프 지야 오르타취(Yusuf Ziya Ortaç)가 주도해 만든 <악바바(Akbaba)> 잡지에 풍자 스타일 단편을 쓰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악바바>에 1962년부터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계속됐다.

무자페르 이즈귀는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파헤쳐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고자 했고, 교육자로서 내용을 교훈적이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작품들에는 그의 자연, 사람, 동물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다. 특히 그는 아동과 청소년을 잘못 이끄는 부모의 태도와 교육 체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즈귀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에서 소외된 보통 사람들이다. 작품에서는 가난을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다룬다. 주된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얻는다. 사회적 문제를 깊게 파헤치면서 현실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즈귀의 글은 신문 기사가 쓴 글처럼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는 인터뷰 기사와 단편, 라디오 드라마, 시나리오와 희곡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많은 작품이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된 무자페르 이즈귀의 작품에는 노동에 대한 존중,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권리 옹호가 담겨 있다.



『채벌의 달인(Dayak Birincisi)』 표지

이즈귀의 소설처럼 그의 단편도 주제에 따라 정치, 사회, 시사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정치적 내용을 다룬 단편에서 1960년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정책, 기관들을 다뤘다. 5월 27일 쿠데타와 3월 12일 최후통첩이 일어났던 시기에 벌어졌던 정치적 압력과 사건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인들의 행동, 정부 메커니즘과 정치인들의 이익을 드러낸다. 3월 12일 최후통첩에 연관된 공무원을 임명한 정부, 기업들의 상황을 비판하고 조롱했다.

「흐드르 바바(Hıdır Baba)」는 1977년 나스렛틴 호자의 이야기대회에서 3등을 했다. 단편소설 「헌법, 어떤 헌법(Anayasa, Hangi Anayasa)」은 1977년 민족예술출판 대회에서 2등을 했다. 「내 팬티 속에 숨긴 돈(Donumdaki Para)」으로 1978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단편소설상을, 어린이 소설 「채벌의 달인(Dayak Birincisi)」으로 1980년 불가리아 골든 고슴도치 상 해학 부문 상을, 소설 「난다 난다 알리가 난다(Uçtu Uçtu Ali Uçtu)」로 1980 이스탄불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최우수상을, 퇴메르(튀르키예어학당)이 주최한 1997년 최우수 어린이도서 공모전에서는 우수상을 차지했다.

그의 많은 작품이 영화로 제작됐다. 예를 들면 1975년 「잇 아다스(İt Adası)」소설이 「금발의 네즈미예/잇 아다스(Sarı Necmiye/İt Adası)」로 번안됐고, 1986년에는 「3명에게 25원(Üç Halka Yirmibeş Kuruş)」, 1988년에는 「선생님(Öğretmen)」, 1992년에는 「독의 뿌리(Zıkkımın Kökü)」가 영화로 제작됐다. 이 외에도 그는 1978년 텔레비전에 방영된 「삼촌과 황소 두 마리(Halo Dayı ve İki Öküzü)」와 1979년 「마흐무트의 바비큐(Mahmut Mangal)」를 드라마 극본으로 썼다. 이뿐만 아니라 이즈귀의 100개 넘는 라디오 연극과 콩트가 튀르키예 국영 방송(TRT) 라디오에서 방송됐다.

그는 1978년 교직에서 은퇴한 뒤 이즈미르에 터를 잡고 끊임없이 글을 썼다. 신문과 잡지 기고문, 인터뷰와 논평을 제외하고도 단행본 107권, 200쪽 분량의 라디오 대본을 썼다.

무자페르 이즈귀는 2017년 8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묘지는 이즈미르 도안차이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자페르 이즈귀
- 다국어 표기 MUZAFFER İZG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나스렛틴 호자,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오프라인) Çelikkaya Şahin, *Muzaffer İzgü'nün Hayatı, Sanatı ve Romancılığı*, Ağrı İbrahim Çeçen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Yayın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2016.

Çetinkaya Hikmet, *Yılların Tanığı Üç Yazar*, Çağdaş Yayınları, İstanbul, 1986.

Necatigil Behçet, *Edebiyatımızda İsimler Sözlüğü*, 24. Baskı, Varlık Yayınları, İstanbul, 2004.

Önertoy Olcay, *Cumhuriyet Dönemi Türk Roman ve Öyküsü*, Türkiye İş Bankası Kültür Yayınları, Ankara, 1984.

Uygunar Muzaffer, *Muzaffer İzgü, Yaşamı-Sanatı-Yapıtlarından Seçmeler*, Bilgi Yayınları, Ankara, 2005.

I B124 I 무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W'u-ti

무제(B.C. 156년~B.C. 87년)는 전한의 제7대 황제(재위: B.C. 141년~B.C. 87년)이다. 경제(景帝)의 열한 번째 아들로, 시호는 세종(世宗)이다. 재위기간에 추은령(推恩令)을 내려 제후왕(諸侯王)들에게 땅을 나눠 자제들에게 주고 후(侯)로 삼게 하여, 제후국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즉위하자 권신들을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선비를 등용하여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어 유학에 중점을 두고, 천삭(天朔) 2년(B.C. 127년)부터 왕국을 분봉(分封)하여 중앙집권화를 마무리했다. 한무제(B.C. 140년 ~ B.C. 87년)의 등극은 흉노와 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무제는 고식적인 흉노와의 화친책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전쟁에 나서게 되었는데 당시 한의 흉노정벌의 주역은 위청(衛靑)과 광거병(霍去病) 등의 두 장군이였다.

첫번째 중요한 흉노 정벌은 B.C. 127년에 수행되었다. 위청장군이 이끄는 한군은 흉노에 일격을 가해 흉노의 대중국 침략의 거점이었던 오르도스 지역을 수복했는데 이후 이 지역은 영원히 한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후, B.C. 121년 광거병장군이 이끄는 한군은 흉노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한측의 군사적 손실도 컸지만, 한은 흉노의 정신적 고향이며 요충지였던 기련산(祁連山) 지역과 연지산(臙脂山) 지역을 획득하게 돼, 흉노는 고비 사막(Gobi Desert) 남쪽에 위치했던 선우정(單于庭)을 고비 사막 북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B.C. 119년 위청, 광거병 두 명장이 이끄는 한군은 흉노의 서역진출의 교두보였던 감숙협곡(甘肅峽谷)과 롭노르(Lobnor)에 이르는 이서지역을 획득하게 되어 한은 이곳에 무위(武威), 주천(酒泉), 장액(張掖), 둔황(敦煌) 등의 하서사군(河西四郡)을 설치하여 서역진출의 거점을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서역 일대에 대한 한의 패권을 확립했다. 이후에도 한군은 수십 차례에 걸쳐 흉노 침공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오히려 B.C. 90년에는 이광리의 군대가 전멸당하여 흉노에 투항하는 형세였다. 결국 흉노 격멸을 소망했지만, 무제가 사망할 때까지 흉노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는 감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한무제
- 다국어 표기 武帝(중국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장건, 홉노르, 서역, 선비, 고비사막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029479&cid=67207&categoryId=67210>
- 참고문헌(온라인) dureo 인명사전 한무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10330&cid=62063&categoryId=62063>
세계사 한무제 유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159&cid=59014&categoryId=59014\(DLSAN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159&cid=59014&categoryId=59014(DLSANF)
- 참고문헌(오프라인) Barfield Thomas J., "The Shadow Empires: Imperial State Formation Along the Chinese-Nomad Frontier". Empires: Perspectives from Archaeology and Histo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B125 | 무지름 어비드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jrim Obid

무지름 어비드(Mujrim Obid)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살았던 부하라 칸국 시인이자 시인이다. 무지름 어비드의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없어 출생이나 사망연도는 알

수가 없다. 그의 삶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그의 일부 작품들이다. 특히, 그의 시 『하스비 헐(Hasbi hol)』을 통해 시인의 삶에 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지름 어비드는 18세기에 부하라의 구무쉬겐트(Kumushkent; 지금의 버브켄트Vobkent)에 있는 계몽주의 가정에서 태어나 80세 정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시를 통해 유추해본 것인데, 시인이 자신의 76세 나이를 언급한 시가 있기 때문이다.

무지름 어비드(Mujrim Obid)는 우즈베크어와 타지크어로 작품 활동을 했고, 두 편의 시가 보존돼 전해진다. 그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사람이었으며, 진보주의자로서 계몽주의 문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무지름 어비드의 본명은 미라크허자 오글리(Mirakxo'ja o'g'li)이다. 그는 아미르 샤흐무라드(Amir Shahmurad)의 통치 기간 동안 '죄인'이라는 뜻의 '무지름'이라는 필명을 썼다. 그런데 문학과 예술을 무시하고 종교와 미신에 열중했던 아미르 하이다르(Amir Haydar)는 시인의 '무지름'이라는 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무지름' 대신 '어비드'라는 필명을 쓰라고 명령했다. 이 상황은 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비드'는 '숭배하는 자'라는 의미였고,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종교, 미신, 셰이크 추종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필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아미르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필명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무즈림 어비드는 무함마스(muhammas), 가잘(gazal), 마스나비(masnaviy), 기타(qit'a), 루바이(ruboiy)와 같은 고전시 형식으로 시를 썼다. 그의 시는 모두 주제가 매우 다채롭고, 다양했다. 무즈림 어비드는 고전 시인들의 작품을 깊이있게 연구했고, 거장 시인에게서 시작(詩作)을 배웠다. 알리셰르 나비이(Alisher Navoiy), 바드릿딘 힐러리(Badriddin Hiloliy), 미르저 베딜(Mirzo Bedil), 버버라힘 마쉬랍(Boborahim Mashrab)과 호자나자르 고이브나잘 옥굴이 후와이더(Khojanazar G'oyibnazar o'g'li Huvaydo)가 무즈림 어비드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거장들이다.

그의 고전시 문집 『데번(devon)』에는 알리셰르 나비이와 미르저 베딜의 가잘(g'azal)을 기반으로 한 「타지민 무함마스(tazmin; 아랍어로 '시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오다, 복사하다'는 뜻이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나비이이의 일곱 편의 가잘에 대한 『무함마스』를 썼다.

무지름 어비드가 알리셰르 나비이이의 작법에 따라 우즈베크어와 타지크어로 썼던 시를 수록

한 시집은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3798번 우즈베크 데번(devon)은 이후 『무지름 어비드 가잘(Mujrim Obid G'azallar, 1960년)』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1975년에 부하라 출신 학자 압두라흐모노프(M.Abdurahmonov)는 무즈림 어비드의 삶과 작품활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1978년과 1980년에 출판된 『우즈베크 문학사(O'zbek adabiyoti tarixi)』 교과서는 무즈림 어비드에 대해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다.

무지름 어비드는 우즈베크어와 타지크어를 사용하는 시인으로써 미르자 서디키이 문쉬이(Mirza Sodiqiy Munshiy)나 히슬랏(Xislat)과 같은 시인들과 함께 우즈베크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투르크 시에서는 나버이이(Navoii)와 마쉬라브(Mashrab), 페르시아 시에서는 베달의 시풍을 이어받았다. 그의 투르크어 『데번(devon)』과 페르시아어 『데번(devon)』에는 총 206편의 가잘(g'azal)이 수록되어 있다.

무지름 어비드의 작품은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는 특히 그의 작품 『하스비혈(Hasbi hol)』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는 이 작품에서 가정생활, 영적 경험, 생계 문제, 도덕 및 윤리관을 다룬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시대정신 비판 그리고 메마른 인간관계 대한 증오를 표출한다. 시인은 말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지름 오비드, 무지림 오비드
- 다국어 표기 Mujrim Obid(우즈베크어), Мужрим Обид(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부하라, 히슬랏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mujrim-obid-xviii-xix-asr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 Vohid,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67.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Orzibekov Rahmonqul, *Ozbek adabiyoti tarixi XVII-XIX*, O'zbekiston Yozuvchilar uyushmasi Adabiyot jamg'armasi nashriyoti, Toshkent, 2006.

I B126 |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ukaddimatü'l-Gaznevi Fi'l-'Ibad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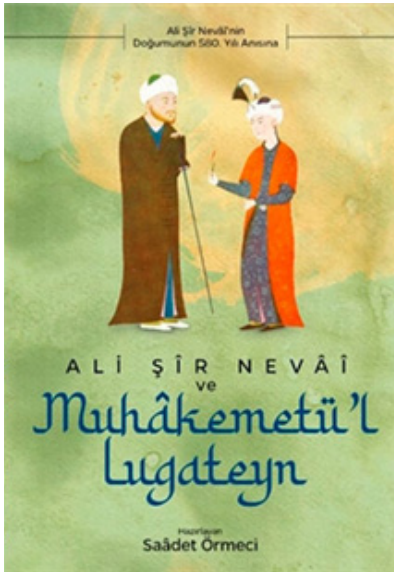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Mukaddimatü'l-Gaznevi Fi'l-'Ibadat)는 하나피 종파의 종교 서적으로써 현재 전해지는 것은 아랍어에서 맘루크 킵차크 투르크어로 번역된 번역본이다. 하지만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는 맘루크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종교적 작품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를 ‘피끄흐의 서’와 혼돈하여 동일 작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2년 데미르지(Demirci)가 그의 석사 논문을 통해 별개의 서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의 저자 가즈네비(Gaznavi)는 이슬람세계의 유명한 학자 중 한명인 하나피파 법학자이며, 무카디메틸 가즈네비 필 이바다트를 통해 그는 하나피 종파 전체에 걸친 예배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킵차크 투르크어로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이자 필사자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작품은 총 2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스탄불 쉴레이마니예 도서관 레이쉴 퀴탑(Reis'ül-Küttap) 섹션에 389번으로 등록돼 보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카디메틀 가즈네비 필 이바닷
- 다국어 표기 Mukaddimatü'l-Gaznevi Fi'l-'Ibadat(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ADYBEKOV K., PECULIARITIES OF RELIGIOUS WORKS WRITTEN IN MAMELUKE KIPCHAK LANGUAGE MEMLUK KIPÇAK TÜRKÇESİ İLEYAZILMIŞ DİNİ ESERLER VE ÖZELLİKLERİ,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s' Education and Teaching, Germany, 2015, pp.119~125.

I B127 | 무카메툴 루가테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uhakemetu'l-Lugateyn



『무카메툴 루가테인』 튀르키예어 번역본 표지
Source: <https://www.turkedebiyati.org>

『무카메툴 루가테인(Muhakemetu'l-Lugateyn)』은 알리셰르 나비이이가 저술한 서적이다. 알리셰르 나비이이는 투르크어와 그 시대의 문화어이자 문학어였던 페르시아어를 비교하여 문학 예술, 어휘, 문법 및 음성학 측면에서 투르크어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1441년 2월 9일 헤라트에서 태어난 알리셰르 나비이이는 15살 때부터 페르시아어로 시를 집필했으며, 탄탄한 기초에 기반을 두며 페르시아 문학의 대가로 성장했다. 알리셰르 나비이이는 지적인 정치가이자 재능 있는 시인이었던 그는 1501년 1월 3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무카메툴 루가테인(Muhakemetu'l-Lugateyn)』라는 작품을 통해 차가타이 투르크어와 페르시아어를 비교한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차가타이 투르크어가 페르시아어

어보다 우수한 문학적 언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중 언어 사회에서 튀르키예어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투르크인으로서 민족어에 자긍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는 『무카메툴 루가테인』의 앞 부분에서 “인간은 언어 능력 덕분에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며 신(알라)이 코란을 내려보낸 언어이며, 수많은 예언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한 아랍어는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언어라고 말한다. 아랍어 이외에 노아의 세 아들 야훼스(투르크어), 삼(페르시아어), 함(힌디어)이 중요한 세 개의 언어라고 말한다.

나비이이는 페르시아어와 투르크어를 비교하기 이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투르크인과 페르시아인들의 인종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투르크인들은 페르시아인보다 더 영특하며, 순수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페르시아인들은 과학, 지식적 측면에서 투

르크인들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그는 언어의 완벽성 측면에 있어서 투르크어는 페르시아어보다 우수하며, 100개의 동사를 제시하여 투르크어에는 이 동사의 개념을 표현하는 동사가 최소 두 개 이상 존재함을 밝힌다. 이에 반해 페르시아어는 단어적 측면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아랍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르크어는 특히 모음 체계 측면에서 페르시아어보다 월등히 우월하며,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여 어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나버이이는 무카메툴 루가테인을 통해 친족, 새, 땅, 사냥에 쓰이는 동물들, 승마 장비, 의복, 음식 및 음료 등 투르크어로 이루어진 다양한 명사들을 제시한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이후 투르크어로 작성된 중요한 저작인 무카메툴 루가테인은 현재까지 총 4개의 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사본은 튀르키예(2편), 헝가리와 프랑스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하카마트 알 루가타인

● **다국어 표기** محاکمة اللغتين (아랍어/페르시아어), Muhâkemetü'l-Lugateyn (튀르키예어), Muhokamat ul-lug'atayn (우즈베크어), Muhakamat al-Lughatayn (영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 **참고문헌** (오프라인) Özönder S. B., Ali Şir Nevâyî Muhakemetü'l-lugateyn (İki Dilin Muhakemesi), Ankara: Türk Dil Kurumu Yayınları, 1996.

I B128 | 무캇디메틸 에데브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ukaddimetü'l-Edeb



『무캇디메틸 에데브(Mukaddimetü'l-Edeb)』는 아랍어 교육을 목적으로 아랍어 단어와 짧은 문장들로 구성된 실용 사전이다. 사전의 표제어는 명사, 동사, 문법 요소(전치사 등), 명사의 활용형, 동사의 활용형 등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제어는 주제에 따라 나열되며, 복수형도 함께 제시된다. 사전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로 동사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다.

『무캇디메틸 에데브』에는 다른 사전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고대 투르크어와 중세 투르크어 시기의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디와니 루가티트 투르크 이후 가장 풍부한 어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캇디메틸 에데브(Mukaddimetü'l-Edeb)』 표지

이 책의 저자는 당대 유명한 종교학자이며 사전 학자인 마흐무드 빈 외메르 에스 제마흐쉐리(Mahmûd bin Ömer ez-Zemaşşerî)이며, 집필 이후 이 책은 호라즘 샤 앓스즈 빈 무하메드 빈 아누쉬테긴(Harezmsşah Atsız bin Muhammed bin Anuşigin)에게 헌정되었다. 이 사전의 집필연도는 따로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호라즘 샤 앓스즈의 통치 연도(1127년~1156년)와 제마흐쉐리의 사망 연도(1144년)를 고려할 때, 대략 1128년에서 1144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호라즘 투르크어, 페르시아어, 몽골어, 차가타이어, 오스만어 등의 여러 언어의 예문들로 번역된 판본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무캇디메틸 에데브』의 원본은 손실되었기 때문에 마흐무드 빈 외메르 에스 제마흐쉐리가 호라즘 샤 앓스즈에게 헌정한 작품이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앓스즈(Harezmsşah Atsız)가 투르크인임을 고려해 볼 때, 일본판의 언어는 당시 통용되었던 투르크어 혹은 그다음으로 많이 통용된 페르시아어 혹은

호라즘인들의 언어였던 호라즘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필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호라즘 투르크어로 작성된 판본 중 일부는 페르시아어와 서부 투르크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카디메툴 에덱, 무카디메틸 에덱, 무카디메틸 에데브
- 다국어 표기 مقامة الأدب (아랍어)
- 연관 검색어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 호라즘 투르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무카디메틸 에덱
<https://islamansiklopedisi.org.tr/mukaddimetul-edeb>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oguz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Ata A., Çağatay Türkçesinin ilk devresi: Harezm-Altın Ordu Türkçesi, Ankara: Ankara Üniversitesi, 2016.

I B129 | 무키미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qimiy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우즈베크 민족주의 작가 무함마드 아민허자 무키미이(Muhammad Aminxo'ja Muqimiy)는 1850년 코칸드(Qo'qon)에서 태어났다. 문학에 대한 무키미이의 관심은 그의 어머니 어이샤비비(Oyshabibi)에 의해 시작되었다. 어이샤비비는 당대 문학과 예술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고, 특히 코칸드에서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여성이었다. 무키미이는 시인 너디라(Nodira)가 세운 코칸드 머흐라르 어임 마드라사(Mohlar Oyim)에서 수학했다. 1873년 코칸드 마드라사를 졸업한 무키미이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당시 학문의 메카였던 부하라로 떠났다. 그는 부하라에 머무르며 페르시아어와 함께 시 작문법을 공부했다. 1876년에 그는 코칸드로 돌아갔으나 가난하고 평범한 계급이었던 그를 환대해 주는 곳



무함마드 아민호자 무키미이
Source: <https://corp.uzairways.com>

은 없었다.

1876년 이후 무키미이는 생계를 위하여 건설 현장과 페리(연락선)에서 근무하며, 가난한 이들의 실제 모습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이를 기점으로 자신의 창작 활동과 함께 문학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며, 삶을 보다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무키미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위대한 고전 시인이며 더불어 유머를 통해 우즈베크 문학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풍자 작가이기도 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코칸드-페르가나, 코칸드-쇼히마르돈, 코칸드-이스파라 여행 중 느낀 감상들을 묘사한 『여행기(Sayohatnoma)』, 『하팔락이라는 시골에 대하여(Hapalak qishlog'i to'g'risida)』, 『측량사들(Tanobchilar)』, 『눈먼 아슈르바이허지의 사건(Boqei ko'r Ashurboy hoji)』, 『어음(Veksel)』, 『모스크바의 한 부자에 대하여(Moskovchi boy ta'rifida)』, 『안디잔 지진(Andijon zilzilasi)』 등이 있다.

무키미이의 삶과 창작 활동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가 소련에 편입된 후 새로운 역사적 환경, 당시 국민들의 삶과 투쟁은 우즈베키스탄 문학과 무키미이의 작품 활동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무키미이의 작품에 대한 연구 및 그의 작품들의 출판은 시인이 생존할 당시부터 시작되었는데, 1907년에는 어스트로움모프(Ostroumov)의 『무키미이의 데번(Devoni Muqimi, 1907)』 선집이, 1910년에는 『무키미이의 풍자시 데번(Devoni Muqimiy maa hajviyot)』이 출판되었다. 그 후 가푸르 굴럼(G. Gulom), 어이벡(Oybek), 자리포프(X. Zarifov), 요쿠보프(H. Yoqubov), 라자코프(H. Razzoqov), 카리모프(G. Karimov), 하이트메토프(A. Hayitmetov) 등의 연구자들이 무키미이의 삶과 작품을 연구했다.

무키미이의 시들은 외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코칸드의 실제 무키미이(Muqimiy) 생가(生家)는 박물관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곳곳에 무키미이의 이름을 기리는 도시와 거리 그리고 극장 등이 있다. 생애 마지막까지 글을 썼던 무키미이는 1903년 5월 25일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키미, 무키미의
- 다국어 표기 Muhammad Aminxo'ja Muqimiy(우즈베크어), Мухаммад Аминходжа Мукими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마드라사, 부하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muqimi-1850-1903/>
<https://arboblar.uz/uz/people/mukimi>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gafurova A, *Muqimiy satirasi: yumor, satira*, Fan, Toshkent, 1976.
Abdulla S, *Movlono Muqimiy: badiiy lavhalar*, Badiiy adabiyot, Toshkent, 1965.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Karimov G'ulom, *Muqimiy hayoti va ijodi*,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70.
Karimov G'ulom,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75.

I B130 | 무타사리피야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레바논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Mutaşarrifiyya

무타사리피야(Mutaşarrifiyya)는 오스만 제국이 1860년 레바논 내전을 계기로 레바논 지역에 도입한 주요 6대 종교 · 종단의 권력 분점과 연합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무타사르피야는 1850년대 오스만 제국의 지방 행정 조직 산자크(sancak, sanjak)와 리반(livan)의 최고 행정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던 무타사르르프(Mutaşarrif, Mutaşarrif)에 어원을 두고 있다. 오스만 제국이 레바논을 통치하던 시기 세금징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1858년~1860년 이슬람계 드루즈파(Druze)와 기독교 마론파(Maronite)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오스만 제국 정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레바논 지역에 특수한 통치 체계를 만들게 된다.

당시 레바논 지역은 크게 드루즈파와 마론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이한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오스만 제국 정부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양 지역을 무타사르피야라는 단일한 행정 단위로 통합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그 대신 무타사르피야의 수장인 무타사르르프를 임명할 때 양 교



레바논 베이루트의 성 조지 마로나이트 대성당, 모하마드 알 아민 모스크, 용서의 정원

파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레바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종단 출신을 선택했다.

최초의 무타사르프로 임명된 다부드 파샤(Davud Pasha)는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 가톨릭 출신이었다. 1864년 다부드 파샤는 종교 · 종단 간 갈등 종식을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를 설립한다. 행정 위원회는 세금징수 및 통치에 대한 조언을 했다.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레바논 지역의 주요 6대 종교 · 종단 집단에 분배되어 마론파가 4명, 드루즈 파가 3명, 그리스 정교회가 2명을, 수니파, 시아파, 그리스 카톨릭 공동체에서 각 1명을 임명한다. 종교 · 종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부드 파샤가 도입한 권력 분점과 연합 통치 방식은 상황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타사리피야 전통은 현대 레바논의 정부 및 의회 구성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타사리피예, 무타사리피아
- 다국어 표기 Mutaşarrıfıy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황병하 2020, 「레바논의 종단주의 기반 정치적 실용주의 진행 과정 연구」, 『중동문제연구』 19(1),

pp.107~151.

Bruce Masters, "mutasarrifiyya",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York: Facts On File 2009, p.414.

Carter V. Findley, "Mutaşarîf", *The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7, Leiden: Brill, 1993, pp.774~775.

I B131 I 무프티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법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Mufti

무프티는 이슬람법 관련 아랍어 용어이다. 무프티(Mufti)는 이슬람 법학자로, 의뢰인(무스타프티)의 요청에 따라 파트와(이슬람 법적 의견)를 발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슬람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심이 뛰어나고, 법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정의로운 의식이 있고,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프티가 될 수 있었다. 이성적인 능력으로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즈타히드(mujtahid)라고 부른다.



코란과 판결의사봉

무즈타히드와 무프티는 모든 능력에서 동등하다고 해도 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무프티는 무즈타히드와 달리 신심과 정의감이 뛰어나야 했다. 무프티는 파트와를 발행할 뿐 아니라 뛰어난 법 이해 능력을 이슬람법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의무도 안고 있었다. 무프티가 발행한 파트와는 구속력은 없었다. 그러나 까디(판사)보다 파트와를 발행하는 무프티가 이슬람법을 더 잘 알고 명망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까디는 무프티의 파트와를 수용했

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가장 뛰어난 무프티를 ‘셰이흐 이슬람(아랍어: 셰이쿨이슬람)이라는 직위로 존대했다. 명칭 그대로 ‘이슬람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뮈프튀

● 다국어 표기 Mufti(아랍어), Müftü(튀르키예어), Muftiy(우즈베크어), Müfti(아제르바이잔어), Мүфти(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Mufti#/media/File:Atai_\(Walters_MS_666\)_-_A_Juriconsult_Giving_Sexual_Advice_\(cropped\).jpg](https://en.wikipedia.org/wiki/Mufti#/media/File:Atai_(Walters_MS_666)_-_A_Juriconsult_Giving_Sexual_Advice_(cropped).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laq Wael,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Islamic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Tyan, E. and J. R. Walsh, “Fatwā.”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2, 866~867. Leiden: Brill, 1965.

I B132 | 무하람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harram

무하람(Muharram)은 이슬람력으로 첫 번째 달로 ‘하람이 행해지는, 금지되는, 성스러운, 존경받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달은 전쟁을 금지하는 녁 달 중 하나이다.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아랍인들은 음력과 양력을 맞추기 위하여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일종의 윤달을 끼워 넣었으며 이 윤달을 무하람 달로 취급했으나, 특별히 전쟁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슬람 발생 이후 코란에서는 윤달을 끼워 넣는 것을 비판했고, 해마다 이슬람력에 따라 무하람이 돌아온다.

코란에서는 무하람을 달 이름으로서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공격받았을 때는 제외하고는 전쟁이 금지된 달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달이 무하람 월이라는 해석은 압바스 이븐 알리(Abbas ibn Ali, 647년~680년)가 했다. 무하람 월의 열 번째 날은 아슈라라고 하는데, 이날을 셈족(Semites)계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아랍인들은 금식을 하기도

했다. 예언자 무함마드도 이 날에 금식을 했으며 무슬림에게 금식을 권했고, 라마단 금식이 의무화된 이후에는 무하람 월 10일뿐만 아니라 9일 째와 11일 째에도 금식을 권했다. 학파에 따라 이것이 순나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슬람 초창기에 무하람 달에는 희생 예배를 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폐지되었다.



무하람 축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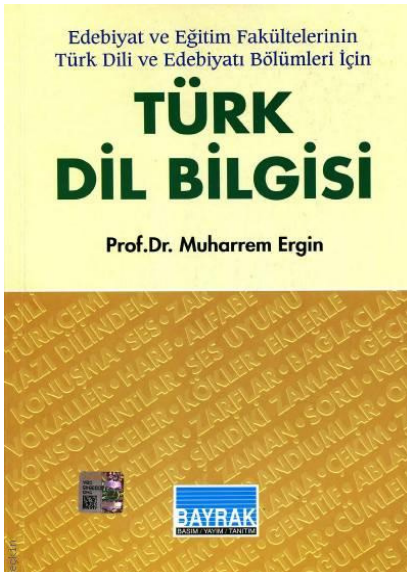
시아파에서는 무하람 달이 특히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무하람 달 10일에 3대 이맘 후사인 이븐 알리(Husayn ibn ‘Ali)와 그 가족이 카르발라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달에 타지야(ta‘ziyah)라는 수난극을 공연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등의 추도식을 개최하고 애도를 한다.

알레비와 백타슈 같은 수피즘 종단에서도, 무하람은 중요하게 취급되어 후사인과 순교자들을 애도하고, 4대 이맘인 알리 자인 알아비딘(Ali Zayn al-Abidin, 659년~713년)의 구원을 위하여 무하람 달의 1일 째 또는 12일 째에 금식한다. 또한, 유흥을 멀리하고, 면도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며, 찢지 않아야 하고, 성관계를 금한다. 대신 애도와 곡을 하고 네페스(nefes) 기도를 읽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하렘
- 다국어 표기 Muharram(우즈베크어), Məhərrəm(아제르바이잔어), Muharrem(튀르키예어), Məxəppəm(타타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aşaroğlu M. Kâmil, “Muharre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1, İstanbul: TDV, 2006, pp.4~5. Plessner M., “AL-MUHARRAM”, *Encyclopaedia of Islam* (ed:C.E. BOSWORTH, E. VAN DONZEL, W.P. HEINRICHS AND the late CH. PELLAT), New Edition, Volume VII MIF-NAZ, Leiden-NewYork: E. J. Brill, 1993, p.264.

I B133 | 무하렘 에르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조지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uharrem Ergin



『튀르키예어 문법(Türk Dil Bilgisi)』 표지
Source: <https://www.seckin.com.tr>

무하렘 에르긴(Muharrem Ergin)은 1923년 오늘날 조지아 국경 내에 있는 메스케티(Meskheti) 주의 아칼칼라키(Akhalkalaki)의 괴계(Gögye)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분포되어 거주하는 카라파파크(Karapapak) 투르크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족은 1925년 튀르키예로 강제로 이주당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무쉬(Muş) 주에서 초, 중등 교육을 마치고, 이후 튀르키예 서부 도시 발리케시르(Balıkesir)의 기숙학교에서 무료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다.

1942년 그는 이스탄불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부에 입학하여, 레쉬트 라흐메티 아라트, 아흐메트 자페르오를루, 이스마일 히크메트 에르타일란,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와 같은 당대 명망 높던 학자들 밑에서 수학했다. 그는

1947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보아즈이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1959년에는 이스탄불 대학 튀르키예어문학과에서 조교로서 근무하다, 레쉬드 라흐메티 아라트의 지도 학생으로서 「현자 코르크트의 서 텍스트 비교연구」로 1954년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현자 코르크트의 서의 문법 및 사전」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1962년 부교수로 임명받는다. 1964년 그의 지도 교수였던 레쉬드 라흐메티 아라트의 사망 이후, 그는 1990년까지 고대 투르크어 학회장 역할을 맡았다. 1971년 정교수가 된 그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이스탄불 대학교의 튀르키예어문학부 학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망 일주일 전에 급성 폐렴에 걸렸고, 1995년 1월 6일 사망했으며, 1월 9일 베야지트 모스크에서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 하스달 공원묘지에 안치되었다.

그는 「튀르키예의 오늘날의 문제(Türkiye'nin Bugünkü Meseleleri, 1973)」, 「역사적으로 튀

르키예와 러시아와의 관계(Tarih Işığında Türk Rus Münasebetler / Sovyet Emperyalizmi Balkanlar ve Türkiye, İstanbul 1974, s. 18-36)』 등을 주제로 한 학술 연구를 통해 튀르키예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평화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뒷받침되어 경제 발전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민족 의식과 민족 문화가 사회와 개인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더해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대표 저서는 『튀르키예어 문법(Türk Dil Bilgisi / İstanbul 1958, genişletilmiş 2. bs. 1962; Sofya 1967; İstanbul 1972)』, 『고교 튀르키예어 문법(Türk Dili / Millî Eğitim Bakanlığı tarafından liseler için ders kitabı olarak, İstanbul, 1976, 1977)』, 『튀르키예어(고등 교육기관)(Türk Dili=yaygın yüksek öğretim kurumu için, Ankara 1977)』, 『대학생을 위한 튀르키예어 Üniversiteler İçin Türk Dili(İstanbul 1986, 1990, 2005)』 등이 있다.

그의 저서들은 튀르키예 대학에서 수십 년간 튀르키예어 문법 수업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 기관 및 교양 학부에서도 기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아렘 에르긴, 무하람 에르긴
- 연관 검색어 메스케티, 휘세인 니할 아트스즈(Hüseyin Nihal Atsız),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eUJU>
<https://islamansiklopedisi.org.tr/ergin-muharrem>
- 참고문헌(오프라인) SERTKAYA, O., “PROF. DR. MUHARREM ERGİN”, *Türk Dili ve Edebiyatı Dergisi*, 28, 2012, 9~16.

I B134 I 무함마드 구리

- 시기A.D. 1000년 ~A.D. 1500년
- 지역기타
- 나라 인도
- 유형역사
- 유형소분류1 인물
- 유형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이수정 라틴 문자 Muhammad Ghorī

무함마드 구리(Muhammad Ghorī)의 본명은 시합 앓 단(Shihab ad-Din)으로 1149년에 출생하여 1206년 3월 15일 사망했다. 구리 조(Ghurid, Ghorid)의 술탄이었던 무함마드 구리는

1173년부터 1202년까지는 기야스 앳 딘 무함마드와 함께 통치했고, 1202년부터 1206년까지는 혼자 통치했다.

1206년 구리 조는 델리 술탄국의 노예 왕조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에 무함마드 구리는 구리 조의 마지막 술탄이다. 구리 조에서 무함마드가 통치한 지역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인도 북부 지역에 걸쳐 있었다.

무함마드는 1149년 호라산(Khorasan)의 구르(Ghur)지역에서 출생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무함마드의 아버지는 바하 앳 딘 삼 1세(Baha ad-Din Sam I)로 당시 구르 지역의 지역 통치자였다. 무함마드의 형은 기야스 앳 딘 무함마드(Ghiyath ad-Din Muhammad)이다. 어린 시절 무함마드와 기야스는 권력 다툼 과정에서, 삼촌이었던 알라 앳 딘 후사인(Ala ad-Din Husayn)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지만, 사촌인 사이프 앳 딘 무함마드(Sayf ad-Din Muhammad)가 이들을 석방한다. 1163년 사이프가 사망하자, 기야스는 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술탄직에 오른다.

무함마드와 기야스 형제는 셀주크 투르크와 적대적 관계를 구축하며 정복 전쟁을 진행했다. 1173년 가즈니조를 침략했고,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오구즈 투르크 부족을 몰아냈다. 무함마드는 새롭게 함락한 가즈니조 통치 지역을 장악하고 기야스와 함께 공동으로 구리 조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1175년에는 셀주크 총독이 통치하던 헤라트를 정복했다. 기야스가 구리 조의 서부 국경을 확장하자, 무함마드는 인도로 진출을 꾀했다. 1175년 이후 힌두 왕조가 다스리는 인도의 소왕국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1178년에는 구자라트 지역을 점령했다. 1186년에는 라호르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즈니 조의 마지막 술탄인 쿠스라우 말릭(Khusrau Malik)을 처형하면서 가즈니 조를 멸망시켰다. 1191년 무함마드는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을 통해 펀자브 지역을 점령했다. 이 당시 진행된 유명한 전투가 타레인 전투이다.

1202년 기야스가 사망하자, 무함마드는 구리 조의 술탄으로 즉위했다. 1190년 이후 인도 북부와 해당 지역 접경 문제는 무함마드 수하에 있던 노예 출신 장군 쿠틱 앳 딘 아이박(Qutb al-Din Aibak)이 주로 맡아 진행했는데, 1206년 인도 지역 정세가 안정권에 들자, 무함마드는 인도 통치 관련 전권을 아이박에게 부여했다. 이후 가즈니 지역으로 돌아오던 중 1206년 3월 15일 암살을 당한다.

무함마드는 후사가 없었다. 그러나 투르크인 노예를 자신의 자식과 같이 돌보고, 이들을 교육해 군대를 구성하고 행정관으로 삼았다. 무함마드의 사후, 그가 교육시킨 투르크인 노예들은 무함마드가 통치했던 영토를 나누어 분할하고, 각자의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특히 인도 지역을 맡고 있었던 아이박은 1206년 노예 왕조를 수립하고 델리 술탄국의 포문을 열었다. 무함마드의 영묘는 파키스탄 다미악(Dhamiak)에 있다.

- 표제어 한국어 발음 무함메드 구리, 무함마드 고리
- 다국어 표기 معز الدين محمد غوری (페르시아어), Muhammad Ghori (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osworth, C. E., *The Ghurids in Khurasan, Medieval Central Asia and the Persianate World: Iranian Tradition and Islamic Civilisation*, 2017, p.210.
Anooshahr, A., *On the Imperial Discourse of the Delhi Sultanate and Early Mughal India*, *Journal of Persianate studies*, 7(2), 2017, pp.157~176.

I B135 |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hammad ibn Zayd Mausoleum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 영묘는 8세기~9세기 시아파를 이라크에 퍼트렸던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Muhammad ibn Zayd, ?~900년)을 기리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븐 자이드는 자이드 조의 타바리스탄(Tabaristan)의 에미르(재위: 884년~900년)이기도 했다. 이 영묘에 실제로 이븐 자이드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시아파 신도를 위한 기념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영묘는 술탄 산자르 영묘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에 위치해 있으며 술탄 산자르(Sultan Sanjar, 재위: 1118년~1157년)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묘는 1221년 몽골 침략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영묘는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플랜으로 되어 있으며 돔으로 덮인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 영묘
Source: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

있다. 자이드의 묘실은 건물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건물은 서북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서쪽 벽이 키블라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모스크는 아니지만, 메카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건물은 구운 벽돌로 지어졌으며 벽돌 자체를 제외하고는 장식은 거의 없다. 그 점에서 부하라의 이스마일 사마니 영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영묘는 벽돌을 교차 배치하는 형식으로 볼트, 팀파눔과 스퀀치를 헤링본 문양과 갈매기 무늬 문양으로 장식했다. 외벽은 아치형 벽감을 만들어 장식했다. 묘실은 쿠픽 서체로 장식된 구운 벽돌 띠로 주변을 둘러싸 장식성을 배가시켰다. 영묘 주변에는 순례자가 머물 수 있던 카라반 사라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인근에 남아 있는 우물은 말라 있지만 여전히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메드 이븐 자이드 영묘
- 다국어 표기 Muhammet ibn Zeýdiň mawzoleýi (투르크멘어), Muhammed Bin Zeyd Türbesi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sf50>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 영묘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gallery/turkmenistan/merv/muhammad-ibn-zayd_mausoleum/photos/muhammad-ibn-zayd_mausoleum05.jpg
무함마드 이븐 자이드 영묘_묘실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gallery/turkmenistan/merv/muhammad-ibn-zayd_mausoleum/photos/muhammad-ibn-zayd_mausoleum11.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84/turkmenistan/merv/muhammad-ibn-zayd-mausoleum>
<https://whc.unesco.org/en/list/886/>
- 참고문헌(오프라인)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I B136 | 무함마드 라힘 칸 1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hammad Rahimxon I

히바 칸국 콩기라트 왕조의 시조인 엘투자르(Eltuzarxon, 영문표기: Iltazar, 재위: 1804년~1806년)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인 무함마드 라힘 칸(Muhammad Rahimxon I, 재위: 1806년~1825년)이 제위에 올랐다. 무함마드 라힘 칸은 중앙집권화 정책과 국가 개혁 정책을 펼쳤다.

정치적으로는 국가 행정 개편을 위해 의회 형태의 기구(Devon)를 만들었고, 이 기구를 통하여 통치 기간 중에 세금 개혁을 시행했다. 무함마드 라힘 칸은 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명을 내렸으며 곡물과 짐세 등을 징수했다. 또한, 세관을 건립하여 히바 칸국을 오가는 캐러밴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다.

무함마드 라힘 칸은 조폐국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금, 은 동화를 주조했다. 이전 세대에도

은화가 주조되기는 했으나, 18세기 전반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기존 은화의 질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 무함마드 라힘 칸의 화폐 개혁으로 화폐는 안정화되고, 세금을 물건이 아닌 화폐로 내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세금 시스템의 변화와 농업 종사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물의 수요가 증가했고, 무함마드 라힘 칸은 호라즘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 시설을 증설했다.

이와 함께 봉건 영주들의 부패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집권화를 위해 노력했다. 중앙집권화와 국가 확장을 위해 무함마드 라힘 칸은 히바의 인근 지역의 부족들을 정복했다. 1808년~1809년 투르크멘 부족인 초브두르(chovdur) 족을 정복한 것을 비롯하여 1811년에는 긴 전쟁 끝에 2만 호가 사는 성을 무너뜨리며 아랄을 정복한다. 1812년~1813년 시르다리아 지역의 카자흐족을 정복했으며, 1820년에는 메르브를 정복했다. 호라산 지역에 자주 원정을 나갔으며, 테케(Teke), 요무트(Yomut), 사르이크(Saryk)같은 투르크멘 부족을 정복하고, 엠렐리(Emreli), 알-엘리(Al-eli) 카라다실리(Qaradashli)과 같은 부족이 히바에 정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 봉건 영토 시스템이 변화했고, 부족중심주의가 중앙집권으로 변화하며, 19세기 초 히바 칸국은 이전 세대에 비해 발전하게 되었다. 다만, 히바 칸국의 영토를 카자흐 지역까지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러시아의 영향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역사서를 집필하고, 다수의 마드라사와 모스크 건설을 지원하기도 한 무함마드 라힘 칸은 1825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얼러쿨리 칸(Olloqulixon, 재위: 1825년~1842년)이 제위를 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 라힘 바호디르, 무함마드 라힘 1세
- 다국어 표기 Muhammad Rahimxon I(우즈베크어), Muhammed Rahim(튀르키예어), Muhammad Rahim Khan I(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Usmonov Q.; M.Sodiqov; S. 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B137 | 무함마드 라힘 칸 2세

● 시기 A.D.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hammad Rahimxon II

무함마드 라힘 칸 2세(Muhammad Rahimxon II, 재위: 1875년~1919년)는 아버지 사이이드 무함마드 칸(Sayyid Muhammad Khan, 재위: 1847년~1910년)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1873년 폰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 1882년)이 이끄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고 간디미온 조약을 맺게 된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히바 칸국은 독립권을 상실하고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통치 시기는 동시에 문화 예술의 중흥기이기도 했다. 무함마드 라힘 2세는 문학가를 궁정에 모으기도 했으며 그 자신이 문학가이기도 했다. 그의 필명은 페루즈(Feruz)로 주로 시를 썼으며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시가 그의 특기였다.

페루즈의 시집 사본은 우즈베크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 소장[Sharqshunoslik instituti, O'zbekiston Respublikasi Fanlar Akademiyasi, Inv. No. 3442, 1119] 중이다. 이외에도 페루즈는 디완의 번역 작업을 했고, 페르시아와 아랍 문학의 주요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동시에 음악가로서 궁전에서 마قام을 구성하여 여러 곡을 작곡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인쇄소를 설립하고, 사진과 영화 제작을 지원했으며 조경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1871년 자신의 이름을 딴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를 비롯하여 30개 이상의 마드라사와 모스크를 건설했고, 쿤가르드 지역에는 운하를 건설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메드레힘 칸

● 다국어 표기 Muhammad Rahim Khan II of Khiva(영어), Muhammad Rahimxon II(우즈베크어), II Məhəmmədrəhim xan(아제르바이잔어), II Muhammed Rahim(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1102~1114.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2002, pp.957~1045.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B138 |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hammad Rahimxon madrasa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 입구
Source: <https://meros.uz>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Muhammad Rahimxon madrasa)는 1871년~1876년 히바 칸국의 칸 무함마드 라힘 칸 2세(Muhammad Rahimxon II, 재위: 1875년~1919년)의 명령으로 히바에 건설되었다. 도시의 중심인 쿤나 아르크(Kuhna Ark) 건너편에 위치한 이 모스크의 면적은 62.4mx49.7m, 내원 면적은 28.2mx28.8m이다.

마드라사는 내원을 둘러싼 4개의 이완과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완에는 학생들

이 기숙하는 76개의 방(hudjras)이 있었다. 일반적인 마드라사와 달리 정면 파샤드가 다시 자체 안뜰로 둘러싸여 있다. 아마도 쿤나 아르크에 가깝기 때문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이런 형식으로 설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 뒤에는 현관과 측면에 교실, 모스크의 예배소가 있으며, 현관 위에는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서쪽 파샤드는 피슈타크 형식의 문이 있으며, 두 개의 모퉁이에는 탑이 있다. 전체적으로 기하학 문양이 중심이 되는 흰 바탕에 문양을 그린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이완에는 나스탈리크 체의 글이 있다. 각 타일은 1992년에 복원되었다. 현재 이 마드라사는 히바 칸국과 무함마드 라힘 칸 기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 무함마드 라힘칸 마드라사
- 다국어 표기 Muhammad Rahimxon madrasasi(우즈베크어), Muhammed Rahim han Madrasa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함마드 라힘 1세
- 멀티미디어 링크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

<https://meros.uz/uploads/wonder/wonder//ed9dd5df0ac3036e24e5c92d8d7e5ef2.jpg>

무함마드 라힘 칸 마드라사_파샤드

<https://meros.uz/uploads/wonder/wonder//a2555a27d226ffb3c2bbef6d4c57469.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236/uzbekistan/khiva/mohammad-rakhim-khan-madrassa>

● 참고문헌(오프라인) Gangler Anette, *Bukhara: the Eastern Dome of Islam. City*: Axel Menges, 2004.
UNESCO, *Kiva: City of a Thousand Domes*, Paris: Sharq, 1997.

I B139 | 무함마드 리자 아가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역사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uhammad Riza Mirab Agahi

무함마드 리자 아가히(Muhammad Riza Mirab Agahi, 1809년~1874년)는 1809년 히바 근교의 키야트에서 대대로 수자원 관리직(mirob)을 수행했던 가문에서 탄생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윈 아가히는 역사가이자 관리였던 숙부 무니스(Munis Xorazmiy, 1778년~1829년)가 거두었고 그의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마드라사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아가히는 알리셔르 나버이이(Alisher Navoiy, 1441년~1501년)와 푸줄리(Fuzûli, 1494년~1556년)의 작품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차가타이 문학에 있어 나버이이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1829년 무니스의 사망으로 그의 뒤를 이어 수자원 관리직(mirob)을 맡게 되었고, 1839년 히바 칸 옐러쿨리 칸라쿨르 칸(Olloqulixon, 제위: 1825년~1842년)의 명령으로 숙부가 완성하지 못했던 역사서 『행복의 정원(Firdavsul-iqbol)』과 번역서 『순수한 정원(Rawzat aş-şafā')』의 집필을 이어받아서 완료한다. 1851년 건강 문제로 수자원 관리직을 그만두었으며, 그 후 남은 인생을 집필에 바쳤고, 1874년 고향인 키야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가히는 숙부의 미완성 작품을 완료한 것 이외에도 러시아가 히바 칸국을 정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관찰한 것과 공문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역사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라힘 쿨리 칸의 왕자 시절과 제위 시절(1843년~1846년)을 다룬 『크림의 역사들(Zubdat

al-tavārīkh』, 무함마드 아민 칸(Muhammad Amin Bahadur, 제위: 1846년~1855년)과 압둘라흐 칸(Abdullah, 1885년)과 쿠틀루그흐 무라드 칸(Qutlugh Muhammad Murad Bahadur, 제위: 1856년~1864년)시대를 다룬 『술탄의 사건들 모음(Jāmi' al-vāqi'āt-i sultāni)』 등이다.

그는 가잘, 카시데, 마스나베 스타일의 시를 『데번(devon)』에 모았으며, 페르시아어 작품을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 르자 아게히

● 다국어 표기 Muhammad Riza Mirab Agahi(우즈베크어), Muhammed Rızâ Ageh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İA “ÂGEHÎ, Muhammed Rızâ”, *İslam Ansiklopedisi* Cilt 1, İstanbul: TDV, 1988, p.449.

Yılmaz Salih, “Mûnis ve Agehi'nin “Firdavs-ü'l İkbâl” adlı Eserlerinde Geçen Karakalpak-Hive Hanlığı Münasebetlerine Dair Kayıtlar”, *Türk Dünyası Araştırmaları* Temuz-Ağustos 2003/145, İstanbul: 2003, pp.151~180.

I B140 | 무함마드 유수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hammad Yusuf

우즈베키스탄의 현대 작가인 무함마드 유수프(Muhammad Yusuf)는 1954년 4월 26일 안디잔(Andijon) 코분지(Qovunchi)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78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재 러시아어문학대학교(현재 국립 세계언어대학교)에서 러시아문학을 전공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도서애호가협회, 1980년부터 1986년까지 <타슈켄트의 저녁(Toshkent oqshomi)>신문사,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가푸르 굴럼(G'afur G'ulom)문학예술출판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목소리(O'zbekiston ovozi)>신문사에서 근무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낮익은 사시나무들(Tanish teraklar, 1985)』, 『나는 종달새에게 할말이 있다(Bulbulga bir gapim bor, 1987)』, 『애원(İltijo, 1988)』, 『잠든 소녀(Uyqudagi qiz, 1989)』,

『어머니 할리마의 자장가(Halima enam allalari, 1989)』, 『사랑의 배 (Ishq kemasi, 1990)』, 『내 마음속의 애인(Ko'nglimda bir yor, 1990)』, 『무심한 사람이 많기도 하다는데(Bevafo ko'p ekan, 1991)』, 『거짓말쟁이 애인 (Yolg'onchi yor, 1993)』, 『다정한 사슴(Erka kiyik, 1992)』, 『내가 있는 천상으로 데려가 줄게(Osmonimga olib ketaman, 1998)』 등이 있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품격, 청춘의 생명력, 사랑의 아름다움 등 단순하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소중한 감정과 체험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무함마드 유수프(Muhammad Yusuf)는 1989년에 시집 『잠든 소녀(Uyqudagi qiz)』로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청년 부문 상을 수상했다. 언제나 진실을 추구했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그는 사랑, 애인의 배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운명을 자신의 시에 담았다.

무함마드 유수프는 간결한 구어체 표현을 사용했고, 주로 시어의 미학적 측면과 리듬감과 따뜻한 감성을 살리는데 주력했다. 그의 시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고 노래로 만들어 대중화됐다. 예를 들어 「나의 위대한 조국이여(Ulug'imsan Vatanim)」는 우즈베키스탄의 유명 가수 세베라 나자르한(Sevara Nazarxan)이 불렀다. 우즈베키스탄의 큰 명절이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며, 현재까지도 우즈베크 국민들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던 무함마드 유수프는 2001년에 세상을 떠났다.



무함마드 유수프를 추모하는 헌화들
Source: <https://ok.ru>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 유수프
- 다국어 표기 Muhammad Yusuf(우즈베크어), Мухаммад Юсуф(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I B141 | 무함맛샤리프 소피저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hammadsharif So'fizoda



무함맛샤리프 소피저다
Source: <https://www.ziyouz.uz>

무함맛샤리프 소피저다(Muhammadsharif So'fizoda)는 우즈베키스탄의 근대 시인으로, 1869년 1월 29일 나만간(Namangan)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웃의 만주라 어틴(Manzura otin)이라는 여교사로부터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우즈베크식 초등학교를 다녔다. 만주라 어틴이 들려준 동화, 구비서사시(doston), 민요 등은 어린 소피저다로 하여금 문학세계에 눈 뜨도록 만들었다.

그는 호피즈(Hofiz), 베달(Bedil), 알리셰르 나비이(Alisher Navoiy), 무키미이(Muqimiy) 및 푸르캣(Furkat)과 같은 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혼자 습작을 시작했다. 또한, 투르키스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비롯하여 카잔과 오렌부르크, 바흐치사라이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를 관심있게 구독했고, 바쿠와 트빌리시에서 출판된 아제르바이잔어 작품을 읽었다.

소피저다는 무키미이(Muqimiy)와 푸르캣의 영향을 받아 '바흐쉬이(Vahshiy)'라는 필명으로

풍자시를 썼다. 「다카닝(Dakaning)」, 「내가 원하는 이 말을 해주세요(Ayting bu so'zimni)」, 「순수한 고통(Beg'ubor dardu olam)」과 같은 작품은 그의 해학과 감성을 담은 가잘시(g'azal)이다.

무키미이의 풍자시 때문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한 당시 통치자들은 소피저다를 박해했다. 이로 인하여 1899년 코칸트를 떠나 추스트(Chust)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결국 2년 후 아미르와 관리들로부터 '버릇없는 무신론자'라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추스트에서도 신변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는 14년간 여러 동부 유럽 국가를 유랑했다. 그러던 1900년과 1914년 사이에 소피저다의 세계관이 형성됐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진보 작가들과 만났고, 그 후 아랍, 인도, 튀르키예를 돌며 평범한 소시민의 근면한 삶에 대해 알게 됐다.

소피저다는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콩그러트(Qo'ng'irotda)에서 교사로 일하며 계몽주의 정신이 담긴 시를 창작했다. 그의 시는 바쿠와 오렌부르크에서 출판되는 신문과 잡지에 자주 실렸다. 「우즈베크 여인에게(O'zbek xonimiga)」, 「여자들의 이름에는(Xonimlar ismindan)」, 「조국(Vatan)」, 「무슬림 여성들(Muslimalar)」등은 그의 대표작들이다.

1913년 추스트로 돌아온 그는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고아와 성인들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고 교사로 일했다. 그는 쉽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속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 그가 근무한 신식학교는 세속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학문의 중심지였다. 소피저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일부 종교 그룹과 부유한 관리자들을 날카로운 풍자시로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지배층은 그를 없애려고 한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소피저다는 1915년 다시 해외로 도피한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살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주했다. 그는 당시 아프가니스탄 아미르인 하비불라 칸(Habibullah Khan)의 관심 속에 1918년에는 그의 허락을 받아 학교도 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미르 아마눌라흐 칸(Amanullah Khan)은 소피저다를 아프가니스탄 교육부에 채용했다. 1919년이 되자 그는 아프간 대표단의 통역사가 되어 타슈켄트로 돌아왔고,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일했다. 고향에서 살면서 그는 다시 풍자시 창작을 시작했다.

소피저다는 비록 적은 많아졌지만,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주먹(Mushtum)>, <페르가나(Farg'ona)>와 같은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다.

1926년 2월 27일 소피저다는 함자 하킴저다 니요지이(Hamza Hakimzoda Niyoziy)와 함께 우즈베크 문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숙청 시기’에 그는 ‘민족의 적’으로 선포되어 1937년에 총살을 당하고 만다. 유고를 묶어 간행된 소피저다의 유고시집 『곡조(Tarona)』는 1968년에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함마드샤리프 소피조다
- 다국어 표기 Muhammadsharif So'fizoda(우즈베크어), Мухаммадшариф Суфизад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무키미이, 푸르캣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tyS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muhammadsharif-so-fizoda-1880-1937>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Qosimov B., *Ibrat, Siddiqiy Ajiziy, So'fizoda- Tanlangan asarlar*, Ma'naviyat, Toshkent, 1999.

I B142 | 무합벳나메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uhabbetname

『무합벳나메(Muhabbetname)』는 마스나비(Masnavi) 형식으로 쓰여진 긴 시이다. 호라즘 투르크어로 된 이 책의 저자는 ‘하레즈미(Harezmi)’라는 필명을 썼으며, 그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필명 하레즈미를 통해 그가 호라즘 출신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무합벳나메의 모든 구절을 당신(독자)에게 바칩니다. 저는 이 모든 구절들을 강독에서 써내려갔 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그가 세이훈 강가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는 사실도 추정이 가능하다.

하레즈미는 이슬람력 754년(1352년~1353년) 완성된 원고를 마흐무드 호자 비그(Mahmud Hoca

Big)에게 헌정했다. 마흐무드 호자 비그는 알툰 오르두의 자니베크칸을 보필하는 재상이었다.

푸아트 쿠피르튀리는 하레즈미를 “이 작가는 투르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았고,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았기에 명료하고 간결한 형식으로 시를 썼다. 그는 14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평가했다.

무합벳나메는 현재 4개의 판본이 전해진다. 한 권은 위구르 문자, 나머지 세 권은 아랍 문자로 쓰였다. 영국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판본은 1432년 예즈드(Yezd)에서 아미르 켈랄레딘 피루즈 샤(Amir Celâleddin Fîrûz Şah)에게 헌정되었다고 전해진다. 아랍문자로 쓰인 판본들은 영국 대영 박물관, 이스탄불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스탄불 국립도서관(Millet Kütüphanesi)에 보존되어 있는 네 번째 판본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세 번째 판본의 복사본일 것이라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하벳나메, 무하베트나메 무하바트나마, 무하바트나메
- 다국어 표기 Махаббатнама(카자흐어), Muhabbatnoma(우즈베크어), Muhabbetna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푸아트 쿠피르튀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Ankara: Akçağ, 2016. Sertkaya, “Horazmînin Muhabbetnamesi'nin İki yeni Yazma Nühsası Üzerine”, İstanbul, 1972. pp.185~226.

Ⅰ B143 Ⅰ 무흐타르 아우에조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황영삼,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uxtor Avezov

아우에조프 무흐타르 우마르한오굴르(Мұхтар Омарханұлы Әуезов)는 1897년 9월 28일 동부 카자흐스탄 아바이 주에서 태어난 카자흐스탄 시인이자 학자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19세기 카자흐 시인 아바이(Abay) 작품들을 즐겨 읽었고, 아바이(Abay)는 젊은 아우에조프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흐타르 아우에조프 남 카자흐스탄 대학교 로고와 전경
Source: <https://auezov.edu.kz>

1922년 아우에조프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동양학부에 입학했다. 1년 후인 1923년 레닌그라드 대학교 역사 철학부로 편입한 그는 바르톨드(V.V. Bartold), 사모일로비치(A. N. Samoylovich), 시체르바(V. Shcherba), 오브노르스키(S. Obnorski), 비노그라더프(V. Vinogradov) 등 당대 유명한 교수들의 수업을 들었고, 1928년 대학을 졸업했다.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동안 아우에조프는 우즈베크 문학사, 우즈베크어, 우즈베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해 러시아 문학,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학에 대하여 공부했다. 또한 우즈베크 대표 문학가인 사드릿딘 아이니, 압둘라 커드리이와 교류하며 그들의 작품을 연구했다.

아우에조프가 저술한 소설 『아바이(Abay, 1942~1947)』와 『아바이의 길(Abay yo'li, 1952~1956)』은 19세기 카자흐인들의 고난과 갈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했기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아바이』로 1949년 소비에트 국가상, 『아바이의 길』로 1959년 레닌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전세계 116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노숙자의 날(Panohsizning kuni)』, 『납음의 그늘에서(Ескілік көлеңкесі нде)』, 『푸르름(Ko'kyol)』, 『대초원 풍경(Qir rasmlari)』, 『고아(Yetim)』, 『응시(Қараш-Қараш)』,

『검은 눈(Карагөз)』, 『어깨동무(Білікке білек)』, 『흔적들(Іздер)』, 『모래와 아스카르(Құм мен Асқар)』, 『독수리(БҮркітші)』, 『10월을 위해(Oktyabr uchun)』, 『밤의 소리(ТҮнгі сарын)』, 『아이만-셜판(Айман-Шолпан)』, 『투쟁(Kurash)』, 『타스투렉(Тастулек)』, 『사과 과수원에서(Алма бағында)』, 『국경에서(Шекарада)』 등이 있다.

그는 10월 혁명 이전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불평등한 삶과 여성의 슬픈 운명을 독특하고도 다채롭고 흥미롭게 묘사했으며, 노동자를 억압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실태와 교활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우에조프는 1961년 6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 남부 카자흐스탄 축산농가들의 삶을 그린 소설 『번영(Ravnaq)』과 1920년대 카자흐 대초원의 기근을 그린 소설 『힘든 시험(Ogir sinov)』은 아우에조프 사망 이후 출판되었다.

유네스코는 1997년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해로 정했으며, 카자흐스탄 TV는 작가의 삶과 그의 작품을 기념하는 12부작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에는 대학교, 아카데미, 드라마 극장, 알마티, 아스타나, 세미팔라틴스크의 거리 및 학교 등이 작가 이름을 따 명명됐으며, 작가 관련 박물관, 기념비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흐타르 아우에조브

● 다국어 표기 Muxtor Umarxonovich Avezov(우즈베크어), Мұхтар Омарханұлы Әуезов(카자흐어), Мухтар Омарханович Ауэз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압둘라 커드리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e5FT>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debiportal.kz/ru/authors/view/1>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Avezov M, *Abay yo'li*, Davlat badiiy adabiyot nashriyoti, Toshkent, 1957.

Seydanov Q, *Muxtor Avezov va qardosh xalqlar adabiyoti*, Fan, Toshkent, 1977.

Нуркатов А, *Мухтар Ауэзов*, Казгослитиздат, Алма - Ата, 1958.

I B144 | 무흐테십(오스만 제국)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직책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Muhtesib

무흐테십은 종교 조사관을 의미하며 오스만 제국 시기 시장에 부과하는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무흐테십은 이티삽(Ihtsab)을 구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티삽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다, 지게 한다’라는 뜻으로, 관습법 샤리아를 통한 통제를 의미한다. 사회, 종교, 경제 생활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나 처벌을 하고, 이티삽 집행자로 무흐테십이 활동했다.

이티삽의 개념은 예언자 시기 처음 등장했다. 이후 이슬람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어 체계화되었고 압바스 제국 시기 정치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무흐테십은 정치, 종교기관의 형태로 발전했고, 범죄, 악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행동을 교정했다. 무슬림들의 생활을 관리 감독했으며, 무슬림들을 금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40인의 무슬림이 모인 곳에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했다. 라마단 기간 공개적으로 금식을 어긴 사람, 술을 마시거나 금지된 약기를 연주한 사람,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날짜 이전에 재혼한 과부를 처벌하고 선도했다.

오스만 제국 시기 무흐테십은 술탄이 임명했다. 무흐테십은 학교를 조사하여 이유 없이 학생을 구타한 교사를 경고, 처벌했다. 의사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이맘들의 지도력을 살폈으며, 집을 과도하게 실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옷을 입는 사람들을 처벌했고, 숙박시설이 없는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게 했다.

오스만 제국 시기 무흐테십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건의 가격, 품질을 감독했고, 외국인에게 판매가 금지된 국가 전략자원을 관리했다. 또한 시장과 상점을 관찰하여 상인들이 윤리적, 종교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상인들이 도량형을 준수하는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감독했고, 도박을 금지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그리고 건축법을 통해 시장, 거리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스만 제국은 무흐테십 선발에 있어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자유 성인 무슬림 남성이어야 하며, 현명하고, 정의롭고, 영리하며, 박식해야 했다. 오스만 제국은 공개 채용 형태로 무흐테십을 선발했고 임기는 1년이었다. 무흐테십은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수를 선발할 수 있었다. 무흐테십은 1839년 탄지마트 시기 테멧투 세금(Temettu Vergisi) 제도로 변화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흐테십, 무흐타십
- 다국어 표기 Muhtesib(튀르키예어) muhtasib(아랍어)
- 연관 검색어 이티삽(İhtisab), 무흐타십(Muhtasib)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hisbe>
- 참고문헌(오프라인) Salih Aynural, "İhtisab and Muhtesib (İhtisap and Muhtasip)",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9, pp.264~265

I B145 | 무흐테십(이슬람 사회)

- 시기 A.D. 10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호칭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uhtesib

무흐테십은 이흐티삽(샤리아나 관습으로부터 나온 사회, 종교, 경제 생활의 통제 기제)을 시행하는 관료를 말한다. ‘이흐티삽’이라는 개념은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 처음으로 나와서 무슬림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흐티삽은 권선징악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종교적 제도였으며, 정치적 제도로써의 이흐티삽은 압바스 칼리프 제국 시대에 발전하고 성숙했다. 이흐티삽 제도를 담당하는 주요 관료들을 무흐테십이라 할 때, 이는 대략 시장감독관 정도로 번역될 수 있고 주요 도시에 다 존재했다.

무흐테십은 무슬림 자유민 성인 남성으로 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일 것이 요구되었다. 일반적으로 무흐테십은 이슬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개과천선시키는 데 책임을 갖고 있

었고 그의 의무는 매우 다양했다. 무흐테십은 무슬림 가운데 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 라마단에 단식을 공공연하게 깨는 자, 술을 마시는 자, 남편이 죽은 후 결혼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혼한 과부 등에게 경고를 주고 처벌했고, 가격과 품질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상인들의 저울과 그릇의 부피가 정확한지 확인했고, 짐승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싣거나 옷을 부적절하게 입은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했다. 또한 오스만 시대에는 전략물자를 외국인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건축 규제를 적용하고 거리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부 세금을 걷는 것도 무흐테십의 역할이었다. 오스만 시대의 무흐테십은 대개 공개 입찰을 통해 (즉, 세금 청부의 형태로) 임명되었다. 무흐테십은 다양한 직업군 출신의 조수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흐테십

● 다국어 표기 Muhtesib(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Ziya Kazıcı, “Hisbe Osmanlı Devleti,” TDV İslam Ansiklopedisiö Vol. 18 1998 pp.143~145.
Salih Aynural, “Ihtisab and Muhtesib,”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264~265.

I B146 | 목특 선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modu

목특(冒頓) 선우는 두만 선우의 아들로 기원전 209년~ 기원전174년 동안 재위했다. 흉노 제국은 기원전 2세기 초 목특 선우 대에 이르러 남쪽으로는 달란 하르 산맥 남변의 초원지대를 포함한 기련산 일대인 현재의 감숙성, 서쪽으로는 천산산맥 북쪽, 북쪽으로는 서영 산맥과 바이칼호 일대, 동쪽으로는 흥안령 산맥을 넘어 요하 일대까지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다. 이는 목특 선우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목특 선우는 흥안령까지 도망간 동호를 공격해서 흥안령 산맥에 이르렀고, 동쪽 경계가 요하

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이어 자신이 볼모로 잡혀갔던 월지도 정복했다. 그들은 당시에 현재 중국 감숙성과 청해성 일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서 지역을 통해서 천산산맥 남북으로 나누어진 무역로를 확보해서 세금을 걷었다. 한편 사기(史記)에는 목특 선우가 북방으로 혼유(渾庾), 굴역(屈射), 정령(丁零), 격곤(鬲昆), 신려(薪黎) 등의 나라를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몽골의 북쪽인 바이칼호를 비롯한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하카스 공화국, 투바공화국, 부리야트 공화국이 그들의 영토였고, 목특 선우 대에 북쪽으로는 바이칼호까지 확장되었다. 목특 선우는 한나라 1대 황제인 유방(劉邦)과 중국 산서성 대동평성 일대에서 전투를 벌여, 유방을 백당산(白登山)에서 일주일간 포위하기도 했다. 이후에 기원전 198년, 화친조약을 맺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목특 선우
- 다국어 표기 модэ(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두만 선우, 흉노, 톈산산맥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에릭센, 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B147 | 물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자연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Water Cult

물신앙은 이슬람화 이전 투르크 문화권에서 천신신앙과 함께 투르크인들의 중요한 신앙이었다. 물신앙은 투르크 민족 중에서도 야쿠트족과 알타이족의 창세신화에 분명히 나타난다. 투르크인들의 물신앙은 수모신(악아나, Ak ana), 예르수(yer-sub)신앙, 하천신앙, 약수신앙 등이다. 투르크 신화학자 바하엠티 외겔의 저서 『신화학』(Ögel, 1993)에는 베르비트스키(Verbitsky)와 라들로프(Radlov)가 수집한 투르크 창세 신화가 소개되어 있다. 베르비트스키가 채록한 알타이족의 창세 신화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태초에 이 세상에 ‘존재’라 칭할 그 무

엇도 없을 때, 신 카이라 한(Kayra Han)과 성스럽고 끝이 없는 바다만이 유일하게 있었다. 신 카이라 한은 세상의 유일한 존재였으며, 물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요, 세상에 보이는 유일한 것이었다.

라들로프가 채록한 야쿠트 투르크족의 창세 신화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이 세상에는 물(바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직 세상에는 땅, 달, 하늘, 태양 그 무엇도 없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투르크 창세 신화에서는 태초 세상에는 신과 물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신은 물속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 냈으며, 그후 만물이 생성되었다. 신화에서 물은 창조의 원천(혹은 원수原水)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태고의 세상에 창조의 신 이외에 물속에 빛과 생명의 여신(악 아나)이 존재했으며, 그녀의 조언에 따라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 투르크인들이 생산(잉태, 출생) 기능을 신성시했으며, 이러한 인식이 물에 반영되어 상징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물은 전통적으로 생명의 창조, 잉태, 보호를 상징했다.

에르 소고토흐(Er-Sogotoh) 신화는 야쿠트족의 민족파생 신화이다. 러시아 탐험가 알렉산더 폰 미덴도르프(A.A. Th. V. Middendorf)에 의해 기록된 에르 소고토흐 신화에는 물은 늪은 동물에게 다시 힘을 주고 젊게 만들어 주거나, 전쟁에서 죽은 영웅을 되살릴 수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투르크인들은 물에 젊음, 재생,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신성시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물신앙의 대상으로는 바다, 강, 시내, 호수, 폭포 등이 있다.

오구즈 투르크족은 물에 침을 뱉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했다. 투르크인들은 전통적으로 강을 신성시했으며, 강에는 수호령(수 이에씨, Su İyesi)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었다. 투르크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강으로는 위구르족의 오르혼강과 셀렝강, 칭기즈 칸과 관계 있는 오논강과 케룰렌강, 킵차크 투르크의 이르티시강, 시베리아 투르크와 야쿠트의 레나강과 예니세이강 등이 있다. 흉노, 돌궐, 오구즈 투르크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산(나무), 동굴, 강 등에 제의를 드렸는데 산은 천신, 동굴은 조상신, 강은 예르-수신이 좌정한 곳으로 여겨 그 곳에 제단을 마련하고 제의를 드렸다.

이슬람화 이후에도 물신앙을 바탕으로 투르크 민속에서는 여러 형태의 제의가 지속됐다. 튀르키예 동부 지역 디브리이(Divriği)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샘이나 폭포에서 치성

을 드렸다. 약수를 마시거나 온천욕도 물신앙과 관련이 있다. 투르크인들은 물이 병마, 나쁜 기운, 더러운 것들을 씻어 흘려 보내는 순환과 재생의 힘이 있다고 믿었다. 출생의례에서는 아이의 태를 씻기 위해 장미 꽃잎, 동전 등을 깨끗한 물에 넣어 아이를 축복하고 무사 안녕을 바라는 의례를 했다. 할례식에서는 다산을 의미하는 건포도 알을 솜에 싸서 강물에 흘려 보내기도 했다. 또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양동이 물을 모두 흘려보냈다. 결혼의례에서도 물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풍습이 나타난다.

바쉬쿠르트인들은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마을 할머니들과 소녀들이 신부를 물가로 데리고 가는 데, 이를 ‘신부 인사 시키기’라고 한다. 마을 어르신(할머니)은 신부를 수신(水神)에게 인사 시킨 후에 신부의 치장품 중 은제품을 하나 떼어 물속에 던진다. 튀르키예 시골에서도 새 신부를 강, 시내, 샘, 폭포 등의 물가로 데려가거나 결혼 전 신부와 가족들이 목욕탕에 함께 가서 정화의례를 하기도 한다.

투르크인들은 물에 풍요와 생산을 돕는 힘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물과 관련한 여러 풍습이 있다. 일례로 네부르즈(나브루즈) 명절에는 시냇물 뛰어넘기, 가족과 함께 새 물을 나눠 마시기, 가족들에게도 새 물 마시게 하기,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 강이나 시냇물에 띄워 보내기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 쿨튀

● 다국어 표기 Su kültür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르 소고토흐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at Fuzuli, Türk Mitolojik Sistemi (Ontolojik ve Epistemolojik Bağlamda Türk Mitolojisi I), İstanbul 2007, ÖtükenYayıncılık.

Kafesoğlu İbrahim, Türk Bozkır Kültürü, Ankara 1987,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Kalafat Yaşar, Doğu Anadolu'da Eski Türk İnançlarının İzleri, Ankara 1990,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Ankara 2010, Türk Tarih Kurumu Yayınları.

Pala İskender, “Su”, İslam Ansiklopedisi, c. XXXVII, İstanbul 2009, Türkiye Diyanet Vakfı Yayınları.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İstanbul 2001, Kabcacı Yayınevi.

I B148 | 뤼사데레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재산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üsadere

아랍어에서 ‘뤼사데레’의 사전적 의미는 ‘강제로 요구하다’ 혹은 ‘빼앗아가다’ 정도의 의미이고, 정부에 의해서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일정기간 점유하는 형태로 어떤 재산을 개인으로부터 가져가는 것이며, 특히 고위 관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소득 혹은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 정부가 몰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관료나 민간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동의어로 ‘mütalebe’, ‘münazara’, ‘mürafaa’ 및 ‘mükaseme’ 등이 있다.

우마이야 시대에는 뤼사데레의 적용이 위협과 복수의 수단으로 쓰였고 일부 사람들은 가족에게서 받은 유산까지 뤼사데레로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압바스 시대에는 국가 재산을 횡령한 자들은 마잘림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몰수당했다. 압바스 왕조 이후에도 군소 지방 왕조들에서도 뤼사데레가 행해졌다. 뤼사데레 관행은 이슬람법에서 노예의 주인만이 노예의 유산을 유일하게 상속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유래했다.

오스만 시대에도 뤼사데레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초창기부터 15세기 중엽까지는 뤼사데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아마도 오스만 정부의 장악력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으므로 뤼사데레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에지드 1세 사후 내전기인 1411년~1413년 사이 에디르네에 기반을 둔 무사 왕자가 재산을 많이 몰수당해서 지지기반이 약화된 것을 보아도, 뤼사데레에 대한 저항이 오스만 시대 초기에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뤼사데레의 본격적인 시작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직후 대재상 찬다를르 할릴을 처형하고 그의 재산을 대거 몰수한 일이었다. 그의 후손에게는 아주 적은 유산만 남겨졌고 그의 측근이었던 야쿱 파샤와 메흐메드 파샤도 파직되고 재산이 몰수된 후 유배되었다.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뤼사데레는 올레마 이외의 관료 중 일정 정도 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관행이 되어버렸다. 당시의 통치 관념에 의하면 국가의 관료들에게 쓰도록 주어지는 재산, 돈, 기타 물질은 개인이 아닌 직위에 귀속되는 것이었고, 얼

마나 오래 관직에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관료가 사망하면 그에게 속한 재산은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이는 고위 관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예컨대 페체위 이브라힘의 연대기에는 아흐메드 1세 시대의 고관 랄라 메흐메드 파샤가 엄청난 재산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환수될 것을 두려워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는 일화에서도 드러난다.

뮌사데레 시행이 결정되면 해당 관료 소유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실시 되고 필요하면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투옥과 고문도 동원되었다. 종국에는 발견된 현금과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재산을 빼앗긴 관료의 후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재산은 남겨주었다. 몰수당하는 재산 가운데에는 책도 있었고 간혹 도서관에 대한 뮌사데레 사례도 있었다.

17세기 오스만 국가가 행정,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재정예 보탬이 되도록 뮌사데레는 더욱 많이 시행되었다. 원래 군사 부문의 관료들에게 주로 적용되던 뮌사데레는 점차 율레마 관료들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맨 처음으로 술탄 이브라힘 시대에 카자스케르 직에까지 올라갔던, ‘진지 호자’로 잘 알려진 사프란볼루루 휘세인 에펜디에게 적용되었고, 제2차 빈 포위 이후의 긴 전쟁기간에도 뮌사데레가 많이 실행됐다. 무스타파 2세 당시 권력자 셰이훅이슬람 페이줄라 에펜디도 유명한 사례였다. 1730년 군인들에게 주어진 마흐무드 1세의 즉위 축하 보너스(cülus bahşişi)는 바로 그 전에 정변으로 처형된 대재상 다마드 이브라힘의 몰수된 재산으로 충당되었다. 이처럼 중앙에서 뮌사데레가 많이 적용되자 지방에서는 고위직 지방관들이 지방 부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도 많아졌고, 18세기 말에는 일반인들도 뮌사데레의 대상이 됐다. 마흐무드 2세는 19세기 초 지방토호 세력이었던 아이안들을 제어하고 숙청하는 데 뮌사데레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원래 샴리아에 따르면 뮌사데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와크프(Vakıf)까지 뮌사데레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뮌사데레는 18세기 초부터 관료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셀림 3세와 마흐무드 2세는 뮌사데레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혁하지는 못했다. 재정관료였던 사르 메흐메드 파샤, 역사가였던 나이마와 아흐메드 제브데트 파샤들은 죄 없는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추악하고 이슬람 율법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한편 무스타파 누리 파샤 등은 단시간 안에 관료로서 재산이 불어났던 뮌사데레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은 외교관 중 사득 리파트 파샤와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도 뮌사데레에 반대했고, 뮌사데레 폐지라는 구상을 갖게 되었다. 결국 1838년 3월, ‘Meclis-i Vala-yı Ahkam-ı Adliye’는 뮌사데레의 폐지를

결정했고, 1839년 탄지마트 칙령으로 ‘법정 판결 없이는 누구의 재산도 몰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인정되어 몐사데레 제도는 폐지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몐사데레

● 다국어 표기 Al-Musādara(아랍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uncay Ögün, “Müsader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2, 2006, pp.67~68.

Fatma Müge Göçek, “Musadara,”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7 1993, pp.653~654.

I B149 | 몐슬뤼만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개념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Müslüman



미흐람 앞에서 기도 중인 몐슬뤼만

몐슬뤼만의 어원은 아랍어 ‘몐슬림 (Muslim مسلم)’이다. 몐슬림은 이슬람교 신자를 뜻한다. 아랍어 몐슬림이 페르시아어에서 ‘몐슬만(مسلمان)’으로 표기되었고, 페르시아어 형태가 오늘날 튀르키예어의 ‘몐슬뤼만’으로 정착했다. 아랍어에서 몐슬림은 ‘이슬람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슬람은 아랍어 4형 동사 ‘아슬라마(aslama)’에서

파생한 동명사로, ‘복종함’, ‘순종함’을 뜻한다. 몐슬림은 능동 분사로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복수는 ‘몐슬리문(Muslimün)’이다. 페르시아어에서는 몐슬림의 복수를 몐슬림에 복수형 어미 ‘안(ān)’을 붙여 ‘몐살만(مسلمان, Musalmān)’으로 표기한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는 이슬람이나 몐슬림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명사를 나타낸

다. 즉, 유일신 신앙을 이슬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코란에는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모두 42번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사악, 야곱, 모세, 예수 등 성서 속 인물을 모두 무슬림, 즉 유일신론자로 간주한다. 코란 용법에서 볼 수 있듯,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이슬람은 오늘날 우리가 종교로서 알고 있는 이슬람교의 좁은 틀을 초월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포괄하는 유일신 종교로 본 것으로 추측된다. 도너(Fred M. Donner)는 이슬람이 무슬림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을 포괄한 ‘무오민(믿는 자)’을 더 많이 썼다고 주장한다. 중국 원나라 시대 사료에서 무슬림을 ‘무수만(木速蠻, Musuman)’ 내지 ‘무술루만(木速魯蠻, Musuluman)’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면, 중국 이슬람도 페르시아어 영향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워실만, 워실리만

● 다국어 표기 Müslüm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슬림, 이슬람

● 참고문헌(오프라인) Arkoun Mohammed, “Islam.”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vol. 2, 565~570.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2.

Donner Fred M., *Muhammad and the Believers: At the Origins of Islam*. Cambridge, MA, and London: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Kassis Hanna E., *A Concordance of the Qur’an*.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Steingass Francis J., *A Comprehensive Persian-English Dictionary*. Beirut: Librairie du Liban, 1975.

Wensinck Arent J., “Muslim.”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7, 688. Leiden: Brill, 1993.

I B150 | 위슬림 마고마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Muslim Magomayev

위슬림 마고마예브(Müslüm Maqomayev)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오페라 및 팝가수이며



뮈슬림 마고마예브 탄생 80주년 기념 포스터
Source: <https://azertag.az>

작곡가이다. 1942년 8월 17일,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비에트 공훈예술가(1973년)이며,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명예훈장(1997년)과 독립훈장(2002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명예훈장(2002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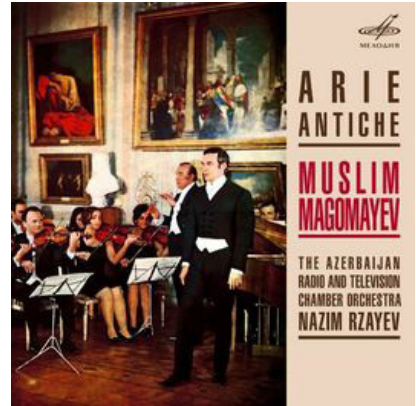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전 세계에 알려졌던 그는 이탈리아의

도시 밀라노 스칼라(La Scala) 극장에서 인턴을 했으며, 체날로 바르로(Çenarro Barro), 에너리코 파트사(Enriko Pyatsa) 같은 거장에게서 사사(師事)받았다. 1960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국립 오페라 및 발레극장 가수로 활동했으며, 1966년에 파리의 ‘올림피아’(Olimpiya) 홀에서 첫 콘서트를 열었다. 1968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음악대학교를 졸업했고, 1969년에는 소포트(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 음악축제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립 교향악단(Azerbaijan State Symphony Orchestra; Azərbaycan Dövlət Estrada Simfonik Orkestri)장을 역임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프랑스, 불가리아, 폴란드, 캐나다, 핀란드,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1970년대부터는 대중음악으로도 활동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특히 소비에트의 여러 도시에서 공연했는데, 그가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 때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레코드도 대량으로 발매됐다. 그는 오페라와 팝송을 같은 수준으로 연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수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위제이르 하즈베일리의 로맨스인 「너 없이(Sənsiz)」, 「사랑하는 애인(Sevgili canan)」을 불렀고, 위대한 음악가이자 지휘자였던 그의 할아버지 뮈슬림 마고마예브(M. Maqomayev)가 만든 「샤흐 이스마일」 오페라에서 아리아를 불렀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30개 이상의 영화에 배우로 출연했고, 작곡가, 가수로도 활동했다. 평론가들은 그를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 중 하나인 오르페우스와 비교하기도 한다.

그의 레퍼토리는 매우 다양했다. 대중가요 외에도 세계적 히트곡과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불렀다. 작곡도 했는데, 내비 해즈린(N.Xəzrin)의 시(詩)에 곡을 붙인 「아제르바이잔」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은 「안녕 바쿠(Əlvida baki)」이다. 대표적인 영화음악으로는 「니자미(Nizami, 1982)」, 「미완의 노(Yarımçıq qalmış mahnı, 1979)」, 「곡(哭)을 부르는 땅(Nəğməkar torpaq, 1981)」, 「무슬림 마고마예브는 부른다(Oxuyur Müslüm Maqomayev, 1971)」, 「심장의 노래(Ürək nəğməsi, 1989)」, 「또 만나요, 무슬림!(Yeni görüşlərədək, Müslüm!, 1963)」 등이 있다. 그가 작곡한 음악으로는 「이고르 폴르쿠 서사시(iqor polku haqqında dastan)」를 주제로 다룬 「야로슬라브나(Yaroslavna)」가 있다. 그는 2008년 10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무슬림 마고마예브 Arie Antiche 앨범 표지
Source: <https://zrr.kr/LYL3>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무슬림 마고마예프
- 다국어 표기 Муслим Магомаев(러시아어), Muslim Magomayef(튀르키예어), Muslim Magomayev(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Əsl ulduz, Müslüm Maqomayev”, Pəncərə jurnalı, 2009, № 21, səh. 40~45.

I B151 | 뮈에즈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직위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Müezzin

‘뮈에즈진’은 아랍어 ‘무앗딘(Muadhhdhin)’의 튀르키예어다. 하루에 다섯 번 예배 시간을 알리는 예잔(아랍어로 아잔)을 낭송하는 사람이 뮈에즈진이다. 1923년 오스만 제국을 폐하고 공화국이 된 튀르키예에서는 세속주의를 택하면서 국가가 종교를 철저히 관리했다. 그런데 정교

분리 정책이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국가에 의한 이슬람교 통제나 억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뤼에즈진은 이맘과 함께 행정부의 종교부 소속 공무원이 되었다. 이슬람 역사상 최초의 뤼에즈진은 흑인노예였다가 개종했고, 신앙을 이유로 주인이 가혹하게 대하자 동료 개종자 아부 바크르가 그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었다는 빌랄(Bilal)로 전해진다.

예잔을 사용한 것은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한 해이거나 그 다음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히즈라력 1년 또는 2년). 뤼에즈진은 모스크에서 가장 높은 곳인 미너렛(첨탑)에 올라 육성으로 예잔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마이크를 사용하며, 예잔은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예잔은 원래 아랍어로 하지만, 튀르키예에서는 1932년부터 1950년까지 아랍어 대신 튀르키예어로 예잔을 해야만 했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모든 국가에서 뤼에즈진은 예잔을 소속 국가의 언어와 무관하게 모두 아랍어로 한다. 뤼에즈진의 예잔 낭송은 이슬람교 신앙의 예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뤼엣진

● 다국어 표기 Müezzin(튀르키예어), Muadhdhin(아랍어), Müezzin(튀르키예어), Muazzin(우즈베크어), Müezzin(아제르바이잔어), Азаншы(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намаз, 예잔, 카메트

● 멀티미디어 링크 다큐멘터리 뤼엣진

<https://www.youtube.com/watch?v=KEWAH2T1LOk>

● 참고문헌(오프라인) Azak Umüt, “Secularism in Turkey as a Nationalist Search for Vernacular Islam: The Ban on the Call to Prayer in Arabic (1932–1950).”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124, Novembre 2008, pp.61~179.

Juynbol Th W., “Adhān.” In *Encyclopaedia of the Qur’ān*, 187~188. Vol. 1.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1986.

Özdemir A. and Kenneth Frank, *Visible Islam in Modern Turke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I B152 | 뮈헨디스하네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교육기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ühendishane

뮈헨디스하네(mühendishane)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오스만 제국의 군사공학 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1775년 ‘헨데세하네(수학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했으나, 1781년 ‘뮈헨디스하네(공학학교)’로 변경했다. 외국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이 이 당시 오스만군에 자문 역할을 했는데 그중 드 토트 남작(Baron de Tott, 1733년~1793년)이 포병기술을 가르치



튀르키예군 유니폼

는 기관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여, 1772년 ‘포병학교(Topçu Mektebi)’와 1774년 ‘속사포병군단(Sürat Topçu Ocağı)’를 창립했다. 이어서 헨데세하네(수학학교)는 1775년 4월 해군 제독 하산 파샤의 청원으로 드 토트 남작의 감독 하에 개교하여 오스만 제국 최초로 수학과 군사공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되었다. 처음에는 프랑스인과 스코틀랜드 출신 개종자가 교관이 되어 10명씩의 반으로 나누어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1775년에는 오스만 해군의 장교였던 알제리 출신의 세이드 하산 역시 교관이 되었다. 헨데세하네는 당시 유럽의 새로운 과학을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왕립 선박 제조창(Tersane-i Amire)’에 위치했다. 뮈헨디스하네에서는 항해기술과 함께 지뢰병과 수류탄병을 위한 군사공학도 같이 교육했고, 프랑스와 동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프랑스인 엔지니어들이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8세기 말까지 수학, 천문학, 공학, 전쟁 및 항해기술에 대한 교과서들은 프랑스에서 도입했다.

술탄 셀림(재위: 1789년~1807년) 시대에는 1793년 ‘뮈헨디스하네 이 제디데(혹은 ‘뮈헨디스하네 이 술타니’라고도 부름)’라는 새로운 공학 학교가 이스탄불의 병영 근처에 생겼고, 1794년

교육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스탄불 금각만 하스키이에 1797년 지뢰병과 포병을 위한 학교가 개교했다. 한편 왕립 선박제조창에 설립된 학교는 선박 건조와 항해 두 전공으로 나누어 교육을 계속했다. 1806년에는 이 학교들이 기존의 포병대와 선박제조창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근대적 공학교육을 시작했다. 학교들은 ‘뮈헨디스하네 이 베르 이 휘마윤(Mühendishane-i Berr-i Hümayun 왕립 군사공학 학교)’과 ‘뮈헨디스하네 바흐르 이 휘마윤(왕립 항해공학 학교)’으로 각각 명명되었다. 그 후 ‘바흐리예 맥테비(1828년, 해양학교)’와 ‘멕텡 이 하르비에(1834년, 사관학교)’의 설립으로 군 장교 교육 수요가 채워지게 되었고, 이전의 공학학교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1881년 뮈헨디스하네 이 바흐리 이 휘마윤은 ‘톱추 맥테비(포병 학교)’에 편입되었고, 이후 사관학교에 병합되었다.

● 다국어 표기 Mühendishan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술탄 셀림

● 참고문헌(오프라인) Sevtap Kadioğlu, “mühendishane,”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95~396.

Kemal Beydilli, “mühendishan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1, 2020, pp.513~514.

I B153 | 뮈이유쥬우 에네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yuyuzdyuu ene

뮈이유쥬우 에네는 ‘뮈이유쥬우 바이비체(Мюйүздюу байбиче)’라고도 불리며, 키르기스 신화에 나오는 부구(бугу, ‘사슴’이란 의미) 부족의 조상이다. 뮈이유쥬우 에네는 키르기스어로 ‘뿔 달린 어머니’, 또는 ‘뿔 달린 할머니’라는 뜻이다. 신화에 따르면, 산에 사는 두 사냥꾼이 사슴 떼 가운데서 사슴 뿔이 달린 소녀와 소년 두 아이를 발견했다. 이 소녀가 바로 뮈이유쥬우 에네이다. 사냥꾼들의 자손을 저주했기에 사냥꾼들은 소년은 죽이고, 부족의 지도자가 소녀만 살

려준 후 자기 손자와 뮤이유쥬우 에네를 혼인시켰다.

사냥꾼들이 산에서 사슴을 죽이려 했지만,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그 사슴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지했고, 사냥꾼들은 사슴을 살려주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뮤이유쥬우 에네 사냥꾼들의 동생과 결혼시켰다는 설도 있다. 뮤이유쥬우 에네의 아들에게서 부구 부족의 시조가 출생한다.

어떤 신화에서는 뮤이유쥬우 에네가 야생 반추 동물의 수호신인 카이이프의 딸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그녀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현명함으로 칭송 받는다. 그녀가 머리를 감은 물을 마신 하녀가 아들을 낳았고, 뮤이유쥬우 에네가 그의 후손을 축복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머리를 감는 모습을 남편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금기를 깨고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러자 곧바로 뮤이유쥬우 에네는 죽어버렸고, 그날 밤 그녀의 시신은 사라졌다고 한다. 사냥꾼들은 산에서 어쩌다 그 시신과 마주쳤다고 전한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뮤이유쥬우 에네가 남편에게 유르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이 몰래 밖을 내다보자, 암사슴 한 마리가 있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유르트가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뮤이유쥬우 에네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유르트에는 사내아가 누워있는 요람이 생겼다고 한다.

출칸 발리하노프는 뮤이유쥬우 에네가 이식쿨 호수의 수호신이라고 주장한다. 키르키스인들은 호수에서 희생제를 지낼 때, 샤먼이 뮤이유쥬우 에네를 소환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뮤유쥬우 에네, 뮤이유쥬우 이네

● **다국어 표기** Мюйюздью эн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алиханов Ч.Ч. Записки о киргизах, Собрю соч., т.1, 1961, 3396 5856 586.

Токарев С.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1991, p.192.

I B154 | 므르자쿱 뉘라톨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Mirzhakyp Dulatuli



므르자쿱 뉘라톨르 탄생 130주년 기념 홍보물
Source: <https://adebiportal.kz>

카자흐 민족시인 므르자쿱 뉘라톨르는 1885년 당시 제정 러시아의 지배령이던 카자흐스탄 북부 행정구역인 투르가이주(지금의 코스타나이주) 사리코파 마을에서 태어나 1935년 러시아 북부 솔로베츠키 섬에 위치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여윈 뉘라톨르는 마을에 있는 카자흐식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러시아가 세웠던 키르기스(카자흐)-러시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시골학교의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04년에 당대 유명한 카자흐 지식인인 아흐멧 바이투르수노프와 알리한 부케하노프와

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이 두 명의 지식인은 카자흐 민족주의자였으며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뉘라톨르도 카자흐인들의 역사와 민족주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뉘라톨르는 대표작은 1909년에 발표된 카자흐 민족주의를 자극한 시집 『카자흐여 깨어나라(Qyan Qazaq! - Wake up! Kazakh)』이다. 그는 1910년에는 억압받던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 『불행한 자말(Baqitsiz Jamal - Jamal the Unfortunate)』도 발표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카자흐스탄에도 대혼란이 펼쳐졌다. 이 와중에 생겨난 카자흐 민족주의 정부인 알라쉬 오르다 정부가 수립됐고 뉘라톨르는 이에 가담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정치 탄압을 받았다. 1928년 소련 시대 뉘라톨르는 내무인민위원회부에 체포되어 러시아 북부 솔로베츠크 수용소에 감금되어 1935년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민족주의자였다는 명목이었다. 1989년에 뉘라톨르는 사면, 복권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자킵 둘라툴르
- 다국어 표기 Міржақып Дулатұлы(카자흐어), Миржакип Дулатул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문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aH5L>
<https://www.youtube.com/watch?v=GmNb6aKglk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kraeved-kst.kz/ru/gordost/o-regione/gordost-zemli-kostanaiskoi/mirzhakip-dulatov-1885-1935.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Алматы, 2005.

I B155 | 문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축제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Mnkun

문쿤은 춘분 이후 수요일부터 시작해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고대 추바시 세시풍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이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맥주를 만들고, 오븐을 닦고 집과 거리, 마당을 청소한다. 문쿤 전날 저녁에는 사우나에 불을 지피고, 동쪽 언덕에 젊은이들이 모여 장작을 태우며 시간을 보낸다. 아침에는 새로 장만한 축제 의상을 입는다. 소년들은 동쪽 끝으로 가서 해맞이를 하고, 여인들은 명절 식사를 차린다. 어떤 지역에서는 명절 식탁을 위해 구운 거위를 준비한다. 아이들은 친지를 방문하고 집에 처음 온 아이들에게는 베개를 얹어주는데, 첫 손님은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번식을 의미한다. 손님들에게는 계란과 군것질거리, 견과류, 빵을 대접한다. 정오 무렵 친지들이 집안 어르신 댁에 모여 함께 식사한다.

주인은 조상들을 추모하면서 지난해에 대해 감사하고 새해 행운을 기원한다. 이때 한 사람을 베개 위에 앉히고(그를 ‘옛 날가리’라고 불렀는데 풍년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운 거위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들은 낮에는 거리에서 놀다가 특별하게 장식된 큰 그네를 탄다. 밤이 되면 젊은이들은 산책에 나서는데 이른 봄에는 율무를 추기도 한다. 기독교를 수용하

면서 추바시인들은 정교회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었고 민속신앙인 문쿤 행사는 부활절로 대체 되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문쿤
- 다국어 표기 Мукун(러시아어), Мӑнкун(추바시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 추바시인
- 참고문헌(온라인) <http://enc.cap.ru/?t=publ&lnk=968>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П. Иванов, А.Д. Коростелев, Е.А. Ягафова “Чуваши”, М.:Наука, 2017, 320.

I B156 | 미나이 도기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도자기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Minai Ware

미나이 도기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제작되었던 도자기로 현재는 생산되지 않는다. 중세 시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아랍과 튀르키예, 이란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도자기로 꼽혔다. ‘미나이’라는 의미는 페르시아어로 ‘에나멜로 처리했다’는 의미이다. 컵, 접시, 사발 등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도기로 제작되었다.

미나이 도기는 페르시아 지역을 셀주크 조가 장악했을 때 제작되기 시작했다. 셀주크 조는 투르크 계열의 왕조이다. 이후 페르시아 지역은 셀주크 조의 가신이었던 호라즈미안 조(Khwarazmian Dynasty)가 통치했고, 1150년부터 1219년 몽골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도자기 기술이 진일보했다. 특히, 도자기를 마무리할 때 바르는 유약 기술이 발전하여 반투명한 유약의 생산이 가능했다. 또한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많이 제작되었던 금빛 도기 및 러스트웨어(Lusterware) 타일과 마찬가지로 금빛을 표현하거나 광택이 도는 도기 생산이 가능했다. 러스트웨어는 황동이나 청동에 상감기법을 활용하여 금이 아님에도 금빛에 가까운 색감을 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널리 사용됐고, 특히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다. 다만 러스트



미나이 도기, 12세기말~13세기초
이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Source: <https://zrr.kr/fjmK>

웨어의 경우 미나이 도기와 달리 회화를 그려 넣기 어렵기 때문에 기하학적 패턴을 주로 장식했다. 제작 비용 자체가 미나이 도기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미나이 도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에는 미나이 도기가 좀 더 널리 사용되었다.

1100년대 셀주크 조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도자기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미나이 도기는 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제작 방법이 퍼지게 되었고 다양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미나이 도기의 본체는 백자 색을 띠고 있다. 유약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동일 시기

중국 도자기의 백자보다는 다소 색이 탁하다. 백자 위에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색을 활용해 채색했다. 초기 미나이 도기는 카산(Kashan)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몽골 침략 이후 건립된 일 칸국에서는 그림보다는 패턴을 활용한 미나이 도기가 제작되었다. 특히 푸른색과 금색을 많이 활용했다.

미나이 도기에 그려진 그림의 주제는 다양하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역사의 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고,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해 디자인하기도 했다. 회화 주제의 대부분은 페르시아 기원의 전설과 설화, 벽화 등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에 따라 미나이 도기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페르시아 고대 문화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나이 토기

● 다국어 표기 مینایی (페르시아어), Minai Ware(영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조

● 참고문헌(오프라인) Caiger-Smith Alan, *Lustre Pottery: Technique, Tradition and Innovation in Islam and the Western World* (Faber and Faber, 1985).

Canby Sheila R. and others, *Court and Cosmos: The Great Age of the Seljuqs*,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16.

Michelsen Leslee Katrina and Olafsdotter, Johanna, "Telling Tales: Investigating a Minā'ī Bowl", chapter 4 in *Envisioning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Essays in Honor of Renata Holod*, ed. David J. Roxburgh, BRIL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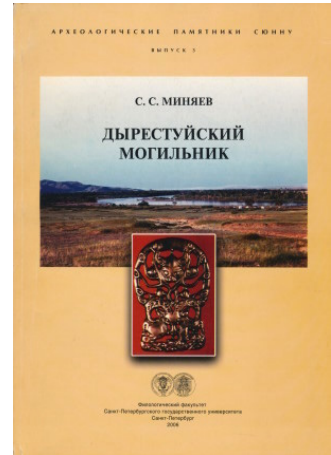
Richard Ettinghausen, Oleg Grabar and Marilyn Jenkins-Madina,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650-1250*, Yale University Press, 2001.

I B157 | 미냐예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Minyaev S.S.

미냐예프(Minyaev S.S.)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형문화역사 연구소 소속으로 역사학 박사(흉노의 청동유물의 형식분류, 제작과 분포범위)이다. 그는 1948년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대표적인 러시아인 흉노 고고학자이다. 그의 학문적 성과는 주로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무덤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했다. 그는 듀렌 1, 듀렌 2, 이불가 성지, 데레스투이 및 자바이칼 지역에서 가장 큰 흉노의 귀족 무덤으로 생각되는 차람을 조사해서 대략 70여 편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그의 성과는 흉노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고고학 자료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는 차람 유적에서 출토된 수레바퀴에 대한 한나라 마차도 직접 설명했다. 그의 연구성과는 중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에 각국의 언어로 소개되었다.



『데레스투이 발굴 보고서』 표지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냐예브
- 다국어 표기 Миняев Сергей Степанович(러시아어), Minyaev S.S.(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xiongnu.atspace.com/>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няев С. С.,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бронза сюнну. Новые открытия в России. СПб. (в соавт. с А.В. Давыдовой), 2008.
 Миняев С. С., Дыресту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1-е издание. СПб. 1998. 2-е издание. СПб, 2007.
 Миняев С. С., К проблеме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юнну // Инф. бюл. МАИКЦА. 9. М. 1985. С. 70~78.
 Миняев С. С., Ханьское зеркало из могильника Царам // Зап. ИИМК РАН. 1. СПб, 2006.

I B158 | 미너렛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구조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naret



미너렛(튀르키예, Tarsus)

미너렛(Minaret)은 모스크에서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알리는 외침인 아잔을 읽는 무아딘이 올라설 수 있는 첨탑 형태의 건축 구조물을 이르는 말의 영어 표기이다. ‘빛 또는 불이 빛나는/보이는 장소’라는 뜻의 아랍어 메나레(menâre)에서 기원한 단어이다. 미너렛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봉화탑, 시리아의 망루와 종루, 지중해 지역의 등대, 또는 인도의 승리 기념탑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는 아잔을 읽기 위해 로프로 매달려 올라간 원통형의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미너렛의 초기 형태로 생각되는 이 장소 외에는 예배 장소 근처의 높은 곳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에 처음 미너렛을 추가한 사람은 우마이야조 칼리프 무아위야 1세(Muawiyah I, 재위: 661년~680년)의 이집트 총독 마슬라마(Maslama ibn Mukhallad al-Ansari, 616년 또는 620년~682년)이다. 마슬라마는 푸스타트의 아므르 이븐 알 아스(Mosque of Amr ibn al-As)를 재건하며 미너렛을 건설했다.

건설에 있어 특별한 원칙이 없던 미너렛은 각 지역의 건설 재료와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미너렛은 바닥을 지지하는 받침대, 받침대와 몸통 사이의 부분, 몸통, 발코니, 지붕 받침, 지붕, 초승달 장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너렛은 모스크 이외에도 마드라사나 영묘 등에서 건설되기도 한다. 미너렛은 모스크 건물에 붙어 있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서 건설되기도 한다.

투르크계 용병이 살았던 압바스 조 사마라 지역에서는 바빌론 탑 형태의 미너렛이 건설되기도 했으며 이는 이븐 툴룬 조의 이집트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투르크계 국가였던 카라한 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벽돌로 만들었으며 이 형태는 위구르인의 불교 사원 탑(파고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즈나 조의 경우 다각형의 홈이 있는 형태의 미너렛이 건설되었으며 이곳에서도 벽돌이 주로 이용되었다.

대 셀주크 조의 경우 둥근 원통형의 몸통을 가진 미너렛이 주로 건설되었으며 타일로 장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모스크의 경우 시리아와 중앙아시아 투르크의 영향으로 원통형에 벽돌로 미너렛을 건설했으며 다색의 유약을 발라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마드라사 정문 양면에 미너렛을 건설하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스만 제국 초기에는 벽돌 미너렛에서 석재 미너렛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으며 몸통과 발코니를 이어주는 받침을 무카르나스로 장식하기 시작했다. 장식으로는 다색 유약 벽돌과 타일이 쓰였다. 미마르 시난 시대 이후로는 더 섬세한 형태로 변화한다. 서구의 영향이 커진 18세기에는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영향을 받은 미너렛은 크기와 형태 면에서 가느다랗고 높은 형태로 변화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나렛, 미나레, 미나레트, 미너레트

● 다국어 표기 minare(튀르키예어), minora(우즈베크어), Минарет(키르기스어), Minare(아제르바이잔어), Манара(타타르어), мұнара(카자흐어), منارهت(위구르어), minara(투르크멘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1/Minaret_-_Eger%2C_2013.JPG/220px-Minarete_-_Eger%2C_2013.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düz Filiz, "Minare",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0, Istanbul: TDV, 2005, pp.98~101.

Petersen Andrew, *Dictionary of Islamic Architecture*, London : Routledge, 1999.

Hillenbrand Robert, "Minaret", *Dictionary of the Middle Ages* (ed. J. R. Strayer), New York 1987, VIII, pp.396~397.

I B159 | 미드하트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대재상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idhat Pasha

아흐메드 세픽 미드하트 파샤(1822년~1884년)는 오스만 제국 말기의 개혁가이고, 지방 행정가이자 대재상이었으며 탄지마트 시대의 대표적인 관료 중의 하나다. 이스탄불에서 워크프 관련 부처의 하급 관료 루스축 출신 하지 하피즈 메흐메드 에쉬레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전통적 교육을 받았으나 정부 관청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다. 일을 매우 열심히 했고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보이는 상관들과 자주 충돌했다. 그는 당시 관료계에 흔했던 풍조와는 달리 권력자의 후원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업무를 기준보다 훨씬 잘 해냈고 말썽이 많은 니쉬와 프리즈렌 등의 행정을 맡았던 경험 덕에 지방 행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미드하트 파샤는 1864년 지방행정법 입안에 참여했고, (니쉬와 비단을 합쳐) 새로 만들어진 다뉴브 주에 총독으로 파견되었다. 이 주는 지방 행정의 시범 케이스가 되었으며 미드하트는 치안을 확립하고 튀르크어와 불가리아어 2개 언어로 된 <투나'(다뉴브)>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

1868년 그는 이스탄불로 소환된 후 대재상 알리 파샤와 충돌하여 1869년에는 수도로부터 아주 먼 임지였던 바그다드 총독으로 임명돼 사실상의 유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에서 근대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여 전차, 병원, 학교, 고아원, 오스만군에 납품하는 공장 등을 세우고 사우디 북부 걸프 지역 알 아흐사의 오스만 지방 행정을 재확립하는 일도 착수했다. 근대 개혁 중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토지 개혁은 징병 공포로 인해 농민들이 토지를 부족장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으나 그는 지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몇 안 되는 오스만 총독 중의 하나로 남았다.

이스탄불로 돌아온 미드하트 파샤는 마흐무드 네딤 파샤의 견제를 받았고 술탄 압뫼아지즈 치하에서 1872년 대재상으로 임명되었으나 얼마 못 가 해임되었다. 그 후 몇 년간 기복이 있었지만 미드하트는 법무장관 등 요직을 역임하며 각료로 복무했다. 발칸 위기 한가운데 입헌파의 수장으로서 군부와 기타 압뫼아지즈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쿠데타로 술탄 압뫼아지즈

를 폐위시켰고, 입헌주의에 동조하는 술탄 무라드 5세를 즉위시켰으나 그의 신경 쇠약으로 다시 폐위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헌법을 기초하고 실행에 옮겼다.

압뮐하미드 2세는 1876년 12월 헌법을 공포하고 미드하트 파샤를 대재상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전쟁 등 많은 악재가 겹친 헌정 초기에 압뮐하미드 2세와 미드하트 파샤는 의견충돌을 겪었고, 미드하트는 1877년 2월 해임되고 유럽으로 망명했다가, 1878년 11월 시리아 주의 지방 총독으로 복귀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공공 도서관을 짓고 공립 학교의 수를 크게 늘렸다. 비록 중앙집권 정책으로 드루즈인들의 저항을 맞기도 했으나 그는 바그다드에서처럼 인기 있는 총독이었다. 그의 정책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여의치 않자, 그는 1880년 사임했고 이즈미르의 총독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이스탄불로 소환되어 술탄 압뮐아지즈의 암살 혐의로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것이 사실무근이라 본다. 국내외 여론의 반발로 술탄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었지만, 그 대신 아라비아의 타이프(Ta'if)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1884년 5월 암살되었다. 그의 시신은 1951년 이스탄불로 옮겨져 아비데 이 휘리에트(자유 의 기념비) 묘지에 이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드하트 파샤, 미하트 파샤, 미합 파샤, 미타트 파샤, 미타 파샤

● 다국어 표기 Midhat Paşa, Ahmed Şefi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압뮐하미드 2세, 탄지마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Midhat Pasha”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78~379.

Gökhan Çetinsaya ve S.Tufan Buzpınar, “Midhat Paşa”, *TDV İslam Ansiklopedisi*, Vol. 30 2005, 7~11.

I B160 | 미라즈나마(세밀화)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세밀화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rājnāma

미라즈나마(Mi`rājnāma)는 일반적으로 무함마드의 승천(미라지:miraj)을 묘사한 작품을 이르는 말이다. 미라지 나메흐(Miraj Nameh) 또는 미라즈나메로도 불린다. ‘미라치(Miraç)’ 혹은 ‘미라지(Miraj)’는 아랍어로 ‘승천’을 의미한다. 아랍, 페르시아, 투르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다수의 작가에 의해 집필되었다. 아랍 문화권에서는 주로 종교학적 관점에서 집필되었다면, 투르크와 페르시아 문화권에서는 문학 작품의 소재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미라즈나마는 독립적인 책으로 집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책에 포함된 몇 편의 시인 경우도 있다.

미라즈나마 중에 일부 작품은 세밀화가 포함된 판본으로 제작되었다.

미라지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세밀화는 14세기에 작성된 『집사(Jāmi` al-tawārikh)』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에든버러 대학 도서관(The University of Edinburgh Library, Arap, nr. 20, vr. 55a)에 소장 중이다. 니자미(Nizami)의 함세인 『신비의 보고(Makhzan al-Asrar)』에도 미라지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며, 19세기에 제작된 쉴레니마니예 도서관 소장본(Süleymaniye Kütüphanesi Yazma Bağışlar, nr. 220, vr. 195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시대에 작성된 판본의 경우 텍스트는 전해 내려오지는 않지만, 아흐메드 무사(Ahmed Mûsâ)가 그린 세밀화가 톱카프 궁전 박물관 도서관(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nr. 2154)에서 보존되고 있다.

위구르 문자를 이용하여 차가타이어로 기록한 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Turc 190)에서 소장 중이며 58점의 세밀화가 첨부되어 있다. 이 작품은 미라지 전체를 다루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1436년 말리크 바흐쉬(Malik Bahshi)가 필사한 것이다. 헤라트 지방의 군주였던 술탄 후세인 바이카라(Sultan Husayn Bayqara, 재위: 1469년~1506년)의 사망 이후 이스탄불로 피신한 그의 아들인 바디 알 자만 미르자(Badi` al-Zaman Mirza)가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672년 이스탄불 주재 프랑스 대사가 구매하여 콜

베르에게 선물했다.

톱카프 박물관 도서관(Topkap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2154)에 소장 중인 판본은 14세기경 테브리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세밀화는 총 10장으로 낱장으로 된 작품을 한 책으로 모은 것이다. 세밀화가는 우스타드 하흐메드 무사(Ustad Ahmed Musa)라고 기명되어 있으나 낱장으로 따로 존재하던 세밀화가 과연 한 작가의 작품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판본은 당시 일 칸국 세밀화의 경향과 같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라즈나마는 일반적으로 당시 해당 국가의 종교적 그림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라지 나메흐, 미라츠나마, 미라지나마, 미라즈나마, 미라지나마

● 다국어 표기 Miraçname(튀르키예어), Mehraçname(아제르바이잔어), Me'rojnama(우즈베크어), Мирҗаж-наме(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차가타이 투르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slqz>

미라츠나마_프랑스국립도서관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0/Deux_livres_en_turc-oriental_%C3%A9crit_%28...%29Ferid_ed-Din_btv1b8427195m-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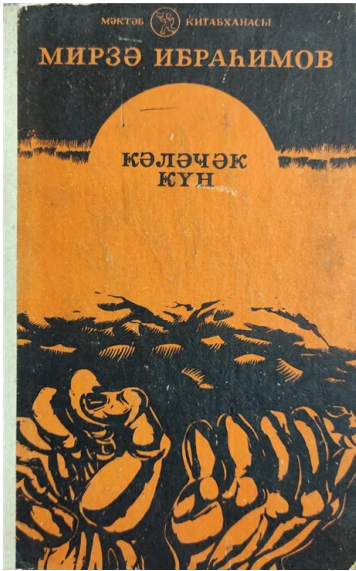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İpşiroğlu Mazhar Ş, *İslamda Resim Yasağı ve Sonuçları*, İstanbul: YKY, 2009.

Çağman Filiz, Zeren Tanındı, *Topkapı Sarayı Müzesi İslâm Minyatürleri*, İstanbul : Güzel Sanatlar Matbaası, 1979.

I B161 | 미래 어느 날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Gələcək gün



『미래 어느 날(Gələcək gün)』 표지
Source: <https://1000kitap.com>

『미래 어느 날(Gələcək gün)』은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근현대 작가인 므르재 이브라히모브(Mirzə İbrahimov, 1911년~1993년)의 정치소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작가는 소비에트군에 입대해 남아제르바이잔(Cənubi Azərbaycan, 현재 이란 북부에 속함)으로 갔다. 그는 1945년~1946년에 세이드 재패르 피쇄웨리(Seyid Cəfər Pişəvəri, 아제르바이잔 민주당; Azerbaijani Democratic Party의 창시자)의 지도 하에 만들어진 아제르바이잔 임시정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때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 『미래의 어느 날』을 썼다. 저자는 이 작품을 쓰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그는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이지만 1948년에야 완성했다. 이 작품은 바쿠 아제르출판사(Azərnəşr)에서 처음 출판됐으며 이후 1951년, 1956년, 1973년, 1983년에도 이어서 출판됐다.

이 소설은 이란-페르시아의 식민지화에 대항한 남아제르바이잔의 민족해방운동, 태브리즈(Təbriz)에 수도를 둔 독립국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정치적 사건 등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새르티브 샬림(Sərtib Səlim), 케림 칸 아자디(Kərim xan Azadi), 르자 게흐레마니(Rza Qəhrəmani), 무사 키쉬(Musa kişi), 히크멧 이스파하니(Hikmət İsfahani) 등 다양한 역사적 현대 인물 캐릭터들을 만들었다. 이 소설이 출간된 후, 저자는 명성을 얻었고,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이 소설은 1951년에 스탈린(İosif Vissarionoviç Stalin) 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역사소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작품으로 남아제르바이잔과 북아제르바이잔이라는 분단 문제가 사회·정치적인 이슈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 **다국어 표기** Gelecek gün(튀르키예어), Shunday kun keladi(우즈베크어), Наступит день(러시아어), Күн келет(키르기스어), Gün geler(투르크멘어), Киләчәк көн(타타르어), Келәсі күні(카자흐어), Gələcək gün(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liyeva Qəndab, Mirzə İbrahimov Nəsrində Cənub Mövzusu, Bakı: Elm və təhsil, 2016.

Əhmədov Teymur, Mirzə İbrahimov, Bakı: Nurlar, 2001.

Hacıyev Abbas, Mirzə İbrahimov, Bakı: Yazıçı, 1982.

İbrahimov Mirzə, Gələcək Gün, Bakı: Maarif, 1983.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 (dərslük), İki cildə, I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I B162 I 미라즈나메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ir'âc-Nâme

「미라즈나메」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천계(天界)로의 비상(飛翔) 즉, 승천의 기적을 묘사한 작품이다. ‘미라즈나메(Mi'râjnâme)’ 또는 ‘미라지 나메흐(Miraj Nameh)’로도 발음된다. 일반적으로 무함마드의 승천을 묘사한 작품을 이르는 말이다. ‘미라치(Miraç) 혹은 미라지(Miraj)’로 발음되는 단어는 아랍어이다. ‘사후(死後)’를 뜻하며, ‘천사’가 무함마드의 심장을 꺼내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며, 예언자의 소명이 개시된 직후의 일이라고 묘사된다. 미라치는 튀르키예 문학에서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을 묘사함에 있어서 ‘승천의 기적’으로 언급된다.

미라즈나메는 현재 두 개의 판본이 전해진다. 이들 중 하나는 1436년 헤라트에서 말리크 바흐쉬(Mâlik Bahşı)에 의해 고대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것이며, 이 책은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대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미라즈나메 판본에 대해서는 오스만 피크리 세르트카야(Osman F. Sertkaya)가 1968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두 번째 판본은 이집트에서 누레딘 알리 키치네 세이드 알리(Nureddin 'Ali b. Kiçikine Seyyid 'Ali et-Tâliqâni)가 아랍 문자로 작성한 것으로, 현재 설레이마니에 도서관 파티흐(Fatih) 부서 2,848번에 보관되어 있다. 이 판본은 1882년 파벤프 드 코르텔리에(Pavet de Courteille)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라지나메, 미라즈나메, 미라지나메, 미라즈나마, 미라지 나메흐, 미라츠나메,
- 연관 검색어 미라즈나마(세밀화), 고대 위구르 문자, 오스만 피크리 세르트카야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pp.trdizin.gov.tr/makale/TXpVNU1qYzBOQT09/yeni-bir-nushasiyla-ahmedi-nin-mir-ac-name-si>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I B163 | 미르 사이드 알리 하마다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r Sayyid Ali Hamadani

미르 사이드 알리 하마다니는 1314년 하마단에서 탄생했다. 그는 3대 칼리프 후세인(Husayn ibn ‘Alī ibn Abī Tālib, 625년~680년)의 아들이자 4대 이맘 알리 후세인 자인 알 아비딘(Ali ibn Husayn Zayn al-Abidin, 659년~713년)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는 4대 칼리프 알리(Ali ibn Abi Tālib, 656년~661년) 후손이다. 미르 사이드 알리의 아버지는 하마단 지역의 주지사였다.

알리는 외삼촌 슬하에서 학업을 시작했고, 후에 쿠브라이 종단에 입단하게 된다. 이후 스승인 알라 우드 다울라 심나니(Ala ud-Daula Simnani, 1261년~1336년)에게서 인가를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약 20년간 투르크িস탄, 트란스옥시아나, 인도, 이라크, 시리아, 아나톨리아, 카슈미르 등을 떠돌다가 1379년 카슈미르 지역을 다시 방문했다. 그때 카슈미르 술탄이었던 쿠투부 딘(Qutubu’d-Din 재위: 1373년~1389년)과 좋은 관계를 꾸려 그가 비이슬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았다. 또한, 약 2년 반 동안 카슈미르에서 머무는 동안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를 전도했다. 이후 그는 하마단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티무르가 하마단에서 셰이크들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투르크িস탄에 머문다. 그리고 1383년 다시 카슈미르에 잠시 들린다. 카슈미르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 성지순례를 떠났다. 그러나 1385년 성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행 도중 병에 걸려 사망했다. 그의 무덤은 현 타지키스탄 국경선 근처 쿨롭에 있다.

하마다니와 그의 수많은 입문자 덕에 카슈미르 지역에는 많은 모스크와 텍케(Tekke:수피 수

도승의 숙소이자 예배 장소)가 건설되었고, 많은 힌두교 사원이 모스크로 개조되었다.

하마다니는 기본적으로 쿠브라이 종단 소속이지만, 그와 그의 셰이크들의 몇 가지 독특한 시각 차이로 인하여 후에 ‘하메다니예’라는 분파를 만들었다. 하메다니예는 쿠브라이 종단의 특징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하마다니는 이븐 아라비(Ibn ‘Arabī, 1165년~1240년)에 큰 관심을 갖고, 쿠브라이 종단의 기초를 이븐 아라비의 사상과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하마다니는 각 권 4~5페이지 분량의 짧은 저서를 100여 권 남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헤메다니

● 다국어 표기 Emîr-i Kebîr Hemedânî(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hamadani-sayyedali>

● 참고문헌(오프라인) Yazıcı Tahsin, “HEMEDÂNÎ, Emîr-i Kebî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7, Istanbul: TDV, 1998, pp.186~188.

Zahedi Bahram; Abolfazl Shakoori, “The Convergence of Mysticism and Justice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Mir Sayyid Ali Hamadani”,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Volume 26, Issue 1, 2019, pp.55~72.

I B164 | 미르 잘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Mir Jalal

아제르바이잔 근현대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미르 잘랄(Mir Jalal)은 1908년에 남부 아제르바이잔(이란 북부) 도시 애르데빌(Ərdəbil) 인근의 앤데빌(Əndəbil)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간자(Gəncə)로 이사한 후에는 어린 시절을 줄곧 간자에서 보냈다. 그는 아버지가 1918년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형의 지원과 자선 단체의 후원을 받아 1919년 초등 교육을 마쳤다. 1928년에 간자 교육대학(Gəncə Darülmüəllim)을 졸업하고 개대베이(Gədəbəy)에서 7년간 교사로 일했다. 1929년에서 1930년까지는 간자 1번 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했다. 1930년



미르 잘랄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source: <https://zrr.kr/8Rwj>

부터 1932년까지는 카잔동방학 교육대학교 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32년 바쿠로 돌아와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석사과정에 들어갔다. 그는 학업 외에도 석사를 하면서 1932년부터 1935년까지는 교사로 일하면서, 아제르바이잔 과학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도 일했다.

한편으로 <공산주의자(Kommunist)>, <젊은 노동자(Gənc işçi)>와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했다. 1940년에 「퓌줄리의 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47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문단과 학파」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작가의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다.

1948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그는 1961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 학과장을 맡았다. 그는 1978년 세상을 떠났고, 바쿠 현충원에 묻혔다.

그의 창작 및 저술은 장르 면에서 다채롭다. 그는 단편소설, 중편소설(povest; 서사시와 산문 중간형태 형식), 장편소설, 논문, 에세이(Oçerk), 학술서적 등 다양한 작품을 저술했다. 그는 『부활한 사람(Dirilən adam, 1936년)』, 『젊은 남자의 선언(Bir gəncin manifesti, 1940년)』, 『동갑내기들(Yaşlıdlarım, 1948년)』, 『신도시(Təzə şəhər, 1951년)』,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Yolumuz hayandır, 1957년)』 등 많은 장편과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작품에는 소비에트 이데올로기 영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작가의 소설들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쓴 역사 소설도 있고, 현대소설들도 있다. 작가는 가까운 과거에서 역사소설 주제를 가져왔다. 그는 주로 풍자적인 기법으로 문학 평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문학회론과 문학비평으로는 1958년 「퓌줄리의 예술세계'(Füzuli sənətkarlığı)」, 1966년 「재릴 맴매드굴루자데의 리얼리즘에 대하여(Cəlil Məmmədquluzadə realizmi haqqında)」와 「문학연구의 기초(Ədəbiyyatşünaslığın əsasları)」, 1973년 「고전주의자와 모더니스트(Klassiklər və müasirlər)」, 1974년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등이 있다. 그의 문학사 연구에서는 맴매드 퓌줄리(Məhəmməd Füzuli)의 시 문학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 문예사조(Azərbaycanda ədəbi məktəblər)』라는 유고집(遺稿集)이 출판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 젤랄
- 다국어 표기 Mir Celal(튀르키예어), Мир Джалал(러시아어), Mir Cəlal Paşayev(아제르바이잔어), Mir Calal(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Mir Cəlal*, İki cildde, I-II cildlər,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4.
Əlimirzəyev Xəlil, *Mənəvi bərc*,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06.
Cəlal Mir,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5.
Cəlal Mir, *Bibliografiya*, Bakı: “Adiloğlu” nəşriyyatı, 2006.

I B165 | 미르무흐신 미르사이드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əl Mıhrayeva ● 라틴 문자 Mirmuhsin Mirsaidov

우즈베크의 소비에트 문학가인 미르무흐신 미르사이드브(Mirmuhsin Mirsaidov)는 1921년 5월 3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니자미 타슈켄트 국립 사범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고등학교, 라디오, 신문과 잡지에서 근무했다.

미르무흐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향인들(Vatandoshlar)», 「친애하는 친구들(Qadrdon do'stlar)», 「마음과 철학(Qalb va falsafa)», 「손자(Nevara)», 「지요드와 아디바(Ziyod va Adiba)」 등의 시를 통해 우즈베크인들의 용감함, 애국심, 영웅적 투쟁을 그렸다.

미르무흐신은 300권 이상의 산문과 시집을 출판했는데,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일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및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시집 『장인 기요스(Usta G'iyos)』, 『초록색 시골(Yashil Qishloq)』, 『친한 사람들(Qadrdonlar)』, 『곡예사(Dorbozlar)』, 『자밀라(Jamila)』, 단편소설집 『흰색 대리석(Oq marmar, 1958)』, 『이야기들(Hikoyalar, 1959)』, 『음악가(Sozanda, 1963)』, 『희망(Umid, 1969)』, 역사소설 『건축가(Me'mor, 1974)』 등이 있다.



미르무흐신 미르사이드브
Source: <https://www.savol-javob.com>

미르무흐신은 푸쉬킨과 레르몬토프의 작품들은 번역한 번역가이기도하다. 1972년 그는 소설 『희망(Umid)』으로 함자(Xamza) 국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작가, 우즈베키스탄 문화 명예 노동자, 우즈베키스탄 명예 교육가 등 여러 호칭을 수여받았고, 정부의 여러 메달과 훈장을 수상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잡지 <굴리스턴(Guliston)>의 편집자로 근무한 그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무흐신 미르사이드프
- 다국어 표기 Mirmuhsin Mirsaidov(우즈베크어), Мирмухсин Мирсаид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Mirmuhsin, *Asarlar*,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82.

I B166 | 미르자 말쿰 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가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irza Malkam Khan

1831년 에스파한에서 미르자 야쿠프의 아들로 태어난 미르자 말쿰 칸(Mirza Malkam Khan)은 어린 나이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길에 올라 사회 정치이론 등을 공부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무슬림이었지만, 그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8세가 되던 해 파리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그는 1851년 페르시아 총리 타키 칸 아미르 카비르(Taghi Khan Amir-e Kabir)가 세운 학교에서 번역가로서 근무한다.

1857년 그는 페르시아가 독립 국가로써 완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화 개혁이 필수적이라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책(Ketabcheh-ye Ghaybi)>라는 제목의 잡지를 펴냈다. 그는 비

밀 결사대 ‘망각의 집(Faramush-Khaneh)’을 결성했으나, 이는 나세르 알딘 샤(Naser al-Din Shah)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1861년 바그다드로 유배된다.

바그다드에서 그는 오스만 제국의 페르시아 대사였던 미르자 호세인 칸(Mirza Hoseyn Khan)의 동조자가 되어, 근대화 개혁에 동참한다는 전제 하에 미르자 호세인 칸의 도움을 받아 나세르 알딘 샤에게 사면을 받게 된다.

1864년 오스만 제국이 초기 근대화 탄지마트 시기에 도래하자 말쿰 칸은 페르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1871년에는 영국 대사로 임명받아 1888년까지 런던에서 근무했다.

미르자 말쿰은 런던에서 지속적으로 페르시아의 현대화 개혁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1889년 말쿰은 국가 발행 복권 발행 권한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그의 직책에서 해고되었으며 모든 특권들을 박탈당했다.

1890년 그는 런던에서 <카눈(Qanun: 법률)>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출판하기 시작했으며, 페르시아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률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분배, 여성의 자유, 페르시아 문자 표기 단순화 같은 주제들을 다루며 인본주의 사상을 주장했다. 이 <카눈>은 페르시아로 비밀리에 전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는 곧 1906년 헌법 혁명의 바탕이 되었다.

미르자 말쿰 칸은 평생동안 페르시아의 개혁을 주장하며, 페르시아의 근대화의 영향력을 미친, 페르시아 근대화 개혁의 선구자로 불린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자 말쿰, 미르자 말콤

● 다국어 표기 Mirza Malkam Khan(영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encyclopedia.com/history/encyclopedias-almanacs-transcripts-and-maps/mirza-malkam-khan> ;

<http://www.qajarpages.org/malkamkhan.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Rasekh, K., Mirza Malkam Khan and Reflexive Tradationalism. *Political Research*, 6(3), 2016. pp.21~36.

MORADKHANI, Fardin, The concept of law in the thought of Mirza Malkam Khan. *Irano-Islamic Research in Politics*, 2022, 1.1: pp.137~166.

Kia, M., Pan-Islamism in late nineteenth-century Iran. *Middle Eastern Studies*, 32(1), 1996. pp.30~52.

I B167 | 미르재 발라 맴매드자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irzə Bala Məmmədzadə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디아스포라 문학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미르재 발라 맴매드자대(Mirzə Bala Məmmədzadə)는 1898년 5월 24일 바쿠 인근 시골 마을인 지래(Zirə kəndi)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차르 러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맞서서 민족 해방 투쟁에 가담한 그는 일찍이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미르재 발라 맴매드자대의 문학 평론 및 출판 분야에서의 활동은 신문 <솔직한 말(Açıq söz)>의 역할이 컸다. 이 신문은 정기적으로 국가의 문화, 문학, 언론, 교육, 언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미르재 발라 맴매드자대는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1918년~1920년)의 붕괴 이후 비밀리에 출판된 <독립(İstiqlal qəzeti)>의 편집자로 일했다.

그의 저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 언론(Azərbaycan türk mətbuatı, 1922년)』은 1875년부터 1921년까지의 아제르바이잔 언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1923년 8월에 아제르바이잔을 떠나게 된 미르재 발라 맴매드자대는 이란으로 이민을 가서 라슈트(Rəşt şəhəri)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도 이스탄불에서 발행되는 잡지 <뉴 캅카스(Yeni Qafqazya)>에 볼셰비즘의 내막을 폭로하는 대담한 글을 실었다. 이후 그는 이스탄불로 돌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성(Azərbaycan misaqi-millisi)』, 『아르메니아인들과 이란(Ermənilər və İran)』 등의 책을 출판했다. 또한 국립 아제르바이잔 센터(Azərbaycan Milli Mərkəzi) 소속으로 <뉴 캅카스(Yeni Qafqazya)>, <아제르-투르크(Azəri türk)>, <불의 나라(Odlu yurdu)>와 같은 해외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 법학과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

1930년대 초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이민자들처럼 유럽으로 갔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바르샤바에서 살았다. 그가 이 시기에 완성한 기념비적인 작품 『아제르바이잔 민족운동(Milli Azərbaycan hərəkatı)』은 1938년 베를린에서 출판됐다. 이듬해인 1939년 그는 이스탄불로 돌아와 <밀리예트(Milliyət)>와 <공화국(Cümhuriyyət)>과 같은 주요 일간

지에 아제르바이잔 상황을 알리는 칼럼을 기고했으며, 『이슬람 백과사전』과 『투르크-이슬람 백과사전』 저술에 참여해 아제르바이잔 관련 표제어를 맡아 집필했다.

그가 1951년에 앙카라에서 완성해 출간한 『아제르바이잔 역사 속의 투르크계 알바니아(Azərbaycan tarixində türk Albaniya) 연구』는 신뢰할 만하고 검증된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풍부한 작품들로 유명한 그는 2,000편 이상의 많은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미르재 발라(Mirzə Bala) 이외에도, 옐리 코틀록(Əli Kutluq), 누흐 오글루(Nuh oğlu), 아재리(Azəri), 다스대미르(Daşdəmir) 등의 여러 필명으로 활동했고, 때로는 익명으로 게재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문학 평론과 문학 비평이다. 그는 「아제르-투르크문학의 어제와 오늘(Azəri türk ədəbiyyatının dünəni və bu günü)」, 「현대 아제르바이잔 시인들(Müasir Azərbaycan şairləri)」,

「낭만적이고 현실적인 흐름의 투쟁(Romantik və realist cərəyanların mücadiləsi)」, 「국가 언어와 국가 문화(Millî dil və millî kultür)」, 「재패르 자발르(Cəfər Cəbbarlı)」, 「미르재 엘라크베르 사비르(Mirzə Ələkbər Sabir)」, 「소비에트 언어 정책의 오늘 날의 단계(Sovet dil siyasətinin bu günkü səhifəsi)」, 「현자 고르구드(Dədə Qorqud)」, 「우리의 국가 서사시에 대해(Millî dastanlarımıza dair)」 등의 학술 논문에서 문학의 역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또한 이 논문들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추진된 각종 언어, 문화,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러시아화 정책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미르재 발라 맘매드자대는 망명생활 중에도 열정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했다. 1955년 매함매드 애민 래술자대(Məhəmməd Əmin Rəsulzadə)가 사망한 이후, 뭉사바트당(Müsavat partiyası)과 아제르바이잔 국립 센터(Azərbaycan Milli Mərkəzi)의 회장을 맡았다.

1959년 3월 8일 이스탄불에서 생을 마감한 미르재 발라 맘매드자대는 가라자애매드 묘지(Qaracaəhməd məzarlığı)에 묻혔다.



『전설의 깃발(Əfsanəvi bayraqdar)』 표지
 Source: <https://novella.az>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자 발라 메흐메트자데

● 다국어 표기 Mirza Bala Mehmetzade(튀르키예어), Мирзабала Мамедзаде(러시아어), Mirza Bala Mammadzade(투르크멘어), Мырза Бала Мамедзаде(카자흐어), Мирза Бала Маммадзаде(타타르어), Мирза Бала Мамедзаде(키르기스어), Mirzə Bala Məmmədzađe(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ova Təranə, *Mirzə Bala Məmmədzađənin Ədəbi-Elmi Yaradıcılığı*, (Nəşr olunmamış fəlsəfə doktorluğu dissertasiyası), Bakı: N.Gəncəv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 2014.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Rüstəmli Asif, *Zirədən Başlanan Yol*,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2018.

Sultanlı Vaqif, *Azərbaycan Mühacəret Edebiyatı*, İstanbul: Avrupa Yakası Yayınları, 2007.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Veliyev Afgan, *Azərbaycan siyasi Düşünce Tarihi ve Mirza Bala Mehmetzade*, İstanbul: Doğu kütüphanesi, 2006.

I B168 | 미르재 사디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Mirza Sadig

미르재 사디그(영어: Mirza Sadig, 1846년~1892년)는 1846년에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슈샤(Şuşa)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미르재 사디그’이나 ‘Sadigjan(아제르바이잔어 Sadiqca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음악가이며, 작곡가이자,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악기 타르(tar) 연주자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예술에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 애새드(Əsəd)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당시 유명한 음악가 카라투 쿨루(Xarrat Qulu)의 학교로 보낸다. 이 학교는 사디그가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8살에 목소리가 변해버렸지만,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튀태크(tütək), ney(네이), 카만차(kamança) 등 여러 악기들을 연주했는데, 그중에서 타르를 가장 선호했다. 그는 유명한 타르 거장인 미르재 무크타르 맘매도프(Mirzə Muxtar Məmmədov)에게 수업을 받았다.

미르재 사디그는 곧 슈샤의 타르 연주 명인이 되어 '타르젠'으로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쿠르쉬드바누 나태반(Xurşidbanu Natəvan)이 조직한 행사에서 타르를 연주했는데, 그의 명성은 슈샤는 물론 아제르바이잔 전역과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는 샤마흐(Şamaxı)에서 열린 행사에서 타르를 연주했는데 짧은 기간만 활동하고 카라바흐(Qarabağ)로 돌아갔다. 유명한 시인 세이드 애짐 쉬르바니(S.Ə.Şirvani)가 편지를 보내 돌아올 것을 설득했으나, 그는 샤마흐(Şamaxı)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사디그잔은 때로 슈샤와 티빌리스(Tiflis)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의 명성은 중앙아시아에까지 퍼져나가 아쉬하바트(Aşqabad), 사마르칸트(Səmərqənd), 타슈켄트(Daşkənd) 등의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도 초대받았다. 1880년에는 타브리즈(Təbriz)에서 있었던 내스랏딘 샤흐 가자르(나시르 앳딘 샤, Nəsrəddin şah Qacar) 아들의 결혼식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그는 나시르 앳딘 샤로부터 '시리-후르시드'(Şiri-Xurşid) 훈장을 받았다.

사디그는 음악 교육자로도 활동했다. 그의 제자 중 유명한 인물로는 구르반 피리모브(Qurban Pirimov), 매새디 재밀 애미로프(Məşədi Cəmil Əmirov), 매새디 제이날 하그베르디예브(Məşədi Zeynal Haqverdiyev), 쉬린 아쿤도브(Şirin Axundov) 등이 있다.

당시 그는 명실공히 '캡카스의 최고 타르젠'이라고 불렸는데, 다양한 연주 비법을 개발해냈다. 타르를 연주할 때 타르 연주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을 이용했다. 때로는 오른쪽 선을 이용하지 않고 왼쪽 선으로 다양한 소리들을 연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사디그의 뛰어난 능력 중 하나는 타르의 연주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5줄 타르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속 음악 장르 중 하나이며, 무형문화유산인 무감(muğam) 장르를 연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타르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극복했다. 당시까지 타르는 무릎 위에 놓고 연주됐는데, 그는 이 규칙을 바꿔서 처음으로 타르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연주했다.

또한 타르의 5줄에 6개의 줄을 추가해 11개 줄로 만들었다. 그의 이러한 혁신으로 인해 타르의 솔로 연주는 더욱 성공적이 됐다. 그는 타르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면서 타르의 무게도 줄였다. 그 결과 타르 연주 기술의 가능성이 확대됐다. 그의 혁신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무감 중에서 「마후르-힌디(Mahur-Hindi)」, 「중간 마후르(Orta Mahur)」, 「자불 세가흐(Zabul Segah)」, 「외부 세가흐(Xaric Segah)」, 「미르재 후세인 세가흐(Mirzə Hüseyn Segahı)」, 「에팀 세가흐

(Etim Segah)』, 「목부(Çoban)』, 「바야트(Bayati)』와 같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아제르바이잔 무감에 여러 가지 혁신을 가져온 그는 아제르바이잔 음악에서 7개 선법 중 하나인 세가흐(Segah) 무감을 발전시켜 ‘자불(Zabul)’을 추가했고, 미르재 후세인(Mirzə Hüseyin) 세가흐에 ‘뮉칼리피(Müxalifi)’를 추가했으며, 마후르 무감을 개선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재 사딕
- 다국어 표기 Sadıqan(튀르키예어), Садыгджан(러시아어), Sadigjan(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YvOm>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адых М. А., Музык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под ред. Ю. В. Келдыш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Советский композитор, 1978. –Т. 4.
Şuşinski F. Sadıqan, –Б.: Azərneşr, 2007–124 с.

I B169 | 미르재 카짐베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irza Kazimbey

아제르바이잔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학자인 미르재 카짐베이(Mirzə Kazimbəy)는 1802년에 래쉬트(Rəşt) 도시의 이슬람 최고 종교지도자인 루하니(ruhani)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매함매드 가숨 카짐베이(Məhəmməd Qasım Kazimbəy)는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구바 칸이었다. 나중에는 러시아에 편입되었던 데르벤드의 유명한 루하니가 되었다. 아버지 덕분에 그는 어려서부터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쉽게 습득했으며, 튀르키예어와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와 아랍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다. 이는 그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줬다. 그는 17살에 『아랍어 문법』 책을 썼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루하니가 되기를 바랐고, 이란과 아랍 국가에서 종교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1820년 아버지가 이란 측을 염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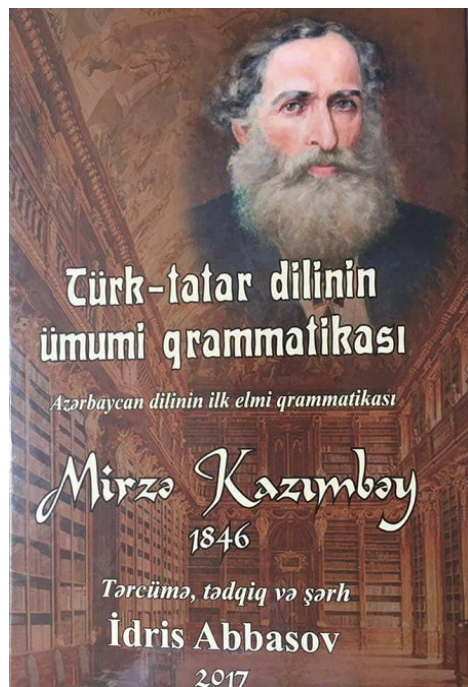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모든 직위를 빼앗겼고, 그의 가족은 아스트라칸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그는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스코틀랜드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어린 나이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는 그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악화시켰다.

그는 역사적 주제를 담은 여러 책들을 저술했다. 그가 투르크어로 저술한 『일곱 개의 행성』은 1466년부터 1737년까지의 크림 칸국의 역사에 대해서 쓴 작품이다. 1841년에 저술한 『위구르인들』이란 작품은 고대 위구르인들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학술적 정보를 담았다. 그의 다른 작품들은 주로 이슬람 학문에 중점을 두었다. 『코란-캐림에서 말하는 조화(Qurani-Kərimdə ahənglik, 1859)』, 『뮈리디즘과 샤밀(Müridizm və Şamil, 1859)』, 『이슬람 역사(İslam tarixi, 1860)』 등을 저술했다. 그는 기독교 관련 작품들을 동양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1825년에 영국 정부의 초대를 받았으나, 러시아 당국은 그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러시아 제국의 특별 명령에 따라 그는 옴스카(Omska) 시에 타타르어 교사로 파견됐다. 그러나 그는 카잔에서 병에 걸렸고, 옴스카 행은 연기된다. 카잔에 있는 동안 그는 칼 폭스(Karl Fuchs)라는 역사학자에게서 카잔 대학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라는 제안을 받는다.

1828년 그는 영국의 왕립 동양협회 회원으로 선출됐고, 카잔대학에 신설된 투르크어과의 학과장으로 임명됐다. 그가 카잔 대학에서 근무한 시기는 문학 창작 측면에서 생산적이었다. 여기서 그는 투르크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쓸 기회를 가졌다. 집중적인 연구 덕택에 1835년에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1839년에 「투르크-타타르어 문법」이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으로 데미도프상(Demidov mükafatı)을 수상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는 대부분의 투르크어들이 타타르어의 방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다양한 투르크어 및 방언의 음운학, 형태학, 구문



『투르크어-타타르어의 일반 문법에 대한 번역, 조사 및 해석』 표지

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이 논문은 1846년에 두 번째로 출판됐으며, 서유럽에서 투르크어족을 가장 풍부하게 알려주는 자료로써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논문은 1921년 잔 데닌의 『투르크어의 문법(오스만 방언)』이 출간되기 전까지 유럽 대학들이 활용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됐다.

그는 1849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새로 설립된 동양어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그는 이 대학에서 1863년에 중동사학과를 설립했다. 그는 1854년에 『투르크어 학습 교과서』와 6,700개의 어휘를 수록한 『러시아어-투르크어 사전』을 출판했고, 「동양에서 유래한 러시아어 어휘와 구절의 해석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1868년에 러시아 과학계에서 투르키스탄 민족지, 언어학 및 비문(epigraphy)에 대한 학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187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무덤이 파손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묘지는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졌다. 지금도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그가 저술한 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제 카즘 베이

● 다국어 표기 Mirze Kazım bey (튀르키예어), Mirza Kazım bay (영어), Mirza Kazımbek (우즈베크어), Мирза Казымбек (러시아어), Mirzə Kazımbəy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kr/a4S>

● 참고문헌(오프라인) Hüseyinov Heydər, *XIX əsr Azərbaycan ictimai və fəlsəfi fikir tarixindən, İki cildə*, Bakı: “Şərqi-Qərb” nəşriyyatı, 2006.

Kazım bəy Mirzə, *Müridizm və Şamil*, Bakı: “Hədəf” nəşriyyatı, 2015.

Kazım bəy Mirzə, *Türk-tatar dillərinin qrammatikası*, Bakı: “Zərdabi LTD” nəşriyyatı, 2017.

Quliyev Vilayət, *Mirzə Kazım bəy*,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7.

Rzayev Ağababa, *Dərbənddən başlanan əzablı yol*, Bakı: “Hədəf” nəşriyyatı, 2014.

Агабаба Рзаев, Мухаммад Али Мирза Казым бек, Москва: Изд-во Наука, 1989.

I B170 | 미르저 압둘라티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rzo Abdullatif

미르저 압둘라티프(Mirzo Abdullatif)는 1427년 울루그 베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헤라트의 조부 쇼흐루흐 미르저(Shohrux Mirzo, 재위: 1409년~1447년)의 왕실에서 보냈다. 당시 조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압둘라티프였지만, 조모였던 가브하르셔드 베김(Gavkharshod Begim, 1405년~1447년)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압둘라티프는 사마르칸트로 떠났고, 이에 화가 난 그의 조부는 조모를 시켜 손자를 헤라트로 다시 데려오게 하기도 했다.

1447년 이로브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손자 술탄 무함마드(Sulton Muhammad, 재위: 1447년~1451년)를 제압하기 위한 전쟁 당시 압둘라티프는 조부 곁을 지켰다. 쇼르흐 미르저는 전쟁 중 병환으로 사망했고, 압둘라티프가 조부의 뒤를 이어 부대를 이끌게 된다. 이때 그의 조모 가브하르셔드 베김은 압둘라티프의 모든 행적을 사촌인 알로웃다블라(Alouddavla)에게 알리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압둘라티프는 조모를 체포한다. 알로웃다블라는 타르한 베그들의 도움을 받아 가브하르셔드 베김을 구출하고 압둘라티프를 체포하여 헤라트에 투옥한다.

그의 아버지 울루그 베그는 협상을 통해 압둘라티프를 구하여 사마르칸트로 데려오게 되지만 분쟁은 계속되었다. 1448년 울루그 베그와 압둘라티프는 9만 명의 부대와 함께 호라산으로 진군하여 알로웃다블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헤라트를 점령한다. 그러나 그사이 아불하이르칸(Abulxayrxon, 재위: 1428년~1468년)의 공격으로 인해 울루그 베그는 압둘라티프를 호라산에 남기고 사마르칸트로 떠난다. 울루그 베그는 발흐의 통치를 압둘라티프에게 넘겨준다. 울루그 베그는 압둘라티프의 도움으로 헤라트를 점령했음에도 그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고, 헤라트 정복과 관련한 문서에 압둘라티프의 동생이었던 압둘아지즈(Abdulaziz Mirzo)의 이름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부자 관계는 갈등을 빚게 된다.

압둘라티프는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 아불커심 버부르(Abulqosim Bobur, 1422년~1457년)와 동맹을 맺고, 울루그 베그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 1449년 아무다리야강 인근에서 발발한 이

3개월간의 전쟁 동안 술탄 아부사이드(Sulton Abusa'id, 재위: 사마르칸트 1424년~1469년, 헤라트 1459년~1469년)가 반란을 일으켰고 울루그 베그는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후퇴했다. 압둘라티프는 이를 기회로 울루그 베그를 패퇴시킨다. 그 결과 압둘라티프는 트란스옥시아나 지방의 통치권을 차지하게 되며 울루그 베그와 압둘아지즈 미르저를 처형한다. 이로 인해 '아버지 살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는다. 압둘라티프는 통치 시작 6개월 만에 압둘라 미르저(Abdulla Mirzo, 재위: 1450년~1451년)에 의해 살해를 당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라티프 미르자
- 다국어 표기 Abdullatif Mirza(튀르키예어), Abdal-Latif Mirza(영어), Mirzo Abdullatif(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울루그 베그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бдураззок Самаркандий, Матлаи саъдайн ва маж- маи баҳрайн. (2-жилд). Т., «Ўзбекистон», 2008. Ш Алишер Навоий. Маҷолисун-нафоис. UnatYavuz, "Uluğ Bey",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2, Istanbul: 2012, pp.127~129.

I B171 | 미르카림 어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irkarim Osim

미르카림 어심(Mirkarim Osim)은 1907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나리머브(Narimov) 기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어서 그는 1926년 모스크바 주립 사범대학교 역사 및 경제학부에 입학하여 1930년에 졸업했다. 사마르칸트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후, 1932년 우즈베키스탄 인민 교육위원회 및 교육학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미르카림 어심은 1940년대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셰르 나버이이와 다르비쉬알리(Alisher Navoiy va Darvishali)』, 『나버이이의 특성(Navoiyning xislatlari)』, 『울루그베그와 나버이이(Ulugbek va Navoiy)』 등의 단편소설과 역사 소설로 재

창조한다.

미르카림 어심(Mirkarim Osim)의 작품 소재는 고대(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 아랍 칼리파, 이란 왕의 침공), 중세(몽골의 침략과 과학, 문화 지식인들에 대한 전기), 근현대(18세기부터 10월 혁명까지)로 시기 구분되며, 역사적 영웅주의 및 일상적인 이야기가 주된 주제이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토미리스(To'maris)』, 『티무르 말릭(Temur Malik)』, 『알렉산더와 스피타메네스(Aleksandr va Spitamen)』, 『모홀라르 어임과 헌퍼쉬샤(Mohlar oyim va Xonposhsha)』, 『카라반의 종(Karvon qo'ng'irog'i)』, 『사신들(Elchilar)』, 『어둠속의 빛, 나 버이이(Zulmat ichra nur: Navoiy)』, 『자이훈 위의 구름, 베루니(Jayhun ustida bulutlar: Beruniy)』, 『이븐 시나의 이야기(Ibn Sino qissasi)』, 『대수학의 탄생, 알 호라즈미(Aljabrning tug'ilishi: Al-Xorazmiy)』, 『깨진 세터르, 마쉬랍(Singan setor: Mashrab)』 등이 있다.

작품 속에 표현된 애국심, 민족애로 인하여 미르카림 어심(Mirkarim Osim)은 소비에트 정권에서 반정부주의자로 몰리기도 했지만, 스탈린 사망 후 1960년 고향으로 돌아온 작가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저술 작업을 계속한다.

출생 70주년에 '우즈베키스탄 명예 문화 노동자(O'zbekistonda xizmat ko'rsatgan madaniyat xodimi)' 칭호를 수여받은 미르카림 어심은 1984년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카림 오심
- 다국어 표기 Mirkarim Osim(우즈베크어), Миркарим Осим(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XQbl>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mirkarim-osim-1907-1984/>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I B172 | 미르테미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irtemir Tursunov

미르테미르 투르수너브(Mirtemir Tursunov)는 1910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투르키스탄 지역에 위치한 이컨(Iqon) 마을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교육 아카데미(지금의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그는 신문과 잡지사를 비롯하여 여러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으며, 번역가로도 활동했고, 활발한 창작 활동도 펼쳤다.

우즈베키스탄 작가 연합에서 문학 자문관으로 일하며 젊은 시인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다. 미르테미르는 문학 조직 '붉은 펜(Qizil qalam)'의 일원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이후 다양한 고통을 겪다가 1978년 타슈켄트에서 사망한다.

미르테미르의 첫 번째 시는 1926년 <젊은 레닌주의자(Yosh leninchi)>라는 신문에 실리며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첫 시집 『불빛 품에서(Shu'lalar qo'ynida)』는 1928년에 출간된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는 미숙한 부분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젊고 재능있는 작가의 탄생을 충분히 증명했다.

이후 꾸준히 시집을 출간한 그의 시집들은 『승리(Zafar, 1929)』, 『나의 격동(Qaynashlarim, 1932)』, 『울림(Bong, 1932)』, 『배고픔의 지역에서(Ochlar o'lkasida, 1936)』, 『수도(Poytaxt, 1936)』, 『복수(O'ch, 1947)』, 『시 선집(Tanlangan sh'erlar, 1947)』, 『작품 선집(Tanlangan asarlar, 1958)』, 『시(She'rlar, 1961, 1964)』, 『새로운 시(Yangi she'er, 1967)』, 『새의 언어(Qush tili, 1970)』, 『들어라, 인생아(Tingla, hayot, 1974)』, 『나의 속눈썹들(Kipriklarim, 1976)』, 『나는 찾고 있다(Izlayman, 1976)』, 『추억(Yodgorlik, 1978)』 등이다. 이들 시집은 사상적인 측면이나 내용, 형식 면에서 작가의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의 1930년대 작품은 새로운 세계와 인간상이 주요 소재이다. 특히 우즈베크인의 꿈과 소망, 감정, 권력과 고귀한 행동,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일부 작품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우즈베크인의 삶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담고자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요와 살아있는 민중들의 언어를 사용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르테미르의 시는 또 다시 진화한다.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와 삶의 형태를 즐기고 지지하고, 당대의 문제를 다룬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시의 중심을 차지한다.

또한, 우즈베크인의 삶과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간의 우정이 그의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다. 그는 국가와 민족 간의 우정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살아있는 요소로 묘사하며, 새로운 세계 건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라에 대한 찬양(El yurt maqtovi)」, 「우리에게 놀러오세요(Bizga keling)」, 「나의 우크라이나(Ukrainamsan)」, 「키르기스스탄(Qirgiziston)」, 「키르기스 사람들에게(Qirg'iz xalqiga)」, 「마흐툼쿨리의 결혼식에서(Mahtumquli to'yida)」, 「나의 카자흐스탄(Qozog'im)」, 「알마티의 겨울(Oлма - otaning qishi)」 등이 그 사례이다.

미르테미르의 재능은 서사시에도 나타났다. 「농업 전문가(Agronom)」, 「투쟁(Jang, 1930)」, 「용(Ajdar, 1936)」, 「배고픈 자들의 땅에서(Ochlar o'lkasida, 1936)」, 「물의 딸(Suv qizi, 1937)」, 「딜쿠셔(Dilkusho, 1937)」, 「어이사남의 결혼식에서(Oysanamning to'yida, 1938)」, 「어린 양(Qo'zi, 1939)」, 「페르가나(Fargona, 1940)」, 「그림(Surat, 1961)」 등은 그의 대표적인 서사시이다. 특히 「딜쿠셔(Dilkusho, 1937)」와 「어린 양(Qo'zi, 1939)」은 우즈베크 민족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혁명적인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미르테미르는 작사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윤리와 도덕을 사회적 문제와 연관지어 가사를 썼다. 그는 번역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는데 푸시킨, 미하일 레르몬토프, 니콜라이 네크라소프, 막심 고리키와 같은 유명 러시아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서유럽 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번역했다. 그의 번역은 단지 러시아를 포함한 서구 작가 작품에만 한하지 않았고, 키르기스의 서사시 『마나스(Manas)』나 카라칼파크의 서사시 『40명의 소녀(Qirq qiz)』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했으며, 동시대의 카자흐스탄과 카라칼파크,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의 작품들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이런 그의 번역 활동은 우즈베크 번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1979년에 우즈베크스탄 국가상 ‘함자(Xamza)상’을 받았고, 1977년에는 카라칼파크 국가상 ‘베르다크(Berdakh)상’, 2002년에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다. 그 외에도 ‘노동훈장’과 ‘명예의 훈장(Hurmat belgisi)’ 등을 받았으며, 우즈베크스탄의 국민 시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타슈켄트의 거리와 안디잔 주 보즈(Bo'z)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고향

이건에는 그의 박물관이 세워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르테미르 투르수노브
- 다국어 표기 Mirtemir Tursunov(우즈베크어), Миртеми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함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kr/uhYw>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Nahanov O, *Mirtemir zamondoshlar xotirasida*,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82.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Mirtemir, *Asarlar, to'rt tomlik*,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83.
Mirtemir, *Asarlar*, Go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Toshkent, 1970.
O'tayor, *Mirtemir esse*, Yosh gvardiya, Toshkent, 1986.

I B173 | 미마르 시난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mar Sinan

미마르 시난(Mimar Sinan)의 정식 호칭은 코자 미마르 시난 아아(Koca Mi'mâr Sinân Âğâ)로 즉 '위대한 건축 장인 시난'이다. 1489/1490년 카이세리(kayseri)의 아으르나스(Ağırnas) 지방에서 태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1512년 데브쉬르메 제도에 따라 징병 소년 학교에 들어가 1521년 벨그라드 전투 이전에 예니체리가 되었다. 셀림 1세(I.Selim. 재위: 1512년~1520년)의 페르시아와 이집트 정벌에도 참여했다. 시난은 여러 원정을 통해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발칸반도, 헝가리, 오스트리아 남부를 보게 된다. 시난은 원정 과정에서 갤리선을 만들거나 습지에 높은 다리를 지어 군대가 건널 수 있게 하는 등 기술과 건축과 관련된 공을 세우게 된다. 시난은 이 원정을 통해 타국의 다양한 건축물을 관찰하여 자신의 작품에 녹이게 된다.

군에서 기술병으로 복무한 시난은 기술자와 건축가로서 교육을 마치고 1539년 궁정 건축 책

임자(Ser-Mimârân-ı Hassa)가 된다. 그 후 약 50여 년간 수백 개의 건설 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친구였던 무스타파 사이 첼레비(Mustafa Saî Çelebi, ?년~1595년)가 시난에게서 그의 인생과 작품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저술했던 『작품들의 책(Tezkiretü'l-Bünyan ve Tezkiretü'lEbniye)』에 따르면 342개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일부 기록에서는 452개의 건축물을 건설했다고도 전한다. 시난이 본격적으로 건축가로서 활동한 기간이 약 50여 년인데, 이 기간 동안 그 모든 건설에 직접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이며, 오스만 제국의 넓은 영토 곳곳을 모두 직접 방문해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일부 작품의 경우 단순히 설계도만 그리거나 이미 존재하던 설계도를 이용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84년 시난은 성지 순례를 떠나며 메흐메드 수바시(Mehmed Subaşı)라는 건축가에게 임시로 건축 책임자 자리를 맡긴다. 순례에서 돌아왔을 때는 100세 가까운 고령이었음에도 건축 책임자 직을 계속 수행했다. 1588년 이스탄불에서 사망했고, 쉴레이마니예 모스크(Süleymaniye camii) 옆, 자신이 설계했던 영묘에 묻히게 된다.

미마르 시난이 건설한 건축물은 모스크, 영묘, 마드라사뿐만 아니라 교각이나 대상 숙소 등 다양하며, 여러 새로운 설계를 도입했다. 미마르 시난이 건축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벽을 지지대로 이용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에 주력하여, 많은 창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점, 이 창문을 통해 대형 건축물의 조명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모스크 측면 외벽에 회랑을 추가하여 적극 활용한 점, 미너렛의 위치를 고정시킨 점, 그리고 돔을 발전시킨 것 등등 미마르 시난의 업적은 다양하다. 또한 시난은 세미돔을 이용하여 돔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내부 공간과의 일체성을 만들어냈으며, 계단식으로 지지대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라인을 형성했다.

이런 업적을 만들어내기까지 미마르 시난의 작품 발전 단계는 크게 초창기, 원숙기, 절정기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스스로가 각 단계별 대표작을 언급하기도 했다.

초창기 작품은 스스로가 ‘견습공 작품’이라고 부른 1548년에 건설한 쉐흐자데 모스크(Şehzade Camii)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 설계한 많은 작품들이 있다. 초기에는 주로 이즈니크, 에디르네, 부르사에 건설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든 작품은 하세키 복합단지(Haseki Külliyesi)이다. 이 작품에서 하나의 돔으로 덮인 모스크, 회랑이 있는 중정, 거대한 회랑과 거대한 평천장, 제국의 가옥 건축을 응용한 아동



미마르 시난 동상과 그의 작품 '설레이마니예 모스크'

학교, 팔각형의 중정 등으로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셰흐자데 모스크의 경우, 지름 19m의 돔과 지면에서부터 돔 끝까지의 높이가 37m의 건축물로, 네 개의 세미돔을 지지대 위의 오지 아치(ogee arch) 위에 올리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 이전 작품이 아직은 부르사 건축의 영향 아래 있었다면, 세미돔에 대한 시난의 시도가 보이는 셰흐자데 모스크는 여기서 벗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원숙기의 대표작은 스스로가 '숙련공의 작품'이라고 부른 1557년 건설한 설레이마니예 모스크(Süleymaniye camii)이다. 설레이마니예 모스크의 돔은 지름 26.50m, 지면에서부터 돔 끝까지의 높이가 53m이며, 이 대형 돔과 더 많아진 창문, 넓어진 공간으로 모스크는 산뜻함과 웅장함을 동시에 창조해냈다. 또한 중앙 돔을 향하는 세미돔의 배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어 전면부에 안정성을 확보했다. 설레이마니예 건설 전후에도 이런 기술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시난의 기술이 응축된 절정기의 대표작은 1584년 에디르네에 건설한 셸리미예 모스크



미마르 시난 영묘(이stanbul)

(Selimiye camii)이다. 팔각형의 본체 위에 지름 31.5m의 돔은 8개의 지지대로 받혀져 있다. 돔이 있는 중앙 건물 네 모서리에 미너렛을 배치시켜 대칭미를 강조했다. 셀리미예 모스크 이후, 시난은 ‘위대한(Koca)’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미마르 시난은 많은 제자를 길렀지만, 제자들은 그에 필적할 만한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미마르 시난은 오스만 제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다.

미마르 시난의 대표적 건축 작품

쉴레이마니예 모스크(Süleymaniye Camii)

하세키 복합단지(Haseki Külliyesi)

하세키 휘렘 술탄 하맘(Haseki Hürrem Sultan Hamamı)

셀리미예 모스크(Selimiye Camii)

에스키 발리데 모스크(Eski Valide Camii)

미흐리마흐 술탄 복합단지(Mihrimah Sultan Külliyesi)
 쉐흐자데 모스크(Şehzade Camii)
 지한기르 모스크(Cihangir Camii)
 샤흐 술탄 모스크(Şah Sultan Camii)
 뤼스탐 파샤 모스크(Rüstem Paşa Camii)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 복합단지(Sokollu Mehmed Paşa Külliyesi)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 교각(Sokollu Mehmed Paşa Köprüsü)
 클르츠 알리 파샤 복합단지(Kılıç Ali Paşa külliyesi)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건축가 시난, 미말 시난, 위대한 건축가 시난, 코자 미마르 시난,
- 다국어 표기 Koca Mimar Sinan(튀르키예어), Sin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쉴레이마니예 모스크, 셀리미예 모스크, 쉐흐자데 모스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d/Princova_me%C5%A1ita.jpg/1280px-Princova_me%C5%A1ita.jp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b/S%C3%BCleymaniye_Camii.jpg/1920px-S%C3%BCleymaniye_Camii.jpg
<https://cdn.britannica.com/s:700x450/72/133072-004-6D7E458A.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Mimar Sinan*, Ankara :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92.
 Sâî Mustafa Çelebi, *Mimar Sinan, Yapılar kitabı*: Tezkiretü'l-bünyan ve Tezkiretü'l-ebniye : Mimar Sinan'ın anıları (çev: Hayati Develi-Samih), İstanbul : K Kitaplığı, 2003.
 Cansever Turgut, *Mimar Sinan*, İstanbul: Klasik, 2010.
 Kuban Doğan, "Sinan'ın Dünya Mimarisindeki Yeri", *Mimarbasi Koca Sinan: yaşadığı çağ ve eserleri/1*, İstanbul : 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 1988. pp.581~624.

I B174 | 미샤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Mishar

미샤르(Mishar)인 또는 타타르-미샤르인은 포볼지예(볼가강 유역지역)와 프리우랄리에(우랄 인접 지역)의 타타르 민족의 하위 집단을 일컫는다. 미샤르어는 타타르어의 방언이다. 과거에는 메세랴크(мещеряк)라고 불렀다.

미샤르인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으며, 소수만이 러시아 정교를 믿는다. 미샤르인은 볼가강 우측 지역에서 북쪽의 오카 강 오른쪽 강변에 이르는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미샤르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다. 13세기~18세기 사이의 러시아 정부 문서나 교회 문서에는 미샤르(모자르, 모차르)는 부르타스라는 민족명이 함께 병기되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미샤르인들이 부르타스인들의 후손이라고 보기도 한다.

19세기에는 핀-우고르계 메쇼르(мешёр)인들이 투르크화 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미샤르인은 주로 자신들이 금장 칸국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미샤르인의 기원에 대한 정설은 없다.

미샤르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되는데, 이들은 폰토스계, 백인계, 수블라포노이드계, 그리고 몽골로이드계의 인류학적 유형이 섞여 있다.

미샤르란 호칭의 기원도 불분명하다. 메쇼르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으며, 모자라/마드자르 부족 연합에서 유래한다는 설도 있다.

미샤르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했으며, 축산은 이들의 중요한 생업이었다. 축산은 16세기~17세기까지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농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시아르, 미세르인
- 다국어 표기 Mişərlər(아제르바이잔어), мишари(러시아어), Mishar(영어), Mişerler(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ABhR>
- 참고문헌(오프라인) Encyclopedia of Stateless Nations: Ethnic and National Groups around the World, 2nd Edition:

I B175 | 미욀 부즈룩 설리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Miyon Buzruk Solihov

미욀 부즈룩 설리허브(Miyon Buzruk Solihov)는 20세기에 활동한 우즈베크 지식인 중 하나로 민속학자이자 문학자이며 예술가이다. 1891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그는 192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다.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중앙아시아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우즈베크어와 우즈베크 문학을 가르쳤다. 타지키스탄 국립 교육대학교에서 강사(1931년~1932년), 우즈베키스탄 문화건설연구소(1932년~1933년)와 우즈베키스탄 과학위원회 산하 언어 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1934년~1935년), 타슈켄트 사범대학교,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1936년) 및 부하라 사범대학교(1936년)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이 시기에 많은 젊은 후학을 길러냈으며, 당대 유수의 학자들인 피트랏(Fitrat), 폴리바너브(Yevgeny Dmitrievich Polivanov), 거지 올림 유누서브(G'ozli Olim Yunusov), 압둘라 아블리니이(Abdulla Avloniy), 카욀 라마죤(Qayum Ramazon), 쇼라술 쥬눈(Shorasul Zunnun), 울루그 투르수너브(Ulug' Tursunov)와 함께 활동했다.

설리허브는 우즈베크 문학, 연극사, 민족학(etnography), 우즈베크어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대표 저서로는 『우즈베크(O'zbek)』, 『베딜(Bedil)』, 『중앙아시아와 우즈베크 문학사 개요(O'rta Osiyo va o'zbek adabiyoti tarixiga umumiy qarash)』, 『러시아 10월 혁명 이전까지의 우즈베크 민속(Oktyabrgacha bo'lgan o'zbek folklori)』, 『소피저다와 그의 작품에 대해(So'fizoda va uning ijodi haqida)』, 『우즈베크 연극사를 위한 자료(O'zbek teatri tarixi uchun materiallar)』 등이 있다. 특히 그의 『우즈베크 연극사를 위한 자료』는 단순한 비평서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의 현대극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현대문학과 자디드 문학의 대표자와 작품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지크 소비에트 문학의 창시자인 샷릿딘 아이니이(Sadriiddin Ayniy)의 작품을 연구했으며, 타지크 소설 『더훈다(Doxunda)』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7년 미온 설리허브는 대숙청 시기에 체포되었으며, 1938년 10월 반혁명적 민족주의 조직인 국민연합(Milliy ittihad)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1939년 12월 17일 옥중에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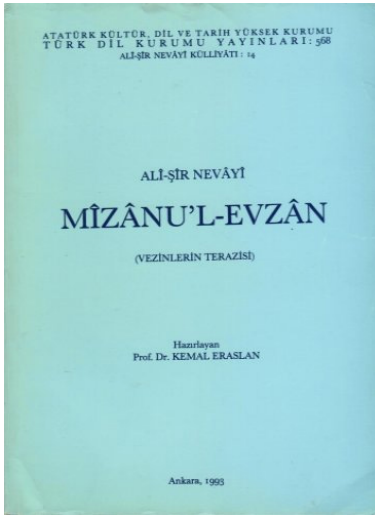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온 부즈루크 솔리호브
- 다국어 표기 Miyon Buzruk Solihov(우즈베크어), Миян Бузрук Салих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피트랏, 폴리바너브, 거지 얼림 유누서브, 압둘라 아블러니이, 카움 라마전, 쇼라술 준논, 울루그 투르수너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6Glp>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miyon-buzruk-solihov/>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Karimov Naim, *Miyon Buzruk Solihov, 1937-1938 yillardagi Katta qirg'inning fojiali oqibatlari*, Toshkent, 2015.

I B176 | 미자널 에브잔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Mizanü'l Evzan

「미자널 에브잔(Mizanü'l Evzan)」은 알리셰르 나보이이(Alisher Navoiy)가 누르 앓딘 압딘 알 라흐만 자미(Abdurrahim Cami)의 Arûz risâlesi(운율 체계)를 본따 지은 작품이다. 나보이이가 미자널 에브잔을 집필한 시기와 관련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고령이 된 나보이이가 이 책을 완성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나보이이는 미자널 에브잔 서문에서 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작품을 시작하며, 이어 티무르 왕조의 군주였던 휘세이인 이븐 만수르 이븐 바이카라(Hüseyin Baykara)를 찬양한다. 하지



「미자눌 에브잔 (Mizanü'l Evzan)」 표지
Source: <https://turkistanilibrary.com>

만, 나보이이는 휘세이인 이븐 만수르 이븐 바이카라가 작성한 시들이 높은 작품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었다고 설명하며,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작성된 단 하나의 작품도 없음을 지적한다.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시를 쓰고 싶은 이들이 참고할 만한 어떠한 작품도 없기에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 밝힌다.

나보이이는 자신의 시를 예로 들어 운율학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의미, 각 운율의 형식, 각 운율이 위치하는 특징 등을 풀이하며서, 당대에 민중들 사이에 유행했던 문학적 기교 및 형식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작품은 그 시대의 유행한 시의 형식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아루즈(Arûz, 운율학/운율체계)와 같이 복잡한 형식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

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자눌 에브잔
- 다국어 표기 Mizanü'l Evz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리 셰르 나버이이, 차가타이 투르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Eraslan, K., *Alî-şîr Nevâyî Mizânu'l Evzân*. Ankara: TDKYay, 1993.

I B177 | 미카이을 뭉시피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Mikayıl Mushfık

미카이을 뭉시피그(Mikayıl Müşfıq)는 1908년 6월 5일 바쿠의 학식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등교육을 러시아-아제르바이잔 학교에서 받았으며, 인문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1920년~1927년에 바쿠 사범학교를 다녔고, 이후 1927년~1931년에 바쿠 국립 대학교(Bakı Dövlət Universiteti) 아제르바이잔 어문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바쿠에 있는 학교들에서 교사로 일했다. 1934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작가연맹의 회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1930년에 소비에트 정치 체제와 소비에트 전 통음악 정책을 비판하고자 『노래하라, 타르(Oxu tar)』, 『부서진 사즈(Sındırılan saz)』란 작품을 저술했다. 그러자 소비에트 정치인들이 그를 기소했고, 그는 1937년에 체포됐다. 1년 후인 1938년 1월 6일 그는 나르긴(Nargin) 섬에서 총살당했다.



미카이일 뤼시피크 기념비

그는 1926년에 <청년 노동자(Gənc işçi)>라는 신문에 「오늘(Bu gün)」이라는 시를 게재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그는 1930년대 초반부터 『하루의 소리들(Günün səsləri)』, 『전투들(Vuruşmalar)』, 『목화(Pambıq)』, 『석유 시추자들 사이에서(Buruqlar arasında)』, 『시들(Şeirlər)』, 『양치기(Çoban)』, 『나의 친구(Mənim ostum)』, 『아침(Səhər)』, 『부서진 사즈(Sındırılan saz)』, 『자유찬가(Azadlıq dastanı)』, 『석유 시추꾼(Buruq adamı)』 등의 작품들을 출간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서정시인이다. 그의 시들은 지금도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카이일 뤼시픽, 미카일 뤼시피크
- 다국어 표기 Mikail Müşfik(튀르키예어), Михаил Мушфик(러시아어), Mikayıl Müşfiq(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Axundzadə Dilbər, *Müşfiqli günlər*, Bakı: “Xan” nəşriyyatı, 2017.
Cahangirova Nərmin, *Mikayıl Müşfiqin poemaları*, Filologiya üzrə fəlsəfə doktoru elmi dərəcəsi almaq üçün təqdim edilmiş dissertasiya, Bakı: 2014.
Ələkbərli Nazif, *Üç budaq*,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1999.

Hüseynoğlu Gülhüseyn, *Mikayıl Müşfiq*, Bakı: “İşıq” nəşriyyatı, 1999.
 Müşfiq Mikayıl,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4.
 Quliyeva Safurə, *Müşfiqin sənət aləmi*, Bakı: “Yazıç” nəşriyyatı, 1988.

I B178 | 미카이을 아자플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Mikayıl Azafılı

미카이을 아자플르(Mikayıl Azafılı)는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시인이자 아시옥이다. 그는 1924년에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토부즈(Tovuz rayonu)의 시골 마을인 아자플르(Azafılı kəndi)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그의 필명은 ‘열정’이라는 뜻의 ‘조쉬군(Coşğun)’이며, 이후에는 자신이 태어난 시골 마을의 이름을 빌어 ‘아자플르(Azafılı)’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미카이을 아자플르는 아시옥시 전통에 따라 작품을 창작했고, 고전적인 아시옥시 장르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대표작은 「아자플르의 첫행(Azafılı dübeyti)」, 「아자플르의 미적 진화(Azafılı gözəlləməsi)」, 「아자플르 예술(Azafılı sənəti)」, 「아자플르라는 세계(Azafılı dünyası)」, 「아자플르 개라일리(Azafılı gəraylısı)」, 「아자플르 찬가(Azafılı himni)」, 「미카이을(Mikayılı)」, 「아자플르의 산들(Azafılı dağları)」, 「아자플르의 배흐리(Azafılı bəhri)」, 「매자히르(Məzahiri)」, 「아자플리의 뭉햄매스(Azafılı müxəmməsi)」, 「샤흐의 궁전(Şah sarayı)」 등이다.

그는 소비에트 시대 정치 체제에 저항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시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1961년 절도 및 가택 내 흥기소지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감옥에서의 생활을 묘사한 시들은 독자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다음은 그가 쓴 시의 한 구절이다.

내 이름은 아자플르. 혀가 있어도 병어리요.
 태비르즈에 형제도 있고, 시브르에는 자식도 있소.

내가 산전수전 안 겪어봤겠소? 내가 그 고통을 모르겠소?
보시오, 백발이 그 증거요.

그가 부른 시와 노래들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금지곡이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초대받거나 방송이 나가는 것은 철저히 통제받았다.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의 시들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방송되기 시작했다. 이후 ‘작가(Yazıçı)’ 출판사는 1987년에 『늙은 독수리(Qoca qartal)』라는 그의 시집을 출판했다. 그는 1990년에 사망했으며, 도시 토부즈(Tovuz şəhəri) 거리에 그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그가 태어난 시골 마을 아자플르(Azafılı kəndi)에는 그의 묘교 앞에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카일 아자플르
- 다국어 표기 Mikail Azafılı(영어), Azafılı Mikayılı(튀르키예어), Михаил Азафлы(러시아어), Mikayıl Azafılı(아제르바이잔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9qpJ>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I c., Bakı, 2018, s. 873~878

Ⅰ B179 Ⅰ 미프타헤트딘 아크물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iftahetdin Aknulla

미프타헤트딘 아크물라(Miftahetdin Aknulla)는 19세기에 활동한 바시키르의 민족 시인이다. 그의 본명은 미프타헤트딘 카말레트디노비치 카말레트디노프(Мифтахетдин Камалетдинович Камалетдинов)이다. 필명인 아크물라는 ‘빛나고 의로운 선생’이란 뜻이다. 그는 1831년 12월 14일 오렌부르크현의 벨레베예스키 마을에서 태어났고, 1895년 10월



바시코르토스탄의 모습

8일 그곳(지금의 트로이츠키 마을)에서 사망했다. 아크물라는 시인이면서 계몽가이자 사상가였다. 그는 19세기 바시키르 시문학의 대표자로 바시키르 민족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카자흐, 타타르문학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의 작품은 투르크멘, 카라칼파크, 그리고 다른 투르크어 민족들에게서 널리 퍼졌다.

아크물라는 작품 대부분을 바시키르어와 카자흐어로 썼다. 아크물라의 작품은 동시대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러시아 사회의 생활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계몽주의 사상을 전파했으며 시를 민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도구로 보았다. 그래서 그의 문학에서는 동시대에 문학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아랍과 페르시아적인 요소들이 비교적 적게 사용된다.

낡은 봉건적 사고와 종교적 광신주의, 중세적 교조주의에 반대하고, 바시키르 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투르크 민족 박해에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아크물라의 사상과 철학이 시작된다. 아크물라는 교육과 지식, 무식의 근절이 현실의 모순과 퇴행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보았다. 그의 시 세계는 투카이(Г. Тукай), 가푸리(М.Гафури), 바비츠(Ш. Бабич), 울티(Д.Юлтый) 등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유파를 만들어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프타헤트딘 악물라
- 다국어 표기 مفتاح الدين أكميلا (아랍어), Акмулла (러시아어), Ақмолла (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바시키르어, 카자흐어, 바시키르공화국(바시코르토스탄),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JOOn>
- 참고문헌(오프라인) Ахметов Р. А. Акмулла // Татар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6 т. Т.1:А-В. – Казань: Институт Татарск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АН РТ, 2002, С.86

I B180 | 미흐랍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구조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hrap

미흐랍(Mihrap)은 이슬람교에서 모스크 및 그 외 기도 장소에서 키블라와 이맘이 서 있는 장소를 보여주는 곳을 의미한다. 미흐랍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궁전의 하렘 또는 통치자의 왕좌가 있는 부분’, ‘가장 영예로운 부분’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

미흐랍은 코란에서는 네 구절에서 언급된다. 두 부분에서(3:37, 39, 19:11) 즈가리야가 예배소에 있는 특별한 공간의 출입구와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38:21)에서는 다윗이 예배소의 특별한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논쟁(분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간에 온 것에 대해 설명할 때 ‘미흐랍’을 언급했다. 다른 곳에서는 성전의 중요한 장소를 언급할 때 사용했다. 초기에 미흐랍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의 제단을 의미하기 위하여 사용했으나, 모스크에서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7세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3대 칼리프 우스만 이븐 아판(Uthman ibn Affan, ?~656년) 시대에 기도를 바치는 방향, 즉 메카의 방향을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벽에 표시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이 표시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간단한 판이나 색으로 선을 긋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오래된 미흐랍의 예는 바위의 돔(Qubbat aş-Şakhra, 688년~692년)의 바위 밑에 있는 기도소에 있는 깊이 얇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반원형 벽감 형태의 미흐랍 중 가장 오래된 예 중에는



디아르바크르 대 모스크 미흐랍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 모스크(Umayyad Mosque, 705년~715년)의 미흐랍이 있다.

미흐랍의 종교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없던 것은 아니나 선지자 이후의 관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미흐랍에 이맘이 서 있는 시간이나, 미흐랍의 크기와 관련된 각 학파와 종단의 논쟁은 있으나 이는 미흐랍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미흐랍은 모스크 이외의 예배 장소나 마드라사, 영묘 등에도 설치된 경우가 있으며, 대형 모스크에서는 회중에게 키블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개의 미흐랍이 설치되기도 한다. 미흐랍의 재료와 형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었고, 각 문화권의 건축 양식에 맞춰 발전했다. 다만 동물 조각 따위는 없다.

9세기 이란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직사각형 형태에 스투코를 칠한 미흐랍이, 10세기에는 이중의 직사각형 벽감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 두 직사각형은 깊이 얇은 정도에 세미 돔 형태의 아치로 마무리하고 식물 문양으로 장식했다. 벽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 경우 벽돌을 다양한 형태로 쌓아 기하학 문양이나, 쿠픽 서체의 글씨를 만들어내 장식하기도 한다. 때로는 내부에 무카르나스(Muqarnas) 형의 아치로 장식하기도 한다. 셀주크 시대에는 벽돌을 이용한 장식과 무카르나스 형 아치로 된 미흐랍이 유행하기도 했다.

티무르 시대에는 크기가 더 커지고 넓어졌으며, 벽감의 깊이가 깊어졌고, 화려한 장식의 다각형 형태로 제작된 미흐랍이 나타났다. 사파비 시대에는 타일 모자이크 기술을 이용한 미흐랍이 유행했다. 13세기~15세기 아나톨리아에서는 직사각형에 아치가 없거나 첨두 아치, 무카르나스

가 달린 아치가 있는 벽감 등이 유행했다. 이전에는 석재로 된 미흐랍이 유행했다면 13세기 이후 아나톨리아에서도 타일 모자이크 기술을 적용한 미흐랍이 유행한 것이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대리석을 기본으로 한 무카르나스 장식의 미흐랍이 많이 제작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메흐랍

● 다국어 표기 Михраб(카자흐어), Mehrab(아제르바이잔어), Mehrob(우즈베크어), Mihrab(투르크멘어), Mihrap(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모스크, 미너렛, 민바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Tuğba Erzinçan, “Mihrap”,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0, Istanbul: TDV, 2005, pp.30~37.
Fehervari G., “MIHRAB”, *Encyclopaedia of Islam* VOL. VII (ed; C.E. Bosworth, E. Van Donzel W.P. Heinrichs), Leiden; Brill, 2002, pp.7~15.

I B181 | 미흐리 뮈슈픽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hri Müşfik

미흐리 뮈슈픽(Mihri Müşfik)은 1886년 2월 26일 이스탄불 카드콰이 라심 파샤 저택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 라심 파샤(Rasim Paşa)는 의사였다. 라심 파샤는 술탄 압뮐메지드(Abdülmejid, 재위: 1839년~1861년)의 어머니인 베즈-이 알렘 술탄(Bezm-i Alem Sultan, 1807년~1854년)과 남매 관계였다. 즉, 미흐리에게 술탄 압뮐메지드는 고종 사촌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정교사를 초빙해 딸들에게 문학, 음악, 그리고 미술을 가르쳤다. 후에 미흐리는 미술만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미흐리는 자신이 그린 술탄 압뮐메지드의 초상화를 그에게 선물했고, 그 덕에 이탈리아인 궁중 화가였던 파우스토 조나로(Fausto Zonaro, 1854년~1929년)를 사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 화가였던 스승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여성을 위한 미술 교육 기관이 전무했기 때문에 미흐리는 유럽으로 가

길 갈망했다. 하지만 유럽행을 허가받지 못할 것 같자, 친구인 프랑스 대사 부인 마담 바레르(Madam Barrer)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국적의 위조 여권으로 이탈리아로 몰래 간다. 로마에서 한동안 머물다 파리로 떠나게 된다. 파리에서 미흐리는 두 채의 집을 사서 한 채는 세를 주었는데, 세를 살던 남자 뭉슈픽 셀라미 베이(Müşfik Selami Bey, 1890년~1942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파리에서 그녀는 다양한 미술 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유행이었던 입체파와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상화를 그렸다.

파리에서 보헤미안적 삶을 구가하던 미흐리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스탄불의 여교사 양성 학교인 다뤘무알리마트(Dârülmua'llimât: 여교사들의 기관)의 미술 교사로 초빙되어, 이스탄불로 귀향한다. 오스만 제국 최고의 여성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뤘무알리마트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에 그녀는 여자 미술 학교인 이나스 사나이이 네피세 멕테비(İnas Sanayi-i Nefise Mektebi: 여자 미술 학교)를 설립에 참여한다. 이 여자 미술 학교에서도 교사직을 수행했으며 훗날 교장이 되기도 했다. 미흐리는 학생들에게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 모델을 보고 그리기, 단체 전시회 개최 등을 장려하며 많은 여성 화가를 키워냈다.

이스탄불에 머무는 동안 당대의 화가와 문인들과 어울리며, 근대 문학가들의 모임이었던 '에데비야트 제디데지레르(Edebiyat-ı Cedideciler: 새로운 문학인들)'의 시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의 친구였던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 1867년~1915년)이 사망하자 그의 데스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는 튀르키예 최초의 데스마스크 제작이었다.

그녀는 1919년 갑작스럽게 이탈리아로 떠나, 일 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 여자 미술 학교에서 교사직을 계속한다.

1922년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 같은 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년~1938년)를 그려 그에게 선물했는데, 이것은 공화국 선포 후 튀르키예 화가가 그린 최초의 아타튀르크 초상화였다.

1922년 말 다시 이탈리아로 건너가 초상화 작업을 지속했다. 당시 바티칸의 교황 초상화를 그렸으며 교회 프레스코화 복원 작업에 참여했다. 바티칸 교황이 이교도 여성 화가에게 포즈를 취한 것은 최초였다. 그러나 현재 이 초상화의 소재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그녀는 파리로 이주했다가 미국으로 떠났다. 언제 미국으로 간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 회화 객원 교사나 미술 가정 교사 등으로 일하기도 했던 그녀는 1928년 뉴욕 조지

드 마지로프 미술관(George de Maziroff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뉴욕에서 생활고와 다른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말년을 보내던 그녀는 1954년 세상을 떠났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작품의 서명은 미흐리 뮈슈픽으로 했고, 결혼 전과 이혼 후에는 미흐리 라심으로 서명했다.

미흐리가 튀르키예에서 활동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던 화가나 미술 학교(Sanayi-i Nefise Mektebi)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인상파 작가들이었으나, 미흐리의 경우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인상파 작품을 남기지 않았다. 아카데미즘 미술을 추구했으며 보색 사용에 능숙하고, 자연적이며 부드러운 톤을 즐겨 사용한 그녀는 주로 정물화와 초상화를 그렸다. 특히, 초상화의 경우 여성 유명 인사나 여성의 초상화를 다양하게 남겼는데, 미흐리 뮈슈픽의 작품에는 현대적인 의상을 입은 여성, 히잡을 쓴 여성, 기도하는 여성의 모습 등 당시 여성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숙녀의 발자취’라는 부제를 단 『미흐리 뮈슈픽 평전』 표지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미흐리 뮈슈픽크

● 다국어 표기 Mihri Müşfi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사나이어 네피세 멕테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oA17>

미흐리 뮈슈픽_아타튀르크 초상화

<https://www.tarihisanat.com/wp-content/uploads/2018/12/mihri-musfik-aturk-min-1068x1558.jpg>

미흐리 뮈슈픽_나일레 하늬 초상화

<http://www.leblebitozu.com/wp-content/uploads/2017/11/Mihri-Musfik-Naile-Hanim-1908-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l Ali Asker, “MİHRİ MÜŞFİK AND HALE ASAF; BOHEMIA ART LIVES WHOSE WORTHS ARE UNPAID”, *Route Educational and Social Science Journal Volume 2(2)*, April 2015, pp.278~388.

I B182 | 민바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구조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Minbar



민바르 측면

민바르(Minbar)는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nebr’에 어원을 두었으며, ‘단계 별로 올라가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모스크에서 쿠투바(Khutbah: 명절이나 금요 기도 시 이맘이 기도를 읽거나 설교하는 행사)를 할 때 신자들이 이맘을 더 잘 보고 기도와 설교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계단이 있는 건축 요소이다. 민바르는 미흐랍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민바르는 일반적으로 계단, 입구와 계단을 이어주는 문, 정상의 돔 또는 캐노피로 구성된다. 재료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 목재, 석재, 대리석, 타일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전설에 의하면 처음으로 민바르를 사용한 아브라함이다. 구약에 의하면 에스라가 모세의 토라를 샤리아 서를 설교단 위에서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원래 무함마드는 야자 대추나무 기둥에 기대어 말했으나, 628년에 위성류의 나무로 계단 두 개와 앉을 곳으로 구성된 민바르를 만들어 이곳에서 설교했다고 전해진다. 이 민바르의 높이는 약 1m였다.

카라한 칸국과 가즈나 조의 민바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며, 현재까지 보존된 가장 오래된 민바르는 1053년 대 셀주크 조에 제작된 민바르이다. 아나톨리아 셀주크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민바르는 코니아 알라엠티드 모스크의 민바르로 1155년에 목재로 만들었다. 셀주크

시대의 민바르는 일반적으로 목재로 제작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부르사 대 모스크(Bursa Ulu camii, 1399년)의 민바르는 셀주크 양식에서 오스만 양식으로 변화되는 지점을 볼 수 있다. 오스만 제국에서 모스크와 민바르가 같이 제작되는 경우 대체로 대리석이나 석재로 만들어졌다. 18세기 이후에는 서구의 영향으로 민바르에도 바로크 스타일의 장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바르는 이슬람 건축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건축 요소 중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민베르, 민베르
- 다국어 표기 minber(튀르키예어), minbar(우즈베크어), Minbər(아제르바이잔어), Мінбе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모스크, 미너렛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mAos>
- 참고문헌(오프라인) Bozkurt Nebi, “Minber”, *TDV İslâm Asiklopeidisi*, cilt 30, Istanbul: TDV, pp.101~103.
Kurabil Zeynep Hatice, “Minber”, *TDV İslâm Asiklopeidisi*, cilt 30, Istanbul: TDV, pp.103~106.
Petersen Andrew, *Dictionary of Islamic Architecture*, London : Routledge, 1999.

I B183 | 민속놀이(아제르바이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Folk games

아제르바이잔의 민속놀이(Xalq oyunları)는 친절, 성실, 용기를 가르치고 진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가르쳤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 민속놀이는 ‘숨바꼭질(gizlənqaç, gizlənpaç)’, ‘다섯 돌(qəcəmədaş, beşdaş)’, ‘엘림갈드(əlimqaldı, 또는 가츠티-고브두 qaçdı-qovdu)’, ‘아시그-아시으그(aşıq-aşığ)’, ‘배뇌브새(제비, bənövşə)’, ‘아가즈 아가즈(나무-나무, ağac-ağac)’, ‘디래되이매(dirədöymə)’, ‘가이으샤기르매(qayışagirmə)’, ‘중간 들어가기(ortayagirmə)’, ‘일곱 나무(yeddi ağac)’, ‘카펫에 들어가기(palazagirmə)’ 등이다.

‘숨바꼭질(gizlənqaç, gizlənpaç)’ 놀이할 때 한 아이가 정해진 곳에서 손으로 눈을 가려 술래가 된다. 술래는 “사과가 노랗게 되었다, 제 눈이 까맣게 되었다’(Alma saraldı, gözüm qaraldı)”라고 한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가 숨는다. 아이들이 숨으면 술래가 눈을 뜨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놀이이다. 술래가 숨은 아이를 찾아낸 순간 놀이가 시작된 장소에 먼저 도착한 아이가 이긴다. 진 아이가 눈을 감고, 다시 놀이가 시작된다. 이 놀이는 아이들에게 민첩성, 주의력, 순종 및 경계심을 심어 준다.

‘배뇌브새(제비꽃, bənövşə)’ 이 놀이는 아이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서로 10m~15m 거리에 선다. 각 편끼리 아이들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한다. “배뇌브새, 이쪽에서 그쪽으로 누가 건너갈까?” 상대방은 이렇게 말을 한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름도 이쁘고, 몸도 이쁜 **가 건너오기를..” 이름이 불린 아이는 상대방에 있는 손과 손을 맞잡은 아이들을 사이를 건너가서 한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데려와야 한다. 만약 돌파를 못 하면 그 아이는 상대방에 남아야 한다. 결국 사람이 부족한 팀은 패자가 된다. 이 게임은 아이들의 자신감, 체력 및 열정을 키운다.

‘디래되이매’(dirədöymə)’와 ‘가이오샤기르매(qayışagirmə)’ 이 놀이는 각 3명~5명으로 구성된 두 편으로 나뉜 아이들로 하는 놀이이다. 이들 중 한 명은 땅에 그려진 큰 원에서 있고 발밑에 벨트를 둔다. 상대방 아이들은 원 밖에 서서 벨트로 안에 있는 사람을 치며 발밑의 벨트를 원 밖으로 빼내면 승리한다. 원안에 있는 아이가 상대방을 원 안으로 끌어들이면 이쪽의 승리이다. 이 민속놀이를 통해 용기와 인내, 민첩성, 고통을 견디는 힘을 기른다.

- 다국어 표기 Folk games(영어), halk oyunları(튀르키예어), народные игры(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rqqapisi.az/index.php/humanitar/m-d-niyy-t/8365-khalg-oyun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Qasimov, Ələs. Azərbaycan Xalq Oyunları, Bakı, 2006.

I B184 | 민요(아제르바이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민요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Azərbaycan xalq mahnıları

아제르바이잔 민요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음악 세계를 반영한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음악적이며 시적 창조성이 표현되어 있는 장르의 하나인 민요들에는 순수하고 높은 영성과 내면 세계,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 민요는 민족의 무의식과 기억이 보존된 음악 장르로써 오늘날에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민요의 보존과 전승, 지속적인 연구는 민요 연주자와 작곡가는 물론 연구자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이다.

아제르바이잔 민요는 노동요(Əmək mahnıları), 의식요(儀式謠, Mərasim mahnıları), 생활요(Məişət mahnıları), 역사요(Tarixi mahnılar)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르는 노동요(勞動謠)이다.

이 노동요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가축 사육에 관한 노래들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를 '사야츠 노래(sayaçı mahnıları)'라고 한다. 농사와 관련돼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는 홀라바르 노동요(holavar əmək mahnıları)이다. 대표적인 노동요는 「양치기의 소리(Çoban avazı)」, 「나의 투투 할머니(Tutu nənəm)」, 「우유 짜기 노래(Sağım mahnısı)」, 「곡식을 밟지 말고 돌아서 와라(Həsiri basma dolan gəl)」, 「아, 고단하겠다, 고단하겠다, 고단하겠어(A yordu, yordu, yordu)」, 「아, 롤로(Ay lolo)」 등이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고대 민요 중 하나는 의식요(儀式謠)이다. 민족의 명절, 결혼 및 장례식 등에서 전통에 따라 의식요들이 사용됐다. 이 노래들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아제르바이잔인들 사이에서 불린다. 이 노래들은 '세시 풍속(mövsüm)'과 '전통(ənənəvi)'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부터 세시풍속에 따라 부르는 노래들은 태양, 불, 비 등에 바쳐진다. 예를 들어 '태양이여 떠라, 떠라, 연한 밤색 말을 타고 나타나라(Günəş, çıx, çıx, Kəhər atı min çıx)' 또는 '심을 때도 없고 수확할 때도 없다가 먹을 때만 나타나는 형제(Əkəndə yox, biçəndə yox, yeyəndə ortağ qardaş)' 등이 있다. 생활요(生活謠)는 내용, 형식, 표현하는 감정에 따라 아동요,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인 풍자요 그리고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서정요로 나뉜다. 아동과 관계된 민요, 특히

엄마가 자녀에게 불러주는 요람가(搖籃歌)는 가장 오래된 생활요의 유형인데, 요람가에는 자장가, 토닥임 노래(oxşama) 등이 있다.

민요 중에는 역사와 관계가 있는 영웅가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원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노래들은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민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적 영웅들에게 바쳐졌다.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인 쿠프르오글루(Köroğlu), 쿠프르오글루의 부인인 니가르(Nigar)와 친구들, 쿠프르오글루의 충실한 말인 그라트(Qırat)에 대한 노래 등은 역사요(歷史謠)의 한 예이다.

● 다국어 표기 Halk şarkıları(튀르키예어), народные песни(러시아어), folk songs(영어), Azərbaycan xalq mahnıları(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Xalq mahnıları*. Bakı, 2014, səh.53.

I B185 | 민족의 대이동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대이동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Migration period

민족의 대이동은 4세기~7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민족 이동의 총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독일 용어를 번역해서 'Migration period'라고 한다. 이 민족의 대이동은 375년 동쪽에서 온 훈족이 유럽의 로마 제국 주변을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이동이 끝난 시기는 568년에 랑고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정복한 때이다.

하지만 민족의 대이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훈족과 중국 한나라의 전쟁 때문이다. 이 전쟁은 B.C. 201년~A.D. 181년에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훈족은 멸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에서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서쪽으로 이동한 민족은 북흉노이고 남흉노와 선비, 오환은 한 제국 붕괴 이후 중국 북방으로 이주해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다. 한인 왕조인 서진이

남쪽으로 내려간 316년부터 수나라가 통일을 이룬 581년까지 3세기 동안 북방민족은 북중국으로 이동해서 거주했는데, 3세기 후반에는 200만 명 정도였다가 4세기 초에는 600만~7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방 유목민의 요소와 중국 농경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기간에 북위 태무제가 화북을 통일한 439년을 분기로 130년 동안 흉노, 선비, 갈, 강, 저와 같은 오호가 세운 16개의 왕조가 활거했다(5호 16국 시대).

훈족의 이동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후변화도 유럽에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가게 한 원인이 되었다. 535년~536년에 기후 최한랭기의 말기에 이주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유럽 북부에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후의 영향으로 더 살기 좋은 땅, 온화한 기후 지역으로 몰려 든 것이다. 특히 서로

마 제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알프스 북쪽에 있는 많은 마을이 버려졌고 숲이 무성해졌는데, 이 시기의 꽃가루 분석 결과 농업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음이 것이 밝혀졌다. 당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전쟁과 함께 흉년 및 전염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4세기에는 농지의 40%가 버려졌다.

훈족에 관한 대표적인 러시아 연구자는 구밀료프인데, 그는 대초원 삼부작(Степная Трилогия)이라고 부르는 저작물을 남겼다. 이 대작은 1부는 흉노 사람들의 역사(История народа Хунну, Хунну в Китае), 2부는 고대 투르크사(Древние тюрки), 3부는 잃어버린 왕국을 찾아서(Поиски вымышленного царства)로 구성되었다. 이 대작을 통해 훈족의 이동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Хунну в Китае』 표지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민족대이동
- 다국어 표기 Великое переселение народов(러시아어), Migration period(영어)
- 연관 검색어 훈족, 흉노, 구밀료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Л. Н. Гумилёв, История народа Хунну, 1960.

Л. Н. Гумилёв, Хунну в Китае., 1974.

Barford, Paul M., 《The Early Slavs: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edieval Eastern Europe》,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I B186 | 민중 이슬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교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Halk Islam

유일신 알라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이슬람 교리 상에서 볼 때, 민중 이슬람이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없다. 정통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코란에 계시된 성법 샤리아에 따라야 하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관행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느 계층,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된 획일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슬람의 정통 교리에 반하는 토착화된 혹은 대중화된 관습과 교설이 이슬람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 이전부터 존재하던 선형 종교 및 토착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같은 토착 관행들은 민중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튀르크 민족의 이슬람도 예외가 아니다. 튀르크 민족의 민중 이슬람은 정통 이슬람과 비정통 이슬람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는데 그 대표적 특징은 성자 숭배(evliya kültü: saint cult)로써 이슬람 수피주의의 영향으로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튀르크 민족사에서 이슬람 신비주의는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발전했는데, 10세기경 아흐마드 야사비를 시작으로 야세비, 하이다리, 깔란다리 종단과 같은 비정통 이슬람 종단을 통해 발전해 오다가 특히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쿠브라위야, 낙쉬반드, 카디리야 종단과 같은 정통 이슬람 종단을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

이 종단들은 13세기 몽골의 침공과 더불어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이 위치하는 아나톨리아로 유입되었다. 13세기부터 수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단을 중심으로 수피주의를 대중들 사이의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수피 종단으로 토착 신앙의 요소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수피주의의 대중화 및 제 교리의 통합 즉 싱크레티즘(syncretism)이 이루어졌으



Phalavan Mahmud 영묘를 참배하는 이슬람 신자들 (Khiva)

며, 이와 더불어 수피 종단에는 성자숭배라는 새로운 관행이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금욕과 검소, 그리고 경건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던 수피즘이 사회운동으로 발전되고, 종단으로 조직화되면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된 수피 종단의 셰이크(sheikh)들은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셰이크들은 세속적 권력자들처럼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수피 종단들은 자신들의 계통적 원류를 예언자 무함마드와 결부시키려 했으며, 자신들의 셰이크를 미화시켜 성인화시킴으로써 종단의 위치를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각 종단의 셰이크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성인으로 간주되었고, 성인으로부터 축복과 성덕을 부여받으려는 대중적 소망이 성자숭배의 관행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성자들의 성묘를 참배하는 성묘 참배(Tomb's Visitation)도 민중 이슬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크 이슬람
- 다국어 표기 Popular Islam(영어), Everyday Islam(영어)
- 연관 검색어 아흐마드 야사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zrr.kr/leEv>
- 참고문헌(오프라인) 신앙섭, 「이슬람의 벡타쉬 종단 연구」, 『종교연구』, 1996.
우덕찬, 「터키 알레비종파에 나타난 샤페르니즘 모티프」. 『중동문제연구』 8(1), 2009.
우덕찬, 「터키 알레비종파에 나타난 싱크레티즘」. 『중동문제연구』 9(2), 2010.
Ocak, Ahmet Yaşar, *Alevî ve Bektaşî İnançlarının İslam Öncesi Temelleri*,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5.

I B187 | 밀레트

- 시기 A.D. 15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millet

아랍어의 *milla*에서 유래한 밀레트(millet)는 ①종교, 종파 ②종교 공동체 ③민족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오스만 제국 시대에 쓰였는데, 가장 흔한 용법으로는 종교 공동체, 그중에서도 공식적인 지도자에 의해 대표되는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오스만 내국인 소수 종교집단을 가리키는 용례도 17세기 이래로 있고, 그 외에도 유럽 각국을 밀레트라하는 말로 지칭하기도 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비무슬림들을 언급하는 공문서에서 대부분의 비무슬림들은 3개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밀레트(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인, 유대인)로 조직되어 있었음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19세기 밀레트들은 위계 질서를 갖춘 종교적 실체로, 명확히 정치적인 기능을 띠고 있었다. 각각의 밀레트는 술탄이 임명한 밀레트 대표 성직자에 의해 대표되었고 그들은 이스탄불에 거주했다. 이들 밀레트 대표들은 술탄에게 충성을 유지하는 한 자기 종교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밀레트의 대표들은 카디와 총독들 휘하의 관료제를 동원해 자기 공동체 내의 불평분자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다. 한동안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밀레트 제도는 15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이후 계속 오스만 제국 지배의 일환으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체제가

완성된 것은 오히려 19세기에 가까이 가서였다고 한다.

밀레트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각각의 밀레트가 균질한 내부 구조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각 밀레트의 내부 구성과 조직 원리는 서로 매우 달랐다. 그리스 정교회의 경우는 오스만 제국의 넓은 강역 통일과 함께 전 제국 범위에서 비잔티움 시대 이상의 중앙집권적 위계질서를 갖게 되었던 데 비해, 아르메니아인 교회의 내부 위계는 훨씬 불분명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경우는 원래부터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응집력이 거의 없어서 비록 오스만 제국이 그들을 하나의 밀레트로 일찍부터 인정했어도 1835년 오스만 제국이 소수 종교 공동체들을 다루는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최고 랍비(하함바시으 hahambaşı)를 지명하라고 압력을 넣기 전에는 자기들 스스로 밀레트의 지위를 얻으려 한 적이 없다. 가톨릭 선교를 통해 기독교 종파들 안에 분란이 일게 되자 18세기 말이 되면 오스만 당국자들이 각 종파 내부의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가톨릭과 정통파 사이의 분쟁이 기독교 밀레트들을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 밀레트 가운데서 그리스 정교회는 비록 다른 소수 종교 공동체보다는 가장 권위 있는 위치를 누려왔지만 1821년 이후의 그리스 독립 전쟁 때문에 그 특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1830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한 가톨릭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가톨릭 밀레트가 따로 생기게 되었다. 나중에 이 가톨릭 밀레트 안에는 아르메니아인 가톨릭만 남게 되었으니, 이는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들이 모두 독자적인 밀레트로 인정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도 선교사들의 활동에 힘입어 밀레트로 인정을 받았다(1850년). 오스만 당국은 결국 12개의 서로 다른 교회들을 밀레트로 인정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탄지마트 개혁 시기에 오스만 정부는 1856년의 개혁 칙령의 방침에 따라 각 밀레트에게 내부 거버넌스를 개혁하도록 압력을 넣었는데, 이에 성직자들은 반대했고 속인 엘리트들은 성직자들로부터 정치적 권위를 넘겨받기 위해 찬동했다. 1863년 아르메니아인들이 최초로 자기 밀레트 내부의 법률을 지배하는 헌법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속인과 성직자들의 선출된 대표들이 아르메니아인 밀레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들보다는 덜 민주적이었어도 그리스 정교와 유대인 밀레트도 비슷한 개혁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종교 공동체 관련 개혁들로 말미암아 종교와 국적의 문제가 마찰을 빚게 된 경우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밀렛
- 다국어 표기 Mille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탄지마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Millet,”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p.383~384.
M. O. H. Ursinus, “Millet,” Encyclopaedia of Islam (Brill) 2nd edition, Vol. 7. 1993, pp.61~64.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이다.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달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슬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II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3-7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37 05030
ISBN 979-11-985841-3-7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